

명수대 본당 40년사

명수대 본당 40년사 편찬위원회 편

천주교 명수대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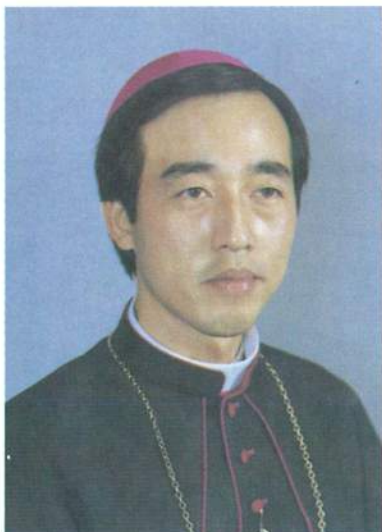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



김옥균(바오로) 주교

강우일(베드로) 주교



최창무(안드레아) 주교





최익철(베네딕도) 주임 신부

오세만(바오로) 보좌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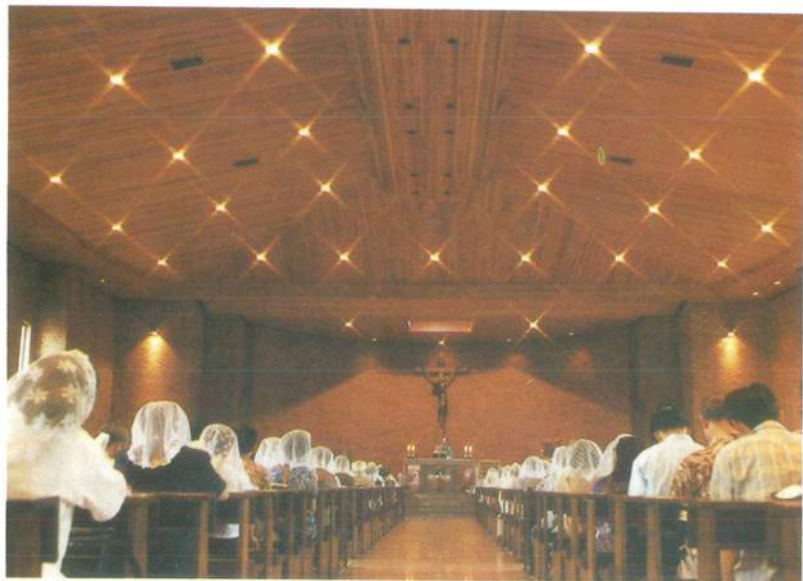
강영순(스텔라) 수녀

김선희(바울리나) 수녀



조영숙(안나 마리) 수녀





명수대 본당 주일 미사 광경





1994년도 시·목 위원 일동

역대 본당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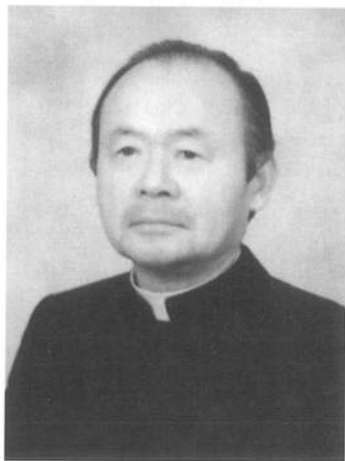


초대 이경재(알렉산델)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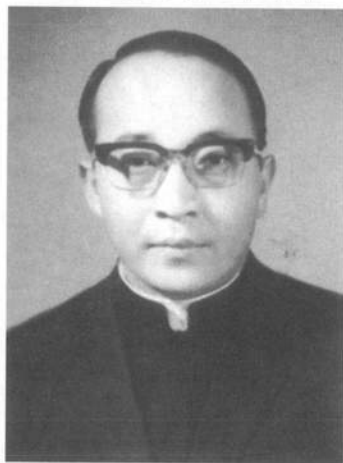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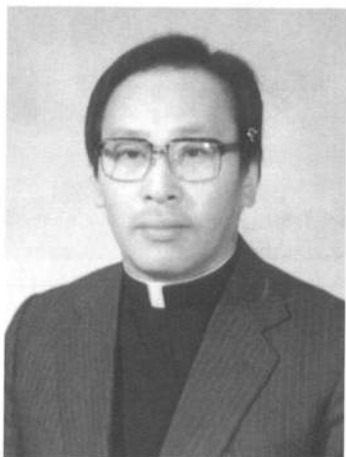
2대 조인환(베드로) 신부

3대 유명도(디오니시오)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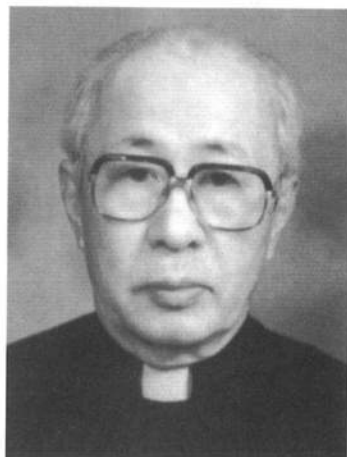


4대 김옥균(바오로)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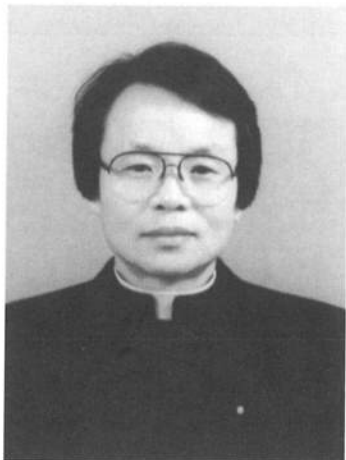


5대 박병운(토마스) 신부



6대 나상조(아우구스티노) 신부

7대 이종환(미카엘) 신부



8대 정광웅(요셉) 신부



역대 보좌 신부

초대 김수창(야고보) 신부



2대 임태경(루가) 신부



3대 손영일(바르나바)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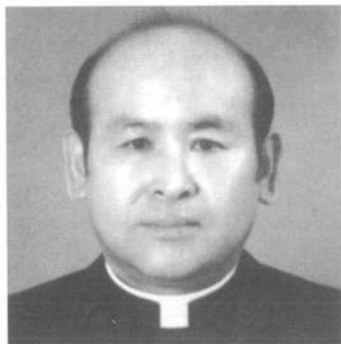
4대 김형식(베드로) 신부



5대 장덕필(니콜라오) 신부



임시 이종호(클레멘스) 신부



8대 박용일(타대오)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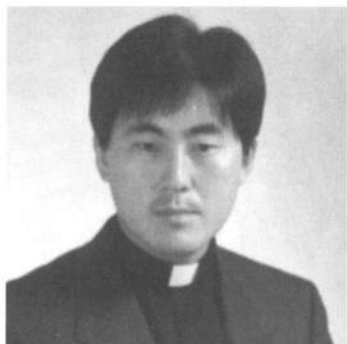
9대 최준웅(바르나바)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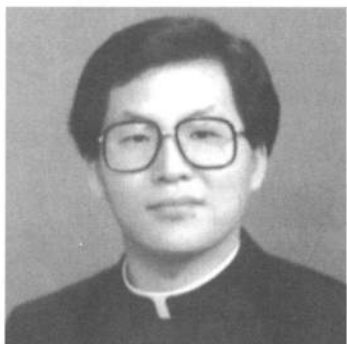
10대 봉재종(마르코) 신부



11대 윤재한(보니파시오) 신부



12대 박종성(그레고리오) 신부



역대 분원장 수녀



초대 강성숙(로올라) 수녀



2대 김금자(릿다) 수녀

3대 신현숙(베아트리스) 수녀



4대 이효자(엘리사) 수녀





5대 백계영(벨라도) 수녀



6대 박기순(멜세스) 수녀

7대 장명희(베아따) 수녀



8대 김경희(세바스티안) 수녀



역대 유치원 교사 및 원장 수녀



초대 교사 김경숙
(로사) 수녀



2대 교사 김영옥
(유릿다) 수녀



5대 원장 이순자
(라우렌시아) 수녀

6대 원장 박충원
(라우데스) 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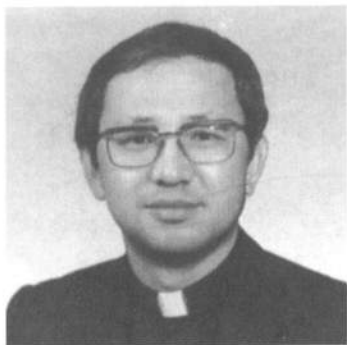


3대 교사
최송자(요한)
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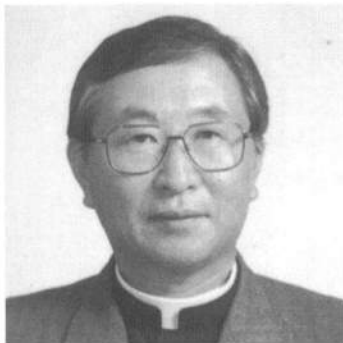


본당 출신 신부 · 수사

주상배(안드레아) 신부



양홍(에우세비오)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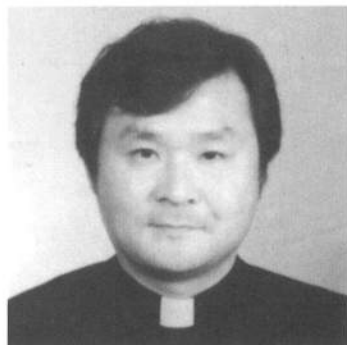
나원균(바오로) 신부



민병덕(비오) 신부



임승철(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이효언(펠릭스) 신부



장금선(예로니모)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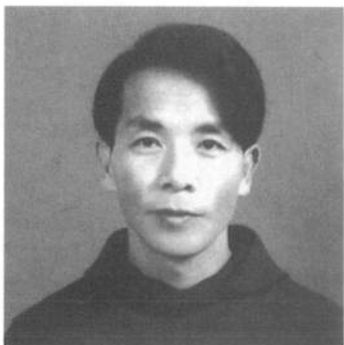
김현덕(사도 요한) 신부



이은형(디모테오) 신부



김영길(맛세오) 수사



윤주현(베네딕도) 수사



본당 출신 수녀

고도임(젬마) 수녀



김숙현(디오니시아) 수녀



김인옥(안젤라) 수녀



김혜순(라우렌시오) 수녀



박동순(엘리사벳) 수녀



양영자(헬레나) 수녀



양희진(아숨다) 수녀



윤민자(루도비카) 수녀



이순일(골롬바) 수녀



이인숙(마리 루이스) 수녀



이혜자(막달레나) 수녀



장길선(마리아) 수녀



장영선(힐데가르트) 수녀



장혜선(히야친타) 수녀



채수경(루시아) 수녀



조용주(엠마누엘) 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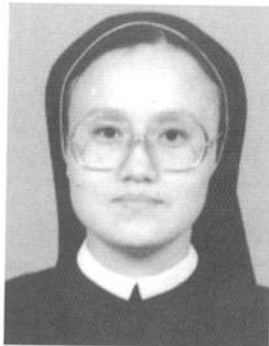
조정림(마리아 요셉) 수녀



최길자(안젤라) 수녀



최미화(에밀리아) 수녀



한경순(마리지따) 수녀



역대 총회장

초대 조영태(바실리오)



2대 홍숙(마르코)



3대 왕세영(프란치스코)



4대 한상준(미카엘)



5대 신태민(토마스)



6대 윤경중(요셉)



7· 10대 장대훈(루가)



8대 조규동(가브리엘)



9대 문중섭(디모테오)



11대 이승균(토마스)



12대 박기순(베드로)



13대 김춘호(요셉)



현 사목회 임원



총회장 이승균(토마스)

부회장 이용욱(바실리오)



부회장 방달호(요셉)



총무 문정식(요한)



부총무 강연수(요셉)



청소년분과장 최재교(스테파노)



기획분과장 양재인(베드로)



재정분과장 김종철(안토니오)



전례분과장 김용식(베네딕도)



교육분과장 이정필(스테파노)



사회복지분과장 박인수(요한)



시설분과장 이광우(토마스)



노인분과장 공보찬(베드로)



선교분과장 이정열(미카엘)



구역분과장 조영애(안젤라)



□ 간 행사 □

하느님의 기묘한 안배에 감사드리며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니, 금년에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된 명수대(明水臺, 黑石洞) 본당은 무려 네 번이나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길고 긴 세월 동안 희노애락이 얽혀서 자라왔다고 생각할 때 실로 커다란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본당을 지금까지 그토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우선 감사드리며, 그 기묘한 안배에 다함없는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이 본당의 역사를 이끌어 온 주역들인 교구장님을 비롯하여 교구의 책임자들, 역대 신부님과 수녀님들, 알게 모르게, 또 크거나 작게 봉사와 노고,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 그리고 직·간접으로 본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은인들에게도 끝없는 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아낌없는 노고와 희생이 따르는 헌신이 없었던 들 오늘처럼 명수대 본당이 빛을 볼 수도 없었고, 번영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명수대 본당으로서는 하느님은 물론 본당 설립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사의의 뜻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명수대 본당 40년사》를 발간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더욱 더 많이 드러내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더욱 활발하게 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헌신할 모든 분들에게 미리 감사드리기 위한 것이 그 둘째 이유입니다. 또 셋째 이유는 본당사의 편찬이 교구사,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사 편찬을 위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 때문입니다.

40년 전인 1954년 5월 29일, 도림동 본당에서 분가된 명수대 본당은 한강 대교 남단 지역과 한강 기슭, 그리고 국립묘지를 옆에 낀 곳에 자

리잡고 있는 서울 지역의 본당이면서도 많은 신자들이 어렵게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를 수호자로 모시고, 꾸준히 공동체를 발전시켜 왔으니 가히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無)에 가까운 데서 유(有)를 창조하다시피 하였기 때문입니다. 서울대교구에서 처음으로 레지오 마리아를 창설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고, 교세 증가로 상도동·사당동·노량진·반포 본당을 분리한 것도 손꼽을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본당 설립 40주년이 단지 40년을 살아왔다는 것을 자랑하고 만족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큰 영광과 맡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 정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뜻하지 않게도 한국의 103위 성인의 시성 10주년을 맞이한 금년에 본당 40년사를 펴내게 된 것을 다행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40년사를 편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감수한 편찬 위원들과 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그 편찬 간행에 도움을 준 한국 교회사 연구소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4년 11월

명수대 본당 주임
신부 **최익철**(베네딕도)

□ 축사 □

본당 설립 40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먼저 본당 설립 40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명수대 본당 40년사》를 펴내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명수대 본당은 서울교구 안에서도 오랜 역사를 지닌 본당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상도동·노량진·사당동·반포 등 여러 자본당을 분가해 왔고, 많은 사제·수도 성소의 터전으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또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면서 갖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간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흑석동에 처음으로 공소 공동체가 설립된 것이 1945년 가을이었고, 이 공동체가 처음 본당으로 설정된 것이 1950년 5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싹이 나기 시작한 본당 공동체는 곧 이어 발발한 6·25동란으로 폐허가 되고 말았고, 공소로 격하된 지 4년 만인 1954년에 다시 본당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간은 한국 사회 전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석동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신앙 공동체는 신앙 안에 일치하여 아름다운 성당을 건립했고,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위한 봉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교구 안에서는 최초로 레지오 마리아에 운동을 도입하여 이를 다른 본당으로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우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정신이 낳은 결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당 공동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뒤 여러 본당 신부님들, 수녀님들, 교우들이 본당을 거쳐 가면서 명수대는 다시 한번 성당을 건립하게 되었고, 여러 소공동체의 활동이 어우러져 오늘의 본당 공동체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0주년은 지나온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어느 단체나 개인이 그러한 것처럼 40주년은 새로운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나온 역사를 하나의 책자로 펴내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계기로 하여 명수대 본당이 어느 공동체에 못지 않는 성숙하고 알찬 공동체가 되고, 또 2000년대의 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는 훌륭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당 설립 40주년을 축하드리며, 신부님, 수녀님,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1994년 11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추기경 김수환(스테파노)

□ 축사 □

지금도 고향 같은 명수대 본당

흑석동 명수대 본당 설정 40주년과 본당사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흑석동 명수대 성당을 회고하면, 우선 고향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흑석동에 갈 때는 환자의 몸으로 갔었지만, 가 있는 동안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명수대는 제가 부임한 첫 본당으로, 6·25동란 직후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교우 400여 명과 더불어 온 정열과 신앙을 쏟아 성당을 건립한 곳이기도 합니다.

성당 건립 막바지에는 자금이 달려 1할 5부에 달하는 높은 이자의 급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1954년 성탄절을 앞두고 빗장이를 피해 한강 다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돌아오던 길에 이들 빗장이들을 부딪혔을 때의 심정. 다행인지 그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지만, 당시의 심정이란 이루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해결이 난감했던 빛을 기꺼이 청산해 주신 대동석유의 박기순(토마스) 사장님 덕으로 그 해의 성탄 축일을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근대 미술계의 선구자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장발교수님의 주선으로 이희태·이순석·장우성·김세중·김교만·권순형·남용우 교수 등 가톨릭 미술계의 중진 화가들께서 성당을 꾸미는 작업에 흔쾌히 참여하여 주신 점, 프랑스 화가 마리 바라জে 여사의 벽화 제작 등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성당 확장, 신축 과정에서 이분들의 작품을 대부분 볼 수 없게 된 것은 한국 가톨릭 미술사에서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성당은 120평도 안되는 면적이었는데 교구청에서는 너무 크게 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되어 신자수가 늘어나면서 성당은 작고 아담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그마저도 기억의 한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무엇보다도 성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서울대교구의 레지오 마리아가 명수대 본당에서 시작되어 본당과 역사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교구 주최 교리 경시대회에 4차례 참가하여 3차례에 걸쳐 단체상과 개인상을 휩쓸었던 순간들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명수대 본당이 있게 된 것은 역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의 지도와 노고, 이미 떠나갔거나 현재 살고 있는 모든 교우들이 봉헌한 기도와 희생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이란 연륜을 간직하게 된 장년의 명수대 본당, 앞으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흑석동 일대 주민들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여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랑스런 명수대 본당이 그 옆을 흐르는 한강처럼 계속 발전하기를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1994년 10월

라자로 마을에서
초대 본당 신부 이 경 재(알렉산델)

□ 축사 □

보좌 신부 시절의 보람을 회상하며

흑석동, 검은 돌에 세워진 성당, 거기에 하느님의 백성이 공동체를 이룬 지가 벌써 40년. 오늘이 있기까지 그 명암의 역사를 이루어온 공동체와 그 모든 주역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느님의 따스한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1962년 12월부터 1966년 1월 말까지 보좌 신부로 봉사했는데, 그 때의 모든 일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저는 국민학생들과 성당 마당에서 늘 축구를 했고, 중·고등 학생들이나 청년들과는 등산과 야영을 했습니다. 고등부 성가대(글로리아 합창단)는 참으로 자랑할 만합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찬미하며,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일치하고, 그 가운데서 선후배가 한 동아리가 되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시의 주일학교 어린이 중에서 2명(민병덕, 홍인식 신부)이 사제가 된 것도 저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명수대 본당에 부임하고 나서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매달 첫 목요일에 환자를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상도동 지역에 있는 환자 방문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걸어서 그 넓은 지역의 언덕과 골짜기를 오르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년간의 환자 방문에서 열심한 반장들과 회장들이 상도동 본당 설립의 꿈을 키웠고, 공소를 만들어 제가 흑석동을 떠날 때 본당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제 명수대 성당과 주변 환경이 다 바뀌어서 정들었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당은 마음의 고향이며 신앙의 고향입니다. 앞으로는 고향의 모습을 없애버리는 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4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성숙해

진 명수대 본당이 복음적 사랑이 흐르는 본당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기를
빌며 축하를 드립니다.

1994년 10월

잠원동 본당 사제관에서
초대 보좌 신부 김수창(야고보)

□ 축사 □

옛날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생각하며

명수대 본당 설립 40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약속됩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조명해 보고 알찬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당 40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업적이며, 이는 후세들에게도 훌륭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명수대 성당은 내 마음의 고향이라 잊을 수가 없으며, 늘 향수를 느끼습니다. 흑석동 언덕 길을 지날 때마다 옛날의 아름다웠던 추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나의 청소년 시절의 신앙이 그곳에서 다져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신학교에 들어가 사제가 된 후 첫 미사를 봉헌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가 봅니다.

지금은 안양에서 나환우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성 라자로 마을의 원장이신 이경재(알렉산델) 신부님을 초대 본당 신부님으로 모시고 성전을 지을 때 보여주신 교우 어른들의 열심, 우리 성당에서 미사를 함께 하셨던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수녀님들의 좋은 표양과 기도 모습, 아름다운 성가 등은 당시의 교우들, 특히 젊은이들의 신앙에 훌륭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남녀 학생들은 토요일에 모여 성당 청소를 하거나 성가 연습을 했고, 한편으로는 고백성사를 보면서 주일을 준비했고, 교리경시 대회에 나갈 때면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공부하여 단체나 개인 할 것 없이 우승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학교와 수도원에 들어간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참으로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본당 신부님들이 명수대를 거쳐 가셨고, 본당은 발전을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나이 40은 성숙기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인 것처럼

성서에서도 40이란 숫자는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40돌을 맞이하는 명수대 본당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안에 일치하여 더욱 성숙한 하느님의 아들·딸로 자라 믿음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당의 발전을 기원하며,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994년 11월

풍납동 본당 주임
신부 주 상 배(안드레아)

□ 축사 □

명수대는 나의 고향

서울 사람으로 한 곳에서 태어나 같은 장소에서 자라고, 50여 년이 넘도록 계속 살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저의 경우, 흑석동에서 나서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으니, 이곳이야말로 나의 고향이고, 나의 추억이 담긴 곳이라 하겠습니다. 요즘도 일주일에 한번은 어김없이 어머니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흑석동에 다녀옵니다.

명수대 본당 또한 저에게는 신앙의 터전이요 저의 인생을 바꾸어놓은 성소의 요람이었습니다. 유아기 때는 공소를 거쳤고, 국민학생 때 본당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성당이 기도의 집이면서 한편으로는 놀이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은, 1954년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3년간 본당의 첫 복사 생활을 마친 뒤 소신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후 1971년 사제로 서품되기까지 저는 명수대 공동체의 초창기와 변혁기를 지켜 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명수대 본당은 설립 당시 서울 변두리로 가난하고 작은 본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 주임 이경제(알렉산델) 신부님의 열성과 높은 안목으로 급성장하여 교구에서 주목받는 본당이 되었습니다. 이 신부님은 외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적인 신앙과 신심에서도 앞서가는 분이었습니다. 서울교구에서는 처음으로 레지오 마리아를 도입했고, 교리 경시대회, 성체대회를 통하여 신자들의 신심을 높이는 데도 노력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상도동과 사당동, 노량진과 반포 본당의 설립에 명수대 본당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와서는 한국 교회가 전교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처럼 명수대 본당도 많은 교우 수로 대형 본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교우 여러분은 물론 저로서도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명수대 본당은 지난 40년간 시대적인 여건과 신자들의 노력으로 복음 전파의 선교 차원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목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러한 것처럼 신자 증가도 둔화되고 있고, 냉담자는 급증하며, 신자들의 자세 또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의 괴리 현상이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고, 그러므로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신자들의 재교육과 신앙을 생활화하는 복음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명수대 본당의 40주년은 경축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본당이 이제 설립되었다는 입장에서 신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 40주년을 시대가 요구하는 적응과 쇄신의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분명 명수대 본당의 초창기와 정착 시기는 한마디로 시대에 앞서가는 모범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통 깊은 명수대 본당이 이 어려운 시기에 또다시 '복음화' (福音化)의 선구자적 본당이 되어 주도록 노력할 것을 교우 여러분에게 기대해 봅니다.

1994년 11월

압구정동 본당 주임
신부 나 원 균(바로로)

□ 축사 □

본당 40년의 역사를 보배로 삼기를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명수대 본당의 모든 교우 형제·자매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이제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옛 것이 되어 버렸나 봅니다. 현대 문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10년이 채 못되어 세상이 빠르게 변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같으면, 본당 설립 40주년은 강산이 네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제가 명수대에 부임한 것이 1986년 여름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엇그제 일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벌써 8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어떤 일은 생생하게, 어떤 일은 희미하게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소중한 기억들이라 생각합니다.

40년은 본당의 역사로서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수대 본당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여러 주임 신부님들을 비롯하여 보좌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왔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사랑과 복음 전파를 위해 주님의 도구로서 많은 일을 이루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항상 순조롭고 평온한 삶의 공동체는 아니었겠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본당 공동체는 그 진통 속에서 더 많은 발전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만일 본당 40년의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이 있을 수 없고, 50년, 100년을 향한 미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수대 신자들이 본당 40년의 역사를 소중한 보배로 삼아 앞으로도 구원의 성사인 교회를 일

구고, 언제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994년 11월

명일동 본당 주임
신부 정 광 응(요셉)

□ 인사말 □

촛불 역할을 하는 본당이 되기를 빌며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40년사를 간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느님께 그 영광을 드립니다.

박해 때 이 땅에 하느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 피로 순교하신 신앙 선조들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명수대 본당이 40년의 역사를 이루어온 데는 우선 초창기 공소 때부터 수고하신 선배 회장님들과 교우분들의 땀과 노력이 터전이 되었습니다. 또 본당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성당 신축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수고하신 신부님과 교우들, 이후 본당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교우분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란 하느님의 나라이고 하느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명수대 본당 또한 이러한 공동체로서 믿음과 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지난 1984년 봄, 단지 8백만원이란 작은 돈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마침내 10억에 달하는 새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도 순교자들 못지않게 교우들의 믿음과 땀이 뜨거웠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의 본당이 있게 된 것은 지난 40년 동안 하느님께서 훌륭하신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을 이 흑석동으로 보내 주신 덕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훌륭하신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들을 모시고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는 더욱 섬김과 사귄과 나눔으로써 하나되는 일치된 공동체로서, 하느님을 위한 큰 촛불 역할을 하는 명수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선조들과 선배 교우분들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 될 것

입니다.

끝으로 이번 40년사의 발간을 위해 많은 뒷받침을 아끼지 않으신 주임 최익철(베네딕도) 신부님,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오신 전임 김춘호(요셉) 총회장님, 오랫동안 자료 수집과 정리에 애써 오신 편찬 위원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 10월

명수대 본당 사목 협의회
회장 이 승 균(토마스)

□ 獻 辭 □

明水臺 本堂 40년사에 드림

명수대 본당 제9대 총회장
民影 文 重 變(디모테오)

유서깊은 제1한강교 너머
黑石洞 입구 고개길 마루터에
赤山 家屋 2층 10여 평을
빌려 公所에서 本堂으로 설정된 天主學堂에서
첫 미사를 집전하게 되자
전란으로 흩어져 방황하던 교우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으니,
한 평생을 義롭게 살다 후회없이 떠나가는
참된 신앙인의 길을 가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사제는
李庚宰 알렉산델 신부였노라 !

항상 삶의 희망을 심어 주신 사제는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개척자로서
미군의 중장비 지원을 받으며
앞장 서서 이끌어 주신 牧者였기에,
신앙심이 돈독한 교회 원로들이
聖殿 建立 推進委員會를 만들어
가정 방문으로 기금을 조성하면서
성전 건립에 참여 의식을 높이고,
벽돌 한 장 쌓기와 노력 동원으로
정성을 다하는 教友들의 참여에 힘입어

아담한 성전을 완공한 뒤
 盧基南 주교님을 모시고
 명수대 성당 祝聖式을 가지게 되었노라.

무심한 세월 속에 30여 성상.
 많은 사제가 거쳐 가시고
 성전이 헐고 비좁아 수용 능력이 부족하게 되자
 다시 큰 聖殿을 新築하여 단장함으로써
 불편함이 없이 미사 참례를 하게 되었으니,
 이제 선조들의 신앙 생활을 傳授하려고 노력하시는
 원로 崔益喆 베네딕도 신부님은
 주님께 기도드리는 신자들의 마음 자세부터
 단정해야 한다고 강론하시면서
 교회에서는 받기만 하고 베풀어 주지는 못한다고 하시며
 동리 노인들에게 敬老 잔치와 다과회를 베풀어
 교우들 간의 情誼를 돈독하게 하여 주셨노라.

전지 전능하신 天主이시여 !
 그 동안 명수대 본당 교우들은
 학자 曹仁煥 베드로 신부님과
 법학자 柳榮道 디오니시오 신부님,
 주교님이 되신 덕망있는 金玉均 바오로 신부님,
 羅相朝 아우구스티노 신부님과 李鍾煥 미카엘 신부님,
 鄭光雄 요셉 신부님 등 역대 신부님으로부터
 배우고 깨달은 것이 너무 많아
 경건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信·望·愛 3덕을 몸소 實踐 躬行하여
 어두운 사회를 밝히려고 다짐하고 있나니,
 부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어 맑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

□ 차 례 □

-
- 간행사 / 최익철(베네딕도) 신부 / 25
 - 축 사 /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 / 27
 - 이경재(알렉산델) 신부 / 29
 - 김수창(야고보) 신부 / 31
 - 주상배(안드레아) 신부 / 33
 - 나원균(바오로) 신부 / 35
 - 정광웅(요셉) 신부 / 37
 - 인사말 / 이승균(토마스) 총회장 / 39
 - 헌 사 / 문중섭(디모테오) / 41
-

제1편 지역 사회의 변모와 흑석동 공소	47
제1장 흑석동 지역의 변모와 복음 전파	49
1. 흑석동 지역의 변모 / 49	
2. 복음의 전래와 초기 공소 / 52	
제2장 흑석동 공소의 설립과 변모	63
1. 흑석동 공소의 설립 / 63	
2. 본당 승격과 시련 / 65	
3. 성당 건립을 위한 노력 / 69	
제2편 명수대 본당의 설립과 안정	73
제1장 본당 설립과 성당 신축.....	75
1. 명수대 본당의 설립 / 75	
2. 성당 신축과 축성식 / 77	
제2장 본당의 정착과 신자들의 활동	95
1. 본당 정착을 위한 노력 / 95	
2. 평신도 단체의 활성화 / 99	
3. 성모 수녀회와의 관계 / 109	
제3장 본당의 안정과 변천	111

1. 조인환 신부의 부임 / 111	
2. 단체의 확대와 활성화 / 113	
3. 안정기의 본당 모습 / 115	
제3편 본당의 성장과 분할	123
제1장 본당의 분할과 사제관 건립	125
1. 유치원 설립과 상도동 본당의 분할 / 125	
2. 사제관 건립과 사당동 본당의 분할 / 134	
제2장 부속 시설의 보완과 본당의 재분할	143
1. 사목회와 부속 시설의 보완 / 143	
2. 본당의 재분할 / 146	
3. 보좌 신부의 잦은 교체와 단체의 신설 / 151	
제4편 공동체 활성화와 성당 신축	157
제1장 내적 쇄신 운동과 소공동체의 활성화	159
1. 나상조 신부와 사목 활동 / 159	
2. 구역·사목회의 개편과 본당 사업 / 164	
3. 단체의 신설과 활성화 / 167	
4. 변화된 공동체 / 173	
제2장 성당 신축과 본당의 변화 / 177	
1. 이종환 신부의 부임 / 177	
2. 성당 신축과 축성식 / 184	
3. 단체의 변화와 활동 / 197	
4. 신심 활동의 내용 / 207	
제5편 내실화 운동과 새로운 전기 모색	213
제1장 시설 완비와 내실화 운동	215
1. 정광웅 신부와 사목회 / 215	

- 2. 부속 시설과 수녀원 신축 / 220
- 3. 신심 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 운동 / 225
- 4. 단체와 교세의 변화 / 236

제2장 소공동체의 활성화와 40주년243

- 1. 최익철 신부의 부임 / 243
- 2. 사목 협의회와 구역·반 개편 / 250
- 3. 교역자와 단체의 변화 / 253
- 4. 본당 설립 40주년과 새로운 전기 모색 / 261

제6편 평신도 사도직 단체사273

- | | |
|---------------------|----------------|
| 주일학교 교사회 / 275 | 복사단 / 280 |
| 성모회 / 283 | 레지오 마리아 / 287 |
| 소화(테레사)회 / 304 | 스카우트 / 308 |
| 울뜨레아 / 311 | 복자회 / 313 |
| 도미네 청년 성가대 / 316 | 대건회 / 320 |
| 성령 기도회 / 324 | 청년 성서 모임 / 328 |
| 어버이 성서 봉사자 모임 / 330 | 한마음 성가단 / 333 |
| 위령회 / 336 | |

제7편 명수대 본당의 현황339

- 1. 본당의 연혁 / 341
- 2. 관할 구역 및 구역별 신자수 / 362
- 3. 교역자 및 성소 현황 / 363
- 4. 사목 협의회 및 구역·반 편성 현황 / 368
- 5.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현황 / 370
- 6. 교세 변모 현황 / 371

· 편찬 후기 / 373

제 1 편

지역 사회의 변모와 흑석동 공소

제 1 장 흑석동 지역의 변모와 복음 전파 / 49

제 2 장 흑석동 공소의 설립과 변모 / 63

제 1 장

흑석동 지역의 변모와 복음 전파

1. 흑석동 지역의 변모

1) 흑석동의 유래와 지역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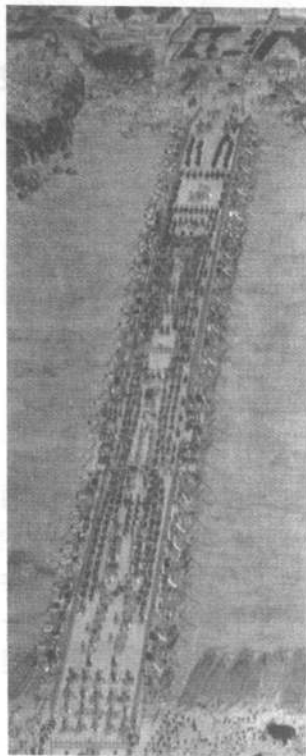
어느 한 지역의 복음사는 그 지역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곳이 지역 사회이고, 그 전파 대상 또한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가 복음의 못자리로 간주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본당의 사목 관할 구역이 지역 사회의 행정 구역이나 생활 근거지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지역의 행정적인 변모, 외형적인 발전도 복음사나 본당사의 변모 과정과 거의 일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흑석동(黑石洞) 지역의 복음사를 서술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지역사의 변모 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흑석동”이란 명칭은 흑석동 남쪽 일대, 즉 지금의 명수대 본당 남쪽 500m 인근에서 나는 돌의 색깔이 검은 색을 띠고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일대가 “검은돌(黑石) 마을”이라 불리어지다가 조선 시대에 면·리 제도가 정착하면서 “흑석리”로 명명되었으며, 그 후 일제 시대에는 흑석정으로, 해방 후에는 고유의 동명인 흑석동으로 고쳐지게 되었다. 당시 이 마을은 경기도 과천시 하북면 흑석리에 속하였는데, 그 서쪽 이웃에는 같은 면 소속의 본동리(本洞里, 지금의 동작구 본동)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상북면 소속의 동자리(銅雀里, 지금의 동작구 동작동) 나루터 마을이 있었다. 이들은 비록 면은 달랐지만, 서로 이웃하고 있었으므로 주민들의 왕래가 잦았다.

이곳 흑석리의 자연 부락으로는 위에서 말한 검은돌과 비교적 부촌인 남부동, 지금의 흑석 1동에서 상도동으로 넘어가는 부근에 있던 명창굴,

흑석 1동 5통 일대의 안말, 중앙대학교 앞의 새말 등이 있었다. 또 명수대 본당이 자리잡은 인근에는 윗말이 있었고, 흑석 2동 28번지 일대에는 비개 마을, 흑석 3동 일대에는 솔밭 마을과 약수동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중 비개 마을은 한강 줄기와 비교할 때 비스듬히 위치해 있다 하여 부쳐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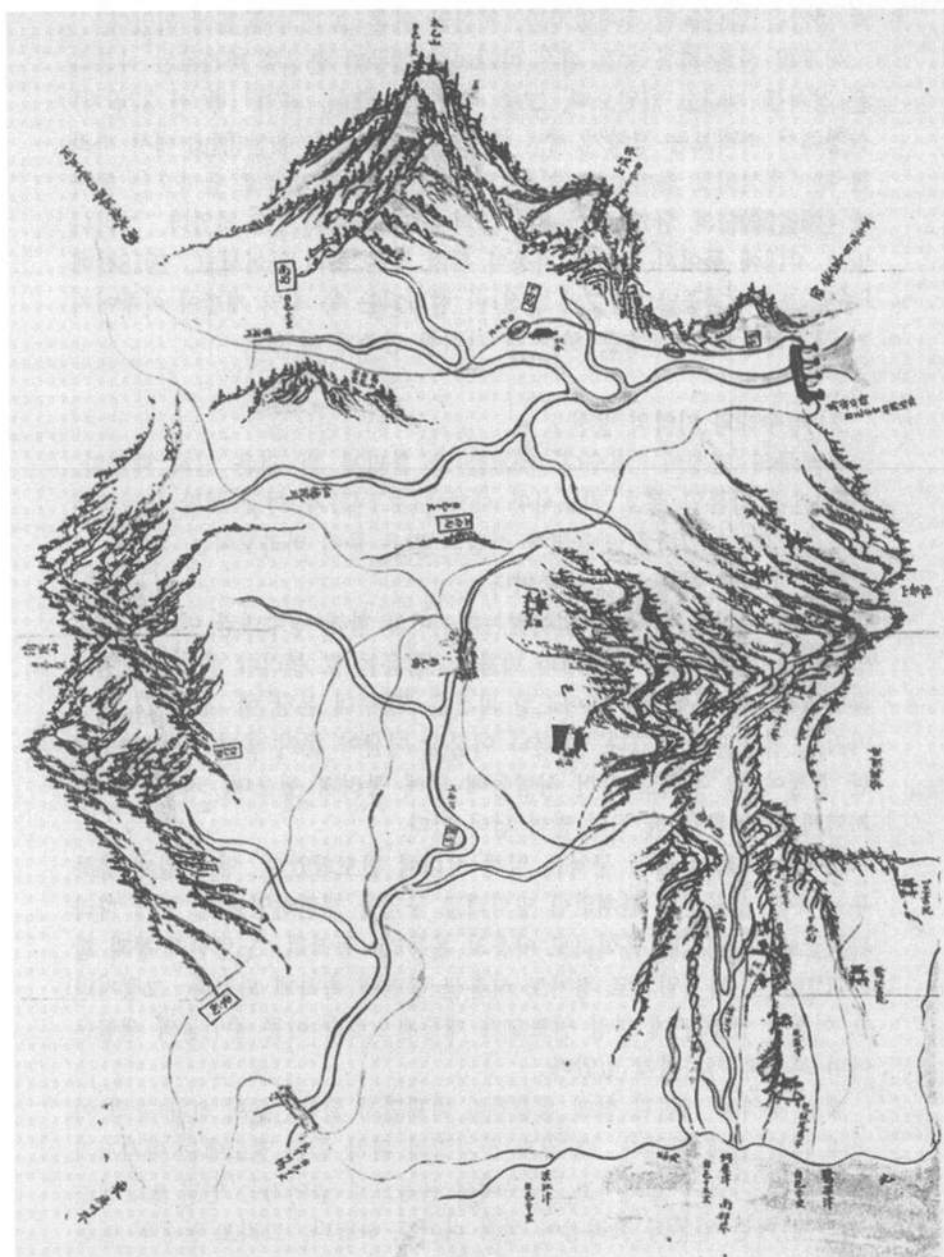
한편 이웃 본동리에는 한강 인도교 맞은편 언덕 위에 정조(正祖) 임금 때 건립한 용봉정(龍鳳亭)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이웃에는 한강의 배다리(舟橋) 설치를 관장하던 관청인 주교사(舟橋司)가 있었다. 이 배다리는 정조 임금이 1789년에 부친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인근으로 이장한 뒤 참배를 하러 다닐 때 사용하던 다리였고, 용봉정은 한강을 건넌 뒤 휴식을 취하던 장소였다. 현재 그 앞쪽 길 건너에는 1910년에 완공된 노량진 수원지가 있으며, 그 옆에는 유명한 사육신묘(死六臣墓)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의 자



한강 주교 환어도(漢江舟橋 還御圖).

연 부락으로는 지금의 동양중학교 부근에 있던 하가차산리(下加次山里, 일명 가칠목), 그 윗쪽의 상가차산리, 을축년(1925년) 대홍수 때 용산 지역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이 이룩한 복궁촌(復興村, 본동 440번지 일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동사무소 뒷산은 안산(案山)이라 불리어 왔으며, 그 주봉이 매봉재로 이곳에서 상도동으로 넘어가던 고개 마루에서 낭당이 있었다.

조선 시대까지 흑석리는 과천군에 속해 있었지만, 서울과 가까운 데다 그 관문의 하나인 동작진(銅雀津)이 인근에 있었고, 또 나루터 마을인 흑석 나루(지금의 원불교 회관 부근)가 있었던 탓에 비교적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다. 흑석 나루터는 이웃의 노량진(鷺梁津)과 동작진의 통행량이 많고 또 검문 검색도 심한 탓에 이를 피해 민간인들이 개인으로 배를 빌



과천군에 속해 있었을 당시의 흑석리 일대(오른쪽 아래) 지도.

려 한강을 넘나들던 곳이었지만, 구한말 이후 그 기능을 잃게 되었다.

이곳의 산은 비록 높은 편은 아니지만 옛부터 한강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경치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중 서달산(西達山, 흑석 1동 산 37번지) 산정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제일 좋았다고 한다. 또 용산(龍山)에서 바라볼 때 “흑석리로 돌아오는 중”(黑石歸僧)은 “동작 나무로 돌아오는 돛단배”(銅雀歸帆)와 함께 용산 8경 중의 하나로 꼽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제 시대에 들어와 일본식 가옥이 위치 좋은 곳에 들어서고, 1918년에 「중앙 보육원」(중앙대학교의 전신)이 설립되는 등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옛 모습은 하나 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2) 명수대와 지역의 발전

흑석동의 명칭이 “명수대”(明水臺)로 불리게 된 것은 일제 때였다. 1920년에 일본인 부호 기노시따 사카에(木下榮)가 이곳 서달산 정상에 별장을 짓고 놀이터를 만들면서 한강의 맑은 물이 바라보이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라 하여 부친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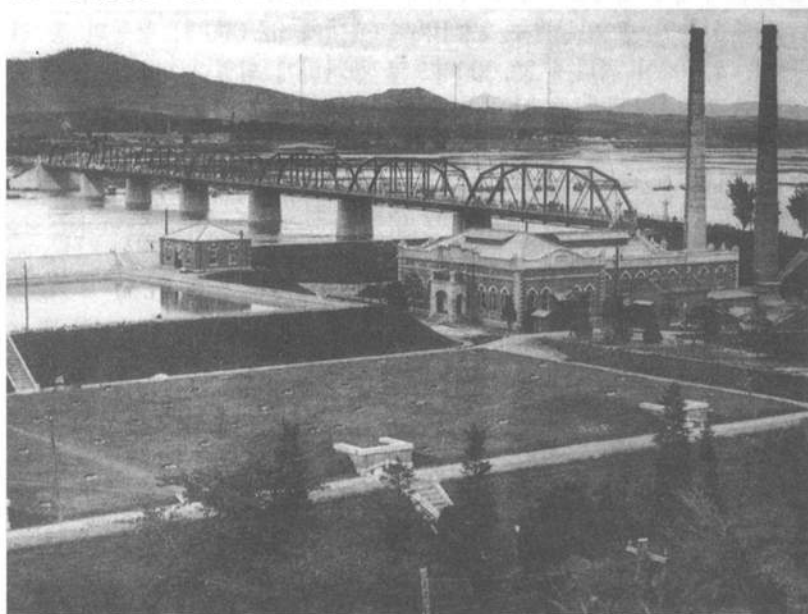
명수대 별장은 해방 후 없어졌는데, 이와 함께 명수대란 이름이 일본인이 지은 것이라 하여 본래의 이름인 ‘검은돌’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은 ‘명수대 본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론되곤 하였다. 그러나 어감상 이름이 듣기 좋다 하여 명수대란 호칭이 그 후에도 여러 사람들에 의해 불려져 왔으며, 지금도 여기 저기에 그 이름을 딴 곳이 많이 남아 있다.

흑석동 지역의 행정 구역은 일제 시대에 변모되었다. 당시 일제 총독부는 주민 생활권과 관계없이 임의대로 구역을 개편하였는데, 이에 따라 과천군에 속해 있던 흑석리도 이웃의 본동리·동작리·노량진리 등과 함께 1914년 3월 1일자로 경기도 시흥군 북면에 속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이전인 1910년에 한강 인도교가 개통됨으로써 이곳 주민들의 생활은 이미 서울과 가까워져 있었다.

행정 구역의 개편과 함께 생활권이 바뀌면서 일본인들이 하나 둘씩 이곳에 터를 잡게 되었다. 그 결과 산자락의 위치 좋은 장소에는 여기저기에 일본식 가옥이 들어서고, 이곳에서 본동으로 넘어가는 언덕 인근에는 ‘한강장’이란 일본식 요리집이 생겨 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본동의 매봉재 정상에는 일본인들이 조성해 놓은 봉산유원지(鳳山遊園地)가 있어 봄



한강 철교 개통(1900년) 직후의 한강 모습.
1901년에 완공된 노량진 수원지와 한강 인도교.



이 되면 벚꽃이 만발하였고, 남사당패들의 공연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현재까지 명수대 성당 인근에 남아 있는 일본식 가옥들도 이 무렵에 건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1936년의 행정 구역 개편 때 흑석동과 본동 지역은 경성부(서울시) 영등포 출장소의 관할로 변모되었는데, 당시의 행정 구역명은 흑석정과 본동정이었다. 그러다가 해방 후 일본식 이름인 '정' 자 대신에 '동' 자가 부쳐져 영등포구 관할의 흑석동·본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흑석동의 주민수는 점차 증가하였고, 검은 시장을 중심으로 상가가 형성되었으며, 1938년에는 중앙보육학교 석조 건물이 건립되었다. 명수대 지역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이주해 오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해방 당시 흑석동의 주민수는 동작동을 합하여 4,500여 세대에 25,800명 정도였으며, 본동의 주민수는 1,770세대에 5,380명 정도였다.

흑석동·본동 지역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6·25 사변이 끝난 1960년대였다.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연속 설립되었고, 기존 가로망과 현충로·강남로·노량진로 등이 확장되었으며, 더 나아가 현대식 가옥과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70년에 이르러 흑석동의 총 인구수는 12,100여 세대에 62,000명, 본동의 총 인구수는 4,900여 세대에 25,000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들은 1973년 7월 1일을 기해 신설된 관악구에 속하게 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행정 구역인 흑석 1·2·3동과 본동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1980년 4월 1일자로 신설된 동작구 소속이 되었다.

2. 복음의 전래와 초기 공소

1) 동채기 교우촌의 유래

그러면 흑석동 지역에 천주교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지금까지 나타난 기록을 통해 그 시기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서울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일찍부터 천주교란 이름이 주민들 사이에 알려졌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주변의 역사를 종합해 본다면, 이곳과 가장 가까운 지역인 "동작리"(일명 동채기)에 천주교 신자들이 교우촌을 형성하고 살았다는 기록이

구한말인 1890년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일이다. 이 지역은 명수대 본당 설립 이후 그 사목 관할 아래 놓여 있다가 1976년 반포 본당이 분할되면서 그 관할로 들어가게 된 지역이다. 그러나 해방 이전에 이미 여러 자연 부락이 사라져 가고 있었고, 1954년 국립묘지가 조성되면서 그 경내에 들어가게 된 여러 마을들의 흔적이 없어지게 되었다. 다만 대대로 동재기 교우촌에 거주하던 신자들이 훗날 흑석동으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곳에 전해진 복음사가 오늘에까지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선대부터 동재기 지역에 거주하던 박동수(朴東壽, 바오로 : 1994년 현재 71세) 교우는 다음과 같이 그 내력에 대해 자세히 회고하고 있다.

동재기 공소 마을(교우촌)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부터 100년이 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박해가 끝나고 나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셨는데, 그 후 신자들이 많이 거주하던 동재기의 농배 마을로 이주하시게 된 것이지요. 제가 태어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농배 마을에는 당시 김선영(金善永, 요셉) 신부의 가족 등 구교우 집안이 많았습니다. 이 농배 마을과 윗쪽의 당재, 상지목 등이 모두 교우촌으로 신자들이 매우 많았고, 일제 시대만 해도 이곳 공소의 강당에 모이던 신자들은 사당동·노량진 쪽과 멀리 서초동(당시의 명칭은 서리풀)과 양재동(당시의 명칭은 계리)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일이면 공소를 대여섯 차례씩 치르곤 했고, 3일 동안 공소를 치르기도 했지요. 그 후 해방과 6·25 사변을 겪고 나서 이곳에 국립묘지가 건설되면서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흑석동 지역으로 이주한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위의 회고담에서 박동수 교우가 이야기하는 김선영 신부는 순교자 집안 출신으로 본래 하우고개(지금의 儀旺市 淸溪洞)에 살았는데, 훗날 부친 김석오(金錫午, 요한) 회장이 신학교 별장 관리를 맡게 되면서 하우고개에서 이곳 동작리로 이주하게 된 것이다. 김 신부는 1923년 5월 20일에 서품을 받고 신학교와 황해도 등지에서 사목 활동을 하였으며, 1930년대부터 만주 길림성(吉林省)에서 사목 활동을 하다가 1965년경 중국 공산당에 체포되어 옥사하였다.

동작리의 원 마을은 본래 동작 나루터(銅雀津)를 중심으로 지금의 국립묘지 산 쪽으로 흩어져 있던 동재기의 여러 마을이었다. 그중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거주했던 부락은 지금의 동작동 전철역 부근에 있던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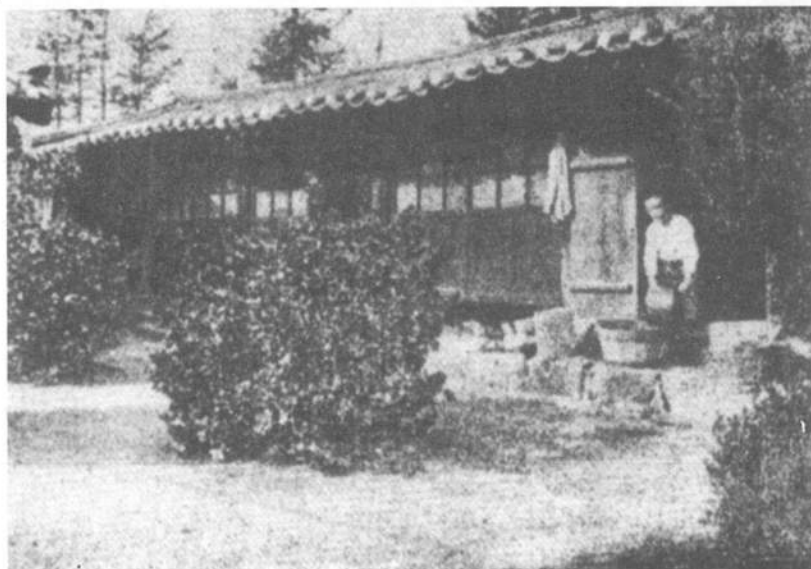
천(梨水川) 나루터 인근의 “농배 마을”(일명 능배), 지금 국립묘지 군악대가 있는 곳 위에 있던 “당재 마을”(훗날 공소 강당이 건립된 곳), 현 충탑 부근의 “능마을”, 국립묘지의 주봉인 공작봉(孔雀峰) 산자락에 있던 “상지목” 등이었다. 그중 나루터 마을을 다시 설명해 보면 ‘현재 흑석동에서 국립묘지로 넘어가는 강변, 즉 동작대교와 이수천(梨水川) 입구 아래쪽에서 흑석동 쪽으로 형성되어 있던 마을’이었다. 조선 시대 이곳의 동작진은 서울에서 과천으로 가던 교통의 요지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한강 인도교가 가설되면서 나루터로서의 명맥을 잃게 되었다.

2) 동재기·노들 공소

천주교 신앙이 동작리에 전해진 것은 위의 회고담에서도 나타난 사실과 같이 박해가 끝난 다음인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곳에 처음 공소가 설립된 것은 1890년으로, 당시의 신자수가 49명인 것으로 보아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신앙 집단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당시 이 지역은 약현 본당(藥峴本堂, 지금의 중림동 본당)의 관할 지역이었는데, 그 초대 신부로 재임하던 두세(Doucet, 丁加彌) 신부가 1890년에 이곳을 처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이 공소의 정식 명칭은 “동재기 공소”로 불리다가 일제 시대에는 “동작리 공소”로 불리게 되었다.

이 동재기 공소는 지금의 강남 지역과 영등포 지역 중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공소로 처음에는 농배·당재·능마을 등에 있던 공소 회장의 사가(私家)에서 봄·가을 판공을 보았다. 한편 이로부터 3년 뒤인 1893년에는 “노들 마을”(노량진동)에도 3~5가구의 신자집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이 마을은 지금의 수산시장 앞쪽 한강변에 위치해 있던 나루터 마을로, 흑석동 지역과는 좀 떨어져 있었으며 신자수도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독립된 공소를 치른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였던 것 같고, 대부분은 동재기 공소에 함께 모여 공소 예절을 보았다.

이들 동재기 공소와 노들 공소는 1890년 초부터 일제 시대 중반까지 30여 년 동안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의 표에 정리한 것과 같이 신자수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1924년의 신자수가 252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후에도 공소를 계속 유지시켜 나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용산 예수 성심 신학교 별장이던 “연벽정”의 모습.

동재기 공소 지역에는 1902년에 교회의 명소가 하나 생기게 되었다. 지금의 국립묘지 군악대가 위치한 위쪽(현재의 도로에서 100m 정도 위쪽), 즉 당재 마을에 용산 예수 성심 신학교의 별장이 건립된 것이다.

본래 이 땅은 1896년 2월 25일 용산 신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던 로 (Rault, 盧若望) 신부가 매입한 것으로, 논·밭과 산 하나, 그리고 61칸짜리 기와집이 있었다(〈뫼텔 주교 일기〉, 1896년 2월 25일자 기록).

동재기·노들 공소의 교세 변모

연대	공소	신자수	연대	공소	신자수
1890	동재기	49	1901	동재기	106
1893	동재기 노들	51	1909	동재기 노들	117 35
1895	동재기	51	1912	동재기	166
1896	동재기 노들	47 27	1920	동작리 노들	214
1897	동재기	56	1924	동작리	252

조선교구에서는 그중 기와집을 별장으로 개조하여 1902년 5월 15일, 제 8대 조선교구장으로 재임하던 뮈텔(Mutel, 閔德孝) 주교의 집전으로 축성식을 갖게 되었다(위의 일기, 1902년 5월 15일자 기록). 이 별장은 그 후 “연벽정”으로 불리었고 교구의 여러 성직자들과 신학생들의 소풍지로 애용되었다.

이 별장이 건립되면서 바로 김선영 신부의 부친인 김석오 회장이 하우 고개에서 농배로 이주하여 그 관리를 맡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동재기 공소의 신자들은 자주 성사를 볼 수 있었고, 동시에 별장을 공소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1932년 12월 17일에는 이곳 출신인 임종국(林鍾國, 바오로) 신부가 사제로 서품되어 이듬해 초 별장 강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하기도 하였다. 박동수 교우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동재기 공소의 회장은 임종국 신부의 부친이 맡고 있었으며, 때로는 그의 집에서 공소를 치렀다고 한다. 이 무렵 공소 신자들은 서로 힘을 합쳐 기금을 모으고, 이 돈으로 별장 아래쪽(지금 도로에서 50m 정도 위쪽)에 새 강당을 건립하였다.

당시 동재기 공소에 나오던 신자들은 주로 지금의 동작리에 거주하였으며, 노량진(노들)·서리풀(서초리)·양재리에 거주하던 신자들도 봄·가을이면 이곳에 나와 판공성사를 받았다. 그러나 1930년대까지 흑석동에 거주하던 신자들은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현재의 신자들이 대부분 일제 말기에 와서야 흑석동에 이주해 온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흑석동의 복음 전래사에서 동재기 공소의 변모 과정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다. 동재기 공소의 신자들이 흑석동으로 이주하면서 그들이 간직하여 온 천주교 신앙이 그대로 이어져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는 동재기 지역에 떨어져 있던 복음의 뿌리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지는 않을지라도 훗날 명수대 공동체가 설립됨으로써 단절되었던 복음사를 다시 잇게 되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3) 영등포 본당과 흑석동 신자들

1930년대 중반까지도 동재기·흑석동·노량진 등은 약현 본당의 사목관할 지역이었으므로 이곳 신자들은 대축일 미사 때면 노량진으로 나가 전차를 타고 약현 본당으로 가야만 했다. 당시 약현 본당에는 제2대 주

임이던 비에모(Villemot, 禹一模) 신부가 종현 본당(鐘峴本堂, 지금의 명동 본당)으로 전임된 후 1926년부터 제3대 주임인 김윤근(金允根, 요셉) 신부가 활동하고 있었고, 1936년에는 오기선(吳基先, 요셉) 신부가 보좌 신부로 김 신부를 도왔다. 원로 신자들의 증언 가운데 “김 신부와 오 신부님이 공소를 방문한 기억이 난다”는 사실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신자들은 “현재 수원에 계시는 장금규(莊金龜, 그리소스토모) 신부님도 가끔 이곳에 들르셨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무렵에 이르러 영등포 공소의 신자들 사이에서 본당 설립의 노력이 시작되고 있었다. 실제로 그들은 1930년 6월경에 8칸의 공소 경당(지금의 영등포 경찰서 뒤쪽)을 마련한 뒤부터 본당을 꿈꾸며 전 신자가 한마음으로 새 경당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었다. 그 결과 1936년 5월 10일에는 마침내 약현 본당으로부터 독립하여 “영등포 본당”의 설립을 보게 되었으며, 초대 주임으로 서기창(徐起昌, 프란치스코) 신부를 맞이하여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아울러 이듬해 1월 31일에는 서구식 벽돌조의 2층 성당(지금의 영등포구 당산동 2가)을 완공하고, 제9대 서울교구장인 라리보(Larribeau, 元亨根) 주교의 집전으로 축성식을 갖게 되었다.

영등포 본당의 신설로 동재기 공소, 대방동 공소, 김포의 걸포리 공소 등 한강 이남의 공소들은 모두 여기에 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 영등포 본당의 관할 구역은 매우 넓었지만, 주일 미사에는 주변의 신자들만이 참석하였을 뿐 먼 거리에 있는 신자들은 대부분 공소 예절을 보고 있었다.

본당 초창기 영등포 신자들은 자신들이 건립한 성당을 임시 성당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위치도 적당하지 않았고, 늘어가는 신자수에 비해 규모도 작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들은 다시 성당을 건립하기로 결의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40년 가을에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7월 20일에는 라리보 주교의 미사 집전으로 낙성식과 축성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초대 주임이던 서기창 신부는 축성식 전인 1941년 6월 24일 황해도로 전임되었고, 제2대 주임으로 정원진(鄭元鎭, 루가) 신부가 부임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인 1945년 11월 15일에는 제3대 주임으로 박일규(朴一圭, 안드레아) 신부가 부임하여 6·25 사변 때까지 재임하였으며, 1946년에 본당 명칭을 “도림동 본당”으로 변경하



1941년 7월 20일의 영등포 성당 낙성식.

게 되었다.

흑석동에 천주교 신자들이 이주해 온 것은 동재기에 강당이 건립되고, 영등포 본당(도림동 본당)이 설립될 무렵이었다. 이상래(李上來, 미카엘) 교우의 회고에 따르면 “자신이 흑석동으로 이주해 온 것이 1938년 무렵이었는데, 그 바로 전에 이의경(李義景, 세례명은 미상) 회장이 이주해 왔었다”고 한다. 훗날 처음으로 흑석동 공동체를 이룩한 신자들은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가 직장이나 거주지 관계로, 또는 새로운 생활 터전을 위해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부분 구교우 집안 출신이었다. 이처럼 신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뒤 새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습은 박해 시대 이래로 이어져 오는 한국 교회의 전통이기도 했다.

신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면, 훗날 흑석동 공소의 초대 회장이 된 이의경 회장은 본래 이태원에 거주하던 구교우 집안이었고, 이상래 교우는 광주 낙생면(지금의 성남시 지역)의 교우촌에서 견진성사를 받은 후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가 흑석동으로 다시 이주해 온 경우였다. 또 조 성희(趙聖熙, 당시 경향신문사 근무) 회장과 박규원(朴圭遠, 토마스) 교



박일규(안드레아) 신부.

우는 경기도 용인군 도곡면의 압고지 본당(前垈里本堂) 출신으로 이곳은 박해 시절부터 유명한 교우촌이 자리잡았던 곳이고, 그들 또한 이 지역의 구교우 집안에서 출생하였다. 그리고 이명용(李命容, 당시 서울시경 소방과장)은 함경남도에서 월남한 구교우 집안 출신이었다. 훗날 흑석동 공동체가 다른 곳보다 일찍 공소로 성장하고 강당 건립에 노력하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이 구교우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흑석동의 신자들은 영등포 본당이 설립되면서 그 관할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봄·가을 판공이나 대축일 미사를 제외하고는 이전과 같이 약현 본당으로 나가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흑석동에서 영등포 성당으로 가는 교통이 불편한 탓이었다. 우선 걸어서 노량진역까지 가야 했고, 여기에서 전차를 이용하여 영등포역까지 간 뒤 다시 걸어서 본당에 가야만 했다. 이러한 현상은 1946년에 삼각지 본당이 설립된 후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는데, 흑석동에서는 한강 인도교를 건너면 곧 삼각지 본당에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흑석동에 공소가 설립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제 2 장 흑석동 공소의 설립과 변모

1. 흑석동 공소의 설립

흑석동 공동체에 공소 설립의 노력이 있게 된 것은 해방을 맞이한 다음이었다. 이곳의 주민수와 함께 신자수가 증가하면서 공소 설립의 필요성을 느낀 때문이었다. 당시 영등포 본당의 박일규(안드레아) 신부도 이곳 신자들이 증가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본당의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신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1945년 가을에는 마침내 “흑석동 공소”를 설립해 주었다. 이때 이의경(李義景)이 초대 공소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이곳에 거주하던 신자들의 말을 빌리면, 지금의 성당 주변은 일본식 주택들이 드문드문 있었고, 남쪽으로는 흑석동에서 상도동으로 넘어가는 명창굴 언덕 좌우로 한옥과 초가들이, 북쪽 한강변에도 초가들이 있었다고 한다. 또 흑석동의 신자들을 비롯하여 본동, 상도동, 동작동에 거주하던 신자들이 이곳 공소 소속이었다고 한다. 그때까지 이웃 동재기 공소에서는 주일마다 따로 공소 예절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흑석동 신자들의 희망대로 공소가 설립되었지만, 처음에는 따로 공소 강당이 있을 리 만무하였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의경 공소 회장의 단칸방에서 공소 예절을 가져야만 했으며, 첫 가을 판공성사도 이곳에서 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1946년 3월, 봄 판공이 끝날 즈음 박일규 신부는 신자들과 회합을 가진 뒤 「공소 강당 신축 기성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바로 이때의 모임이 훗날 명수대 본당을 이룩하게 된 첫 출발이자 기초가 되었다. 이때 조직된 강당 신축 기성회의 구성을 보면, 회장에 이명용(李命容, 서울시경 소방과장), 총무부장에 조성희(경향신문사 근무, 제2대 공소 회장), 재무부장에 조명흥(趙明興, 조선슬레

이트 근무), 교화부장에 김갑인(金甲寅), 연락부장에 이상래(李上來)·이강섭, 상도동 분회장에 윤경중(尹景重, 명수대 본당 6대 총회장), 동작동 분회장에 임종철(林鍾喆) 등이 각각 선임되었다. 이후 신자들은 기성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기금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명용 회장의 집을 사무소 겸 연락 장소로 이용하고, 또 이곳에서 주일마다 공소 예절을 보았다. 이 무렵 기성회에서 파악한 흑석동 공소의 신자수는 흑석동이 19세대 95명, 상도동이 7세대 24명, 동작동이 23세대 115명, 본동이 3세대 5명으로 총 52세대 239명이었다. 이러한 교세는 영등포 본당 관내의 신자수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이상래(미카엘 : 1994년 현재 73세) 교우는 이러한 흑석동 공소의 초창기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흑석동에 거주하는 신자들이 차츰 증가하게 되고, 그들이 약현이나 삼각지 본당으로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영등포 본당의 박일규 신부님께서 해방이 되자마자 흑석동 공소를 설정해 주셨지요. 그러나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신자들이 모일 곳도 없었고, 이에 할 수 없이 이의경 회장님께서 자신의 집을 주일마다 공소집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자수가 많은 탓에 여러 차례 공소를 치러야 했고, 따라서 하루 온종일 신자들이 회장님의 집에 들락거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자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집을 공소집으로 제공하였는데, 당시 공소를 치른 집은 조명흥·공영춘·김교협·이명용·최응환 씨댁이었지요. 그러다가 강당 신축 기성회를 조직하게 된 것입니다.

기성회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강당을 마련하는 일이었다고, 둘째는 관내의 교우 가정을 찾는 일이었으며, 셋째는 기성회의 육성과 동시에 본당 승격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성회 발족 후 1년 간은 기성회비 징수를 보류하고 대신 절미 운동을 전개하여 기금을 조성하였다. 그러자 본당의 박 신부는 공소 신자들의 교무금 배정을 면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보좌인 이계광(李啓光, 요한) 신부를 매주 월요일마다 공소로 보내 미사를 집전하고 신자들을 돕도록 하였다. 한편 자매 신자들은 따로 「부인회」를 조직하여 관내를 순회하면서 기성회의 취지를 홍보하고, 교우 가정 파악, 상가 위문, 병자 방문, 냉담자 회유 등에 열과 성의를 다하였다. 그 결과 공소의 신자수는 300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1948년 봄에는 본당 안에서 가장



영세식 후 명수대 공소 회장 댁에서(1948년).

많은 교세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에 공소에서는 주일학교를 따로 개설하고, 예비자 교리반을 조직하였으며, 연중 4차례의 대축일에는 버스 3~4대를 대절하여 도림동 본당의 미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평주일에는 흑석동에서 능고개(지금의 도로 위쪽 산에 있던 고개)를 넘어 노량진으로 가서 전차를 타고 영등포로 다녔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흑석동 공소는 이제 교구청에서도 인정하는 공소로 변모하였다.

다. 그리고 기성회 설립 1년이 지난 1949년 초에는 강당 건립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면서 대표 신자들을 선발하여 강당 부지의 매입을 교구청에 품신하였다. 그러자 교구청에서도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허락하였고, 신자들은 평소에 보아두었던 은로국민학교 맞은편의 적산(赤山)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때 매입한 부지는 1,050평으로 그 대금은 4만 5천 원이었다.

2. 본당 승격과 시련

1) 본당 승격과 6·25 사변

강당 부지의 매입과 함께 신자들은 본래의 계획대로 본당 승격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신자수는 물론 지역적으로 볼 때도 흑석동에 본당을 신설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당시 서울교구에서도 이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이러한 신자들의 원의를 수용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본당 설립에는 우선 본당 신부가 배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좀더 시기를 기다려야만 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에 활동하던 이상래(미카엘), 박규원(토마스: 1994년 현재 76세) 교

우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1949년 적산 부지를 임대하여 성당 터를 잡은 뒤 신자들은 본당의 박일규 신부와 협의하여 목조 강당이라도 건립하자고 결정했지요.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신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신자들은 조성희 회장의 고향인 용인 압고지 부근에서 좋은 나무들을 베어 오려고 표시도 해두었습니다. 물론 공공연히 나무를 벨 수 없었기 때문에 밤에 작업을 할 예정이었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본당 승격을 위해 노력하여 결국 교구청의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 성당을 건립하려던 계획은 6·25 사변이 발발함으로써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흑석동 공소의 이명용 기성회장과 조성희, 위정헌(韋正憲) 등은 자주 명동으로 주교관을 방문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노기남(盧基南, 바오로) 주교에게 신부를 배정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강당 부지를 매입한 뒤 1년이 지난 1950년 초에는 본당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었다. 그 동안 공소 신자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신자들의 활동도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50년 5월 9일(성신 강림 축일)에는 마침내 “흑석동 본당”의 신설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동일자로 신부 배정이 결정되어 주교관에서 휴양 중이던 유수철(柳秀徹, 도미니코) 신부가 초대 본당 신부로 부임하여 신자들이 임시로 빌린 낙양중학교(현 중앙대학교 부속 국민학교) 강당에서 축일 미사를 봉헌하였다. 이때가 흑석동 공소 설립이 이루어진 지 5년 만이었다.

신자들은 본당 승격의 기쁨을 얻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민도 있었다. 흑석동 공소에는 강당이나 사제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임시로 위정헌의 집 2층을 빌려 사제관으로 꾸민 뒤 유 신부를 이곳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기성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무 일체를 신부에게 위임하고, 일단 본당 자치 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를 기존의 기성회와 병합하여 새로 「흑석동 성당 건립 기성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곧 이어 발발한 6·25 사변으로 인해 모든 결실이 무너지게 되었고, 또 겨우 짝을 틔운 본당 공동체도 와해되고 말았으니, 신자들에게는 기쁨이 시련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2) 공소로 전락한 흑석동 본당

대부분의 본당 공동체가 그러했지만, 사변 후 1년 5개월 동안은 흑석동 공동체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더욱이 흑석동은 기초가 채 닦이기도 전인 본당이였으므로 기존의 본당들과는 달리 사변 후 재건할 길이 막히게 되었다. 그 와중에서 1952년 11월, 아직 서울이 수복되지 않아 포성이 들리는 가운데 흑석동 신자들은 도림동 본당의 제5대 주임인 김철규(金哲珪, 바르나바) 신부를 맞이하여



김철규(바르나바) 신부.

가을 판공성사를 보게 되었다. 이때는 이미 흑석동 본당이 폐지되고 그 공동체가 다시 도림동 본당의 공소로 격하된 상태였다.

이에 앞서 도림동 본당의 유수철 신부는 수복 지역인 경기도 서정리 본당으로 전임되었다. 그리고 초대 공소 회장이던 이의경 회장이 전쟁의 와중에서 사망함에 따라 제2대 공소 회장으로 조성희 회장이 선임되어 신자들을 이끌게 되었으므로 전란 후의 첫 판공성사는 흑석 3동에 있던 조성희 회장 집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때 공소의 총 신자수는 3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도림동 본당은 제4대 주임으로 이계선(李啓先, 레오) 신부를 맞이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울 수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는 결국 본당에 부임하지 못하였고, 1950년 11월에 서품을 받은 김창문(金昌文, 요셉) 보좌 신부가 대구 범어동 본당에 있다가 1951년 6월에 제일 먼저 상경하여 도림동 본당의 신자들을 돌보게 되었다. 김 신부는 주임 신부가 공식 중인 상황 속에서도 전쟁으로 파손된 성당 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1952년 7월 제5대 주임인 김철규 신부가 부임한 뒤 군중으로 입대하였다.

흑석동 공소에 다시 신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교우 가정들이 피난지에서 돌아온 1953년 봄부터였다. 그 결과 이해 가을의 판공성사 때는 많은 교우들이 성사를 보게 되었으며, 도림동 본당의 보좌인 장근실(張根

實, 비도) 신부의 권유대로 다시 「성당 건립 기성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아울러 공소 신자들은 전교 활동의 일환으로 주일학교를 재개하였는데, 당시 이를 도맡아 노력한 박규원 교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당시 공소의 주일학교는 주일마다 조성희 회장님께서 개설하였습니다. 그때 학생수가 약 120명 가량 되었는데, 집도 좁고 학생들도 고학년과 저학년이 섞여 있었으므로 상급반·하급반으로 나누어 오전·오후로 가르쳐야만 했지요. 이때 공소의 주일 학교에 나오던 학생들은 동작동, 흑석 2동의 비개 마을, 흑석 1동과 3동, 본동, 상도동 등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교리 문답 시험도 엄격했고 또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학생들이 아주 잘 따라 주었습니다.

또 공소에서는 주일학교와 함께 “부인 전교반”을 설립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주일학교 못지않게 열심이어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여러 명의 성인 예비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53년 성모 뭉소 승천 축일에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어른 영세자를 포함하여 도림동 본당 창설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인 24명의 새 영세자들을 흑석동 공소에서 탄생시키게 되었다. 이날 공소 신자들은 버스를 대절하여 영세 준비가 된 어린이들과 함께 도림동 본당으로 갔는데, “성당에 처음 가 보는 어린이들은 소

6·25 사변 직후의 김창문 신부와 도림동 본당 교우들.



성당 보수 공사를 마친 미 공병대와 도림동 본당 신자들(1951년 9월).



풍가는 것처럼 좋아했다”고 한다. 또 그때는 “신부님들이 신자들을 바라보고 미사를 집전한 것이 아니라 제대를 보고 미사를 집전하던 시절이라 어린이들은 실상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듯이 행동하였다”고 한다.

한편 동재기 공소의 신자들은 이 무렵 마을들이 모두 국립묘지 조성 구역 안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중 15가구만이 흑석동 비개 마을로 이주하여 합류하게 되었다. 이곳의 마지막 공소 회장은 흑석동 공소 동작동 분회장으로 있던 임종철(임종국 신부의 사촌) 회장이었다. 이에 따라 동재기에 있던 공소 강당과 신학교 별장도 헐리게 되었는데, 그 별장의 목재들은 청담동 공소에서 가져다 새 공소 강당을 짓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3. 성당 건립을 위한 노력

이렇게 공소가 다시 활성화되어 갈 무렵 신자들은 이경재(李庚宰, 알렉산델) 신부로부터 미군 군사 물자 원조처(A. F. A. K.)에서 사용하던 군수 물자를 복구 건설에 공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당시 이경재 신부는 성 라자로원에서 나와 도림동 본당의 임시 보좌로 있으면서 흑석동 공소를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각혈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인근에주둔하고 있던 「미 제52 의료 부대장」 캄톤(Camthon) 사령관이 이 소식을 듣고 구급차를 내주어 명동 성모병원에 입원시키는 한편 새로 나온 약들도 제공해 주었다. 여기에서 이 신부는 캄톤 사령관으로부터 미국의 전쟁 복구 원조 계획을 듣게 되었고, 이 사실을 흑석동의 조성희, 한웅길(韓雄吉) 회장에게 알려 주었다.

이 신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조성희 회장과 한웅길 교우 등은 1954년 1월 30일, 병원으로 이 신부를 방문한 뒤 흑석동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노량진 주둔 미 제52 의료 부대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신부가 와병 중이었으므로 당시 유학을 떠나기 전에 소신학교(小神學校) 교사로 있던 선배 최석우(崔奭祐, 안드레아: 현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신부에게 부탁하여 공소 성당 건립을 위한 자재들을 미군에 요청해 주도록 하였다. 그때까지 공소 시절인 1949년에 임대해 놓은 부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였다.

감톤 중령은 천주교 신자로 흑석동 공소의 성당 건립 계획을 들은 뒤 흔쾌히 지원 신청을 허락해 주었다. 이에 이틀 후인 2월 2일, 조성희 회장과 한웅길은 최석우 신부, 감톤 사령관을 옛 공소 때 임대해 놓은 은로국민학교 뒤편의 부지로 안내하였다. 그런데 이때 장발(張勃, 당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교수가 여기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는 미국에 있을 당시 감톤 사령관과는 친분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명수대 성당 건립에 많은 도움을 준 은인이었다. 그러나 이날 답사를 마친 사람들은 모두 이 부지가 성당 대지로는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성당 건립에 대한 신자들의 희망이 당분간 실현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성당 건립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이 계획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었다. 부지 답사팀들이 그곳에서 돌아오던 중 현재의 성당 터 앞에 있는 운동장을 둘러볼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이때 장발 교수가 '이곳이 오히려 성당 터로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당시 이곳은 서울교구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던 「한영방직」(영동포 소재)의 소유지였으며, 부지 크기는 지금의 유치원 마당에서 성당 앞의 일본식 2층집, 맞은편의 신 데레사 자매 대까지였다. 이에 대해 박규원 교우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지금의 유치원 자리는 당시 밭이었으나 운동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그 사이로 소로길이 있었습니다. 최 신부님, 감톤 사령관, 장발 교수, 그리고 공소 신자들이 그 길로 해서 교구 소유지, 즉 당시 한영방직 소유지를 둘러보게 되었는데, 이때 장발 교수가 현 성당 터 앞의 운동장이 적격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요. 그는 감톤 사령관과는 미국 체재시 학교 동기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최 신부님이 동조하여 신자들이 교구에 건의해 볼 수 있겠다는 조언을 줌으로써 신자들은 기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웅길은 위정헌(韋正憲) 교우의 친척인 김석관(金錫寬) 씨의 자부 이 씨에게 통역을 요청하여 여러 차례 노량진 미군 부대를 오가게 되었다. 당시 흑석동 공소의 교우수는 425명 정도로 다시 증가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신자들의 생활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경제적 여유도 없었으므로 새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상황이었다.

이에 신자들은 최 신부의 조언대로 주교관으로 노기남 주교를 찾아가

건의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 교구 부지를 공소에 분할해 주십사고 부탁하였다. 이러한 신자들의 정성에 감동하였던지 어느 날 노 주교님은 신자들과 한영방직 사장으로 있던 신인균(申麟均, 요셉) 신부를 불러 이에 대한 협의를 한 다음, 현재의 유치원에 있던 “운동장은 성당 대지로서 부적당하니 그 위쪽의 부지(현 성당 터)를 사용하라”고 결정해 주었다. 그 결과 유치원 일대에서 위쪽까지를 공소의 성당 건립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지 사용 허가를 얻은 신자들은 1954년 2월 5일자로 성전 설계도와 원조 신청서를 미8군 민사처에 제출하였으나, 3월 초순경에 원조 불가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제출한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을 경우 미군 군사 물자 원조처의 물자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의 설계도는 장발 교수가 직접 성공회 건물을 본떠 성당과 제의실 100평, 사제관·사무실·회합실 250평으로 꾸민 것으로 아주 미려한 구도를 지니고 있었다.

미군 민사처에서 원조 불가라는 통보를 받은 신자들은 할 수 없이 성당 설계를 다시 해야만 했다. 이때 장발 교수가 추천한 이희태(李喜泰, 당시 대한미술가협회 건축 위원) 씨가 새로 성당 설계도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를 미군 민사처에 제출한 결과 동년 4월 21일에는 마침내 원조 승낙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힘을 얻게 된 공소 신자들은 성당 건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갔다.

성당 건립 공사 전의 성당 터 모습.






제 2 편

명수대 본당의 설립과 안정

제 1 장 본당 설립과 성당 신축 / 75

제 2 장 본당의 정착과 신자들의 활동 / 95

제 3 장 본당의 안정과 변천 / 111



228

卷之二 雜著 論學

夫學之於人，猶水之於木也。木無水則枯，人無學則死。此理之顯明者也。然則學之於人，其重可知矣。然學之有法，亦不可不知也。夫學之法，在於博學而審問，切問而近思，多思而慎行。此學之要領也。若夫博學，則必求其博，不遺餘力。審問，則必求其審，不遺餘力。切問，則必求其切，不遺餘力。近思，則必求其近，不遺餘力。多思，則必求其多，不遺餘力。慎行，則必求其慎，不遺餘力。此學之要領也。若夫博學，則必求其博，不遺餘力。審問，則必求其審，不遺餘力。切問，則必求其切，不遺餘力。近思，則必求其近，不遺餘力。多思，則必求其多，不遺餘力。慎行，則必求其慎，不遺餘力。此學之要領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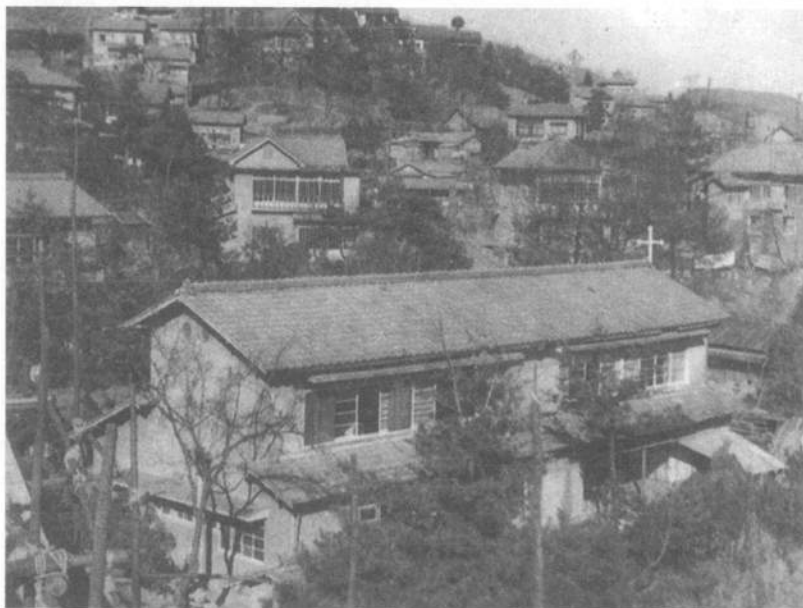
제 1 장 본당 설립과 성당 신축

1. 명수대 본당의 설립

성당 부지를 교구로부터 확정받은 후 설계도가 완성되고, 또 미군의 원조 승낙이 있게 되면서 흑석동 공소의 신자들은 많은 꿈에 부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힘을 얻어 본당 승격 운동을 계속 떠나가는 한편, 이를 교구에 자주 건의하였다. 당시 주교관을 오가며 본당 승격을 건의하는 데 힘쓴 신자들은 김 소화 데레사, 김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 이 글라라, 남 마리아, 인 데레사 씨 등이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신자들의 건의를 받게 되자 노 주교는 이 무렵 「고려방직회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후의 복구 사업에 따른 본당 신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흑석동 신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마침내 본당 승격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당시 미군에서는 원조 물자(목재, 시멘트, 못, 유리 등)를 신청한 사람이 아니면 이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었다. 그래서 노 주교는 그때까지 병원에 있던 이경재(李庚宰, 알렉산델) 신부를 휴양차 흑석동으로 보내면서 물자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노 주교는 1954년 5월 24일부터 시작되어 29일까지 계속된 교구 사제 피정 후에 '흑석동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한다'는 내용을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이렇게 하여 흑석동 공소는 동년 5월 29일 본당으로 승격되었으니, 그때의 명칭이 바로 "명수대 본당"(明水臺 本堂)이었고, 본당 주보는 "평화의 모후"였다.

이에 따라 이경재 신부는 6월 26일 명수대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사제관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임시로 성당 신축 부지 앞에 있던 2층 건물을 빌려서 위층은 성당으로, 아래층은 사제관 겸 사무실로 사용하게



작은 십자가가 걸린 임시 성당.

임시 성당 내부 모습과 이경재 신부.



되었다. 지금까지 박규원 교우가 소장한 사진을 보면, 최초의 성당 건물이자 사제관으로 사용되었던 이 건물은 일본식 양옥으로 정면 지붕에 작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고, 천주교회임을 알리는 작은 현판이 입구에 걸려 있었다. 본래 이 집은 두 집이 붙어 있던 것이었는데, 신자들이 벽을 헐어서 한 집으로 개조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때 교구에서 명수대 본당의 후보로 결정해 준 “평화의 모후”는 곧 “성모 마리아”를 호칭하는 명칭의 하나로, 이를 후보로 결정해 준 이유는 그 해가 바로 성모 성년(聖母 聖年)이었기 때문이다. 즉 이 해는 1854년에 비오 9세 교황이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의 교리 선포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서 당시 한국 교회에서는 1954년의 성모 성년을 맞이하여 한국 교회 전체를 성모 마리아께 봉헌하는 행사를 갖기도 하였다. 이 ‘평화의 모후’가 성모 호칭 기도에 정식으로 삼입된 것은 1917년 베네딕도 14세 교황의 교령에 의해서였다.

명수대 본당이 설립된 1954년 5월 29일, 본당의 관할 구역은 흑석동, 상도동, 사당동, 동작동, 본동, 노량진동으로 신자 총수는 약 440여 명이었다. 그 동안 이들은 도림동 본당으로 나가 미사에 참여하는 불편을 겪어 왔지만, 명수대 본당의 설립으로 이제 그 불편을 덜게 되었다.

2. 성당 신축과 축성식

1) 성당 건립 과정

이경재 신부는 본당에 부임하자마자 신자들과 협의하여 우선 6·25 사변 이후 재구성되었지만 활동이 둔화된 기성회를 다시 조직하였다. 그러나 본당으로 승격된 마당에서 기존의 명칭이 합당하지 않았고, 또 본당 신자들의 협의회 구성도 이 조직에 포함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성당 신축 위원회”로 바꿨다. 성당 신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동시에 본당 활동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이때 구성된 신축 위원회는, 회장에 한웅길(韓雄吉, 중앙대학교 정경 대학장), 부회장에 이종후(李鍾厚, 한영 방직 근무), 총무 위원에 조성희(趙聖熙, 작고), 재정 위원에 윤경중(尹景重), 기술 위원에 원두연(元斗淵), 사업 위원에 김교협(金教協, 작고), 동원 위원에 홍순규(洪淳奎, 비판 신문

사 근무)·위정헌(韋正憲, 봉헌당 한의원 원장)·왕세영(王世榮, 작고)·김중환(金鍾煥) 등이 선임되어 곧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성전 건립 사업은 우선 위쪽에 있던 쓰레기장을 없애면서 대지를 고르는 정지 작업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장면(張勉) 박사는 미군 제172공병대에 부탁하여 불도저 2대와 트럭 및 장비 등을 지원받았고, 본당 신자들도 여기에 동참하였다. 그 결과 1개월 간의 작업을 마무리짓고 1954년 8월 1일에는 현지에서 이경재 본당 신부의 주례로 기공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 무렵 본당의 교우 총수는 132세대에 457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일치 단결하여 성당 건립에 참여하였는데, ‘출근하며 들리고, 퇴근하며 들리자’는 것이 모두의 구호였다.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려는 마음이 모든 신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규원(朴奎遠, 토마스) 교우와 한복순(韓福順, 데레사) 교우는 다음과 같이 그때의 보람을 증언하고 있다.

모든 신자들이 참으로 내 일같이 참여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관악산 줄기(지금의 남태령 고개 옆의 개천 부근)에서 바위를 실어 왔고, 어떤 신자들은 미군 트럭을 이용하여 한강에서 모래를 퍼날랐습니다. 부인들은 이 바위를 깨서 자갈로 만들고, 한편에서는 축대를 쌓고, 또 흙을 손수레에 담아다 땅을 고르게 하는 일도 했습니다. 학생들도 방과 후나 주일이면 모두 한 차례씩 현장에 들러 일을 돕곤 했지요. 바로 이러한 정성이 초기의 본당을 본 궤도에 올려놓았고, 성전을 짓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소장되어 있는 당시의 사진들을 보면, 부녀자들이 몸빼(부

미국의 한국 재건 원조에 의거해(표지판),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미군 부대의 불도저.



인용 바지)를 입고 철로 위로 흙 마차를 미는 모습이 아주 감명 깊게 나타나 있다. 이때 철로는 본래 철도 설치 작업에 종사해 왔던 김종환(토마스) 회장이 아래쪽의 흙을 위쪽으로 나르는 데 이용하기 위해 고안한 것인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또 김 토마스 회장은 성당이 건립될 자리에 쌓은 축대 작업을 도맡아 지휘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건립 기금도 정성스럽게 마련되었다. 신자들은 패물과 옷가지 등을 팔아 건립 기금에 보태기도 하고, 어느 여성 신자는 자신의 회갑연 준비금을 모두 회사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벽안의 미군 병사인 즈베버 중사는 시간이 나는 대로 공사장을 찾아와 흙과 돌을 날랐고, 푼 푼이 모은 2,000불의 성금을 봉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1955



이경재 신부와 즈베버 중사. ▶
 즈베버 씨에게 감복을 주는 동생 베네딕도 ▼
 신부(옆의 세 수녀들은 그의 자매들이다).



년 제대 후 다시 한국을 찾아 미국 관리로 일하던 중 1956년 8월 5일, 광나루 유원지에서 익사 직전의 사람을 구조하려다 오히려 익사하는 참변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이 소식을 들은 본당 신자들은 그의 정성을 기억하며 추모해 주었다고 한다.

본당에서는 이때 성당과 함께 사제관을 건립하였다. 그 위치는 현재의 사제관이 있는 성당 위쪽에 있었는데, 당시 사제관 건립에는 성당 경계선 안에 있던 일본식 가옥을 헐은 목재가 이용되었다. 박규원 교우는 이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당시 교구에서 인정해 준 성당 구역 안에는 몇 채의 가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교구에서 모두 팔아 버리고 당시에는 현재의 성당 입구 쪽에 있던 한 채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된 집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신자들이 협의한 결과 이왕 성당을 신축하는 마당에 사제관도 짓기로 하고, 그 집을 헐어서 나온 목재로 새 사제관을 짓게 된 것이지요.

2) 성당 완공과 축성식

성당은 기공식을 가진 뒤 10개월이 되면서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고, 이에 본당에서는 1955년 5월 30일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후 이경재 신부와 신축위원회에서는 교구와 협의하여 축성식 날짜를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이때 성당 안에 설치할 성물들은 이경재 신부와 장발 교수의 지시로 각 전문가들이 맡았으며, 프랑스 화가의 도움으로 제대 정면 위에 설치할 벽화도 완성하였다. 특히 이 벽화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를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본당이 설립된 지 1년 2개월 만인 1955년 7월 31일, 마침내 신자들은 성전 축성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미사는 노주교가 집전해 주었고, 내빈 및 신자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봉헌식이 거행되고, 이어 축하연도 열렸다. 또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행사였으므로 신자가 아닌 주민들도 이를 구경하러 왔었다. 본당 신자들은 봉헌식이 거행되는 동안 내내 기쁨에 젖어 있었고, 자신들의 힘으로 건립한 성전을 바라보며 많은 보람을 가졌다. 당시 《경향잡지》에서도 명수대 성당의 완공과 봉헌식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 명수대 성당에서 AFAK의 원조 물자를 얻어 착공한 성당 신축 공사가 순조롭게 준공되어 지난 7월 31일 주일, 오전 10시에 노기남 주교께서 강복식을 거행하시고, 뒤이어 낙성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120평의 아름다운 현대식 건물은 주민들의 주목을 끌고 있어 입교자가 격증할 형편이었는데, 이곳에 자리잡고 있는 성모 수녀회의 협력이 클 것이므로 장래가 유망하리라 한다.

새 성당 부지는 모두 1,755평이었으며, 여기에 120평의 성당 건물, 50평의 사제관, 20평의 부속 건물이 자리하게 되었다. 또 그 동안 소요된 공사비는 897만 원이었고, 이를 위해 연인원 1,230명의 신자들이 피와 땀을 흘려야 했다. 그 형태는 종탑이 정면 우측에 위치하면서 성당이 동서로 놓인 형태였는데, 다른 성당에 비해 현대적 감각을 살린 특이한 모양을 갖추었다. 그래서 처음 이 성전을 본 노기남 주교는 ‘극장 같다’고 느낌을 말하기도 하였다. 그 크기에 대하여는 신자들이 대체로 큰 편이라는 의견이었지만, 앞으로 증가할 신자수를 예상한다면 오히려 작다는 의견도 있었다.

명수대 성당 축성 헌시(獻詩)

이 성전(聖殿)에 드시옵소서

유 카리스타 수녀

어이 이다지 가슴이 메나йка
 벽공(碧空)에 드높이 솟은 그 자태가!
 어이 이다지 안개에 어리나йка
 아침 햇발에 찬란히 빛나는 저 十字架가!

주여!
 올 날이 비로소
 오늘에 왔나이다.

사람의 손으로 된 장막을 마다시는 주여!
 이제 내 심혈(心血) 다한 성전 안에 드시옵소서.

머언 옛날 네 성심(聖心)이
 우리에게 대한 무한한 사랑 위해
 피와 물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으신 주여!
 이제 내 다 쏟아진 심신 간직하옵소서.

'나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한 풍성히
 얻기 위하여 왔노라' 하신 주여.....
 너 오늘 지성소(至聖所)에 생활한 샘 이루소서,
 목마른 영혼의 갈증 풀옵소서.

영원히 영화로운 승리자시여
 '세상 마칠 때까지 항상 너희와 같이 있겠노라' 신
 그 말씀 거듭 거듭 들려 주소서.

이 성전 안에 무릎 꿇고 합장하는 무리 위에
 그 자비와 사랑의 손길 펴소서.

주여!
 올 날이 비로소
 오늘에 왔나이다.

3) 성당 내부와 부속 시설

당시 명수대 성당은 현대적 감각을 살린 외부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의 미술품, 그리고 종탑에 설치한 종(鍾) 3개 또한 자랑거리였다. 그래서 1959년 3월 8일 교황 사절 아가지니안 추기경이 한국을 방문하자, 교구에서는 그에게 명수대 성당을 소개하고 여기에서 미사를 봉헌해 주도록 하였다. 이 교황 사절의 본당 방문은 당시의 신자들에게 또 하나의 기쁨과 보람을 안겨 준 사건이었다.

우선 성당 내부에 장식한 미술품으로는 성당 내부 제대 앞 벽에 그려진 벽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가 마리 바라জে 여사

그때를 되돌아보며...
성당 건립





1954年10月20日
 明水大 本堂 建設 現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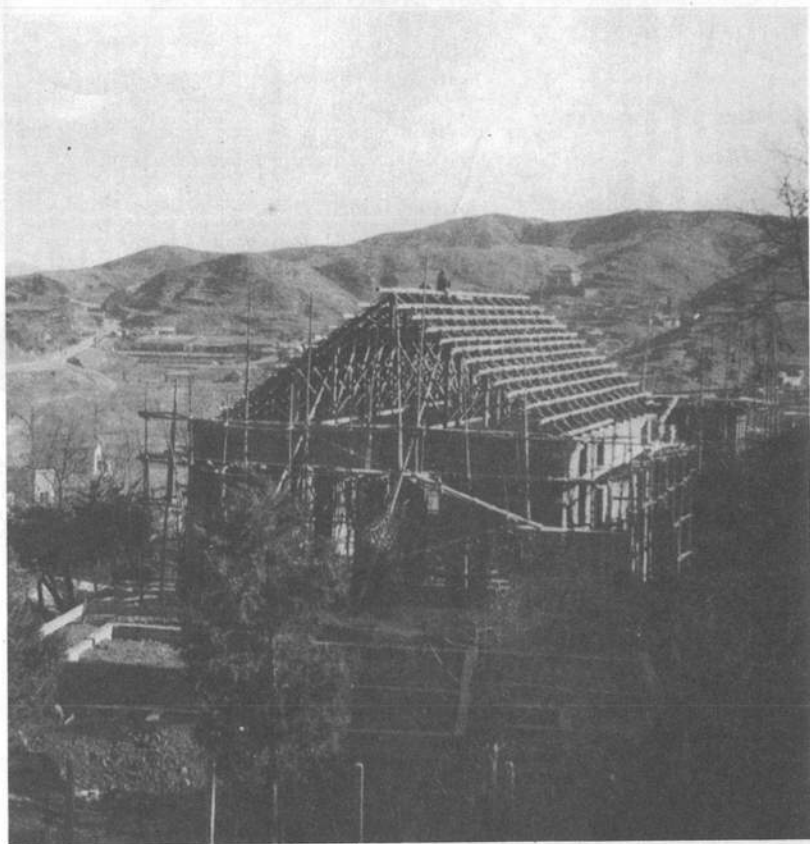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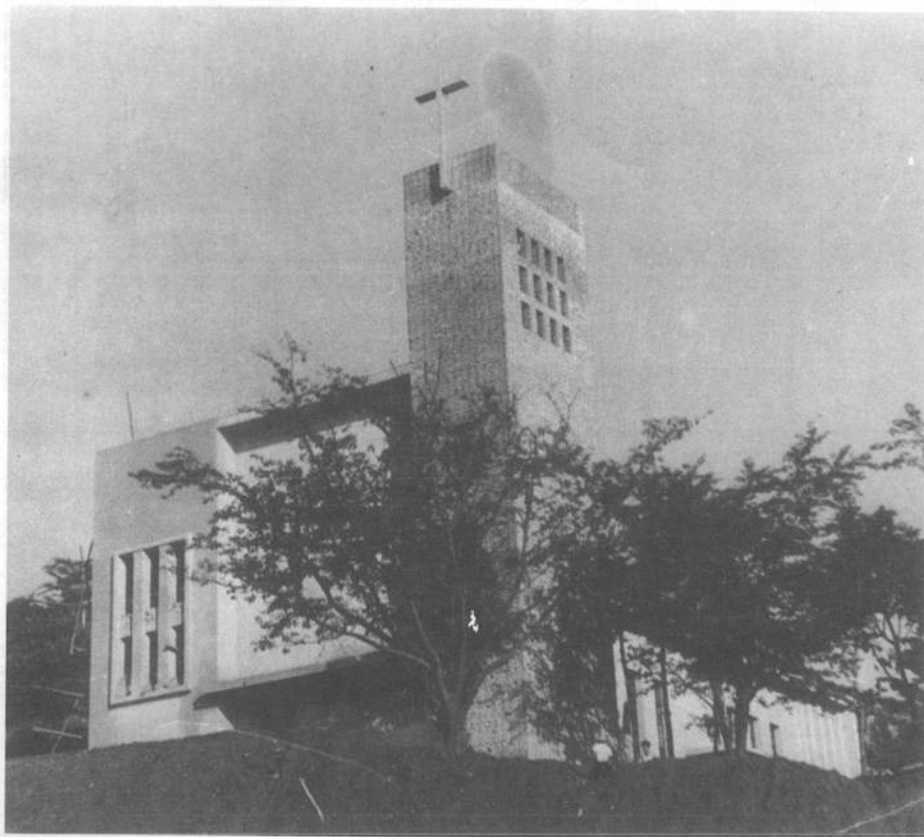






▲ 신축된 사제관의 모습.





- ▲ 본당 신자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명수대 본당.
- ◀ 《경향잡지》 제1097호 (1959년 8월호)에 게재된 명수대 본당 관련 기사.



▼ 낙성 기념 사진. ▲ 축성식을 집전하는 노기남 주교.



가 1959년 각국을 순방하던 중 한국에 왔을 때 명수대 본당을 택해 그린 것이다. 그리고 성당 안의 대형 십자가와 제대 옆의 성모상, 예수 성심상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김세중(金世中) 교수, 대리석 성수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이순석(李順石) 교수의 작품이었다. 이 밖에도 79위 순교 복자의 모자이크는 남용우(南溶祐) 화백(당시 독일 유학)이, 고해소 위의 성모님 모자이크와 14처 성화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김교만(金敎滿) 교수와 권순형(權純亨) 교수가, 제대 왼쪽의 김대건 신부 그림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장우성(張遇聖) 교수가 각각 완성한 작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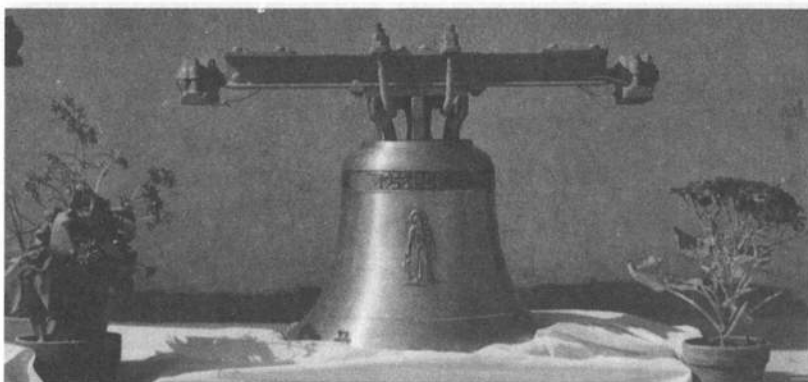
이와 함께 본당에서는 1959년 3월 15일, 노기남 주교의 집전으로 서독에서 주문해 온 종 3개를 축성하였다. 이 종들은 각각 “예수·마리아·요셉”으로 명명되었는데, 이처럼 한 종탑에 세 개의 종을 달아 화음을 맞춘 경우는 서울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 당시 《경향잡지》(1959년 4월호)에서도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 종들은 익명의 신자가 기증한 대종(大鍾), 만 세 살이 안된 유 빅토리노 유아가 기증한 중종(中鍾), 조 아가다 여사가 기증한 소종(小鍾)으로, 종의 주보를 ‘예수·마리아·요셉’으로 각각 명명해서 성가정을 상징하였다. 또 이 종들의 음이 모두 달라 ‘도·미·파’라고도 한다.



명수대 본당을 방문한 아가지니안 추기경.





익명의 신자가 기증한 '예수님의 종'.



노기남 주교의 집전으로 거행된 종 축성식.
중종과 소종을 기증한 유 빅토리노와 조 아가다 여사.



이 종이 서독으로부터 도착할 때까지 본당의 이경재 신부와 신자들의 노력은 매우 컸다. 머지 않아 이 종들은 아가지니안 추기경께서 본당 방문시에 하사하신 금액으로 설치한 종각에 올려질 것이고, 오는 부활 침례를 계기로 그 아름다운 화음을 내게 될 것이다. 이로써 인천 답동(踏洞) 성당, 경북 김천(金泉) 성당과 함께 서울에서도 세 가지 음을 울리는 종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본당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부속 시설을 하게 되었다. 우선 1958년에는 42평의 수녀원 건물을 매입하고, 다음해에는 사제관 별관으로 사용할 건물(대지

42평, 연건평 72평)을 47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것은 본래 새로 건립할 사제관 뒤쪽에 있던 개인 주택이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성당과 사제관이 모두 내려다보이기 때문에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하여 매입한 뒤 기존의 사제관과 통로를 연결하여 한 집처럼 사용하게 되었다. 그 후 이곳에는 주로 손님 신부 또는 신학생들이 거처하였다.

또 신자들은 1959년 8월 29일 조각가 김세중 씨가 화강암으로 만든 예수 성심상(지금 성당 앞에 안치되어 있는 상)을 성당 정문 뜰에 안치하고, 노기남 주교의 주례로 본당을 예수 성심께 바치는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당시 이 상은 높이 9척 5촌으로 국내에서는 가장 큰 석상이었다.



예수 성심상을 기증하는 김세중 교수.

제 2 장

본당의 정착과 신자들의 활동

1. 본당 정착을 위한 노력

1) 정착을 위한 기초 작업

성당을 완공한 뒤 본당에서는 그 정착을 위한 노력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축성식 후 이경재 신부가 구성한 회장단과 구역반 편성이 첫째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이 신부는 조영태(바시리오)를 초대 총회장으로 임명하고, 아울러 초대 회장단(지금의 구역장단과 같음)과 반장단을 조직하였는데, 그 내용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1960년 2월 7일이다. 그러나 조영태 총회장이 이미 1954년 무렵에 임명되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회장단 조직 또한 1960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 총회장 : 조영태(바시리오)
- 흑석 1동 (회장) 오 마리안나, 윤 요셉, 양 안토니오
(반장) 박 막달레나, 정 세시리아, 이 모니카
- 흑석 2동 (회장) 왕세영(프란치스코)
(반장) 진 마리아, 홍 막달레나
- 흑석 3동 (회장) 이 아우구스티노,
(반장) 김 엘리사벳, 남 마리아, 윤 헬레나
- 본 동 (반장) 임 막달레나, 홍 데레사
- 노량진동 (회장) 서 마티아
(반장) 이 마리아, 신 데레사
- 상 도 동 (회장) 장 루가
(반장) 권 마리아, 오 심포로사, 박 막달레나



초창기의 주보 <검은 돌> 모습.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신자들 스스로 편집 발간한 본당 주보이다. 1960년 2월 7일자로 창간된 본당 주보 <검은 돌>(黑石)은 25×15cm 크기에 4면으로 발행되었고, 만화가 안의섭(安義燮) 씨는 신자가 아니면서도 창간호에서부터 1961년 4월 2일까지 수십 회에 걸쳐 '검돌이'라는 만화를 무료로 기고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 표지 색깔을 푸른색(1~3호), 자색(4~10호), 주홍색(부활 시기) 등으로 구분하여 축일과 계절에 맞도록 세심히 배려하였다. 이후 이 주보는 본당 소식지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자 활동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1961년에 들어 본당에서는 첫 사업으로 '본당 연혁사'의 편찬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에 1월 1일자로 신태민(申泰旻), 조성희, 윤경중, 탁한관(세바스티아노), 박해향 등 5명을 편찬 위원으로 임명하고 자료 수집에 나서는 동시에 편찬에 착수하였지만, 이 계획은 아쉽게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초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계획했다는 사실 자체는 신자들이 얼마나 본당에 애착을 가지고, 또 당시의 활동상을 후대에 남겨 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신자들이 합심하여 본당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데 모두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58년 2월 15일, 한 도둑이 성당의 감실 문을 파괴하고 그 안에 든 성함과 제의실의 다른 성함까지 훔쳐가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 도둑은 냉담자로 훗날 체포되었다. 그러나 본당 신자들은 물론 교구청에서도 이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신자들은 사건 직후부터 곧 보상 기도를 하면서 철제 감실과 성함을 새로 장만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때 어떤 신자들은 은수저·금비녀·금반지 등을 내어 그 보상 행위에 동참하고,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본당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2) 전교 활동과 성소

초창기부터 본당에서 노력한 또 하나의 사업은 바로 전교 활동이었다. 앞서서도 말한 것과 같이 이미 공소 시절부터 전교와 예비자 교리에 힘써 온 신자들은 본당 승격 이후에도 꾸준히 전교 활동에 힘써서 설립 당시 400여 명에 지나지 않던 신자수가 1956년에는 이미 1,000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꾸준히 신자수가 증가하여 1960년 2월에는 2,880명(남자 1,254명, 여자 1,626명)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해 말에는 3,158명(남자 1,415명, 여자 1,743명)을 기록해서 당시 서울 시내 본당 가운데에서는 가장 빠른 교세 증가를 나타내게 되었다. 기록을 통해 보면 1954년에서 1960년까지의 영세자수는 1,319명, 1960년 한 해의 영세자수는 216명으로 나타난다.

교리 교육 또한 초창기 본당으로서는 잇을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당시 본당에서 실시한 교리 교육의 성과는 서울교구 주최 교리 경시 대회에서 거둔 우수한 성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경재 신부 재임 시절 본당에서 이 교리 경시 대회에 참가한 것은 모두 네 차례였다. 즉 1957년 10월 27일 제2회 대회에서는 단체상 우승 및 개인상 2등·3등, 1958년 11월 2일 제3회 대회에서는 단체상 3등, 1959년 11월 8일 제4회 대회에서는 단체상 우승 및 참가 2등상, 1960년 10월 30일 제5회 대회에서는 단체상 우승 및 개인상 1등·2등, 참가 2등상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때 이 신부는 1960년 만국 성체 대회(萬國聖體大會) 참관 후 귀국하면서 우선 교리 경시장으로 달려가 신자들을 응원하는 열성을 보였다. 특히 1960년에 개인상을 탄 김



당시의 영세 및 첫영성체 기념 사진.

승자(루시아), 이상중(뵐리 까르뵐)은 이듬해 3월 ‘교황 강복장’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 무렵의 본당에는 성소를 많이 얻게 되었다. 우선 신학생의 경우를 보면, 1960년 말 철학과에 다니는 대신학생은 주상배(朱尙培, 안드레아), 양홍(楊弘, 에우세비오) 등 네 명이고, 소신학생은 나원균(羅元均, 바오로) 외 다섯 명이었다. 또 수도자 성소로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수녀인 조용주(엠마누엘) 외 수련자 1명, 청원자 6명이 있었다. 또 이 무렵 본당에서 노고가 많았던 김득권(金得權, 굴리엘모) 신학생이 1961년 3월 18일에 서품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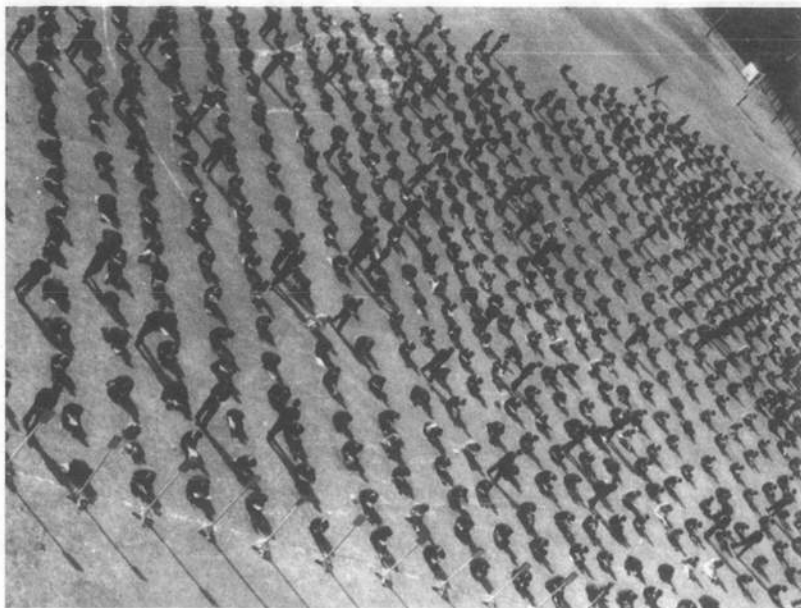


명수대 본당 출신의 신학생들과 소신학교 졸업 기념(1960년 3월 5일).

2. 평신도 단체의 활성화

1) 활동 단체의 설립과 변모

본당의 평신도 단체는 초창기부터 하나 둘 생기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여성 신자들은 1955년 5월 1일 부인회를 조직하고 그 명칭을 “성모회”(聖母會)라 하였다. 여성 신자들이 이 단체를 설립한 목적은 성모 신심을 돈독히 하면서 성전 건립에 동참하고, 성당 신축이 무사히 이루어지도록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려는 데 있었다. 당시 성모회의 초대 회장으로는 박 마리아가 임명되었고, 부회장에 김 데레사, 총무부장에 한 데레사, 재무부장에 최 살노메, 전교부장에 김 엘리사벳 등이 각각 선임되어 활동하였는데, 그에 관한 아름다운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리 경시 대회 전경.

단체상 우승 및 개인상 2·3등의 성과를 거둔 제2회 대회.





단체상 우승 및 참가 2등상을 차지했던 제4회 대회.

단체상 우승 및 개인상 1·2등의 성과를 거둔 제5회 대회.



저는 지난(1955년) 5월 1일 아침 찬연한 햇빛에 포근히 안겨 이 고요하고 아담한 명수대 언덕 위에서 처음으로 아름답고 파란 하늘을 우러러보게 된 작은 곳입니다. 착하고 충실한 61명의 여성 신자들이 한마음같이 뭉쳐 서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저를 아껴 키워 주고 있습니다.

가장 순결하신 성모님을 따르려는 그들은 나를 '성모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매월 첫 주일이면 가슴 위에 파란 회장(會章)을 차고 단체 영성체를 하며, 매월 첫 토요일에는 그들의 아름다운 꿈의 실현을 위해 토의합니다. 또 배상 영성체반을 조직하여 배상 영성체를 계속하고, 매월 첫 목요일에는 캄캄한 성당의 빨간 성체 불 앞에 모여 성시간(聖時間)을 바칩니다.

또 성모회는 1957년 성당 구내(현 유치원 자리)에 '무료 급식소'를 설치하면서 이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 무료 급식소는 당시 「가톨릭 구제회」(N. C. W. C)에서 구호 물자를 보급해 주게 되자 극빈자를 대상으로 일시 개설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모회는 이후 일시 침체되었다가 훗날 다시 부활되었다.

이에 이어 1959년 가을에는 본당의 가정 주부들로 구성된 "흰나리 클럽"이 발족을 보게 되었다. 이 클럽 회원들은 발족과 동시에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다음해부터는 인형 만들기 강습, '40일 봉제와 가정 주부'라는 주제로 강연회 개최, 교양 강좌 등을 통해 회원들간의 친교를 돈



밀가루를 배급하던 무료 급식소.

독히 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리고 본당 행사에서 그 뒷바라지를 하는 데도 열성을 보였다.

주부들의 모임이 있는 다음 1960년에는 장년들의 모임도 생겨났다. 이 모임은 이해 3월 27일 창립 준비위원회를 거쳐 우선 '2·7회'라는 가칭으로 설립되



초창기 "흰나리 클럽" 회원들.

었는데, 그 후 몇 차례의 모임을 거친 끝에 5월 8일에 "명수회"라고 명칭을 결정한 뒤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회에서는 특히 본당의 중요한 행사에 적극 봉사하면서 당시 본당에서 개관한 도서실과 이를 중심으로 활동한 중·고생들의 모임인 '에덕 도서회'를 여러 측면에서 후원하였다.

본당에서는 1954년부터 "청소년 연합 성가단"을 조직하여 미사 전례에 참여하고, 1955년 봄부터는 김대봉(金大鵬) 씨의 지도로 몸과 마음을 모두 성전 건립에 바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해 5월 초에 합창 미사곡 네 권을 합본하여 발행하였는데, 그 미사곡 중에는 서독의 합창곡에서 직접 번역하여 처음으로 한국 천주교회에 소개된 곡들도 있었다. 이후 이 성가단은 1960년 그 이름을 "명수대 가톨릭 합창단"으로 개칭하고, 홍 베드로와 신태민(토마스), 김린완(요셉), 김채규(테클라) 등을 주축으로 활동을 계속하였다. 다만 그 와중에서 이해 2월에는 익명의 신자가 기증한 오르간의 건반을 도둑맞게 되자 모금을 통해 7월 17일에는 다시 서독에서 전자 오르간을 구입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젊은 층에서는 "학생회"를 조직하여 주일 학교 등 본당의 활동에 동참하였다. 당시 이 회의 초대 회장으로는 전 마리시오가 임명되었고, 부회장에 김 이나시오, 이 요안나, 총무부장에 김 알풍소, 문화부장에 이 아나타시아, 체육부장에 김 돈보스코가 각각 선임되었다. 그리고 성당 축성식 바로 전인 1955년 7월 1일에는 「숙명여대 가톨릭 연구회」(100여 명)와 「중앙대 가톨릭 연구회」(50여 명)가 본당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당시 이 두 연구회에서는 명수대 본당을 연락처로

삼는 동시에 이 신부를 지도 신부로 모시고 활동하였으며, 성당 건립시에는 봉사 활동도 펼쳤다.

그 후 이 신부가 「수도 의대 가톨릭 학생회」의 지도 신부가 되자 이 단체의 학생들이 본당의 미사에 참여하곤 하였다. 그 밖에 본당의 학생회로는 1960년 2월에 결성된 여대생 모임인 “까리타스 클럽”, 같은 해 4월에 결성된 “샘터 미화반”(고등학생회), 7월 3일에 설립된 “비올라회”, 7월 31일에 발족된 “남자 중학생회”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한동안 활발하게 활동을 펼쳤으나 회원들이 교체되면서 모두 해체되고 말았다.

2) 레지오 마리아의 설립과 성장

이 당시 무엇보다도 특기할 만한 사실로는 “레지오 마리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서울교구 안에서 최초로 도입된 명수대 본당의 레지오 활동은 1955년 8월 19일 ‘평화의 모후 Pr.’(단장: 신태민 토마스)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이 레지오는 1953년 5월 31일 목포 산정동 본당에서 첫 뿌레씨디움이 탄생한 지 2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광주교구장이던 헨리(Henry, 玄海) 헤롤드 신부와 성의 중고등학교 교장이던 김성환(金成煥, 빅토리오) 신부가 직접 본당에 와서 설립한 것이었다.

레지오 활동은 그 후 이 신부의 지도로 활성화되어 갔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울 시내 각 본당에 레지오를 보급하는 한편, 여러 학교에도 소년·소녀 뿌레씨디움을 설립하였다. 또 명수대 본당의 레지오는 1958년 2월 1일에 설립된 ‘오묘한 매피 Pr.’(단장: 전 요셉), 같은 해 5월 1일에 설립된 ‘사랑하오신 모친 Pr.’(단장: 김



1956년 5월 18일, 레지오 참단을 위해 흑석동을 방문한 헨리 신부.

발바라), 11월 30일에 설립된 '성실하신 정녀 Pr.'(단장:윤상돈 바오로)의 설립으로 이어지면서 성모님의 군대로서 정기적인 주회, 환자 방문, 전교 활동 등을 통해 중요한 신심·활동 단체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이 명수대 본당의 레지오 마리아는 서울 레지오 마리아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 그 결과 1957년 1월 29일 혜화동 본당에서 '상지의 좌 Cu.'(단장:이해남 요셉)가 설립되고, 1959년 3월 15일에는 명수대 본당에서 영등포 지구 '평화의 모후 Cu.'(단장:장대훈 루가)가 설립을 보았으며, 이것이 1960년 5월 29일 '서울 무염 시대 Co.'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당시 명수대 본당에 소재지를 둔 평화의 모후 꾸리아는 소사·수원·대전 등지에 설립된 빠레씨디움들까지 산하에 두었고, 1959년 12월 13일 처음으로 수원·양지 지구의 '천지의 모후 Cu.'를 분단한 이후 1983년까지 도림동·봉천동·사당동·반포·상도동 본당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 이남의 여러 꾸리아들을 분단하게 되었다. 한편 평화의 모후 꾸리아 단원들은 1960년 2월 12일 처음으로 연총 친목회를, 5월 1일에는 처음으로 아치에스 행사를 실시하고, 이해 7월 17일에는 산하 13개 빠레씨디움이 함께 모여 봉쇄 피정을 개최하였다.

한편 본당에서는 1958년 2월 2일 '인자하신 정녀 Pr.'(단장:심 글라라)이 최초의 소년·소녀 빠레씨디움으로 생겨났다. 그리고 이어 같은 해 2월 4일에 '천주의 성모 Pr.'(단장:김 루시아)이, 3월 30일에는 '종도의 모후 Pr.'(단장:조 리카르도)이, 1959년 4월 5일에는 '치명자의 모후 Pr.'(단장:박 마리아)이 각각 설립되었다. 이후 이들 네 개의 소년·소녀 빠레씨디움은 후암동 본당에 소재지를 두고 있던 "하늘의 모후 소년 Cu."(단장:마 미카엘)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본당의 레지오 단체는 초창기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그 활동과 조직이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족되었던 각 빠레씨디움들은 이후 재정립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우선 1956년 7월에 설립된 '다윗의 정후 Pr.'은 이후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자진 해산되고, 1960년 4월 11일에는 '오묘한 매피 Pr.'이 '자비의 모친 Pr.'으로 개칭되었다. 또 같은 해 12월 9일 '오묘한 매피 Pr.'(단장:탁한관 세바스티아노)이 재설립을 보고, 12월 11일에는 '성실하신 정녀 Pr.'이 회원들의 사정으로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평화의 모후 꾸리아 피정(1959년 1월 17일).
레지오 선서식 모습.





학생 레지오 주회 모습.

하늘의 모후 소년 꾸리아 제2회 피정(1959년 7월 26일).





1960년경 회합 후 이경재 신부와 함께한 소녀 브레써디움 단원들.

1960년경 예수 성심상 앞에서 소년 레지오 단원들과 함께한 이경재 신부.



이와 같은 변화를 거쳐 본당의 레지오 단체는 1961년에 들어 어느 정도 정착을 보게 되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1961년 1월 현재 각 뿌레 씨디움은 평화의 모후 꾸리아 소속인 평화의 모후, 자비의 모친, 오묘한 매괴 등과 하늘의 모후 소년 꾸리아 소속인 종도의 모후, 천주의 성모, 인자하신 정녀, 치명자의 모후 등 모두 일곱 개였다.

3. 성모 수녀회와의 관계

명수대 본당에서 성전 완공을 위해 한창 노력할 무렵 이웃에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 수녀회는 본래 평양에서 창설된 방인(邦人) 수도 단체로, 6·25 사변 당시 부산으로 피난하였다가 명수대 성당 인근에 본원 부지와 건물을 구입한 뒤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 수녀회는 이때부터 명수대 본당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신자들의 기억 속에도 언제나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다. 특히 수녀원 초창기에는 명수대 본당의 주일 학교 운영, 부인회 활동, 예비 신자들의 지도 등에 많은 내조를 해주었다. 더욱이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에서 1961년 10월 주 칸디다 수녀를 본당에 파견한 다음부터 수녀들을 파견해 주어서 그 인연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다만 주보 기록에서 볼 때 본당에 처음 수녀가 파견된 것은 제2대 조인환(曹仁煥) 신부 때로, 이경재 신부 재임기인 1960년 8월 강순분(姜順分, 콘실리아) 수녀가 부임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강 콘실리아 수녀의 실제 부임은 조인환 신부 재임기인 1962년 7월 15일이었다. 또 이와 관련하여 1960년 12월 12일 한국에 첫발을 내디딘 「성 바오로 여자 수도회」 수녀들이 이튿날부터 본당에 머물렀으나, 이것도 임시 거처에 지나지 않았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가 일본인 별장이던 목조 건물로 이사해 온 것은 1955년 4월 19일이었다. 이때 수녀회에서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몇몇 수녀 외에는 모두 서울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본원인 이곳에는 모두 30여 명이 거주해야만 했다. 그래서 이웃의 2층 목조 건물 1동을 추가 매입하여 수리하고, 6월 14일에는 “성 마리아 의원”을 개원하였다. 이 의원은 개원 즉시 신자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이곳을 찾는 환자가 날로 급증하게 되었다. 이어 수녀원에서는 1955년

9월 본원 1차 증축 공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장선홍(張善興, 라우렌시오 : 장대익 신부의 삼촌) 신부가 거처할 집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장소가 여전히 비좁았기 때문에 다음해에는 다시 2차 증축 공사를 하여 본원을 80여 평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다만 이때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래 수녀원 본원으로 사용하게 된 집 뜰에는 유명한 '대동 우물'이 있었고, 이웃 주민들이 이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수녀회가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경내를 폐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주민들이 이 우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불만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그 후 이 우물은 수녀원 증축과 함께 묻혀지고 말았고,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성 마리아 의원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 병원'으로 개칭한 뒤 1962년 가톨릭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으로 지정되었다가 이듬해 일시 부속 병원에서 제외되었다. 그렇지만 병원 자체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이에 수녀원에서는 현 본당 유치원 뒷편의 목조 2층을 인수하여 병원을 1차로 확장하였다. 이 병원은 1967년 다시 의학부 부속 병원으로 편입되면서 동시에 흑석동 177-8번지(현재의 수녀원 및 성서 대학 위치)에 새 건물을 신축하여 1980년 폐원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그 동안 수녀원 본원에서는 수련소를 개설하는 한편 그 한쪽에 성체를 옮겨 모시고 경당을 꾸몄다. 그러다가 1962년 정릉(貞陵)에 새 부지를 불하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시설을 하나씩 그곳으로 옮겼고, 1964년 9월에는 수련소를 위시하여 본원 자체가 그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병원에 근무하는 수녀들은 계속 명수대 본당을 찾아서 신앙의 유대 관계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또 수녀회에서는 정릉으로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1963년 1월 28일에는 본당에 성광을 기증하기도 하였다.

제 3 장 본당의 안정과 변천

1. 조인환 신부의 부임

초대 본당 신부로 부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착을 이루어낸 이경제 신부는 1961년 3월 교구의 인사 발령으로 본당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심혈로 이루어진 본당 공동체의 정착은 실로 눈부신 것이었다. 성당 건립은 물론, 구역·반 체제의 정립, 신심·활동 단체의 조직, 부대 시설의 확보, 레지오 마리아의 창설 등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데가 없었다.

그의 뒤를 이어 제2대 본당 주임으로 부임한 목자는 조인환(曹仁煥, 베드로) 신부였다. 그는 용인 본당의 초대 주임으로 활동할 때 성당을 건립하면서 본당의 초석을 닦은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명수대에 부임하자마자 우선 반별로 가정 방문을 하면서 신자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조인환 신부 환영식.



전임 신부의 사목 계획을 이어 나가는 한편, 본당 조직 가운데 침체되어 있는 활동 단체를 재조직하도록 뒷받침해 주었다. 그 결과 조 신부의 재임기에 명수대 본당은 안정의 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계획을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었다.

조 신부가 본당 부임 후 무엇보다도 먼저 이룬 일은 전교 수녀의 초청이었다. 본당 신자수가 1960년 말에 이미 3,000명을 넘어섬으로써 사목을 도울 수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신자들과 의논하여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를 방문하여 수녀 파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1961년 10월 주 칸디다 수녀가 처음으로 본당에 부임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본당 후보 발간팀에서는 <검은 돌> 74호(1961년 7월호)부터 이를 월보로 전환하고 발간비를 절약하여 수녀 초청에 일조를 하였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칸디다 수녀 이전에 본당의 사목을 도운 수녀들은 여러 명이 있었지만 이것은 정식 파견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그때그때 수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한 경우였다. 그러나 수녀회 본원의 사정에 따라 처음 본당에 파견되어 온 수녀들은 자주 교체되어야만 했다. 우선 칸디다 수녀가 1962년 4월 5일에 이임한 뒤 김숙영(金淑英, 소피아) 수녀가 부임하였고, 같은 해 7월 15일에는 김 소피아 수녀가 전주로 전임됨과 동시에 성모병원 약국에 근무하던 강순분(姜順分, 콘실리아) 수녀가 부임하였다. 이때서야 비로소 본당 수녀원은 안정을 찾게 되었다.

한편 본당에서는 1962년에 들어 신자수가 4,000명에 육박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보좌 신부를 모시게 되었다. 이때 조인환 신부의 보좌로 부임한 이가 김수창(金壽昌, 야고보) 신부로, 그는 12월 21일에 서품을 받고 24일 명수대로 부임하였다.

조 신부가 본당의 제2대 회장단을 구성하고 반장단을 새로 조직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에 앞서 초대 총회장인 조영태(바시리오)와 흑석 1동 회장 오 마리안나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1961년 6월 18일자로 홍숙(마르코)이 제2대 총회장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11월 26일에는 홍숙 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왕세영(프란치스코)이 제3대 총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이때 기존의 임원들에 대한 교체는 없었다. 본당 회장단에 상도동·노량진동 회장이 새로 추가되고, 다음과 같이 모

두 12명의 회장이 자기의 활동 분야 및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게 된 것은 1963년 1월 6일이었다.

- 총무부 : 사업 계획, 행사 실시, 재정 시행(왕세영 프란치스코, 송 베네딕도, 한상준 미카엘)
- 청소년부 : 청년·학생 활동, 성가대 관리(이 아우구스티노, 윤 요셉)
- 섭외부 : 단체 및 신자 사이의 섭외(홍숙 마르코, 홍 요셉)
- 전교부 : 각종 애경사 돕기(권 비리시다, 백 시몬, 박 발라바)
- 문화부 : 신문·잡지, 문화 행사 일체(장대훈 루가, 안 토마스)

이어 본당에서는 같은 해 3월 25일 구역·반을 새로 정비하면서 기존의 22개 반을 65개 반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로써 본당의 7개 구역은 흑석 1동 14개 반, 흑석 2동 11개 반, 흑석 3동 11개 반, 본동 9개 반, 노량진동 8개 반, 상도 1동 8개 반, 상도 2동 4개 반으로 각각 나뉘게 되었다.

2. 단체의 확대와 활성화

1) 단체의 확대와 변천

조인환 신부 재임 시절에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 단체는 레지오 마리아였다. 이때 “평화의 모후 꾸리아”에서는 1961년 7개의 브레씨디움으로 확대된 다음부터 본당을 중심으로 아치에스 행사나 성모 신심 피정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아울러 1962년 3월 29일에는 명수대 본당(4개 브레씨디움), 도림동 본당(4개 브레씨디움), 대방동 본당(1개 브레씨디움)의 소년·소녀 레지오 단원들을 통합하여 “천신의 모후 소년 꾸리아”를 설립하였다. 이 소년 꾸리아의 초대 단장은 꾸리아의 제2대 단장인 윤상돈(바오로) 단장이 겸했지만, 1962년 8월 5일 단장을 분리하여 성인 꾸리아의 제3대 단장을 주영창(시메온)이, 소년 꾸리아의 단장을 이우영(요셉)이 각각 맡게 되었다.

다음으로 새로 조직된 단체는 “가톨릭 청년회”였다. 이 청년회는 1961년 4월 23일자로 설립되어 회장에 이순재(李舜宰, 요한)를, 부회

장에 박재택(베네딕도)을, 총무에 박규원(토마스)을 임명하고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회원들의 참여가 미흡하여 설립된 지 2년 만에 해산되고 말았다. “성모회”가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 발족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 동안 거의 활동이 중단되었던 성모회 회원들은 1961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을 기해 100여 명의 회원들을 다시 규합한 뒤 권 비리시 다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이후 피정, 성지 순례, 친목회 등을 활발히 하면서 다시 부녀들의 신심 단체로 정착하게 되었다. 또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흰나리 클럽”에서도 1961년 5월 11일 임시 총회를 열고 임원을 개선하는 한편 재발족을 천명하였고, 1963년 9월 7일에는 조직을 일신하는 동시에 그 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데레사회”(회장: 김 소화 데레사)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나 본당의 성가대는 꾸준히 활성화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1961년 4월 16일 정기 총회를 열고 임원을 개편하여 지휘자로 남창중(요셉), 반주자로 조전규(시메온)를 각각 선임하였다. 그리고 5월 7일에는 성가대 후원회(회장: 홍숙 마르코)를 결성하고, 1962년에 들어 단원을 증원시켰다. 또 같은 해 7월 15일에는 고등부 합창단이 조직되어 본당의 각종 전례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이 합창단은 1963년 11월 17일에 열린 서울대교구 고등학생회 주최 성가 경연 대회(장소: 명동 성당 문화관)에서 2위에 입상하는 저력을 보였다. 본당의 고등부 합창단은 그 후 이름을 “글로리아 합창단”으로 개칭하였다.

본당의 “연령회”(회장: 장지배)는 이들 단체보다 좀 늦게 설립되었다. 그 이전부터 몇몇 교우들이 이미 상가 방문이나 대세 활동, 사망자 안치 등에 힘써 오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연령회가 구성된 것은 1964년 3월 15일이었다. 조인환 신부와 몇몇 교우들은 이때 미리 회합을 가지고 그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한 뒤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본당 연령회의 시작이었다.

2) J.O.C와 사랑의 클럽 창설

본당 교우들이 결성한 단체 중에서 교우들의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청년 조직인 “가톨릭 노동 청년회”(J.O.C)와 장년 조직인 “사랑의 클럽”(愛德)이 있었다. 이 중 1961년 6월 4일 발족을 보게 된 J.O.C는 시간이 지나면서 활성화되어 가고, 그만큼 결실을 맺은 단체였다. 이

단체에서는 초대 투사 지도자에 이 바오로를, 회장에 김영작(도미니코)을 임명하고, 8월 27일에는 처음으로 선서식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친교 활동과 체육 대회, 강습회, 봉사 활동 등을 수시로 개최하면서 직업 청소년들의 신앙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그 결과 1963년 5월 12일에는 “가톨릭 노동 여자 청년회”(J.O.C.F)의 탄생을 보기에 이르렀다.

한편 사랑의 클럽은 교우들 몇몇이 자발적으로 모여 이룩한 단체로, 그 회원들은 주로 본당 초창기부터 활동해 온 중년의 교우들이었다. 이들은 1963년 여름 발족 모임을 갖고 이날 클럽을 창단하였는데, 그 창단 목적은 애주 애인(愛主愛人)을 앞세워 본당을 사랑하고 나날이 늘어나는 교세로 인해 소원해져 가는 교우들의 인화 조성에 앞장서자는 것이었다.

이때 사랑의 클럽 회원들은 대표 간사에 조성희, 이순재를 임명하고, 총무 간사에 박규원(朴奎遠), 재정 간사에 이성호(李成浩), 사업 간사에 노용호(盧融鎬), 교화 간사에 이상래(李上來), 연락 간사에 강영순(姜暎淳)을 임명한 뒤 창단 목적에 맞추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활동 중에 때때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회지 <애덕>을 발행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3. 안정기의 본당 모습

1) 교세의 확대와 교리 경시 대회 3연패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당의 교세는 1960년 말에 이미 3,000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1963년 5월 말 현재 4,000명을 기록하게 되었다. 본당에서 전교 수녀를 초청하고, 교구에서 김수창 보좌 신부를 파견해 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 후에도 본당의 교세는 꾸준히 증가하여 1963년 말 신자 총수가 4,386명(남 1,940명, 여 2,446명)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세 확대는 물론 새 영세자 탄생에 힘입은 바 컸다. 기록에 따르면 1961년 성탄절에 69명, 1962년 부활절에 64명, 성모 승천 대축일에 37명, 성탄절에 72명, 1963년 부활절에 80명, 성모 승천 대축일에 105명, 10월 2일에 17명, 성탄절에 72명, 1964년 부활절에 32명



견진 기념(1962년 6월 5일).





첫영성체(1962년 8월 15일).

영세 기념(1963년 4월 5일).



등 모두 548명의 영세자를 탄생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63년의 성모 승천 대축일에는 영세자가 많아 두 차례에 나누어 영세식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견진성사는 1962년 6월 5일에 198명이 받았고, 1964년 5월 27일에는 345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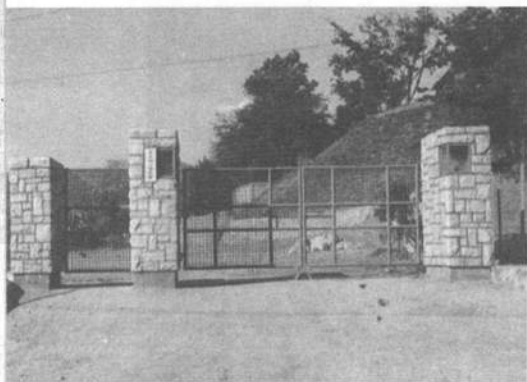
다음으로 이경재 신부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교리 교육의 전통은 조 신부 재임 기간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여기에는 본당 신부, 보좌 신부, 본당 수녀, 교리 교사 등 모두가 열심이었는데, 1961년 10월 22일에 개최된 제6회 서울교구 교리 경시 대회에서는 명수대 본당의 참가자들이 총 득점 1,308점으로 우승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제4회 대회부터 3년 연속 우승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고, 경시 대회 우승기를 영구히 본당에 보관하는 영예를 얻을 수 있었다. 이어 다음해에 열린 제7회 대회 때는 본당의 교리 경시팀이 참가상 1등, 단체상 2등을 차지하였다.

2) 외적 변모와 행사

이 시기에 이르러 드러난 본당의 모습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 이전에 이미 성당 부대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조인환 신부 부임 후인 1962년 4월 5일에서 5월 27일까지 성당 내외부를 수리하거나 새로 지붕 칠을 하였고, 이해 10월에는 자주 도난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창문을 모두 철창으로 교체



본당에 영구히 보관된 교리 경시 대회 우승기.



새로 단장한 성당 후문.

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8월에는 수해 때문에 무너진 축대 세 군데를 개축하는 동시에 후문을 철문으로 바꾸고 정문 옆에 수위실을 설치하였다.

그 동안에 있었던 본당 행사로는 우선 1961년 12월 24일에 행한 성탄 축하 행사를 들 수 있다. 이해의 축하 행사는 어느 때와는 달리 특별한 계획으로 이루어졌는데, 자정 미사에는 수많은 신자가

참석하여 성당 밖에서 미사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대부분일 정도였다. 이날 교우들은 미사·성극·음악제 등을 마친 뒤 제등 행렬을 지어 흑석동 일대를 돌고, 마지막에는 축하 파티까지 열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쁨을 노래하였다.

다음으로 1963년 8월 4일에 이루어진 본당 주보 <검은 돌> 100호 발

제7회 교리 경시 대회 수상자(1962년 9월 23일).





혜화동 성체 거동에 참석한 명수대 본당 신자들(1961년 7월 1일).

성체 거동에 참가했던 복사단.



행 기념 행사도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본래 본당 주보는 그 전에 100호를 발행할 수 있었지만, 1961년 7월부터 월간으로 발행하게 되어서 이때서야 이를 기념하게 된 것이다. 이날 오랫동안 주보 발행을 위해 봉사해 온 신태민·조성희·홍순규·나일규 등이 공로 표창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이와 함께 1964년 7월 17일에 이루어진 본당 신부의 사제 서품 은경축 행사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교우들은 이 행사를 위해 그 해 3월 22일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약 4개월 간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한 끝에 무사히 기념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이 행사는 오랫동안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이는 기회가 되었고, 이때 J.O.C에서는 본당 신부의 은경축을 기념하는 배구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본당 교우들은 갖가지 안정된 모습 속에서 다음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하나씩 쌓아가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교세의 확대였다. 당시로서는 본당의 신자수 4,000여 명이라는 사실이 아주 드문 일이었고, 따라서 조만간 본당의 분할이 예견되기도 하였다. 특히 상도동·사당동 등에 거주하는 교우들은 거리상 불편을 느껴 왔고, 그래서 이미 그들 사이에서는 공소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차츰 제기되고 있었다.




제 3 편

본당의 성장과 분할

제 1 장 본당의 분할과 사제관 건립 / 125

제 2 장 부속 시설의 보완과 본당의 재분할 / 143



제 1 장

본당의 분할과 사제관 건립

1. 유치원 설립과 상도동 본당의 분할

1) 유영도 신부와 단체 활동

이경제 신부의 뒤를 이어 본당의 안정을 가져온 제2대 조인환 신부는 부임 3년 4개월 만에 소신학교(성신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전임되고, 그 뒤를 이어 제3대 본당 주임으로 유영도(柳榮道, 디오니시오) 신부가 부임하였다. 유 신부는 1951년 12월에 서품된 후 중림동 본당 보좌를 거쳐 대신학교 교수와 소신학교 교장을 역임한 뒤 1964년 8월 1일자로 명수대 본당에 임명(부임은 8월 10일자)되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가 장마철이어서 그는 본당에 부임하자마자 큰 물난리를 겪게 되었다.

유영도 신부 부임 환영 기념(1964년 8월 10일).



이후 유 신부는 무엇보다도 본당의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기존 회장단은 물론 각 단체들과 신자들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그중 본당의 총회장은 1965년에 변경되어 제4대 총회장으로 한상준(미카엘)이 선임되었다.

이 무렵 본당 단체들 가운데는 그 활동이 미약하여 폐지된 단체들도 있었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개편하게 된 단체들도 있었다. 그 결과 레지오 마리아, 부녀자들의 모임인 성모회, 명수대 성가대, 고등부의 글로리아 합창단, 연령회, 주부들의 모임인 데레사회, 사랑의 클럽, J.O.C. 등이 활동하게 되었다. 다만 이 중에서 사랑의 클럽은 훗날 해체되고, 데레사회는 1966년에 들어 다시 흰나리 클럽과 데레사회로 분리되었다.

연령회에서는 그 동안 일부 신자들에 의해 본당 묘지 매입이 거론되었다. 유명도 신부 또한 묘지 조성에 적극적이었고, 사목회에 이를 정식 안건으로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임원들이 자금 문제, 이권 문제를 들어 반대함으로써 결국 묘지 조성은 실패하고 말았다.

한편 레지오 마리아의 7개 브레씨디움 중에서 평화의 모후, 치명자의 모후, 자비의 모친 등 3개 단체는 이전과 같이 활동하였다. 그러나 일부 브레씨디움들은 회원층의 연령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천주의 성모 Pr.'은 청년 레지오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종도의 모후 Pr.'과 '인자하신 정녀 Pr.'은 남·여 고등학생들의 모임으로 변경되었다가 폐지되었다. 그 대신 1965년 4월 11일자로 '인내의 샘 Pr.'(단장: 김



'천주의 성모 Pr.' 야외 행사(1964년 여름).

연화 베네딕다)이 설립되었고, 6월 23일자로 '구세주의 모친 Pr.'(단장: 윤정혜 모니카)이, 7월 11일자로 '상지의 좌 Pr.'(단장: 권마리아, 상도동 공소)이, 이어 8월 1일자로 '의덕의 거울 Pr.'(단장: 박웅자 올리안나)

등 3개 단체가 신설되어 다시 7개의 빠른씨디움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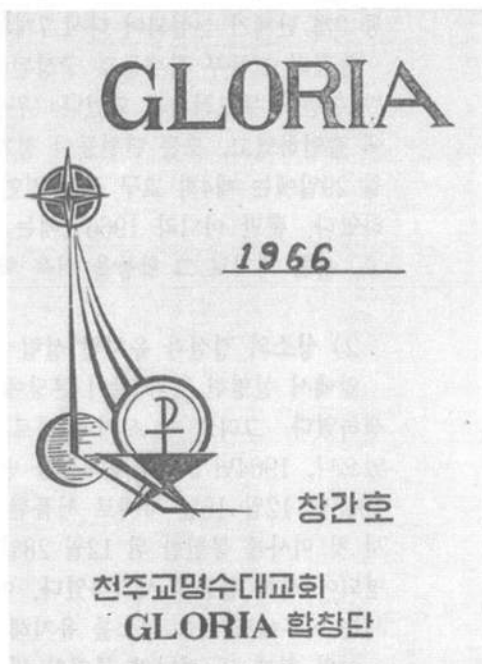
본당의 고등부 학생들로 구성된 글로리아 합창단은 특히 1964년부터 그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우선 이해 9월 6일에는 중앙방송국 TV에 출연하였고, 모든 단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꾸준히 연습한 결과 11월 29일에는 제4회 교구 성가 경연 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66년에는 단체 소식지로 <Gloria>지를 창간하고, 이를 계기로 그 활동을 더욱 확고히 해나가게 되었다.

2) 성소의 결실과 유치원 설립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당에서는 초창기부터 많은 신학생들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르러 마침내 첫 성소의 결실을 보게 되었으니, 1964년 3월에 부제품을 받은 주상배(朱尙培, 안드레아) 부제가 1965년 12월 16일 사제로 서품된 것이다. 그는 다음날 명수대 본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한 뒤 12월 28일 미아동 본당(彌阿洞本堂) 보좌로 임명되어 사목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첫 사제를 배출한 본당에서는 이후에도 계속 성소를 유지해 나가게 되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명수대 유치원”(明水臺幼稚園)의 설립을 들 수 있다. 본당에서 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1966년 초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였었다. 유 신부 또한 대학교 교단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본당이 인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오고 있었다. 이에 신자들은 우선 1966년 가을 무렵, 성당 아래쪽(현재 어린이 놀이터 있는 곳)에 새 건물(교실 2개, 현재 헐리고 없음)을 지었다. 그리고 소신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유 신부를 원장으로 하여 요건을 갖춘 다음 서울시에 설립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1966년 11월 16일에는 서울시 교육위원회로부터 그 설립 인가를 받게 되었다.

한편 본당 사목자들의 경우는, 우선 1966년 1월 10일자로 약 3년여 동안 보좌로 재임하던 김수창(金壽昌) 신부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독일 파견 지도 신부로 전임되고, 군중 신부로 있던 임태경(任泰景, 루가) 신부가 같은 날 제2대 보좌로 임명되어 부임하였다. 또 1962년 7월부터 본당 신부를 도와 전교 활동을 해오던 강순분(姜順分, 콘실리아) 수녀가 1964년 9월 6일 후암동 본당으로 전임되고, 그 후임으로



KBS TV에 출연한 글로리아 합창단.

〈Gloria〉 창간호.

제4회 성가 경연 대회 우승(1964년 11월 29일).





방송 출연 후 남산 야외 음악당에서 기념 촬영한 글로리아 합창단.

글로리아 합창단(1966년, 관악산).



박숙자(朴淑子, 콘첵다) 수녀가 부임하였으며, 1965년 3월 2일에는 박 콘첵다 수녀를 대신하여 김경애(金敬愛, 세실리아) 수녀가 부임하였다.

이 중 초대 보좌 신부로 활동해 오던 김수창 신부는 그 동안 청소년 활동과 교리 교육을 담당했었는데, 그는 학생 중에 집안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옷을 직접 만들어 입히기도 하였다. 또 주일 학교 운영이 어렵자 교사들과 함께 2년 간 폐품 수집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1966년 이임할 때에는 약 10만 원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훗날의 회고담에서 김 신부는 “당시로서는 이 기금 이자 약 3,000원이면 충분히 주일 학교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였다.

3) 상도동(上道洞) 본당의 분할

① 상도동 공소의 설립

흑석동 공소 시절부터 명수대 신자들과 함께 본당 설립을 위해 노력해 오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상도동 신자들은 본당의 교세가 확대됨과 동시에 그곳 신자수가 증가하면서 본당 분할의 꿈을 키워 가게 되었다. 이에 제2대 조인환(曹仁煥) 신부 재임기인 1963년 봄,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명수대 본당과 대방동(大方洞) 본당에 교적을 두고 있던 몇몇 신자들이 모여 상도동이나 노량진 쪽에 새 성당을 건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때부터 이곳 신자들은 본당 설립을 위한 기금 마련에 나섰다. 그리고 우선 공소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성당 후보지로 노량진동 산 28번지의 고지대를 소개받고 불하를 받고자 하였으나, 기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가 그 부지에 무허가 건물들이 들어섬에 따라 부득이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기금 마련이 급선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당시 명수대 본당 신자 중에는 김복순·박계순 등 여성 신자들이 주동이 되어 기금을 모았고, 대방동 본당 신자 중에는 명노혁·심창학·조백연 등이 미국 가톨릭 복지 협의회(N.C.W.C.)로부터 지급받은 구호 물자를 파는 동시에 따로 계를 들어 기금을 마련해 갔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지 마련 기금 형성은 부진하였다. 이에 신자들은 본당의 유명도 신부와 의논한 끝에 우선 그 동안 확보된

기금으로 전세집을 얻기로 결의하고, 1964년 7월 13일에는 상도동 625번지에 소재한 대지 70평, 건평 20평의 건물을 전세로 얻게 되었다. 그러나 건물이 협소하였기 때문에 신자들은 마당에 천막을 쳐서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앞서 유명도 신부는 그들의 공동체 형성을 허락한 다음 1964년 8월 15일을 기해 첫 미사를 봉헌해 주었으니, 이로써 마침내 '상도동 공소'가 설립될 수 있었다.

이후 유 신부는 공소 신자들에게 특별히 주일 현금을 면제해 주고, 이를 성당 건립 기금으로 적립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그는 훗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상도동 공소 설립을 허락해 주고 첫 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시일이 지나면서 방·마루 할 것 없이 신자들이 차게 되었죠. 이렇게 공소 집이 비좁게 된 탓에 마루에 제대를 꾸미고 신자들은 마당에서 주일 미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소 신자들에게 주일 현금을 따로 떼어 적립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물론 본당 신자들 중에는 '왜 공소의 현금을 본당으로 가져오지 않느냐?' 하면서 불만을 터뜨린 경우도 있었지만, '앞날을 내다본다면 공소의 발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여 이해를 시켰지요.

첫 미사를 드리는 날 상도동·노량진·대방동 신자들은 공소에서 회합을 가지고 "상도동·노량진 지구 본당 창설 기성회"를 발족하였다. 이때 기성회장에는 홍순탁이 선출되어 본격적인 기금 마련에 나섰는데, 당시의 공소 신자수는 약 310가구에 1,600여 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곳 신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당 승격 운동을 전개해 나갔고, 아울러 공동체의 터전을 닦는 데도 노력하게 되었다.

② 상도동 본당의 독립

1964년 공소로 설립된 상도동 공동체는 3년이 지나면서 본당 승격 운동이 더 활발해지게 되었다. 그 동안 상도동·노량진 지구 본당 창설 기성회에서는 성당 건립 기금 마련에 더욱 노력하여 공소 설립 7개월 만인 1965년 초에는 어느 정도 기본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공소 신자들이 협의를 거친 끝에 이해 3월 13일, 현재의 상도동 성당 자리인 상도동 34-1번지에 대지 135평, 건평 17평의 단독 주택을 매입해서 전세를 면하게 되었다.



유영도 신부와 당시 사목 위원들.

이때 마련한 건물은 비록 협소하기는 하였지만, 현재의 본당을 이루는 터전이 되었다. 당시의 매입 자금 중에는 공소 교우들의 헌금, 홍순탁 기성회장이 개인 재산을 담보로 서울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은 30만 원, 유 신부의 알선으로 주교관에서 차입한 40만 원, 그리고 김수창 신부를 통해 전달받은 대방동 본당 교우들의 기금 3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상도동 본당 창설 기성회에서는 이 건물을 매입하던 그날로 임원 회의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 임시 강당을 건립하기로 결의하였다. 벽을 블록으로 쌓고, 지붕은 슬레이트로 덮고, 바닥은 우선 가마니를 깐 그야말로 임시로 지은 공소 강당이였다. 그러나 이곳 신자들의 마음은 곧 본당으로 승격된다는 기쁨으로 넘쳐 흘렀다. 유 신부는 훗날 회고담에서 이때 상도동에서 건재상을 하던 박 회장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임시 강당이 마련되자 신자들은 1965년 성모 몽소 승천 대축일을 기해 유 신부의 집전으로 첫 미사를 봉헌하는 한편 강당 낙성식 및 공소 개설, 기성회 결성 1주년 기념식을 조출하게 거행하였다.

상도동 공소 신자들은 이듬해인 1966년 7월 9일, 인접한 상도동 34-27번지에 위치한 대지 80평을 추가로 매입하였다. 기존 부지로만은 성당을 건립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자들이 열성을 나타내면



영세 기념(1966년 12월 25일).

첫영성체(1967년 3월 26일).



서 본당의 유 신부는 마침내 상도동 분리를 교구청에 건의하였고, 교구에서도 1966년 12월 14일자로 마침내 “상도동 본당” 설립을 인가함과 동시에 초대 본당 주임으로 소신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김병일(金秉鎰, 요셉) 신부를 임명(1967년 1월 1일 부임)하였다. 이때 본당의 관할 구역은 상도 1동과 2동, 노량진 2동, 봉천동(신림동 일부 포함) 등이었고, 여기에 거주하는 신자수는 약 400가구에 1,800여 명이였다.

이와 같이 상도동 본당을 분할한 결과 1966년 말 본당의 신자수는 1,288가구에 4,294명(남자 1,824명, 여자 2,470명)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 숫자는 1965년 말 5,294명(남자 2,317명, 여자 2,977명)이었던 것에 비해 1,000명 정도가 줄어든 것이었다. 이러한 감소는 1965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숫자가 727명(영세자 306명, 전입자 421명)인 데 비해 상도동 지역 신자들의 전출을 비롯하여 한 해 동안 감소한 숫자가 1,802명(사망 29명, 전출 1,773명)이나 된 때문이었다.

2. 사제관 건립과 사당동 본당의 분할

1) 김옥균 신부의 부임과 활동

본당의 안정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던 유 신부는 1966년 12월 14일자로 종로 본당(鍾路本堂) 주임에 임명되어 가고, 이어 같은 날 종로 본당에 있던 김옥균(金玉均, 바오로) 신부(현 서울대교구 보좌 주교)가 제4대 주임으로 임명되어 12월 30일에 부임하였다. 이렇게 두 본당의 주임이 서로 바뀌게 된 이유는 유영도 신부가 신학교 강의를 나가는 데 편의를 주고자 한 교구의 배려 때문이었다. 김 신부는 1954년 12월 18일 사제로 서품된 후 그 동안 가톨릭 출판사 사장(1959년 5월), 서울대교구 상서국장(尙書局長, 1962년 6월) 등을 거쳐 종로 본당에서 사목하다가 부임하였다.

김 신부는 본당 부임 후 약 4년 6개월을 재임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본당의 활동 가운데서도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명수대 유치원의 개원과 현 사제관 건립을 들 수 있다. 우선 “명수 유치원”은 이미 유 신부 재임 시절에 설립을 인가받고 임시로 개원한 적이 있기는 하였지만, 1967년 초부터 정식으로 교사를 채용하는 한편 원아를 공개 모집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7년 3월 9일에는 정식으로 제1회 원아 입학식을 갖



제1회 명수 유치원 개원 기념식(1967년 3월 11일).

고 개원하였다. 이때 입학한 원아의 수는 1학급에 38명(남아 21명, 여아 17명)이었고, 초대 원장은 김 신부가, 교사는 1965년에 부임하여 본당 사목에 참여해 오던 김경애(세실리아) 수녀와 일반인 교사가 맡게 되었다.

새로 부임한 김 신부 또한 이 유치원 운영에 호응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그는 유치원 교실이 협소하여 많은 원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967년에는 교실을 확장하였고, 그래서 이듬해부터는 2개 교실에 54명(남아 30명, 여아 24명)의 원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본당 인근의 학부모들로부터도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라 하여 좋은 반응을 얻게 됨에 따라 언제나 예상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은 탓에 지원을 일찍 마감해야만 하였다.

그 다음으로 김 신부는 1967년 초부터 사제관을 신축할 계획을 세웠다. 사제관이 본관과 별관(손님 신부님이나 신학생 숙소)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허술하여 겨울에는 추웠고, 실제 사용에도 많은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 신부는 본당 회장단과 협의하여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교구의 지시에 따라 성당 앞의 토지(현 정문 왼쪽의 개인 집)를 매도하

여 공사비를 마련하였다. 이때 토지 매도 대금은 5,722,000원이었다.

이렇게 하여 마련된 건립 기금은 예상되는 사제관 공사비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다. 그러므로 본당에서는 사제관 건립과 함께 유치원·수녀원·사무실 등을 개축하기로 하고, 성당 수리도 계획하였다. 그 결과 사제관 건립은 그 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0월에는 2층 사제관(연건평 : 75평)을 완공하게 되었고, 나머지 공사도 1967년 12월 이전에 모두 마무리되었다. 이때 건립한 사제관이 바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제관이다. 이와 함께 당시 본당에서 이룩한 공사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제관 건립과 부대 시설 개축 현황(1967년)

공 사 내 역	비 용
사제관 신축(75평)	3,454,000원
유치원(30평)·수녀원(19평)·사무실(11평) 증·개축	1,395,000원
성당 수리(장케틀, 고해소, 제대, 칠, 천장, 지붕 등)	680,000원
시멘트 공사(성당 내부 및 성당·사제관 외부)	222,756원
합 계	5,751,756원

* 위의 내용은 본당에 소장되어 있는 <1967년도 수입·지출 보고서>(교구 보고용)에서 발췌 정리한 것이다.

2) 교역자의 변모

이러는 동안 본당에는 자주 교역자들이 변모하게 되었다. 먼저 보좌 신부의 경우, 1966년 12월 14일에는 임태경 신부가 이임하고 손영일(孫榮一, 바르나바) 신부가 제3대 보좌로 부임하였으며, 1968년 6월 14일에는 김형식(金亨植, 베드로) 신부가 손 신부에 이어 제4대 보좌로 부임하였다가 이듬해 4월 14일 화곡동 본당 주임으로 임명을 받고 이임하였다. 그리고 1970년 1월 16일, 장덕필(張德弼, 니콜라오) 신부가 제5대 보좌 신부로 부임하였다.

다음으로 본당 수녀의 경우에는 1968년 3월 16일 김 세실리아 수녀가 이임함과 동시에 강성숙(康聖淑, 로올라) 수녀가 초대 분원장 겸 제

2대 유치원 원감(원장은 김옥균 신부)으로 부임하여 본당의 사목 활동을 도왔다. 그러나 강 로올라 수녀 혼자서는 본당 사목을 도우면서 일반 교사들과 함께 유치원을 담당하기 힘들었고, 또 1968년부터 유치원 교실을 2개로 늘리면서 유치원 담당 수녀가 따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김 신부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에 수녀 파견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1969년 1월 12일에 김경숙(金慶淑, 로사) 수녀가 유치원 교사로, 박호자(朴浩子, 루피나) 수녀가 전교 수녀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로써 본당에는 처음으로 세 명의 수녀가 함께 활동하게 되었다. 이 무렵 일반 신자 교사로는 김정(벨라벳다)과 양호숙(아네스)이, 비신자로는 유경숙 등이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 7월 5일 박 루피나 수녀가 이임함과 동시에 이양순(李良順, 필립보) 수녀가 부임하여 강 로올라 분원장, 김경숙 수녀 등과 함께 본당의 사목을 돕게 되었다.

본당 수녀들의 변동 현황(1968~1970년)

성명	본명	재임기간	비고	성명	본명	재임기간	비고
강성숙	로올라	1968.3~71.11	분원장	김경숙	로사	1969.1~74.11	유치원
박호자	루피나	1969.1~70.7		이양순	필립보	1970.7~72.12	

한편 김 신부 재임 기간에는 제4대 한상준(미카엘) 총회장이 계속 본당 사목회를 이끌어 갔다. 물론 사목 회장단은 상도동 본당과 사당동 본당의 분리로 인해 변화가 있었지만, 사목회 임원들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1967년 9월 1일부터는 홍숙(마르코)이 장지배의 뒤를 이어 제4대 사무장으로 부임, 본당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3) 사당동(舍堂洞) 본당의 분할

① 사당동·노량진 지역의 분리 운동

첫 자본당(子本堂)인 상도동 본당의 분할로 명수대 본당의 신자수는 5,200여 명에서 4,200명 정도로 줄게 되었다. 또 본당의 관할 구역도 흑석동과 동작동, 반포동, 사당동, 노량진 1동과 본동으로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7년 당시만 해도 반포동·동작동 등지에는 신자들이 별로 없었고, 사당동·노량진 1동 지역의 신자들은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어 오고 있었다.

그중에서 공소 설립의 기운은 사당동 지역의 신자들로부터 일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장차 본당 승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먼저 공소 설립을 희망하게 되었고, 이를 본당의 김 신부에게 건의하였다. 김 신부는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실제로 그 불편을 이해하고 여건을 조사한 다음 우선 사가(私家)에서라도 공소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 결과 사당동 지역의 신자들은 1967년부터 이용진(야고보) 교우 집에서 처음으로 공소 예절 및 성사를 받고 강당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다.

한편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노량진 지역에 거주하던 신자들은 이미 1967년 1월, 상도동 본당 설립 시에 구역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노량진 2동 신자들은 여전히 주일 미사 참례나 예비자 교육 등에서 불편을 겪게 되었다. 특히 이곳의 예비자 교리는 신자 집을 하나 빌려 본당에서 수녀가 왕래하곤 하였는데, 장소 관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노량진 1동 신자들은 이때부터 본당 설립을 꿈꾸게 되었다. 그들은 이미 상도동 본당 설립 기성회에 참여하여 활동한 경험을 살려 우선 공소라도 설립하자고 논의하였다. 그리고 노량진 지역 구역 회장을 맡고 있던 박해경(요한 보스코)을 중심으로 성전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본당의 김 신부와 협의하였다. 김 신부도 노량진 지역을 순방하면서 신자들의 불편과 사목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신자들의 의견에 적극 동조함으로써 성전 건립 운동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② 사당동 본당의 설립

1967년까지만 해도 사당동 지역의 신자수는 20여 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발전하는 공소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다. 그래서 1968년부터는 김동근(비오) 집에다 주일 학교를 개설하고 교육을 시작하는 한편 강당 건립 기금도 모금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신자들은 1970년 초에 대지 400평을 매입할 수 있었고, 이해 2월부터는 강당 건립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강당 건립이 시작된 다음 사당동 공소 신자들은 수건을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공사 대금으로 충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해 6월, 33평의 공소 강당을 완공하고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의 집전으로 강당 축성

식을 갖게 되었다.

공소 강당을 마련한 신자들은 이제 본당이 설립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전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다. 그 결과 1970년 말에는 모두 112명의 첫 영세자들을 낼 수 있었으며, 이들과 함께 본당 승격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71년 6월 14일 마침내 “사당동 본당”의 설립을 보게 되었고, 6월 20일 첫 주임으로 콜롬바노회의 플레밍(Kevin Flemming, 민 가비노) 신부를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본당의 관할 구역은 사당동 일원과 방배동 일부 지역, 그리고 남현동 일원이었으며, 총 신자수는 약 400가구에 1,300여 명이었다. 이때 명수대 본당에서 사당동으로 교적을 옮긴 신자수는 모두 740명(남자 296명, 여자 444명)이었다.

4) 본당의 변화

이와 같이 명수대 본당은 김 신부 재임 시절 다시 하나의 자본당을 갖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본당의 관할 구역이 넓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세가 확대된 결과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당을 연이어 분리 독립시킨 탓에 어수선한 면이 없지 않았고, 한때 교세의 감소를 가져오



중·고등부 영세식(1970년 5월 16일).

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전교 활동을 한 결과 1969년에는 352명(대인 199명, 어린이 153명)의 영세자가, 1970년에는 331명(대인 172명, 어린이 159명)의 영세자가 탄생하는 등 신자수는 계속 늘게 되었다.

본당의 교세 변모 현황(1966~1970년)

연도	증 가		감 소		세대수	총 신자수
	영 세	전 입	사 망	전 출		
1966	306	421	29	1,773	1,288	4,294
1967	280	407	24	222	1,238	4,735
1968	322	457	30	269	1,360	5,215
1969	352	355	28	631	1,473	5,263
1970	331	516	25	545	1,633	5,527

이 무렵 본당에는 1966년 부제품을 받은 양홍(楊弘, 예우세비오) 부제가 이듬해인 1967년 12월 12일, 주상배 신부에 이어 두번째 본당 출신 사제로 탄생하였다. 그는 이듬해 혜화동(惠化洞) 본당으로 부임하였다가 1971년 외국 유학길에 올랐다. 이때 세번째 성직자가 될 나원균(羅元均) 신학생이 있었다.

1970년 말, 본당의 신자수는 다시 4,800여 명을 기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당의 평신도 단체들도 계속 변모하여 “평화의 모후 Cu.” 산하에 일곱 개의 뿌레씨디움과 “하늘의 모후 소년 Cu.” 산하에 세 개의 뿌레씨디움, 그리고 열 개의 신심·활동 단체가 있게 되었다. 특히 레지오 마리아의 경우는 ‘상아 보탑 Pr.’(단장: 홍병준 베드로)이 1968년 4월 8일에 신설(1975년에 해산)된 반면에 기존의 5개 뿌레씨디움(평화의 모후, 오묘한 매괴, 인내의 샘, 구세주의 모친, 의덕의 거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편되거나 폐지되었다. 한편 기존의 단체 중에는 레지오 마리아, 성모회, 글로리아 합창단, 연령회, 흰나리 클럽, 데레사회 등이 꾸준히 모임과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중 흰나리 클럽과 데레사회는 1970년에 다시 “십자 부녀단”이란 이름 아래 통합하게 되었다.

그 동안 새로 조직된 단체로는 우선 1968년 11월에 창설된 소년·소녀들의 모임인 “스카우트”, 1967년 초에 설립된 장년 단체인 “노들회”, 1969년 10월에 설립된 본당 젊은이들(30세 전후)의 모임인 “청우회”(회장:양성 아마도)가 있었다. 이 중 스카웃은 본당 수녀와 자매들의 협력으로 활동하였으며, 노들회는 설립 초기에는 활발히 활동하다가 훗



명수대 본당 스카우트 발대식(1968년 11월 10일).

성모회 제97차 총회 기념(1969년 8월 22일).



날 폐지되었고, 청우회에서는 본당 행사에 봉사하면서 주로 후보 <검은 돌>의 편찬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검은 돌>은 재정난으로 제164호(1971년 5월 1일자)에서 중단되어 많은 아쉬움을 사기도 하였다. 본당 후보는 제5대 박병윤 신부 부임 후 복간되었다.

김옥균·장덕필 신부 송별식(1971년 5월 30일).



제 2 장

부속 시설의 보완과 본당의 재분할

1. 사목회와 부속 시설의 보완

1) 박병윤 신부와 사목회

1960년대 말까지 안정과 성장을 추구해 오던 본당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전의 성장 과정이 본당 설립 초기의 정착과 안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1970년대의 성장은 광활하던 사목 구역이 점차 현재와 같은 본당 구역으로 한정되고, 그 가운데서 신자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본당 분할이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 전기(前期)는 1960년대 후기(後期)와 같이 본당의 과도기(過渡期)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1971년 5월 14일 제5대 본당 주임으로 임명된 박병윤(朴炳潤, 토마스) 신부의 부임(부임일은 6월 1일)으로 시작된다. 이때 김옥균 신부는 당산동(堂山洞) 본당으로 전임되었고, 박 신부와 같은 날에 김영화(金榮和, 바오로) 신부가 제6대 보좌 신부로 부임함과 동시에 사당동 본당이 분리된 것이다.

박 신부는 1953년 8월 22일 사제로 서품된 후 안성 본당 보좌, 서울 교구 J.O.C. 지도 신부(1962년 9월) 등을 거쳐 중림동 본당에서 사목하다가 부임하게 되었다. 그는 명수대에 부임하자마자 우선 모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 바람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우선 각 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주면서, 본당 성가대를 남·여 혼성으로 재조직하였으며, 평신도 강사와 외부 강사를 중심으로 피정 및 신심, 신자 재교육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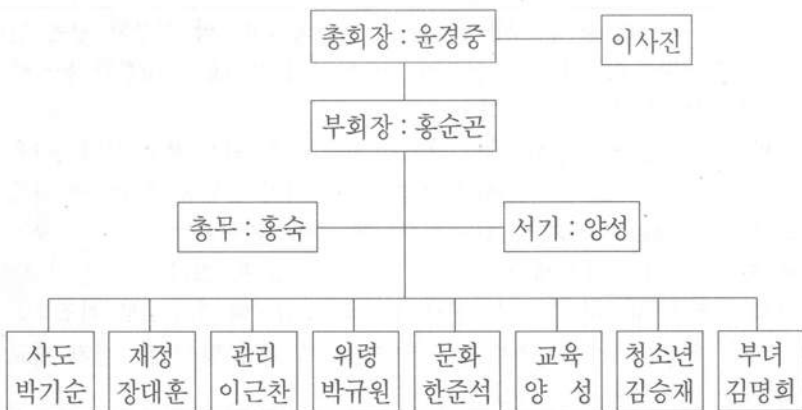
이와 함께 박 신부는 신자들로 하여금 소공동체 활동을 배우도록 하

기 위해 “M.B.W. 운동”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71년 7월에는 처음으로 꾸르실료 운동을 도입, 여러 신자들로 하여금 그 교육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니, 본당의 “울뜨레이”(초대 간사: 박규원 토마스)는 여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한철수(젼마)는 훗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박 신부님께서서는 본당에 부임한 이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꾀이나 노력했습니다. 우선 신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평신도 교양 강좌를 자주 개설하였는데, 이때 신태민(申泰旻) 회장이 많은 활동을 했지요. 또 본당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공동체 모임이 필요하다고 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M.B.W.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신심 운동을 위해서는 꾸르실료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였지요. 그 결과 우리 본당에서는 서울 남성 꾸르실료 7차부터, 여성 꾸르실료는 4차부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박 신부님이 성가대를 재편성하고, ‘말씀의 방’을 만들어 신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모두 이 활성화를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침체되어 있던 교리 교육이 다시 활성화된 것도 박 신부의 부임 이후였다. 아울러 그는 본당의 평신도 사목회를 재구성하여 1971년 12월 우선 신태민(토마스)을 제5대 총회장에 임명하고, 이어 1972년 12월에는 윤경중(요셉)을 제6대 총회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본당의 사목회가 새로운 체계를 갖추는 한편 아래의 표와 같이 현재와 유

평신도 사목회 조직 현황(1973. 11. 8)



사한 조직을 구성하고, 아울러 전문 5장(총칙, 조직과 임원, 회의, 상벌, 부칙)으로 구성된 사목회 회칙을 마련하게 된 것은 1973년 11월 8일이었다. 당시 총회장은 윤경중(요셉)이 계속 연임하였다.

2) 본당 부속 시설의 보완

본당에서는 이어 신자들 사이의 친교와 협의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1973년 회합실 “말씀의 방”을 만든 동시에 성당 천장·지붕 등을 수리하는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하였다. 현재 성당으로 올라오는 석조 계단도 이때 만든 것이고, 14처도 이때 처음으로 교체되었다.



“성모 회관” 모습.

말씀의 방 즉 “성모 회관”(聖母會館: 기념관) 건립은 박 신부 재임 시절, 신자들이 가장 정성을 들인 부분이었다. 이를 위해 본당 사목회에서는 1973년 5월 회장단을 중심으로 한 건립 기념회를 조직하고, 즉시 건립 기금을 모금하는 한편 5월 중순부터 기념관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이해 7월에는 성당 기초와 1층 천장을 보강하는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9월 30일에는 마침내 연건평 90평의 성모 회관을 완공하여 낙성식을 갖게 되었다. 이때 부조(浮彫) 형식의 성모상이 회관 벽면에 안치되었다.

이 기념관은 옛 사제관 맞은편, 즉 성당 입구의 사무실 위쪽 2층에 마련되었는데, 본당 신자들은 건립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 다음과 같은 “20주년 기념 기도문”을 작성하여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였다. 그리고 기금 마련에도 동참하였다. 이때 소화 부녀회(1971년 재발족)에서는 공사장 인부들 음식 마련 등에 힘썼으며, 청우

회와 레지오 단원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노력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본당 설립 20주년 기념 기도문

우리 어머니이신 성 마리아여!

성모는 예루살렘의 영광이요, 성교회의 기쁨이요, 우리 본당의 큰 자랑이로소이다. 우리 모두는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이함으로써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해 기념 공사를 계획하였사오니 우리 성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복되신 성모여, 본당 설립 20주년 기념 공사의 계획과 우리의 정성에 축복해 주시고, 완성되는 그날까지 용기를 주시며, 어머니께 청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이 성모 회관 건립에 앞서 본당에서는 유치원을 60여 평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운동장을 넓히는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미 있던 원아 교실 2개만으로는 교육 활동에 애로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미 있던 유치원 건물 옆에 가건물(약 30평)을 지어 기존 공간과 합치고, 1973년 5월 21일에는 이를 완공하여 축성식을 갖게 되었다. 이 공사에는 교사들,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인 김경숙(로사) 수녀의 노고가 많았다.

2. 본당의 재분할

1) 노량진(鷺梁津) 본당의 설립

노량진 지역의 신자들은 이미 김옥균 신부 재임 초기에 성전 건립 운동을 승인받아 추진해 오고 있었다. 이때 구역 회장은 지역 내 신자 가정을 개별 방문하면서 성전 건립을 위한 신자들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약 30명의 부인들은 친목회를 조직하고, 특히 노춘매(안젤라)·길인애(수산나)·조차순(세실리아) 등은 친목회 기금으로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여 기금 조성에 보탬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자들은 1970년 말 약 42만 원의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대표자들이 교구청을 방문하고 성전 건립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이듬해 초에 본당 신부의 인사 이동으로 박병운 신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전임 김옥균 신부는 당산동 본당으로 이임한 뒤에도 계속 성전 건립 운동에 관심을 보여 주었으며, 박 신부 또한 노량진 지역 신자들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었다.

여기에 힘을 얻은 신자들은 이번엔 건립 기금 신입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1년 초에는 신입금 봉헌 명단과 봉헌액 약 240만 원을 서류상으로 교구청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교구청에서는 이해 가을에 있는 참사회에서 노량진 지역에 본당을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도록 통보해 왔다. 이때 신자들은 앞으로 본당이 설립될 경우 노량진 2동 지역의 신자들이 다시 흡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노량진 1동과 2동의 중간 지점(현 본당 위치)인 노량진 1동 232번지에 있는 일본식 연립 건물 2동 98평을 사들이게 되었다. 이 매입에 소요된 비용은 혜화동 본당 신자들의 현금 400만 원과 교구청에서 임시 차용한 250만 원 등 모두 650만 원이었다.

한편 신자들은 이제 본당 분리를 확신하고 상도동(上道洞) 본당으로 편입되어 있던 노량진 2동 신자들과도 협력을 꾀하게 되었는데, 당시 상도동 본당의 노량진 지역 회장인 이명규(토마스 아퀴나스) 등 몇몇 신자들이 여기에 적극 동조해 주었다. 그리고 김옥균 신부의 지시를 받아가며 1971년 12월 중순부터 건물 내부를 개조하여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임시 성당을 마련한 다음, 이해 성탄 자정 미사를 명수대 본당 출신의 새 신부인 나원균(바오로) 신부 집전으로 봉헌하였다.

이후 노량진 임시 성당에서는 한 달 동안 주일마다 미사가 봉헌되었고, 그때마다 명수대 본당에서는 수녀들을 파견하여 미사 준비를 도와주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972년 1월 25일자로 김옥균 신부가 초대 본당 주임으로 부임함과 동시에 본당으로 설립되었다. 그 결과 명수대 본당에서는 총 신자수 5,600여 명 중에서 722명(남 314명, 여 408명)이 노량진 본당으로 이관하였고, 이때 상도동 본당에 편입되어 있던 노량진 2동 지역의 신자들도 새 본당으로 교적을 옮기게 되었다.



▲영세 기념
(1971년
12월19일).
◀영세 기념
(1972년
5월 21일).



첫영성체 기념(1972년 10월 8일).

검진성사 기념(1972년 11월 5일).



2) 반포(盤浦) 본당의 설립

현재의 반포 지역은 일찍부터 명수대 본당 관할 지역이었으나, 1960년대까지만 해도 주민이나 신자가 별로 없던 곳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 강남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신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곳의 사목을 담당하고 있던 명수대 본당의 박 신부는 여기에 공소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반포 지역의 공소 설립이 구체화된 것은 1973년이었다. 당시 박 신부는 이곳에 거주하던 몇몇 유력 신자들의 도움을 얻어 우선 공소를 설립하기로 하고, 1973년 5월 22일 김덕윤(프란치스코)을 초대 공소 회장으로 하여 공소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5월 27일에는 이곳 신자들을 한재상(알렉산더)의 집(반포 아파트 B 95동 505호)에 모이도록 하여 첫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다.

이후 반포 지역의 사목은 제9대 보좌로 재임하던 박용일(朴勇一, 다탈) 신부가 전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소 집이 따로 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공소 회장 집과 몇몇 신자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주일 공소를 치러야만 했다. 그러던 중 이해 12월에 박용일 신부가 이임하면서 명수대 본당의 제10대 보좌인 최준웅(崔俊雄, 바르나바) 신부가 공소 사목을 담당하게 되었고, 1974년 5월부터는 양재동(良才洞) 본당의 주임으로 임명된 박용일 신부가 다시 신자들의 신앙 생활을 돌보게 되었다.

당시 박용일 신부는 양재동 본당 주임으로 반포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시킬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반포 지역의 신자들이 준비해 준 반포 아파트 단지 내의 사제관에 거주하면서 양재동 지역과 반포 지역의 사목을 동시에 맡는 한편, 반포 본당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반포 지역은 명수대 본당의 관할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신자들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본당 설립 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우선 1974년 5월 25일, 성당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1일에는 반포 상가 내에 공소 강당을 매입하는 한편, 주일학교의 설립, 공소 사목위원회의 결성, 상지회·학생회·노인회 등 평신도 단체의 조직, 후보 발간 등을 통해 신자들의 활동과 공소의 성장을 꾀하였다. 그리고 1975년 8월 15일에는 공소 강당을 반포 유치원으로 임시 이전하고, 이

진 강당을 매각하여 신반포 단지 안에 610평의 대지를 매입하였다. 그 결과 공소 설립 3년 만인 1976년 5월 25일 ‘반포 본당’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초대 주임으로 박병윤 신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반포 본당이 분리 독립함에 따라 명수대 본당은 모두 4개의 자본당을 갖게 되고, 그 관할 구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축소되면서 현재와 같이 흑석 1동·2동·3동과 본동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반포 본당의 분리가 본당의 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신자수는 1975년 12월 말 4,504명(남자 1,854명, 여자 2,650명)을 기록하였다가 1976년 12월에는 4,585명(남자 1,857명, 여자 2,728명)을 기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본당들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관할 구역의 분할과 신자수의 감소는 오히려 명수대 본당을 과도기에서 안정기로 나아가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3. 보좌 신부의 잦은 교체와 단체의 신설

1) 보좌 신부의 잦은 이동과 성소

박병윤 신부 재임 시절 보좌로 활동한 신부들은 1971년 9월 17일에 이임한 제6대 김영화 신부 외에도 1971년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휴양 중에 임시 명수대 보좌로 활동한李宗孝(李宗孝, 글레멘스) 신부, 1971년 12월 25일 제7대 보좌로 임명되어 다음해 5월 18일에 이임한 이민상(李民商, 마르띠노) 신부가 있었다. 이처럼 보좌 신부의 교체가 자주 있게 됨에 따라 본당 신자들은 이에 대해 아쉬움과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보를 통해서도

신부님이 아무리 천재고, 훌륭하고, 능력이 있고, 결의가 굳다고 해도 서너 달 동안에 갑자기 우리 본당을 만족스러운 경지에까지 이끌어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적어도 몇 달 동안은 본당의 실태를 파악해 보아야 하고, 또 몇 달 동안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보아야 한다. 만일에 실패하면 다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명수대 본당에는 유독 보좌 신부님이 자주 교체된다. 교우들과 신부님이 서로 정이 들만 하면 바뀌고 만다. 일을 도와 드리고자 했던 교우들도 맥이 빠지고, 떠나시는 신부님의 마음도 그렇다.

명수대 본당이 보좌 신부 대기소드냐! 서로 손잡고 일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여 보좌 신부의 잦은 교체가 본당 사목에 바람직하지 않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어 1973년 5월 3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제9대 보좌 박용일(다태오) 신부가 재임하였고, 이어 최준웅(바르나바) 신부가 1973년 12월 8일 제10대 보좌로 부임하여 활동하다가 1974년 5월 9일 미아동 본당 보좌로 이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계속된 자본당의 분할과 교세 감소로 인해 오랫동안 보좌 신부가 임명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본당 수녀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71년 11월 8일 강성숙(로올라) 분원장이 이임함과 동시에 김금자(金錦子, 릿다) 수녀가 제2대 분원장으로 부임하였고, 1972년 12월 2일에는 이양순(필립보) 수녀가 이임함과 동시에 사정숙(史貞淑, 안토니아) 수녀가 부임하였다. 이어 1974년 11월 25일에는 사 안토니오 수녀가 이임함과 동시에 김영옥(金榮玉, 일명 계환, 유릿다) 수녀가 부임하여 본당의 제전을 맡게 되었다.

또 1975년 7월 15일에는 김 릿다 분원장이 이임함과 동시에 신현숙(申鉉淑, 베아트릭스) 수녀가 제3대 분원장으로 부임하였다. 그리고 1969년 이후 6년 동안 유치원 교육에 많은 힘을 기울이던 김경숙(로사) 수녀가 1975년 9월 12일에 이임하면서 김 유릿다 수녀가 제2대 유치원 교사를 맡게 되고, 같은 날짜에 부임한 이송자(李松子, 베올지아) 수녀가 이듬해 7월 9일까지 본당 사목을 도왔다.

본당 수녀들의 변모 현황(1971~ 1976년)

성명	본명	재임기간	비고	성명	본명	재임기간	비고
김금자	릿다	1971.11~75.7	분원장	신현숙	베아트릭스	1975.7~79.2	분원장
사정숙	안토니아	1972.12~74.11		이송자	베올지아	1975.9~76.7	
김영옥	유릿다	1974.11~78.3	유치원				

본당의 성소는 박병윤 신부 재임 시절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1970년 부제품을 받았던 나원균(羅元均, 바오로) 부제가 1971년 12월 8일 명동 성당에서 서품됨으로써 본당의 세번째 사제가 된 것이다. 이후 나 신부는 12월 12일 본당에서 첫 미사를 집전하고 축하식이 있는 다음, 혜화동 본당의 보좌 신부로 부임하였다.



본당 출신인 나원근 신부 첫 미사 봉헌 기념(1971년 12월 12일).

2) 단체의 신설과 변화

자본당들의 분리 독립은 일시적으로 본당의 사목 방향과, 사목회의 조직, 구역·반 편성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본당의 단체 활동에도 영향을 주어 레지오 마리아 단체 같은 경우에는 세 본당 지역의 빠레씨디움이 독립해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합창단·연령회·부녀회의 경우도 일시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해야만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도 본당의 평신도 단체는 꾸준히 늘어 1972년 9월 말, 레지오 빠레씨디움들을 포함하여 총 28개 단체가 활동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본당의 단체가 증가하게 된 것은 박병윤 신부의 활성화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일시적으로 조직되었다가 해체됨으로써 기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단체들도 많았는데, 특히 학생회와 청년회 같은 단체가 그러하였다. 그 밖에도 레지오 마리아 중에서 명수대 “천신의 모후 소년 Cu.”가 1972년 5월 14일자로 해산되었다가 훗날 다시 부활되었지만, 이후 그 본부는 명수대·봉천동·상도동 본당 등지로 옮겨다니게 되었다.



'평화의 모후 Pr.' 1,000차 주회 기념(1975년 11월 22일).

박병운 신부 재임시에 꾸준히 활동을 떠나간 단체로서는 레지오 마리아와 주일학교 외에도 소화 부녀회, 고등부 글로리아 합창단, 스카우트, 성모회, 청우회, 연령회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평화의 모후 Pr.'에서는 1975년 11월 22일자로 1,000차 주회를 가졌고, 연령회에서는 1971년 9월 그 명칭을 '위령회'로 개칭하고 상가 돌보기와 방문 및 연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소화 부녀회"는 기존의 십자 부녀단이 1971년 12월 9일 모임을 갖고 새로 임원단(회장: 손 안나)을 선출함과 동시에 회명을 개칭함에 따라 기존의 흰나리 클럽과 데레사회 회원들도 이 부녀회 회원으로 합치되었다. 이후 소화 부녀회에서 가장 노력을 기울인 것은 회원들의 친교 활동과 고아원·양로원 방문 등을 통한 '불우 이웃 돕기 운동'이었다. 특히 이 단체에서는 1971년 대림절부터 본당 사목회와 함께 폐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해마다 본당의 극빈 가정을 돕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본당 성가대 또한 많은 발전을 보게 되었다. 유영도 신부와 김옥균 신부 시절부터 유지되어 오던 체제를 일신하여, 소화 부녀회 회원들과 꾸르실료 교육을 마친 남성 신자들로 남·여 혼성 성가대를 편성하는 한편, 1975년 3월 그 이름을 "새로나 성가대"로 개칭하였다. 이때 그 단장에는 이용화(李容和, 아벨), 부단장에는 한칠수(첼마), 지휘자에는 김정호(안셀모)가 선임되었다. 한편 본당의 "청년 성가대"가 1972년 12월 창립 모임을 갖고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성가대



“새로나 성가대” 창단 기념 사진(1975년 3월).

는 1975년 2월 16일 “청년회”가 발족되면서 해체되었다.

이 무렵에 활발한 활동을 했던 또 하나의 단체로는 청우회를 들 수 있다. 그 회원들은 본당 후보의 발간을 담당하는 동시에 본당 행사 때마다 봉사 활동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 단체에서는 1971년 5월 제 164호를 끝으로 중단된 후보 <검은 돌>을 부활시키려고 노력한 결과 1971년 9월 5일에는 제165호를 속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후보 발간을 위한 재정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속간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검은 돌>은 바로 성당의 뉴스 메이커요 참다운 대화를 나누는 광장이므로, 마치 새싹을 가꾸듯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매주 발행되는 계기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열띤 참여가 있기를 바라며, 특히 우리 본당의 희망인 청소년 대학생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힘과 정성을 모아 어느 본당, 어느 후보에 뒤떨어지지 않는 <검은 돌>을 만들 때, 그것은 곧 사랑의 실천과 보람 있는 신앙 생활이 될 것입니다.

본당의 학생 단체는 기존의 고등부 글로리아 합창단, 소년·소녀 스카우트 외에 1972년에 창립된 중학생들의 모임인 “셀(Cell) 모임”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친교·신심 활동을 주로 하였는데,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는 불우 이웃 돕기 운동도 겸하였다. 한편 보이·걸 스카우트에서는 정기적으로 캠프·하이킹 행사를 갖고, 1976년 2월에는 제1회 민속제도 개최하였다. 또 글로리아 합창단원들은 정기적으로 양로원·고아원을 방문하였고, ‘문학과 음악의 밤’ 행사 등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친교에 공헌하였다. 그리고 1974년 10월부터는 합창단원들을 중심으로 본당의 모든 고등학생 단체를 참여시켜 연합 회보 형식의 잡지 편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1975년 1월 31일에는 《작은 검은 돌》(200여 쪽)을 발간하게 되었다.




제 4 편

공동체 활성화와 성당 신축

제 1 장 내적 쇄신 운동과 소공동체의 활성화 / 159

제 2 장 성당 신축과 본당의 변화 / 177



제 1 장

내적 쇄신 운동과 소공동체의 활성화

1. 나상조 신부와 사목 활동

1) 냉담자 회두와 내적 쇄신 운동

명수대 본당의 1970년대 전반기가 본당 분할을 끝내고 재정착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라면, 1970년대 후반기는 그 기틀 위에서 본당의 사목과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어 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단체의 신설과 함께 그 활동이 다양화된 점, 본당 자체적으로 신용 협동 조합(信用協同組合)을 창립하고 성모 동굴을 건립한 점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제6대 나상조(羅相朝, 아우구스티노) 신부의 적극적인 사목적 뒷받침에 힘입은 결과이다.

나 신부가 명수대 본당으로 임명된 것은 1976년 5월 25일(6월 3일에 부임)이었다. 동시에 전임 박병운 신부는 신설 반포 본당으로 전임되었다. 나 신부는 본당에 부임하자마자 우선 주일 미사를 5대(6시, 9시, 10시, 11시, 18시)로 늘리고, 평일은 6시로, 토요일 특전 미사는 18시로 정한 뒤 '가정 합동 미사'를 신설하여 매주 제3주일에 시행하였다. 그리고 즉시 신자수를 조사하는 동시에 교적을 정리하고, 구역·반의 친교 활동을 통한 소공동체의 활성화(반수 확대와 반별 가구수를 줄여서 반장과 반원 간의 유대를 모색함)와 재교육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1977년 2월 당시 본당의 신자수는 총 4,500여 명에 이르고 있었지만, 그중 행불자가 500여 가구 1,500여 명이고, 냉담자가 100여 명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을 제외한 일반 신자수는 총 516세대 2,805명(남 1,215명, 여 1,590명)이었고, 외곽 교우 가정은 222가구였다. 그래서 외곽 교우들을 포함한다 해도 본당의 실제 신자수는 3,000명을 조금 넘

는 정도였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여러 차례의 본당 분할로 인해 교적 정리가 잘되지 않은 데 원인이 있었지만, 그 동안 본당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탓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나 신부는 그 현상을 중시하고 냉담자 회두 운동을 펴는 한편, 다음과 같이 내적 쇄신을 신자들에게 당부하였다.

본당 안의 신자수가 냉담자나 행불자로 인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같은 길을 걷던 우리들 중에 낙오자가 생기게 된 것이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그 동안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와 같은 교회의 소극화 현상은 해방 이후의 물질 만능주의, 재교육 활동의 부족, 단일한 교회의 태도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참 뜻을 올바로 깨닫고 적극적인 신앙 생활과 교회 재창조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신자들 스스로 현재의 신앙 생활에 맞는 신앙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다시 교육을 받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나 신부는 부임 초창기에 적극적인 신앙 생활과 재교육 활동을 통한 쇄신 운동을 강조하고, 냉담자 회두와 행불자 찾기 운동, 전교 활동의 활성화에 노력하며, 정기적으로 본당 또는 단체 연합 차원의 피정·재교육 활동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1980년 1월 14일에는 M.B.W 기초 묵상회(성인 남녀, 3박 4일, 본도회관)를 개최하였고, 6본당에서 개최된 제1회 M.B.W 묵상회(1980년 6월 29일).



성수대본당 제1회 M.B.W. 묵상회 기념 사진 (80.6.29)



교회생활의 화해와 쇄신을 위한 연수회(1977년 4월 1~2일과 6월 5~6일).



월 29일에는 이 목사회(4일)를 본당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명수대 본당의 교세는 1977년 말 냉담자 수 45명, 행불자 수 1,547명이던 것이, 1978년 말 냉담자 수 50명, 행불자 수 1,374명으로 줄게 되었다. 반면에 가구수는 1977년 말에 763가구, 1978년 말에 874가구, 1979년 말에 885가구로 증가하였다.

2) 소공동체의 활성화와 친교 활동

재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나 신부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으로 사목 방향을 이끌어 가고자 하였다. 그래서 1979년도의 사목 지침에서는 우선 신자들 사이의 획적인 유대 조성과 본당 단체들의 연대감 조성 운동으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첫째로 구역 조직을 개편하여 이전부터 추진해 온 소공동체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고, 둘째로 연령회를 위령 봉사회로 개편했으며(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적으로 상가에 진정 도움이 되도록 함), 셋째로 자발적인 교무금 납부를 유도하고, 넷째로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 신장(伸張)에도 힘쓰도록(부모들의 협조 당부, 어린이를 위한 본당의 장소 제공, 적극적으로 주일학교 교육과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 하였다.

또한 나 신부는 본당과 지역 사회와의 관계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신자들로 하여금 불우 이웃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였고, 전교 활동을 통한 사회의 복음화를 강조하며, 사회의 변화 속에서 신앙인의 소명을 갖도록 하였다. 특히 1981년 4월 27에는 성당 내 푸름의 방에 "향지 직업 청소년 학교" (교장: 나상조 신부, 교감: 김민수)를 설립하고, 생활을 위해 직업 일선에 뛰어난 지역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중·고등학교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와 같은 사목 활동의 일환으로 나 신부는 1980년과 1981년 7월 28일 몽산포(夢山浦)에서 4박 5일 동안 청년·성인·주일학교 등 '단체 연합 하기 수양회'를 개최하고, 자신이 이를 직접 지도함으로써 서로의 친교를 다지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해마다 250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하여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다. 본당에서 1981년 5월 17일에 개최한 지역 사회의 경로 잔치, 7월 17일 중대부고 운동장에서 개최한 "만남의 제전" 체육 대회도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그리고 1981년 6월 14일, 송전대학교에서 열린 '조선교구 설립 150주년 기념 제9지구



'전 단체 연합 하계 수양회'에 참가한 복사단(1980년 30일, 몽산포).

신앙 대회'를 본당 친교 활동의 하나로 추진하여 반장을 중심으로 동원부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신자들이 참여토록 하였다. 이 중에서도 본당의 체육 대회는 대포회·청년 성가대·레지오 마리아(청년 3개)·교사단 등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는데, 많은 신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친교의 마당을 이루는 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나 신부는 1980년 5월 광주 사태가 일어나자 <검은 돌>에 '시대의 위기'를 연재하면서 "남이 보는 시대의 증표가 자기의 것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박해, 압박, 말살하려 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시대의 증표를 인식하고 인류 역사의 복음화'에 앞장서야 한다. '시대의 위기' 속에서 그 증표를 읽는 데 노력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크리스찬의 불타는 소명을 가지고 이에 도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때 본당 신자들은 1980년 6월 8일 광주 복구 구호금을 모금하고,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국의 평화와 교회 쇄신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2. 구역·사목회의 개편과 본당 사업

1) 구역·반 개편과 평신도 협의회 구성

당시 본당에서 역점을 둔 사목 활동 가운데 하나는, 나 신부의 지침 대로 기초 공동체로서의 반수 확대와 반별 가구수를 줄여서 반장과 반원 간의 유대를 모색하여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꾀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가정 방문을 끝낸 1976년 8월 15일 구역·반을 1차로 개편하여 다음과 같이 모두 8구역 20개 반으로 조직하고, 각각 구역 회장과 반장을 새로 임명하였다.

이렇게 편성된 본당의 구역·반 현황은 소공동체화의 추진이 다시 활성화된 1979년 초 8구역 28반으로 개편되었고, 이에 3월 25일 구역 회

구역·반 편성 현황(1976년 8월)

구역 명	구역 회장	반 수
흑석 1동 1구	이근찬(李根讚, 바오로)	3개 반
흑석 1동 2구	이장형(李長炯, 요아킴)	3개 반
흑석 2동 1구	성병철(成丙哲, 마르코)	2개 반
흑석 2동 2구	박동수(朴東壽, 바오로)	3개 반
흑석 3동 1구	이상래(李上來, 미카엘)	3개 반
흑석 3동 2구	이상호(李相浩, 금구)	2개 반
본동 1구	유영록(劉永錄, 안드레아)	2개 반
본동 2구	박기순(朴基順, 베드로)	2개 반

장 전원이 여성 신자들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이후 두 차례의 확대 개편으로 1980년 1월에는 총 8구역 52반으로 세분되었는데, 당시 구역 회장들은 자료의 미비로 그 이름을 알 수 없다. 본당에서는 반 편성을 확대하면서 “구역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회장에 장인순(마리 스텔라), 총무에 연제선(마리아)을 임명하고 위원으로 19명을 위촉하였다. 명수대 본당이 서울대교구 8지구에서 9지구 소속으로 변경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이러한 가운데 본당에서는 ‘구역별 회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

은 우선 구역·반별로 구역 회장·반장·신자들 사이의 유대 관계를 조성한다는 데 목적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각 지역의 활성화를 통해 본당 사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신앙 생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본당에서는 우선 1979년 8월 구역별 회합을 시범적으로 개최한 후 이를 보완하여 다음 달부터는 본당 전 구역으로 확대해 나갔다.

한편 본당의 기초 공동체 조직의 하나인 사목회는 전의 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총회장의 경우에는 1975년 11월에 임명된 제7대 총회장 장대훈(張大勳, 루가)이 나 신부 부임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다가 1976년 12월 19일자로 조규동(曹奎東, 가브리엘)이 제8대 총회장에 임명되어 그 후 4년 간을 활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 11월 29일 제9대 총회장으로 문중섭(文重燮, 디모테오)이 임명되었고, 본당의 사목회도 크게 개편되어 “평신도 협의회”로 재구성되었다.

1980년 11월 본당에서 평신도 협의회를 새로 구성하게 된 이유는, 이해 10월 서울대교구에서 모든 본당의 사목회를 <교구 평신도 협의회 구성 지침>에 따라 개편하도록 지시한 때문이었다.

2) 신용 협동 조합 창립과 성모 동굴 제막

이 무렵에도 본당에서는 성당이 오래 되어 낡은 탓에 계속 보수 공사를 해야만 하였다. 그래서 신자들은 조규동(가브리엘) 총회장과 사목회를 중심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우선 1977년 10월에는 성당 난방 장치 및 화장실을 개조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4월에는 사제관 1층에 도서실을 마련하여 신자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마련된 도서실은 나 신부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음에는 1979년 7월부터 성당 내·외부 보수 공사를 시작하여 그 해 9월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나 신부 재임기에 본당에서 이룬 사업 가운데 가장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명수대 신용 협동 조합”의 창립과 “성모 동굴”의 조성을 들 수 있다. 그중 신용 협동 조합은 신자들 사이에 상부 상조의 정신과 유대 관계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1979년부터 계획하였지만,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미루어 오다가 2년 뒤인 1981년 2월 1일 발기인 모임을 가지고, 3월 1일에 창립 총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때 그 초대 이사장에

는 이상용(李相容)이, 부이사장에는 권혁두(權赫斗, 안드레아)가 각각 선임되었고, 이사 13명과 감사 3명이 임명되어 출자금 1천만원 확보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창립당시에 조합원 수 87명, 출자금 325만원이던 것이 3개월 뒤인 6월 1일에는 조합원 수 150명, 출자금이 500여 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본당의 성모 동굴 조성 사업은 문중섭(디모테오) 총회장 때인 1981



성모 동굴.

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신자들은 봉헌금을 통해 사업 기금을 마련한 다음 1981년 4월 20일 성당 앞(현 사제관 우측)에 동굴 건립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5월 중순까지 동굴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조경 공사를 완료하여 이해 5월 30일에는 노기남 대주교의 미사 집전 아래 그 제막식 및 축성식을 가지고, 그날 밤에는 이 자리에서 성모의 밤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게 되었다. 당시 이를 위해 신자들은 모두 5차례에 걸쳐 기금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 소요된 총 비용은 5,217,500원이었다. 한편 제막식 당일 문중섭 총회장은 신자들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축시를 <검은 돌>에 게재하였다.

성모상 제막식에 부친 축시

만민에게 자비롭고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당신이 사랑하는 천주학 교도들이 정성을 모아
명수대 성역에 정중히 모시오니
이곳을 찾는 성도들의 소망을 귀담아 들어 주시옵소서.

만민의 구제자이시고 자비하신 성모 마리아여!
 참 사랑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 하는 명수대의 성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애타게 간구하나니
 이들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 주시옵소서.

만민의 어머니이시고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사악에 물들지 않으시고 자비하신 당신 앞에 엎드려 비옵나니
 죄많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온 겨레가 염원하는 통일의 기쁨을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단체의 신설과 활성화

1) 단체의 신설과 활동

1976년 이후 본당에서는 복자회·성심회·청년 성가대·대포회·장미회·위령 봉사회·성령 봉사회 등 여러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이 단체들은 친교와 신심 활동, 불우 이웃 돕기나 본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존의 단체들과 함께 소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게 되었다. 1976년 12월 4일 '새로나 성가대'에서는 회원 12명(남 8명, 여 4명)으로 구약 성서 연구반을 조직하였고, 1978년 6월에는 김순분(빈첸시아) 수녀의 지도로 본당 청년회에서 성서반(창세기, 신약 성서)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신현숙(베아트리스) 수녀의 지도로 어머니 성서 그룹 모임이 2그룹으로 결성되었다가 이듬해 3그룹으로 확대되었다.

본당의 신설된 단체들 가운데 우선 "복자회"(초기의 이름은 '복자 부녀회')는 1977년 2월 2일 새로 영세한 젊은 부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초대 회장에 김연화(베네딕타), 부회장에 김계환(마리타), 서기에 박종숙(데레사), 신학연(로즈 마리), 총무에 박영자(젬마)가 선임되었다. 이후 복자회에서는 단독으로 혹은 소화회 등과 함께 해마다 피정을 하고, 성심 전교회와 함께 불우 이웃 돕기 활동도 하였다. 이 단체의 초대 회장단은 1979년 2월에 개편되어 제2대 회장에 신학연(로즈 마리)이 선출되었다.

다음으로 “예수 성심 사랑의 전교회”(약칭 ‘성심 전교회’)는 극빈자나 불우 이웃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1978년 3월에 설립된 단체(초대 단장: 임우식 그레고리오)였다. 그 회원들은 자체 모금을 통해, 혹은 다른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수시로 수혜자를 선정하여 돕고, 본당 활동도 후원하여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회원수를 배가하여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갔고, 그래서 1980년도에는 시골 공소 지원, 불우 이웃 돕기, 그리고 본당 활동 등에 450만 원을 후원하였으며, 1981년도에도 다달이 약 20만 원씩을 모아 20명 내외의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1978년 4월 23일에는 “청년 성가대”(회장: 안민선 요한)가 재발족하게 되었다. 이 단체는 1975년 2월에 청년회 발족으로 해체된 적이 있었지만, 그 필요성이 절박하여 새로 조직된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이 해 11월 19일 청년회 월보인 <도미네>(Domine) 창간호 발간을 담당하면서 그 명칭을 “도



설립 당시의 복지회 회원들.

미리내 성지를 순례한 복지회(1979년 9월).



미네 청년 성가대”로 개칭하여 12월 23일에는 첫 성가 발표회를 가졌다. 그리고 이후 수련회·야유회·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갖는 한편 1979년 9월에 ‘제1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1980년에는 성가책 및 서적 공소 보내기 바자회를 개최하고, 불우 이웃 돕기 운동이나 피정 활동도 하였다.

1979년에 들어 새로 설립된 단체로는 우선 “대포회”(大佈會, 현 대건회의 전신)가 있다. 이 단체는 1979년 6월 17일 설립 당시에는 30대 남성 신자들로 구성되었으나 점차 그 폭을 넓혀가게 되었다. 초대 임원으로는 회장에 이정무(그레고리오), 부회장에 김광언(스테파노), 총무에 구자혁(具滋赫, 요한)이 임명되었고, 설립 첫 사업으로 그 해 7월에 성당 내에 선풍기를 기증하였다.

이후 대포회는 본당에서 가장 활발한 단체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그 회원들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서 말씀대로 활력과 생동력 있는 신앙 생활을 목표로 하면서 본당의 각종 활동에 동참하였다. 설립 이듬해 1월에는 나 신부의 지도로 본당 교우 현황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이해부터 본당 활동이나 다른 단체의 활동을 적극 후원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회원 성지 순례 및 야유회, 피정, 체육 대회 등을 통해 신심·친교 활동을 펼쳐 나갔다. 이 단체의 임원진은 1980년 5월 18일 제2대 회장 박종길(朴鍾吉, 필립보), 부회장 주창원(朱昌元, 라파엘), 권혁두(안드레아), 총무 구자혁(요한)으로 개편되었다가, 1981년 6월 21일에는 제3대 회장 권혁두(안드레아), 부회장 김관태(베드로), 총무 박의부(모이세)로 교체되었다.

1980년이 되어 신설된 단체로는 우선 1980년 5월 본당의 꽃꽂이와 환경 가꾸기를 목적으로 설립된 “장미회”를 들 수 있고, 다음으로 7월 13일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해 설립된 “주일학교 자모회”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81년 3월 31일에는 “위령 봉사회”가 설립되어 회장에 김용태(아우구스티노), 부회장에 박동수(바로로), 안영중(베드로), 오 루시아, 이 말가리다, 총무에 구자혁(요한) 등을 선출하였다. 위령 봉사회에서는 이후 월례회를 개최하면서 회원 증가에 노력하여 5월 말까지 250명을 확보하고, 연도 및 상가 돕기 활동을 통해 그 입지를 다져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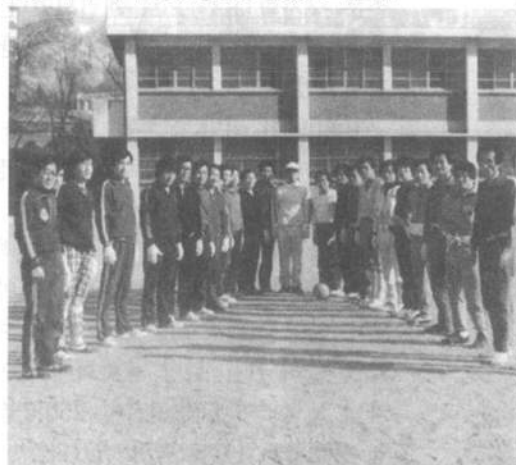


대포회 가족 야유회(1980년 5월 5일, 미리내).

어린이와 춤을 추는 나상조 신부.



본당 체육 대회 전체 진행을 맡았던 대포회.



한편 1980년 9월 21일에는 종로 본당 성령 쇄신 봉사회의 봉사로 '명수대 본당 성령 세미나' 첫 안수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10월 13일에는 처음으로 명수대 본당 성령 기도회(조규동 총회장과 한복순 데레사 주관)가 개최된 이후, 매주마다 계속되었고, 이때 개최된 7주간 세미나에는 모두 250명의 신자가 참석하였다. 이것이 바로 본당의 "성령 봉사회(기도회)"와 성령 세미나의 기원이 되었다.

2) 기존 단체들의 활동

기존의 본당 단체들은 이 시기에 와서도 큰 변화 없이 각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우선 레지오 마리아의 경우는 기존의 5개 빠레씨디움이 활동 주축이 되었다. 여기에 1978년 9월 8일에 신설된 '사랑의 모후 Pr.'(중년 부인팀, 단장:김연화 베네딕다), 1979년 8월 12일에 재설립된 '상아 보탑 Pr.'(미혼 청년팀, 단장:홍병준 베드로), 1980년 11월 9일에 신설된 '사랑의 샘 Pr.'(미혼 여성팀, 단장:김남숙 베로니카)이 참여하였다. 이 밖에도 당시에는 소년·소녀 빠레씨디움으로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남자 고등부), '천사의 모후 Pr.'(여자 중등부) 등이 설립되었다.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은 우선 주회, 아치에스 행사, 연총 친목회, 옥외 행사, 교본 및 성서 연구에 노력하면서 동시에 위령 미사 봉헌, 불우 이웃 돕기 및 본당 봉사에도 앞장섰다. 그리고 1980년에는 모두 8개의 빠레씨디움에 행동 단원 100명, 협조 단원 150명을 확보하고, 5월 21일에는 민족 복음화 대회(잠실 학생 체육관)에, 11월 22일에는 서울 레지오 도입 25주년 민족 복음화 대회(잠실 체육관)에 참여하였다. 특히 이 서울 레지오 은경축 행사에서는 본당의 조규동(가브리엘)과 장대훈(루가) 회장이 기념패를 받았으며, 25년 근속자 2명과 15년 근속자 3명이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본당의 성인 단체들 가운데서 성모회는 매년 성지 순례 및 피정을 통해 회원들의 신심 함양과 친교를 도모하였고, 새로나 성가대에서는 정기적인 연습과 전례 참여, 성서 연구, 본당 활동 후원 등을 꾸준히 지속하였다. 그리고 소화 부녀회 또한 피정과 불우 이웃 돕기, 본당 활동 후원에 힘썼다.

본당의 청년회 활동과 보이·걸 스카우트 활동, 고등부 쉼 모임 등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그중에서도 청년회에서는 정기적인 피정 활동과 함께 1980년 2월 19일에는 M.B.W 청년 목사회(3박 4일)를 처음으로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 본당의 후보 <검은 돌> 발간을 담당하던 청우회는 1976년 8월부터 그 명칭을 “청지회”로 개칭하였지만, <검은 돌>이 1981년 9월 13일자 제710호를 끝으로 <서울 주보>에 통합됨으로써 이 단체 활동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본당의 스카우트 활동은 정기적인 캠프, 수련회, 민속제 등을 통해 이룩한 업적을 인정받아 1979년 5월 5일 서울 연맹으로부터 ‘조직 우수대’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주일학교 교육과 교사회 활동은 이 시기에 와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중에서도 1977년 8월 1일부터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충북 보은 지역에서 시작한 ‘교리 학교 봉사 활동 및 노력 봉사’는 좋은 호응을 얻어 해마다 6박 7일 정도로 계속되었다. 특히 1980년에는 보은 지역에 내린 큰 호우로 인해 피해가 많은 가운데서도 보은과 그 이웃의 청산 지역 6개 공소에서 교리 학교 봉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의 <검은 돌>에서는 이때의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주일학교 교사들의 ‘보은 지역 교리 학교 봉사 활동’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계속되었다. 지난 7월 29일부터 교사 2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팀은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보은·청산 지역의 교우와 어린이들을 위해 하느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 이 활동에는 본당 안의 여러 어른 신자들의 뒷받침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이들은 주일학교 교육 봉사를 위주로 하였는데, 모든 공소의 어린이들이 나중에는 헤어짐을 아쉬워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보은 지역의 여러 공소들과 맺은 인연이 계기가 되어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1979년 12월에 불우 이웃 돕기 운동을 벌였고, 그 수익금으로 장갑 180켤레를 사서 공소에 보내기도 하였다. 또 1976년 8월 10일 이후 해마다 개최된 ‘교사 합동 하기 연수회’와 여름 성경 학교, 하계 캠프 활동, 연례 피정 행사도 주일학교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1978년부터 부활 달걀 판매, 영화 감상, 일일 찻집, 후원금 모금 등을 통해 운영 기금과 봉사 활동 기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본당에서는 1981년 6월 7일 성당 별관에 “나자렛 교육관”을 개관하고 이를 교사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변화된 공동체

1) 수도자의 이동과 성소

나 신부 재임 시절에도 본당의 수도자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것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에서 각 분원의 필요와 실정에 맞추어 수도자를 파견할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때문이기도 했다. 이때 먼저 제전을 담당해 오던 동안 이송자(제올지아) 수녀가 1976년 7월 9일에 이임함과 동시에 권영희(權寧嬉, 이나시오) 수녀가 부임하였고, 이어 1977년 6월 1일에는 권 이나시오 수녀가 이임하고 김순분(金順分, 빈첸시아) 수녀가 부임하였다.

다음으로 제3대 분원장으로 활동하던 신현숙(베아트릭스) 수녀가 1979년 2월 9일 발산동 본당으로 전임되고, 같은 날 양성덕(梁成德, 루멘) 수녀가 제4대 분원장으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양 루멘 수녀가 본원 사정으로 그 해 9월 3일 이임하면서 동시에 전배경(田培景, 엠마) 수녀가 제전 담당 수녀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5개월 간은 김순분(빈첸시아) 수녀가 임시로 분원장을 맡아보게 되었다. 본당의 수도자들이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신자들과 친숙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무렵부터였다. 즉 1980년 2월 10일에는 김 빈첸시아 수녀가 이임함과 동시에 제5대 분원장으로 이효자(李孝子, 엘리사) 수녀가 강릉 본당에서 부임하여 전 엠마 수녀와 함께 본당의 사목을 돕게 되었다.

한편 유치원 교사 수녀의 경우는 1974년 11월에 부임한 김영옥(유릿다) 수녀가 1978년 3월 1일에 이임함과 동시에 최송자(崔松子, 요한) 수녀가 제3대 유치원 담당 수녀로 부임하였고, 최 요한 수녀가 1981년 2월 19일 한강 본당 유치원으로 전임되면서 정옥택(鄭玉澤, 로사리마) 수녀가 제4대 유치원 담당 수녀로 부임하게 되었다.

1981년 당시의 명수 유치원.



이 기간 동안 본당에서는 1971년 12월 나원균 신부가 서품된 지 7년 여 만에 네번째 성소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1978년 부제품을 받은 민병덕(閔炳德, 비오) 부제가 1979년 3월 6일 사제로 서품된 것이다. 민신부는 이후 3월 18일에 첫 미사를 드리고 왕십리 본당 보좌로 사목 활동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는데, 이후에도 본당의 청년 신자들과 자주 접촉하였다.

본당 수녀들의 변모 현황(1976~1981년)

성명	본명	재임기간	비고	성명	본명	재임기간	비고
권영희	이나시오	1976.7~77.6		전배경	엠마	1979.9~82.2	
김순분	빈첸시아	1977.6~80.2		이효자	엘리사	1980.2~83.2	분원장
최송자	요한	1978.3~81.2	유치원	정옥택	로사리마	1981.2~84.2	유치원
양성덕	루멘	1979.2~79.9	분원장				

2) 본당 현황과 달라진 내용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나상조 신부는 부임과 동시에 냉담자 회두 운동과 전교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1977년 말에는 본당의 냉담자 수를 45명으로 줄였다. 아울러 행불자를 정리하거나 다시 미사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79년부터는 소공동체 활동을 떠나갔다. 이후에도 본당에서는 교적 정리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신자들은 냉담자나 행불자를 줄이는 데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교세 통계를 내기란 어려웠고, 외딴 교우 또한 언제나 200여 가구에 이르고 있었다.

당시의 교세 통계표를 보면, 1981년 6월 30일 현재 본당의 신자수는 4,803명(남 2,129명, 여 2,674명)으로 나타나며, 그중 일반 신자들은 831가구(외딴 교우 274가구 포함)에 2,960명(62%)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한 현황 집계 결과 냉담자가 199명, 행불자가 1,644명으로 조사되었다. 그 후 본당의 신자수는 다시 증가하여 1981년 12월 말에 4,940명(남 1,892명, 여 3,058명)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해의 전 출입 현황은 증가한 숫자가 545명(세례자 405명, 전입자 140명)인 반면에 감소한 숫자는 357명(사망 27명, 전출 330명)으로 특히 전출자가 전입자에 비해 매우 많았다.



첫영성체 기념(1978년 9월 24일).

또 본당에서는 1981년 6월, 831가구 2,960명을 모두 47개 반으로 편성하여 1개 반 당 평균 18가구(최다 28가구, 최소 10가구)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단체 활동의 경우는 모두 17개 단체에 연 1,003명(남 373명, 여 630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남성 신자들의 활동이 저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주일학교의 경우에도 초등부 64%, 중등부 82%, 고등부 22%의 참가율을 보여 특히 고등부의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당의 교세 현황(1977~1981년)

연도	총 신자수			일반 신자수			냉담자	행불자
	남	여	계	남	여	계		
1977	1,865	2,674	4,803	1,118	1,914	3,032	45	1,547
1978	1,869	2,800	4,669	1,219	2,026	3,245	50	1,374
1979	1,899	2,871	4,770	1,224	2,089	3,313	47	1,410
1980	1,829	2,861	4,690	1,359	2,176	3,535	45	1,110
1981	1,892	3,058	4,940	1,300	1,936	3,236	182	1,532

그러면 1981년 당시 본당의 신자 구성은 어떠했을까? 신자 총수 4,803명 중에서 학생과 아동은 1,473명이었고, 20~40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은 2,066명이었으며, 장년·노년층이 1,264명으로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신앙 경력을 보면 전수 조사 가운데 영세 받은 지 20년 이상이 되는 신자가 가장 많은 26.7%를 차지하고 있었고, 10년 이상된 신자도 23.1%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5년 이하인 신자들도 21.1%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당이 설립된 지 이미 27년이 나 지난 관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오래 된 신자들이 그대로 흑석동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황 속에서 명수대 본당은 신용 협동 조합 창립, 성모 동굴 조성, 여러 단체의 신설, 구역·반의 개편 등 새로운 면모를 보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나상조 신부 재임기에 들어와 본당은 새로운 안정을 찾게 되었고, 신자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그 밖에 냉담자·행불자의 감소와 소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또한 특기할 만한 점이었다. 그러다가 1881년에 이르러 본당 신부의 인사 이동이 있게 되어서 신자들은 새 신부를 맞이하여 또 다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제 2 장

성당 신축과 본당의 변화

1. 이종환 신부의 부임

1) 이 신부와 사목 방향

본당의 성장은 외형적인 면과 내면적인 면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후반 4년은 명수대 본당이 내면의 성장을 이룬 시기였다. 제6대 나상조 신부가 5년 3개월 간 본당에 재임하면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인 부분도 바로 이러한 내적 측면이었다. 반면에 이 시기에 새롭게 대두된 문제는 새 성당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성당 신축' 문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고, 신자들은 1980년대 전반기 내내 이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임기를 채운 나 신부는 1981년 8월 21일(9월 3일 이임) 상봉동 본당으로 전임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정릉동 본당에 있던 이종환(李鍾煥, 미카엘) 신부가 제7대 본당 주임으로 임명되어 9월 3일에 부임하였다. 이 신부는 1963년 12월 20일 가톨릭대학 신학부를 졸업함과 동시에 사제로 서품되었고, 미아동 본당의 보좌를 거쳐 1968년 10월 이후에는 일산·해방동·정릉동 본당의 주임 신부를 역임하였다.

이 신부는 본당에 부임한 뒤, 첫째로 역대 신부들의 사목 방침이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고, 둘째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면에서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 셋째로 성당 신축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였다. 특히 두번째 문제에서 그는 1983년 2월 6일부터 본당 주보를 통해 공의회 문헌(公議會 文獻) 내용을 설명하는 난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이 중에서도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특히 강조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 중의 하나가 평신도에 관한 것입니다. 즉 교회의 사명 완수에 있어서 평신도들의 고유하고 절대적인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이며, 교회 발전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당의 평신도들은 우선 순명하는 자세를 갖추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된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기의 생활 속에서 맡은 바 사제직·예언직·왕직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 부임 이듬해에 들어서자마자 이 신부는 '1982년도 사목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본당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당시의 사목 방향은 대체로 네 가지로 구분되었고, 그에 따라 세부 지침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조직 : 본당 신부를 총재로 한 사목 협의회 중심 체제 확립
기능상·성질상 동류의 단체는 일원화함을 원칙으로 함
중앙적 단체 활동 지향
본당 재정 공개의 원칙과 예산 수지 통일의 원칙
- 신자 재교육 : 기초 교육 강화
피정을 통한 신심 활동의 활성화
전례의 성실화와 성가 개창 운동
- 신자 증가 운동 : 예비자 확보 운동과 냉담자 회두 운동(교적 정리와 가정 방문)
통신 교리의 체계화
- 교회 환경 개선 : 노후하고 협소한 성당 환경 개선
봉헌금 납부 운동 전개
1984년 본당 설립 30주년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바라보며 성전 신축 운동 전개

2) 사목회의 개편과 구성

이 신부 재임기에 본당의 사목회는 세 차례 개편되었다. 그중 첫번째 개편은 제9대 사목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1981년 12월 8일에 이루어졌다. 이때 이루어진 제10대 사목회는 이전의 조직과 달라진 점이 없었으며, 제7대 총회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던 장대훈(張大勳, 루가)가 다



1982년 이종환 신부 때의 반장단(위)과 복사단.



시 제10대 총회장에 임명되었다. 다만 사목회의 분과 조직에 '건축 분과'를 신설하여 성당 신축을 위한 사전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해에는 성전 신축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번째의 개편은 1982년 12월 19일에 이루어져 이승균(李承均, 토마스)이 제11대 총회장에 임명되었다. 또 이 제11대 사목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목 위원들이 새로 선임되었고, '기획 분과'와 '재정 분과'가 신설되면서 모두 9개 분과로 조직되었다. 특히 제11대 사목회에서는 새 성전(현재의 성당) 건립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우선 건립 기금 마련에 앞장서고, 1984년 3월 기공식을 가진 뒤 전 신자들이 성당 건립에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사목회 구성과 동시에 기존의 '건축위원회'를 사목회 조직에 연결시켜 본당 신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제10대 사목회 임원 현황(1981.12~1982.12)

- 총회장 : 장대훈(루가)
- 부회장 : 이용화(李容和, 아벨)
- 총 무 : 이상용(李相容, 토마스)
- 분과 위원장 : 전례 분과 김영곤(金英坤, 요한), 선교 분과 한철수(韓七洙, 켈마), 교육 분과 원종우(元鍾宇, 마오로), 청소년 분과 황영하(黃永夏, 안드레아), 사회 복지 분과 정경숙(鄭庚淑, 비비안나), 구역 분과 장대훈(겸임), 건축 분과 이용욱(李瑑郁, 바실리오)
- * 구역 분과 위원장은 1982년 4월 4일에 장인순(張仁順, 마리스텔라)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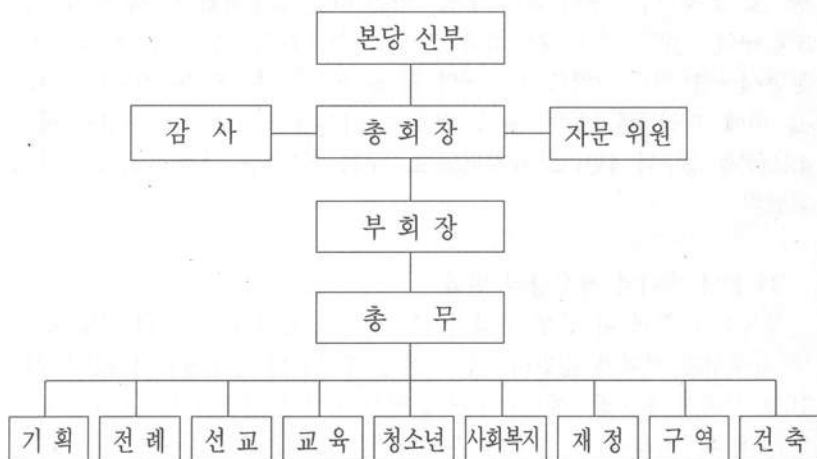
제11대 사목회 임원 현황(1982.12~1985.1)

- 총회장 : 이승균(토마스)
- 부회장 : 박기순(朴基順, 베드로)
- 총 무 : 김하운(金夏潤, 예로니모)
- 분과 위원장 : 기획 분과 태원석(太元錫, 야고보), 전례 분과 김영곤(요한), 선교 분과 이장형(李長炯, 요아킴), 교육 분과 권혁두(權赫斗, 안드레아), 사회 복지 분과 방달호(方達

浩, 요셉), 청소년 분과 황영하(안드레아), 재정 분과 함용운(咸鏞允, 미카엘), 구자혁(具滋赫, 요한), 건축 분과 박종길(朴鍾吉, 필립보)

세번째의 개편은 1985년 1월 25일자로 이루어졌고, 박기순(朴基順, 베드로)이 제12대 총회장에 임명되었다. 이 제12대 사목회는 11대의 분과 구성을 그대로 따랐고, 또 분과 위원장들도 일부만 변경되었지만, 기획·재정·건축 등 일부 분과에 부위원장을 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자문 위원 14명과 감사 2명을 따로 두었고, 부회장을 2명으로 늘렸다. 그리고 그 전해부터 계속되어 온 성전 완공에 중점을 두면서, 한편으로는 성전 건립으로 인해 신자들의 교육·선교·청소년 활동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제12대 사목회 조직 구성표(1985.1~1987.11)



- 자문 위원 : 김영호, 문중섭, 박기중, 백용기, 위정현, 이근찬, 이승균, 이용화, 임우식, 장대훈, 조규동, 한준석, 홍숙, 홍순규
- 총회장 : 박기순(베드로)
- 부회장 : 조중환(曹重煥, 요한), 공보찬(孔甫燦, 베드로)

- 감 사 : 함용운(미카엘), 신성환
- 총 무 : 하종수(河鍾秀, 아우구스티노)
- 분과 위원장 : 기획 분과 진중하(陳重河, 요한), 전례 분과 김영곤(요한), 선교 분과 원종우(바오로), 교육 분과 권혁두(안드레아), 청소년 분과 황영하(안드레아), 사회 복지 분과 방달호(요셉), 재정 분과 이장형(요아킴), 구역 분과 구자혁(요한), 건축 분과 문정식(文正植, 요한)
- 부위원장 : 기획 분과 이상용(토마스), 재정 분과 김진일(암브로시오), 건축 분과 이용욱(바실리오), 박종길(필립보)

이와 함께 본당의 구역·반 개편은 1981년 12월 8일, 첫번째 사목회 개편 때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때 이 신부는 앞으로 있게 될 성전 건립 기금 모금 운동과 교세의 확대에 맞추어 구역·반을 확대 개편하였는데, 그 결과 1980년 1월에 8구역 52반이던 것이 모두 11구역 48반으로 조정되고, 구역 외의 구역·반은 따로 설정되었다. 즉 흑석 1동 3개 구역(16반), 흑석 2동 3개 구역(12반), 흑석 3동 3개 구역(13반) 본동(4구역) 2개 구역(7반), 구역 외(5구역)로 나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신자들의 교적 번호는 111(흑석 1동 1구역 1반)에서 424(본동 2구역 4반)로 표기되었고, 구역 외는 맨 앞을 5로 표기하게 되었다.

3) 본당 수녀와 사무장의 변화

사목회와 함께 이 신부 재임기에는 본당의 교역자들, 특히 본당 수녀와 사무장의 변화가 많았다. 우선 본당 수녀들의 경우에는 1982년 2월 10일 전배경(田培景, 엠마) 수녀가 인천 성서 모임으로 이임하고, 홍혜영(洪惠英, 마리엠타) 수녀가 부임하였다. 그러나 홍 마리엠타 수녀는 다음해 9월 1일 부산으로 이임되고, 본원에 있던 박경애(朴敬愛, 올리비아) 수녀가 부임하였다. 이에 앞서 1983년 2월 9일에는 제5대 분원장으로 재임하던 이효자(李孝子, 엘리사) 수녀가 이임하고, 백계영(白季榮, 벨라도) 수녀가 제6대 분원장으로 부임하였다. 또 1985년 9월 2일에는 박 올리비아 수녀가 이임하고, 김태숙(도로테아) 수녀가 부임하였으며, 백계영(벨라도) 원장 수녀도 1986년 2월 4일에 이임하고, 박



건진성사 기념 (1982년 4월 25일).

영세 (1982년 12월 18일).



기순(朴基順, 멜세스) 수녀가 제7대 분원장으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수녀회의 정기적인 인사 이동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이 시기에 와서 본당 수녀원의 활동은 완전히 안정을 찾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치원 원장 수녀의 경우는 3년 동안 재임하던 정옥택(鄭玉澤, 로사리마) 수녀가 1984년 2월 20일 이임하고, 동시에 이순자(李順子, 라우렌시아) 수녀가 제5대 유치원 전담 수녀로 부임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치원 원장을 전담 수녀가 맡게 되었다. 따라서 이 라우렌시아 수녀는 김옥균 신부, 박병운 신부, 나상조 신부, 이종환 신부에 이어 제5대 유치원 원장이 된 것이다. 그 사이에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에서는 1983년 7월 1일자로 예수 성심상 뒤편의 건물을 본당에 기증하였다. 이에 본당에서는 곧 내부 수리를 시작, 7월 25일에 이를 완료(소요 비용 : 4,189,000원)하여 수녀원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본당 수녀들의 변모 현황(1982~1986)

성명	본명	재임기간	비고	성명	본명	재임기간	비고
홍혜영	마리엠타	1982.2~83.9		이순자	라우렌시아	1984.2~88.2	유치원
백계영	벨라도	1983.2~86.2	분원장	김태숙	도로테아	1985.9~86.9	
박경애	올리비아	1983.9~85.9		박기순	멜세스	1986.2~88.2	분원장

다음으로 본당 사무장의 경우에는 1967년부터 오랫동안 본당의 사무를 담당해 오던 홍숙(마르코) 사무장과 김경(미카엘) 사무원이 1981년 8월에 사임한 뒤 9월 9일자로 주창원(朱昌元, 라파엘)이 제5대 사무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 라파엘 사무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듬해 2월 사임하면서 동년 3월 3일자로 최병광(베드로)이 제6대 사무장으로 부임하였고, 이듬해 12월 1일에는 김현자(글라라)가 본당 사무를 돕게 되었다. 이후 본당의 사무는 그 둘이 현재까지 담당해 오고 있다.

2. 성당 신축과 축성식

1) 건립 계획과 기공식

성당 신축 문제가 본당 사업의 현안으로 대두된 것은 1981년도였다.

우선 1955년 5월 성당 낙성식을 가진 뒤 이미 25년이 지난 탓에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보수를 했음에도 그 효과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동안 신자수가 늘어나 주일 미사 때면 성당이 비좁았고, 교리실이나 회의실 등 부대 시설도 부족했다. 그러므로 이 신부 부임 이후 본당에서는 겨울 난방 공사, 교리실 증축 등이 논의되었으나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우선 사제관과 수녀원 난방 공사만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1981년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사제관 난방 공사(3,163,800원)를 하고,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녀원 난방 공사(553,200원)를 마쳤다.

이에 이어 본당에서는 1981년 12월 8일에 있는 사목회 구성 때 '건축 분과'를 신설하였다. 앞으로 진행될 성당 건축에 대해 사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듬해 1월 17일(주보 제728호, 1월 24일자)을 기해 다음과 같이 전 신자들에게 새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렸다.

새 성전 건축, 이것은 여러분에게 짐이라기보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공로를 세울 기회이며, 생애의 보람이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무금·헌금·봉헌금 납부 운동에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하느님 대전에서의 가치 기준은 외적인 수량이나 결과보다는 정성과 사랑, 내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당에서는 1982년 9월 4일 '성전 신축 기금 마련 연주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성전 신축을 위한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모금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3년 1월부터였고, 이해의 사목 목표도 "성전 신축 준비의 해"로 결정되었다. 이때부터 전 신자들이 여기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앞서 본당에서는 1982년 8월 5일, 사목회와는 별도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성전 건축에 관한 본당 신부의 자문 기관으로 본당 신부는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조하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조직되었고, 다음과 같이 고문과 위원들이 선임되었다.

명수대 본당 건축위원회

고문 : 문중섭, 백용기, 위정현, 이근찬, 장대훈, 조규동, 홍숙,

홍순규

- 위원 : 강석문, 김영호, 원종우, 이상용, 이용욱, 이용화, 장건성, 진중하, 최성일(1982년 12월 19일자로 임우식, 한준석 추가 선임)

이 건축위원회는 1983년 11월 9일자로 「명수대 성전 건립 추진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기본 계획과 조직 구성이 갖추어지면서 신자들은 성전 건립 운동을 현실로 느끼기 시작하였다. 또 본당에서는 1983년 1월 9일 전 신자를 대상으로 성당 신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11일에는 「한국 조형 건축 연구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1월 30일자로 <성전 건립 기도문>을 작성 배포하는 한편 성전 신축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였다.

1983년 2월 16일에 처음 집계한 성당 건립 신입금은 104,399,500원이었고, 납입금은 8,132,300원이었다. 사실 본당에서 첫 해에 세운 기금 목표액은 1억 5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의뢰한 결과 그 정도로는 공사를 착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9월 30일에 2차 신입을 받으면서 점차 목표액을 늘려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3년 12월 말에는 신입액이 243,859,500원, 납입액이 68,775,055원에 달하게 되었는데, 신입액에 비해 납입액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었다. 한편 복자회에서는 이해 9월부터 '성전 기금 마련을 위한 새우젓과 비누 판매 활동'에 들어갔고, 청년 성가대에서는 10월 8일과 9일 양일간 '성전 건립 기금 마련 연주회'를 갖기도 하였다.

교구에서 본당의 성당 신축 계획을 인준한 것은 1984년 1월 26일이었다. 그 동안 본당에서는 1984년의 사목 목표를 "성전 건립의 해"로 정하고, 1월 20일에는 설계도에 따른 토지 경계 측량과 경제 측량 등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설계 착수금 450만 원(1983.9.20), 중도금 1,000만 원(1984.1.31), 토목 측량비 60만 원(1983.10.21), 경제 측량비 542,130원(1984.1.13)을 지출하였다. 이때 성당 건립은 「일양 개발 주식회사」(성수 종합 건설 주식회사의 전신)에 위임되어 1984년 3월 6일자로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 계약금 7천만 원이 지불되었다.

교구의 인준을 받은 뒤 본당에서는 2월 6일부터 옛 성당 철거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신축 기공식 계획을 수립하여 1984년 3월 11일, 현장에서 본당 신부, 사목회 임원, 추진위원회 위원,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당시까지 신자들의 신입액은 358,764,500원이었다. 또 이후 본격적으로 성당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서 본당에서는 기존 유치원 건물(2층)을 임시 성당으로 삼아 미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신자들은 이해 5월의 성주간을 임시 성당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신자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이룩될 새 성전을 위해 기도와 모금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성전 건립 기도문

천주여 !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

모든 일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물 되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루빨리 이룩하여
주님과 우리의 결합을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스런 성전에서 주님을 기리며 찬미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2) 성당 신축과 기금 봉헌 과정

기공식 후 성당은 설계도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당시의 설계도를 보면 우선 대지 면적 1,492평에 연건평이 974.8평이었고, 여기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철근 콘크리트 웅벽 라멘조 성당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하층에는 유치원과 대강당·회의실·교리실이 마련되고, 1층에는 소강당·사무실·회의실이, 2층에는 성당이, 3층에는 성가대석이 마련될 예정이었다. 또 1984년 6월 말까지 기초 공사가 완료되고, 이어 골조 공사를 마친 뒤, 1985년 5월경에는 내부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성당 설계는 골조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약간 변경되었으며, 일자도 예정보다 늦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비도 시기에 따라 변



성당 철거 직전의 모습.



성당 철거 광경.





새 성전 기공식(1984년 2월 11일).



경될 수밖에 없었다. 또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설계비 잔금, 감리비는 물론 기성금 액수가 점차 누적되면서 신자들의 납입금이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본당에서는 교구 신협과 사목 공제회에서 대부를 받아 공사비에 충당한 뒤 이를 상환해야만 했다. 당시 본당에서 책정한 총 목표액은 6억 5천만 원이었고, 그중 1984년 6월 말까지의 신입금은 400,020,500원, 납입금은 145,724,790원이었다. 그리고 신협 대부금, 기부금, 현금 등을 포함한 총 수입금은 182,647,833원, 총 지출금은 167,535,130원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신자들의 기금 모금 운동은 꾸준하고 성의 있게 지속되었다. 많게는 몇 백만 원에서 적게는 몇 천 원에 이르기까지 전 신자들의 봉헌이 이어졌고, 이 신부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하여 개인적으로 신입금을 내는가 하면 1984년과 1985년의 영명 축일 축의금 1,361,500원과 1,734,000원을 기금으로 내놓았다. 또 1984년 11월 부친상 때 들어온 부의금 2,537,000원도 건립 기금으로 봉헌하였다. 뿐만 아니라 타본당 신자나 익명의 신자들의 봉헌도 이어졌고, 데레사회와 복자회에서는 메주나 일용품 판매 대금 2,240,000원을 봉헌하였다. 그리고 명수 유치원에서는 그 동안 저축해 온 건립 기금 1천 5백만 원을 내놓았다.

1984년 6월부터 본당에서는 “성전 건축을 5,000명 신자들의 힘으로”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매주 주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신자들의 봉헌을 앞장서서 이끌었다.

오늘 우리 성당을 이루는 데 한 사람이 13만 원씩 봉헌한다면 653,950,000원의 성당이 낙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 몇 배의 능력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적게나 많게나 모든 봉헌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당신을 모시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과 같은 정성된 봉헌입니다.

이와 함께 1984년 7월 4일자로 “성전 건립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였다. 그 동안 이 위원회가 여러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건립 추진을 구조적으로 진행할 수 없던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위원장을 따로 선임함과 동시에 그 아래 부위원장, 총무, 감사를 두었고, 각 실무진들을 10개의 부서로 구분하였다.



임시 성당에서의 전례 모습.

성전 건립 기금 마련 음식 바자회(1985년 4월 7일).





성전 짓기 전 임시 성당에서의 첫영성체 기념(1985년 6월 2일).

새 성전 신축 광경.

강귀석 신부 첫 미사 봉헌(1986년 2월).



로 정하고, 사순절부터 '돼지 저금통 마련 운동'을 전개하였다. 조그만 정성이라도 보태 하루빨리 성전을 이룩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 운동으로 모금된 봉헌금은 모두 3,951,057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1985년 4월 7일 신축 성전 1층에서 '건립 기금 마련 음식 바자회'를 열었다. 이 바자회는 본당 신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참여하여 모두 7,707,480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당은 처음 계획대로 1985년 말까지 완공을 보지 못하였다. 1985년 4월 25일자로 골조 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5월 26일에 시작된 내부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고, 또 그때마다 공사비 지불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처음 계획과 달리 총 건립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1985년 말 현재 9억여 원으로 예상된 때문이었다.

당시 건립 기금 상황을 보면 1984년 말의 건립 기금 총 수입액은 428,375,500원, 납입액은 214,802,590원이었고, 총 수입은 381,840,307원, 총 지출은 377,389,568원, 잔액은 4,450,739원이었다. 이것이 1년 뒤인 1985년 말에는 총 수입액 437,531,500원, 납입액 337,781,248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총 수입금과 지출금도 각각 595,834,397원과 580,317,766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 안에는 교구 신협 대부금 8천만 원에 대한 상환액(1985년 4월 상환 완료)과 사목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3억 8천만 원도 들어 있었다. 그러나 총 건립

9년 동안 모은 돈으로 제대 등을 봉헌한 흑석 2동 데레사 친목회원(1986년 3월 5일).





새 성전에 설치된 14처와 제2차 바자회(1986년 5월 17~18일).

비용이 9억여 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기금 봉헌을 계속해야만 하였다.

3) 성전 완공과 축성식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모금 운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성당은 차츰 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당에서는 1985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성당 의자(개당 15만 원) 헌납 운동과 비품 헌납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자 흑석 2동 테레사 친목회에서는 제대·십자고상·강론대·예절 의자 등을, 「주식회사 세기」(대표: 원하연)에서는 온풍기를 기증하였고,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동참하였다. 그 결과 1985년 12월 23일에는 장케틀·의자(한준석 회장 등 기증) 등 내부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31일에는 제대 및 대형 십자고상을 제작하여 설치 완료함으로써 신자들은 1986년 1월 1일부터 새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되었다.

1986년은 “성전 완공의 해”로 새 성전에서 첫 미사를 봉헌한 이후 내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해였다. 이때 본당에서는 3월 21일에 14처(박동수 회장 기증)를 설치하고, 5월 12일에는 예수 성심상을 복원하였다. 또 신자들은 성당 완공을 눈앞에 두고 다시 한번 “성당 신축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계획하여 3월 23일에 바자회 추진위원회(본부장: 총회장 박기순) 임원단 회의를 갖고, 봉사자들을 모집한 뒤 5월 17일과

18일 양일 간에 걸쳐 이를 개최하였다. 당시 이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약 9천만 원 가량으로 공사 기금 지불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 당시 한 이태원 본당 신자는 이 바자회에 많은 협조를 하고, 또 성전 건립 기금으로 2백만 원을 봉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명수대 신축 성당은 마침내 그 완공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본당에서는 교구청과 협의하여 견진성사 및 축성식 날짜를 결정하고 그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에 앞서 5월 26일에는 본당 신부의 집전으로 현재의 위치에 새로 조성된 '성모 동굴'을 축성한 뒤 성모의 밤 행사를 가졌다.

완공 당시까지 신자들의 성전 건립 기금 납부 현황을 보면, 신입액이 437,581,500원이었고, 납입액이 390,698,768원이었다. 여기에 각종 기금 및 현금, 대부금, 본당 회계 비용 등을 합친 총 수입금은 839,887,775원이었는데, 대부금이 많았으므로 신자들은 성당 완공 뒤에도 계속 기금 모금 운동과 신입금 납부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만 하였다. 한편 당시 결산 현황을 보면, 총 공사비는 931,797,589원으로 이중 건물 공사비가 859,970,259원, 설계 및 측량비가 21,642,130원, 비품비가 32,363,200원, 전기 음향비가 17,822,000원이었다.

“명수대 신축 성당 봉헌식 및 축성식”은 1986년 6월 1일 김수환(스태파노) 추기경 집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날의 행사는 모두 3부로 나뉘어 1부 축성식(외부 축성, 테이프 절단과 입당식, 내부 축성), 2부 축하 미사, 3부 축하식(인사 말씀, 경과 보고, 유공자 표창, 치사)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많은 외빈과 신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성모의 밤 행사.

기쁨을 나누었다. 그 결과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된 현재의 성당이 다음과 같은 구조 아래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신축 성당의 배치 현황 및 면적

- 대지 : 1,492평, 연건평 974평
- 지하 2층(53평) 및 1층(287.7평) : 유치원(105.06평), 대강당(100.22평), 주일학교 교리실(50.95평)
- 지상 1층(271.38평) : 소강당(75평), 교리실 및 회의실(50평), 사무실, 기타
- 지상 2층(286.49평) : 성당(산자석 1,098석)
- 지상 3층(76.23평) : 성가대석

3. 단체의 변화와 활동

1) 청년 단체의 활성화

1980년대 전반기는 본당 단체들 가운데서도 청년들의 활동(주일학교 포함)이 다시 활발해진 시기였다. 특히 본당 청년들의 활동은 우선 주일학교와 향지 야간 학교 운영에서 두드러졌다. 당시 주일학교는 장소 관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의 방, 푸름의 방뿐만 아니라 사제관 1층·2층, 대화의 방, 유치원 교실, 야학 교실 등을 교리실로 사용해야만 했다. 또 그 동안 보은 지역에서 해오던 지방 공소의 교리 학교 하계 봉사는 1982년 여름부터 풍수원 본당으로 활동 지역을 이전하였으나, 점차 지방 본당의 교사회가 정착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일반 봉사 활동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본당에서는 1982년 3월에 들어 주일학교 교사회를 전면적으로 개편 보강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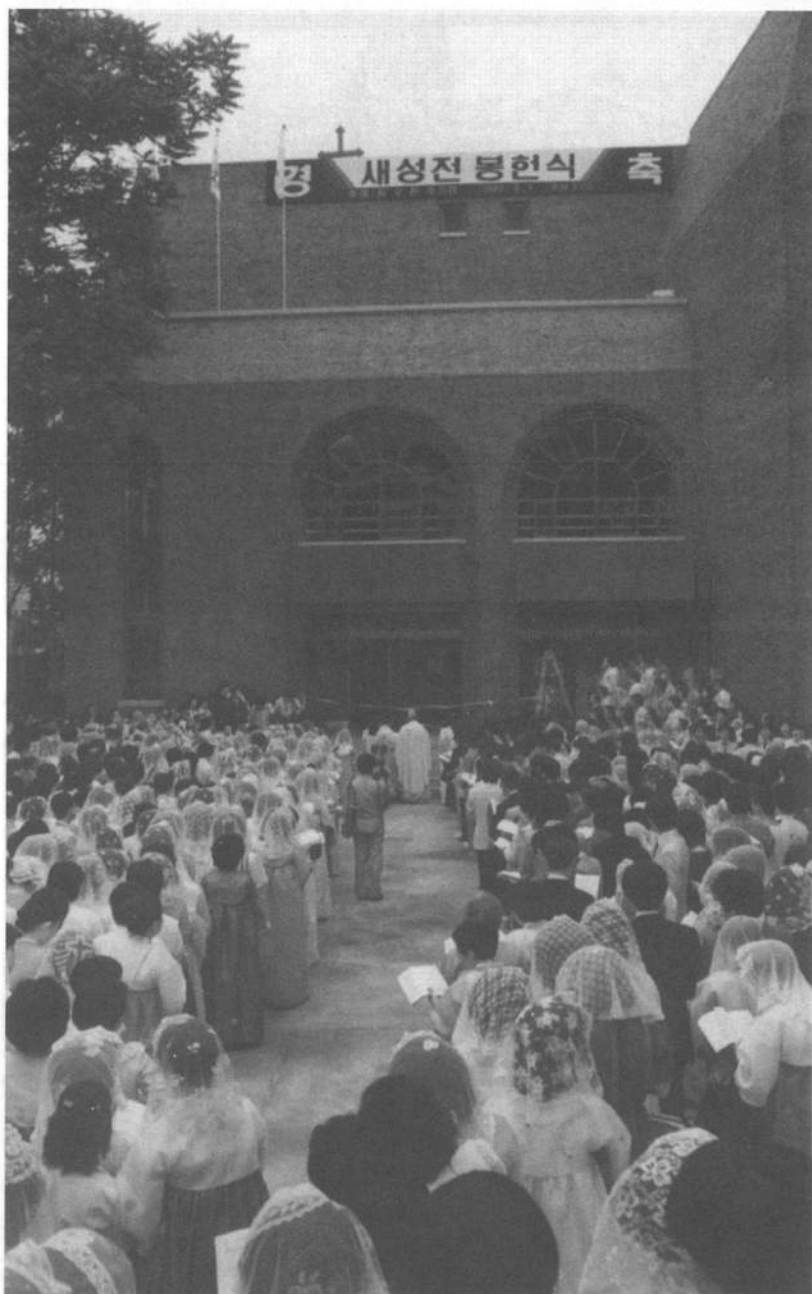
주일학교 교사진 현황(1982년 3월)

① 초등부

교 감 김현덕(요한)

교 사 유치부 : 이명주(아네스), 1학년 : 이정화(테레사), 김영미(안나), 2학년 : 도재학(돈보스코), 서혜경(마리아), 3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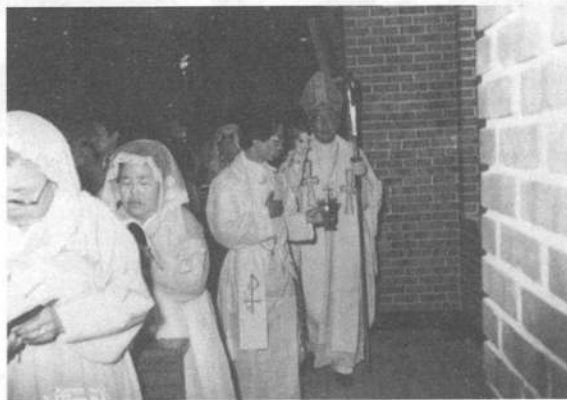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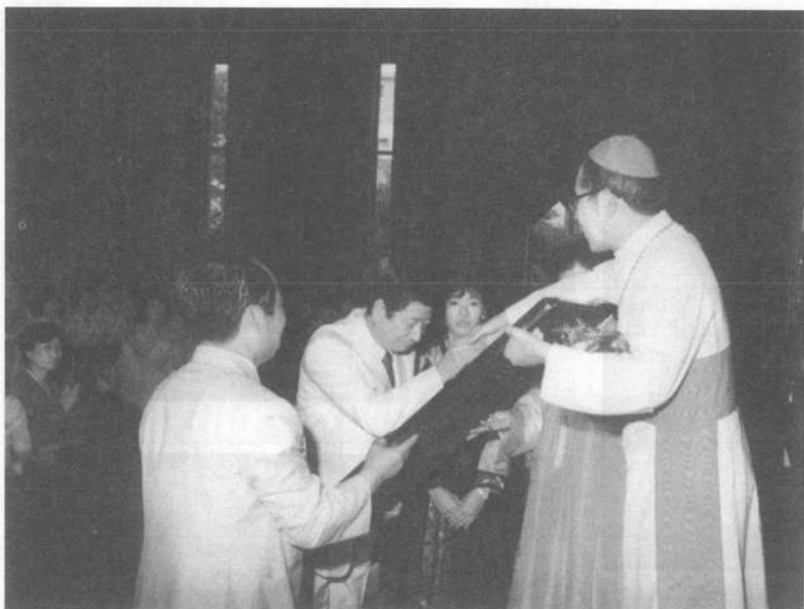


테이프 절단.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사제단 공동 장엄 축복.







감사 동판 수여식.





성당 축성식 후의 견진 기념.



천주교 명수대 교회 견진성사기념 1986. 6. 1

년 : 이영미(아가다), 이해금(안나), 4학년 : 신현숙(비비안나), 최은주(헬레나), 5학년 : 홍성숙(테레사), 김병준(다니엘), 6학년 : 유영희(아가다), 강민호(아우구스티노)

② 중등부

교 감 이병갑(테레사)

교 사 1학년 : 황윤재(토마스), 이병갑(테레사), 2학년 : 김숙현(안나), 김인혁(스테파노), 서창식(가브리엘), 3학년 : 이동현(베드로), 김두환(미카엘)

③ 고등부

교 감 안경태(비오)

1학년 주임 : 김홍찬(세바스찬), 교사 : 최송영(카타리나), 유성희(엘리사벳), 서양석(요셉), 윤도현(요한), 방미경(세레나)

2학년 주임 : 김상돈(베드로), 교사 : 김진희(밀미나), 황충하(바로), 정규호(젤마노)

「향지 직업 청소년 야간 학교」(1982년 이후에는 '직업'이란 말을 빼어버림)는 1981년 5월에 제1기 입학식을 거행한 뒤 "사랑"을 교훈으로 삼고 사제관 1층에 교무실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첫 해에만 교사 7명 전체가 본당 신자였을 뿐 다음해부터는 타 본당에서 교사를 초빙해야만 했다. 당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생이 부족한 본당 실정에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교리 교육이 우선이었고, 1982년 들어 주일학교 교사진이 개편되면서 야간 학교를 담당할 교사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당의 청년들은, 첫째 복음 전파 활동과 주일학교 활동, 둘째 지역 사회를 위한 야간 학교의 운영, 셋째 성서 공부를 활동 목표로 삼고 야학 운영에 적극 동참하였다. 특히 야학 교사들과 일부 청년들은 여름이면 성당 마당에 파라솔을 펴놓고 음료수를 팔거나 수시로 일일 찻집을 열어 활동비를 마련하였다. 당시 이 야간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대부분 흑석동·노량진·대방동·신림동·봉천동·상도동·사당동 등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생활 관계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또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느 때에는 교육 과정이 1년이나 6개월로 끝난 경우도 있었고, 제1기에서 제5기까지의 학

생수도 입학생 83명, 졸업생 26명(31%)에 불과하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이 좋은 데다가 교사들의 열의가 높았던 탓에 이후에도 야학 활동은 계속되었다.

향지 야학교 입학생 및 졸업생 현황(1981~1985)

기수	과 정			학 생 수			교사수	과목수
	입학	졸업	기간	입학생	졸업생	비율		
1기	1981.5	1983.5	2년	20명	7명	35%	7명	11
2기	1982.5	1984.5	2년	18명	6명	33%	7명	10
3기	1983.5	1985.5	2년	19명	5명	26%	8명	12
4기	1984.5	1986.5	1년	16명	6명	38%	7명	8
5기	1985.5	1985.12	6개월	10명	2명	20%	7명	6

본당 청년들의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성당 건립에도 봉사하였고, 청년 성가대 ‘도미네’에서는 정기적으로 발표회를 갖는 동시에 1982년 9월 4일과 5일에는 ‘성전 신축 기금 모금’을 위한 성가 연주회도 개최하였다. 또 청년 레지오(상아 보탑 Pr., 사랑의 샘 Pr. 등)에서는 1981년 10월 4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일에 ‘젊음의 광장 시간’ (대화의 방)을 마련하여 교리 및 성서를 연구할 기회를 가졌다. 이 성서 연구 모임은 그 후 교사회로 확대되었다가 폐지되었다.

또 1980년 여름부터 개최되어 오던 본당 연합 하기 수양회도 1982년부터는 본당 청년회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즉 이해에는 연합 수양회가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친교와 나눔)라는 주제 아래 중·고등부, 청년, 스카우트 대원을 중심으로 광주 ‘구림 농원’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본당 청년 연합회 주관 아래, 1차로 고등부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2차로 청년·중등부·복사단이 8월 2일부터 5일까지 몽산포에서 수양회를 가졌다.

이때 구성된 “청년 연합회”는 이전의 청년회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새로 발족된 것이다. 사실 1982년 이후 본당 청년 신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신자들 사이에서는 청년 단체를 새로 조직해야 하겠다는 의논

이 있어 왔고, 이러한 의견에 따라 1983년 2월 20일에는 기존의 청년 회를 전면 개편하여 청년 연합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이때 회장에 김두환(미카엘), 부회장에 조인영(루시아), 총무에 황운재(토마스), 민순자(세실리아), 김인혁(스테파노) 등이 각각 임명되었다. 그 후 청년 연합회는 3월 20일에 1차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체육 대회 등을 통해 친교를 다져 나갔지만, 1986년에 들어 다시 해체되었다.

2) 기존 단체들과 후원회

이 신부 재임기에 와서는 기존 단체들 가운데서도 소화 부녀회, 데레사회, 복자회, 장미회 등 여성 단체들이 성당 건립을 계기로 본당 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소화 부녀회와 장미회가 통합되었고, 레지오 마리애의 활동이 다시 활성화되었으며, 후원회가 조직되었다. 또 어린이들의 모임인 스카우트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와서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친교 활동에 주력하였고, 새로운 합창단과 고등부 글로리아 성가대는 정기적으로 성가 발표회를 가졌다. 또 대표회에서는 1981년 10월 12일 옛 성당에 앰프·스피커·마이크를 설치하였고, 주일 학교나 청년 단체들의 활동을 후원하는 일과 성당 건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소화 부녀회에서도 1982년 6월 11일 대화의 방에 테이블 10개와 의자 50개를 구입하여 기증하였다.

소화 부녀회와 장미회가 통합된 이유는 서로 활동하는 가운데서 유사점을 발견하고, 함께 본당에 봉사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래서 양측의 회원들은 1983년 12월 7일의 모임에서 두 단체의 통합을 결정하고, 새로 “소화 데레사회”(회장: 장인순 마리스텔라, 부회장: 손매순 안나)를 발족시키게 되었다.

다음으로 레지오 마리애의 경우는 기존의 9개 빠르게디움 외에 15개의 빠르게디움이 신설되어 “평화의 모후 Cu.” 아래 모두 24개의 빠르게디움이 활동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1년 후반에서 1986년 초까지 약 4년여 동안에 증가한 레지오 단원이 이전에 활동해 오던 숫자보다 많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빠르게디움들은 모두 현재까지 그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명수대 본당 초창기에 일찍 레지오 운동을 도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이 시기는

‘레지오 활동의 재도약기’라고 할 수 있다.

레지오 브레씨디움의 신설(1981~1986년)

- 1981. 9. 29 지혜로우신 정녀 Pr. (단장 : 한복순 데레사)
12. 6 성심의 샘 Pr. (단장 : 이순애 레지나)
- 1982. 2. 5 착한 의견의 모친 Pr. (단장 : 김선옥 발바라)
2. 20 하자 없으신 모친 Pr. (단장 : 조규동 가브리엘)
11. 14 일치의 모후 Pr. (단장 : 김보영 로사)
12. 12 천상의 모후 Pr. (단장 : 김동원 마르타)
- 1984. 1. 19 영광의 모후 Pr. (단장 : 류음전 말가리다)
1. 26 은총의 모후 Pr. (단장 : 이영희 베로니카)
1. 28 능하신 정녀 Pr. (단장 : 윤형분 바올라)
7. 21 겸손하신 모후 Pr. (단장 : 임우식 그레고리오)
- 1985. 3. 28 은총의 샘 Pr. (단장 : 이종실 마리아)
6. 9 원죄 없으신 모후 Pr. (단장 : 김원자 데레사)
10. 24 증거자의 모후 Pr. (단장 : 김정임 아가다)
12. 5 인자하신 모후 Pr. (단장 : 원종우 바오로)
- 1986. 1. 24 성실하신 모후 Pr. (단장 : 조용숙 프란체스카)

그 밖에 이 신부 재임기에 본당에서는 처음으로 교구 차원의 후원회를 발족시키게 되었다. 우선 성소 후원회는 1982년 4월 4일, 교구의 요청에 따라 첫 후원비 모금을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또 1983년 후반기부터는 군중 후원회를 위한 후원비를 모금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본당 지원 설립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1985년 2월 25일에는 정식으로 본당의 “성소 후원회”(회장 : 조중환, 요한)와 “군중 후원회”(회장 : 원종우 바오로)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4. 신심 활동의 내용

1981년 이후 본당에서는 사목 지침의 하나로 신자 재교육의 강화를 제시하고, 그 세부 활동 방향으로 기초 교육의 강화와 피정을 통한 신심 활동의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그 결과 1981년 후반에서 1982년 초

에 걸쳐 본당 차원에서 피정을 개최하였고, 단체 피정과 성지 순례도 수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그다지 신심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성당 건립 운동과 103위 시성식 행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때문이었다. 이 신부 재임기에 본당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심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본당 신자들의 신심 활동(1981.9~1985.9)

- 1981. 9. 21 소화회·성모회·장미회 성지 순례(솔피 성지)
- 11. 28~29 중등부 주일학교 피정(살레시오 회관)
- 1982. 1. 15~16 6학년 졸업 피정(인천 가정동 기도의 집)
- 2. 20~21 1차(청년) 본당 피정(본당 유치원)
- 2. 28~3.1 2차(고등부) 본당 피정(본당 유치원)
- 3. 6~7 3차(구역장, 반장) 본당 피정(본당 유치원)
- 7. 8 소화·복자 부녀회 피정(까리타스 수녀회 교육관)
- 11. 20~21 6학년 피정(인천 가정동 기도의 집)
- 1983. 1. 22~23 청년회 피정(본당)
- 10. 9 레지오 피정(본당)
- 1984. 12. 1~2 청년회 피정(과천 성모 영보 수녀원)
- 1985. 3. 13 소화 데레사회 피정(본당)
- 6. 21 '8주간 성령 세미나' 개최(매주 금요일)
- 9. 22 평화의 모후 꾸리아 성지 순례(수리산 성지)
- 1986. 3. 5 소화 데레사회·복자회 합동 피정(우이동 명상의 집)

반면에 교구 단위나 전국 단위로 이루어진 신심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신자들을 참여토록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특히 본당에서는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행사와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기념 행사 등을 기해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를 신심 함양의 기회로 삼도록 하였다. 우선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신앙 대회" 때는 한 달 전부터 그 내용을 홍보하고, 1주일 전부터는 조선교구의 터를 닦아 온 신앙 선조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그 결과 1981년 10월 18일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신앙 대회에는 본당에서만 1,876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당일 본당 신자들은 동별·구역별·반별·가족



한국 순교자 순회 기도회의 이모저모,





단위로 식당에 입장하여 제단 오른쪽 9지구 지역에서 행사에 참여하였다.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기념 및 103위 성인 시성식” 행사는 150주년 행사보다 더 본당 신자들의 신심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 이를 위한 본당 차원의 활동은 1983년 교구 전 본당에서 이루어진 ‘한국 순교 복자 시성을 위한 복자 김대건 신부 유해 봉송 및 순회 기도회’로 시작되었다. 당시 본당에서는 이 순회 기도회가 5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계속되었는데, 신자들은 정장(남자) 및 한복(여자) 차림으로 5월 3일 김대건 신부 유해를 성당 내에 안치하였다. 그리고 5월 3일에는 주일학교, 청년회, 성령 기도회 및 전 신자가, 5월 4일에는 사목회, 명성회, 대포회, 레지오 마리아, 장미회, 소화회, 복자회, 성모회, 성가대가 기도회를 가졌다.

한국 교회의 복자 시성을 위한 기도회는 다음해에도 계속되었다. 신자들은 우선 1984년 1월 23일부터 31일까지 ‘복자 유해를 모신 9일 기도회’를 갖고,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는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행사를 위한 9일 기도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본당 자체로 한국 순교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단체별로 한국 순교 복자들에 대한 기도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신심 활동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한국 방문과 200주년 행사, 5월 6일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된 신앙 대회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 본당에서는 시성식이 끝난 뒤인 9월 12일부터 20일까지는 ‘103위 성인 첫 축일 9일 기도’가 개최되었고,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200주년 및 성년 마감 7일 기도회’가 개최되었다. 이로써 이 행사는 초교구적인 행사이면서도 본당 신자들에게는 내면의 신심을 북돋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
○
○
○
○
○
○

제 5 편

내실화 운동과
새로운 전기 모색

제 1장 시설 완비와 내실화 운동 / 215

제 2 장 소공동체의 활성화와 40주년 / 243

○
○
○
○
○
○
○

圖書

新編

中國通史

第一卷

中華書局

제 1 장

시설 완비와 내실화 운동

1. 정광웅 신부와 사목회

1) 정 신부의 부임과 사목 활동

1986년 6월의 새 성당 축성식은 일시적인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30여 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온 명수대 본당이 새로운 전환기를 모색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고, 신자들에게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유를 가져다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본당과 마찬가지로, 성당 건축이라는 외형적인 활동이 끝나면서 이제 명수대 본당 신자들은 내실화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본당의 제8대 주임으로 부임하게 된 이는 정광웅(鄭光雄, 요셉) 신부였다. 그는 1986년 8월 16일자 교구 인사 이동에 따라 창동 본당에서 명수대 본당으로 임명을 받고 그 달 29일에 부임하게 되었다. 또 같은 인사 명령에 따라 이종환(미카엘) 신부는 면목동 본당으로 이임하게 되었다. 이때 이 신부는 이임에 앞서 지난 5년여 동안 성당 신축이라는 과제를 안고 신자들과 어려움을 함께한 사실을 상기시켰고, 신자들도 <검은 돌> 주보를 통해 “지난 5년여 동안 명수대 본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고, 특히 신자들과 합심하여 새 성당 건립이라는 어려운 일을 해낸” 이 신부와의 작별을 아쉬워하였다.

새로 부임한 정 신부는 가톨릭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1972년 12월 8일에 서품된 뒤, 명동 보좌, 군중 신부, 공덕동 주임, E.A.P.I 유학 등을 거쳐 본당에 부임하게 되었다. 그는 부임 즉시 오랫동안 성전 건립을 위해 힘써 온 신자들을 감안하여 새로운 사목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성당 건립에 힘쓰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피정 활동, 성지

순례, 성령 세미나 운동, 특별 강론 활동 등 신심·재교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친교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본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치의 터전을 닦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전교 활동의 활성화와 예비자 교육의 내실화를 모색하고, 아직 완전하지 못한 성당 부대 시설 및 조경 공사 등을 하나 둘씩 완비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 중에서도 정 신부가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긴 것은 1986년 10월 19일, 중대부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성전 건립 기념 제1회 본당 체육 대회”였다. 그는 이때 체육 대회를 개최하면서 ‘성당 건립에 힘써 온 신자들의 노고를 덜어 주고, 동시에 친교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체육 대회는 대포회에서 진행을 맡았는데, 1부 미사에 이어 2부 경기가 이어졌고, 여기에서 달리기, 축구, 풍선 터뜨리기, 공몰이, 알밤 줍기, 바구니 터뜨리기, 피구, 줄다리기, 계주 등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한편 정 신부 부임 이후에 있는 본당의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1988년 4월 29일에 있는 사목 방문(김옥균 주교, 송광섭 신부, 나원균 신부 내방)과 1990년 12월 5일에 있는 토지 합병을 들 수 있다. 이 작업으로 흑석동 105-10, 177-7, 177-10, 178-1, 186, 186-9번지 등 6필지가 흑석동 186번지로 합병되었다. 또 1991년 1월 22일에는 본당 사무실에 컴퓨터가 설치되면서 모든 일반 사목 행정이 전산으로 처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위에서 말한 사목 지침들이 하나 둘씩 실천되어 가면서 본당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2) 보좌 신부, 성소와 사목회

1980년대 후반기에는 우선 본당에 다시 보좌 신부가 임명되었다. 그 동안 본당에는 1974년 5월 제9대 보좌인 최준웅(바르나바) 신부가 이 임한 뒤 15년 동안 보좌 신부가 임명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교구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데 있었다. 그러나 본당 사목상 보좌 신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교구에 청원한 결과 1989년 2월 4일자로 봉재중(奉載鍾, 마르코) 새 신부가 제10대 보좌로 임명되어 2월 17일에 부임하게 되었다. 봉 신부는 이후 2년 간을 재임하다가 1991년 2월 7일 천호동 본당의 보좌 신부로 전임되었고, 같은 날짜에 묵동 보좌를 역임한 윤재



성전 건립 기념 제1회 본당 체육 대회(1986년 10월 19일, 중대부고 운동장).



한(尹在漢, 보니파시오) 신부가 제11대 보좌로 임명되어 2월 22일에 부임하였다.

다음으로 이 시기에는 본당 출신으로는 다섯번째 사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1979년 민병덕 신부가 서품된 이래 9년 만인 1988년 2월 12일, 임승철(任勝哲,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명동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게 된 것이다. 임 신부는 서품 후 2월 14일에 첫 미사를 집전하고 연희동 본당 보좌로 부임하였다. 또 이해 6월에는 명수대 본당에서 신학교에 들어간 뒤 충청도로 이주하여 청주교구 소속 사제로 서품된 김원우(金源佑, 루도비코) 새 신부가 7월 3일 본당에 와서 첫 미사를 집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1년 8월 22일에는 장궁선(예로니모), 이효언(펠릭스) 신학생이 부제로 서품(올림픽 체조 경기장)되었다.

한편 사목회는 정 신부 재임기에 단 한 차례만 개편되었다. 즉 1985년 1월에 이루어진 제12대 사목회(총회장: 박기순, 베드로)는 정 신부 부임 후인 1987년 10월까지 그대로 연임하였고, 이해 10월 21일자로 김춘호(金春浩, 요셉)를 총회장으로 하는 제13대 사목회가 구성되고 다음의 현황과 같이 각 임원들이 임명되었다. 이때 각 분과는 기존과 같이 기획·재정·선교·교육·전례·청소년·사회 복지·구역 분과로 나뉘었고, 성당 건립이 완공되었으므로 건축 분과가 없어진 대신 여성 분과가 신설되었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경우는 기존과 달리 따로 회장·부회장·총무 등을 선임하였다.

제13대 사목회 임원 현황(1987. 10. 21)

- 자문위원회 : 회장 문중섭(디모테오), 부회장 임우식(그레고리오), 총무 김영호(요아킴) 외 23명
- 총회장 : 김춘호(요셉)
- 부회장 : 윤기준(요한)
- 총 무 : 부장 이상현(요셉), 차장 강연수(요셉)
- 분과 위원장 : 기획 진중하(요한), 재정 이장형(요아킴), 선교 원종우(바오로), 교육 안명진(벨라도), 전례 김영곤(요한), 청소년 김수영(베드로), 사회 복지 방달호(요셉), 구역 서성태(알로이시오), 여성 김남순(베로니카)



임승철(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서품 기념 첫 강복(1988년 2월 12일).



첫 미사(1988년 2월 14일).



이 제13대 사목회는 1990년 1월 21일에 개편되었는데, 이때 일부 임원이 교체되거나 추가 선임되었다. 그 결과 부회장으로 김재환(보나벤투라), 총무로 신명철(요한)이 추가 선임되었고, 기획 분과 위원장은 서건석(그레고리오), 전례 분과 위원장은 김용식(베네딕도), 청소년 분과 위원장은 최재교(스테파노), 여성 분과 위원장은 한복순(테레사)로 교체되었다.

2. 부속 시설과 수녀원 신축

1) 건축비 정산과 성상 건립

아직 완전하지 못한 성당 부대 시설 및 조경 공사 등을 하나 둘씩 완비해 나가는 일은 정 신부가 부임한 이후 가장 먼저 노력한 부분이었다. 당시 본당에서는 1968년 말에 사목 공제회 대부금(총 3억 8천만원) 중 1차 상환액 2억 원을 지급 완료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2억 3천여 만 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었다. 그때까지 성당 건립 신입금은 463,794,500원, 납입금은 443,961,089원이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수입금이 964,131,914원, 지출금은 958,840,199원이었다. 그러나 토목 공사비 잔금, 장례틀 대금, 비품비 등을 계속 지불해 주어야 했고, 대부금도 곧 갚아야 할 형편이었다.

청년 성가대, 제8회 정기 연주회(1989년 9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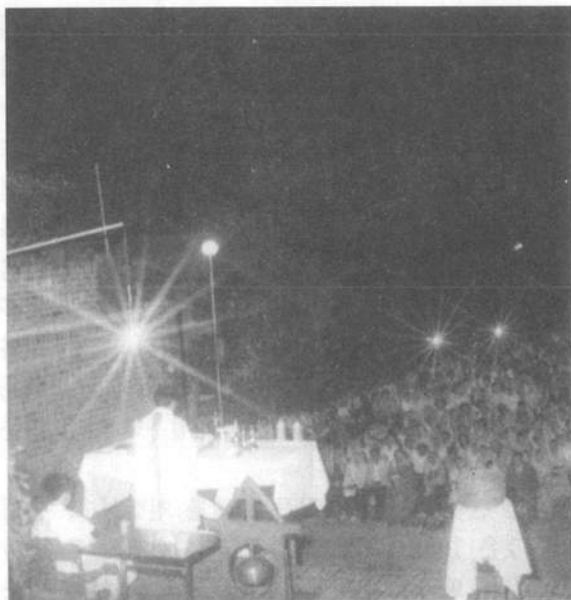


이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신자들은 계속 성전 기금을 봉헌하는 동시에 성당 시설 기금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청년 성가대에서는 1986년 12월 20일과 이듬해 9월 26일에 제7회 및 제8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 뒤 그 수익금 전액을 전자 오르간 구입과 성전 기금으로 봉헌하였다. 그리고 고등부 글로리아 성가대에서도 1987년 3월 21일 '성가 발표회'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성전 기금으로 봉헌하였고, 소화회와 복지회에서는 1986년과 1987년에 걸쳐 성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젓갈 판매를 계속하였다. 또 소화회에서는 1987년 8월에 휴게실에 탁자 25개와 의자 100개를 기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모회와 주일학교 교사회에서도 이에 동참하여 1987년 부활절에 달걀을 판매한 수익금을 성전 기금으로 봉헌하였고, 정 신부는 6월 2일부터 가정 방문을 시작하여 성전 기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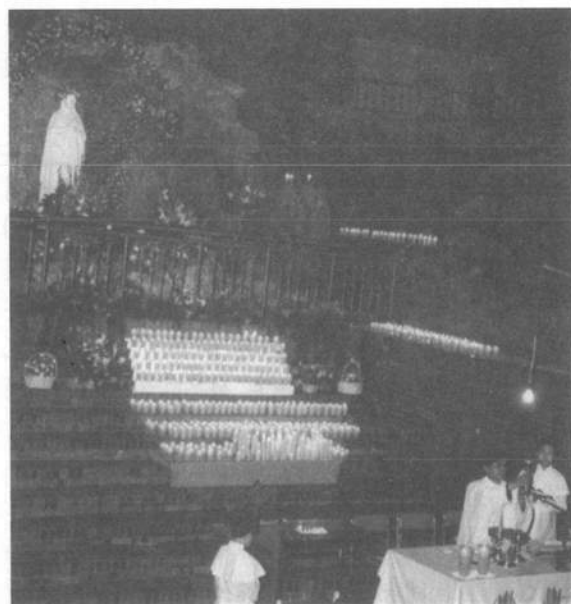
이러한 노력 끝에 성전 건립에 관계된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수입 지출 정산을 마치게 된 것은 1988년 6월 30일로, 이때까지의 총 공사비는 976,459,649원이었다. 따라서 본당에서는 1988년 6월부터 별도로 "성상 건립 봉헌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이해 말에는 그 동안의 신입금 납입액을 결산함과 동시에 성전 건립 기금 봉헌 활동을 마감하였다. 이 결산에 따르면, 그 동안의 납입금은 총 532,146,006원이었다. 다만 행정적으로 신축 성당의 준공을 필하게 된 것은 제9대 주임 최익철 신부 재임기인 1992년 1월 8일이었다.

성상 건립 봉헌 운동은 '평화의 모후 성모상'(약 650만 원)과 '성 요셉상'(약 650만 원)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최봉자 수녀 작품으로, 그중 성모상은 봉헌 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된 1988년 10월 21일에 안치되었고, 성 요셉상은 1989년 5월에 완성되어 5월 21일자로 축성식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성상 건립에 따른 총 봉헌금은 7,340,000원이었는데 비해 조각 및 안치 비용은 6,350,000원이었으므로 본당에서는 그 잔액을 수녀원 건립 기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정 신부는 1989년의 영명 축하금을 성상 건립 기금으로 봉헌하였다.

물론 성당 부대 시설 마련을 위한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1988년 9월 20일에서 12월 7일에는 사제관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고, 1990년 3월부터는 '예수 성심상 및 성모 동굴 조경'을 위한 헌금 운동이 시작되어 이해 성모성월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서 신자들은 1990년



성모의 밤 행사(1990년 5월 29일).



5월 29일의 성모의 밤 행사를 축복 속에 가질 수 있었는데, 이날의 행사는 입당 성가, 화환 봉헌, 미사, 축가, 촛불 봉헌 및 헌금, 성찬의 전례, 성모 성심 봉헌 기도, 강복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신자들이 봉헌한 금액은 모두 8,270,000원(1990년 6월 15일자)이었다. 또 1991년 1월 30일에는 계단의 성모상(김세중 작)에 받침대를 설치하는 작업도 하였고, 2월 4일에서 4월 13일까지는 성당과 종탑에 동판 작업을 하고, 3월 6일에는 성당 안에 냉방기(10RT 3개, 3RT 2개)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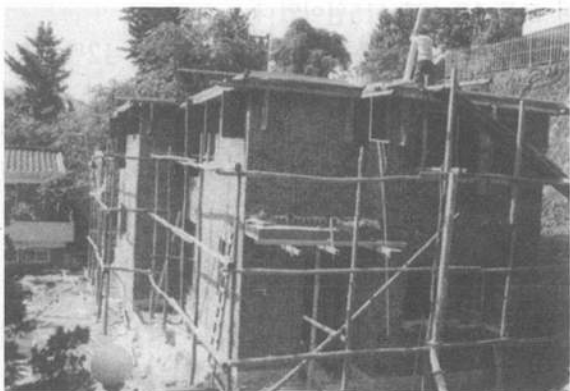
2) 수녀원 신축과 수도자의 변화

본당의 수녀원은 1983년 현재의 위치에 있던 건물을 보수하여 사용해 온 탓에 너무 허술하여 일찍부터 여러 차례 신축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성당 신축이 계속되어 왔고, 1988년 6월까지도 건축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수녀원 신축 계획은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본당에서는 성전 건립 부채를 완전히 청산하고, 사제관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자마자 1989년의 사목 계획서 작성 때에 수녀원 신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때 수립된 계획 내용은 우선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되, 수녀원 신축을 위한 2차 헌금을 봉헌하고, 신자 개인별로 기금을 봉헌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비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본당에서는 1989년 5월 22일 기존 수녀원을 철거하고, 5월 28일부터는 2차 헌금 봉헌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6월 28일에 기공식을 가진 다음 즉시 공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개인별로 신축 기금을 봉헌하였는데, 이렇게 하여 그 해 말까지 봉헌된 금액이 모두 18,468,415원이었다.

수녀원 건립 공사는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1989년 12월 14일에 완공되었고, 이날 정 신부의 집전으로 축성식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본당의 수녀들은 약 6년 6개월 만에 새 집에서 생활하게 되어 오랫동안 겪어 오던 불편을 덜 수 있었는데,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성전 건립 운동은 이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격이었다. 당시 신자들이 마련한 신축 봉헌금은 1990년 1월까지 모두 20,491,260원이었다.

한편 본당 수녀들의 경우는 정 신부 재임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1986년 9월 4일에는 김태숙(도로테아) 수녀가 이임하고, 본원에 있던 김향련(마리 후교) 수녀가 부임하였고, 제7대 분원장으로 활동하



옛 수녀원 모습.

던 박기순(멜세스) 수녀가 1988년 2월 3일에 이임하고 대신 홍익진(洪益珍, 파트리치아) 수녀가 제8대 분원장으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홍 파트리치아 수녀는 본원 사정으로 7개월 만인 1988년 8월 31일에 이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장명희(張明姬, 베아따) 수녀가 제9대 분원장으로 부임하였고, 이와 같은 날짜에 김 마리 후꼬 수녀가 이임하는 대신 최미숙(아니마) 수녀가 부임하였다. 이어 다음해에도 본당 수녀들의 이동이 있게 되었다. 즉 최 아니마 수녀가 1년 만인 1989년 2월 27일에 이임하는 동시에 최옥숙(아폴로니아) 수녀가 부임하였고, 1990년 9월 3일에는 최 아폴로니아 수녀가 종신 서원을 위해 본원으로 이임한 대신 박문자(레나타) 수녀가 부임하였다.

또 유치원 담당 수녀의 경우는 1988년 2월 17일자로 이순자(라우렌시아) 원장 수녀가 후암동 본당으로 이임하면서 박충원(朴充遠, 라우데스) 수녀가 제6대 유치원 원장 수녀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 2월 20일에는 2년 간 활동하던 박 라우데스 수녀가 이임하고, 동시에 김선희(金善姬, 바울리나) 수녀가 제7대 원장으로 부임하였다.

본당 수녀들의 변모 현황(1986~1991년)

성명	본명	재임기간	비고	성명	본명	재임기간	비고
김향련	마리후꼬	1986.9~88.8		최미숙	아니마	1986.8~89.2	
홍익진	파트리치아	1988.2~88.8	분원장	최옥숙	아폴로니아	1989.2~90.9	
박충원	라우데스	1988.2~90.2	유치원	김선희	바울리나	1990.2~	유치원
장명희	베아따	1988.8~91.9	분원장	박문자	레나타	1990.9~92.9	

3. 신심 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 운동

정 신부 재임기에 본당 신자들이 이룩한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서도 손꼽을 만한 것은 신심·재교육 활동이 활성화되어 간 사실과 친교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 점, 불우 이웃 돕기 운동이 널리 전개된 점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새 성전 건립이 완료되고, 아울러 부대 시설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본당 공동체 전체가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

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외적인 성장에 노력하던 신자들이 신앙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그 내용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심 활동

신자들의 신심 활동은 크게 피정 활동, 성지 순례, 성령 세미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정 신부 재임기에 이루어진 본당의 신심 활동 가운데서 1988년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개최된 '성모 신심 세미나'는 신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 피정 활동은 그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활동이었다. 또 주일학교에서는 매년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초등부·중등부·고등부 등으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피정을 개최하고, 또 6학년 졸업 피정과 교사회 피정도 매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본당 단체들로서는 청년회가 가장 활발하게 피정을 개최하였고, 대포회·성모회·소화회·복자회·복사단·레지오 마리에 등에서도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피정 행사를 갖곤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당 차원에서 전체 신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피정들도 많았는데, 이들 중 중요한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당 차원에서 행한 피정 활동(1987~1990)

- 1987. 9. 26~27 본당 장년 피정(우이동 명상의 집)
- 11. 4 본당 어머니 피정(살레시오회관)
- 1988. 3. 13 사순절 부부 피정(참 부모가 되는 길, 본당)
- 9. 15~16 본당 전 신자 피정(주제 : 성체 안에 하나가 되어, 지도 : 이홍근 신부)
- 1989. 3. 8 본당 어머니 피정(인천 샤미나드 피정의 집)
- 10. 25 반장단 전체 피정(우이동 명상의 집)
- 1990. 4. 5 사순절 성령 쇄신 특별 피정(전체 신자 대상, 장소 : 명수대 본당, 지도 : 남서울 성령 쇄신 봉사회)
- 9. 23 순교자 성월 맞이 '성가정 피정' (지도 : 박복주 수녀)

본당 신자들의 신심 활동으로는 성지 순례 또한 중요한 행사가 되었

다. 당시 성지 순례를 가장 활발히 전개한 단체는 소화회였으며, 복자회나 대포회, 꾸리아, 명성회, 주일학교, 성령 기도회 등에서도 연례 성지 순례를 실시하였다. 특히 본당에서는 1987년부터 '예비자 성지 순례'를 계획하여 그들이 영세를 받기에 앞서 중요한 한국 교회의 성지를 돌아봄으로써 한국 교회의 순교 전통을 이해하고, 그 신심을 이어받도록 하였다. 이 예비자 성지 순례는 하루 일정으로 실시되었는데, 처음에는 용인의 미리내 골배마실과 서울의 양화진(절두산)을 순례 코스로 하였다가 1989년에는 천진암·미리내 코스를, 1990년부터는 미리내·절두산 코스를 택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89년 6월 11일에는 '전 신자 대상 성지 순례'(솔피 성지)가 마련되었는데, 여기에 1,100여 명의 신자가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0년 9월 16일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도보 성지 순례를 계획하여 '명동 성당·새남터·양화진·당고개·용산 성직자 묘지'를 하루에 순례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성령 봉사회에서는 1986년 한때 회원들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1987년에는 문정식(요한)을 제2대 회장으로 선출함

사순절 부부 피정(1988년 3월 13일).



과 동시에 다시 그 활동을 활성화해 나갔다. 특히 매주 수요일(1988년부터 매주 목요일로 변경함)에 기도회 모임을 가졌고, 이와는 별도로 성령 세미나와 성령 기도의 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1987년에는 단기 세미나에 그쳤으나, 1988년부터는 4주간 혹은 8주간 성령 세미나로 개최되어 많은 본당 신자들에게 성령을 통한 신심 함양과 성령 안수를 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2) 재교육 활동

1980년대 전반까지 본당의 재교육 활동은 어느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소규모로 이루어지거나 단기간의 성서 교육으로 일관되어 왔었다. 다만 레지오 마리아에서만 매년 전 단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1987년 3월 26일부터 1987년 3월 10일까지 '제1회 성서 40주간' (지도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박영자 클로틸다·박

예비자 성지 순례(1987년, 미리내).





소화회 성지 순례(1987년 9월 9일, 해미).

성모회 성지 순례(1988년 10월 14일, 풍수원).





‘전 신자 대상 성지 순례’ (1989년 6월 11일, 솔뫼).

숙안 까리타스 수녀)이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하여 재교육 활동이 다시 활성화되었다. 또 같은 해 11월 7일에는 본당의 청년 성서 모임(지도 : 본당의 김향련 마리 후교 수녀)이 시작되었는데, 이 모임은 매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그 구 성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본당에서는 1988년부터 신자들의 재교육을 위해 사순절과 대림절에 특별 강론을 개최하고, 예비자들에게는 성사에 앞서 ‘받아들이는 예식’을 행하였다. 그리고 1988년 9월 10일에는 「한국교회사연구소」와 협의하여 ‘한국 교회사 자료 전시회’ (지하 강당)를 갖기도 하였다. 이 중에서 사순절·대림절의 특별 강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교회사 자료 전시회(1988년 9월 10일).

사순절·대림절의 특별 강론 현황

- 1988. 4. 9~10 특별 강론(노길명 교수, 신흥 종교와 무속 신앙)
- 1989. 2. 26 사순절 특별 강론(유원봉 신부)
- 12. 6~20 대림절 특별 강론
 - 대림절의 의미(12. 6, 박용수)
 - 대림절과 마리아(12. 13, 김명희)
 -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12. 20, 이길웅)
- 1990. 12. 2~16 대림절 특별 강론
 - 대림절의 참된 의미(12. 2, 김명희)
 - 회개의 삶(12. 9, 김현주)
 - 계명과 교회법(12. 16, 박용수)

뿐만 아니라 본당에서는 1990년 8월 이후 네 차례, 1991년 1월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매달 신자들을 위한 교리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1990년의 특강은 「교리 신학원」의 신앙 교육부에서, 1991년의 특강은 박용수 형제가 맡아 다음과 같은 제목 아래 강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수고를 해주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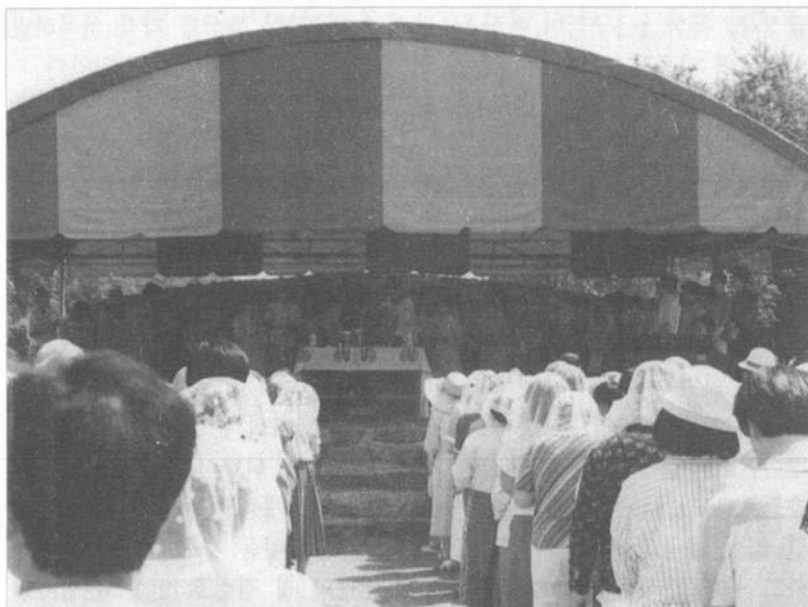
교리 특강 실시 현황

- 1990년 제1회(8월) : 하나님의 사랑(삼위 일체이신 하나님)
- 제2회(9월) : 한국 천주교회사
- 제3회(10월) : 신앙인의 기도 생활
- 제4회(11월) : 고백 성사와 그 의미
- 1991년 제1회(1월) : 성서 입문
- 제2회(2월) : 사순절의 의미와 신앙인의 삶
- 제3회(3월) :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의미
- 제4회(3월)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삶
- 제5회(4월) : "
- 제6회(5월) : 마리아께 대한 바른 신심
- 제7회(6월) :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 대하여
- 제8회(7월) : 성체 안의 삶에 대하여
- 제9회(8월) : 산상 수훈과 참된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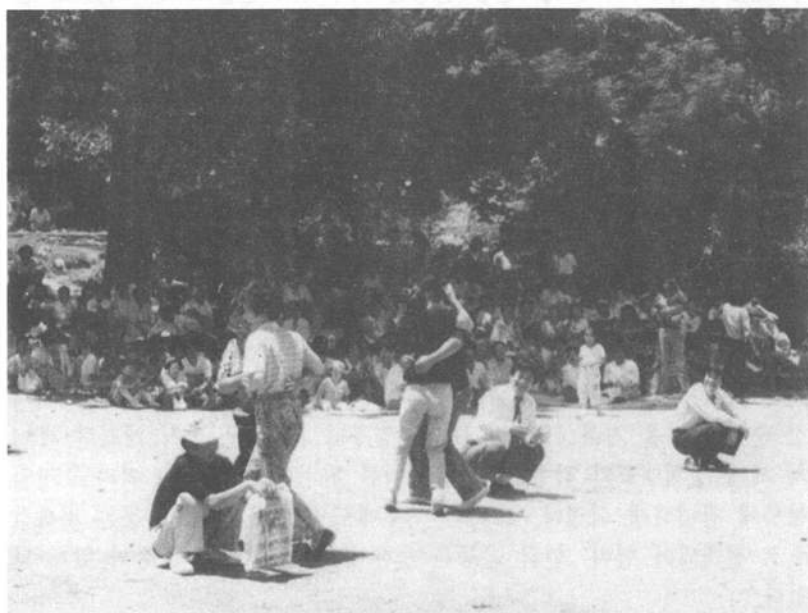
3) 친교·나눔의 활동과 성체대회

본당 신자들의 친교와 나눔의 행사는 앞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1986년 10월 19일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회 본당 체육 대회로 시작되었고, 1988년 6월 12일에는 '주님 안에서의 친교와 나눔'이라는 주제 아래 의정부 「한마음 수련장」에서 전 신자 야외 미사가 실시되었다. 이 야외 미사는 1988년도 교구 사목 지침인 '성체 안에 하나 되어' 실천 운동의 하나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에 1,100명의 신자들이 참가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그리고 1989년 6월 11일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 신자 대상 성지 순례(솔피 성지)가 있게 되었고, 1990년 6월 3일에는 '제2회 본당 체육 대회'(중대부고 운동장)가 '일치와 나눔'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당에서는 신자들의 친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구역·반 모임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였고, 1990년 후반기부터는 남성 구역 모임도 시작하였다. 또 1990년 11월 17일, 구역·반을 중심으로 "제1회 성가 경연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는 700여 명의 신자들이 참가하여 오랫동안 닦은 성가를 발표하고, 이를 친교의 장으로 삼았다. 이 제1회 경연 대회에서는 흑석 2-3구역이 대상을, 본동 1구역이



전 신자 야외 미사(1988년 6월 12일, 의정부 한마음 수련장).



금상을, 흑석 1-1구역이 은상을, 흑석 1-2구역이 동상을 각각 차지하였고, 이어 다음해 11월 24일에는 제2회 성가 경연 대회가 개최되었다.

다음으로 본당에서는 1987년부터 “사순절 저금통 마련 운동”을 통한 불우 이웃 돕기를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이후 매년 사순절 때마다 이루어졌고, 이와 동시에 1988년 8월부터는 본당 내 불우한 형제들을 위한 “나눔의 헌금 운동”(매월 첫 주에 2차 헌금 봉헌)이 전개되었다. 특히 이 나눔의 헌금 운동은 전 신자 대상 야외 미사와 함께 1988년의 ‘성체 안에 하나 되어’ 실천 운동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또 본당에서는 1990년부터 아버지 날을 기해 구역 내 노인들을 위한 “경로 잔치”를 배풀기도 하였다.

실제로 1989년의 “서울 제44차 세계 성체대회”는 본당 신자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준 행사였다. 신자들은 이를 위한 나눔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1988년 10월 16일에 개최된 한국 성체대회(대전 공설 운동장)에 참가하였고, 이때부터 “한마음 한몸 운동”을 위한 카드 봉헌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88년의 첫 결실로 헌혈 62명, 안구 기증 14명, 헌미 27명, 봉사 13명, 기도 38명, 결연 1명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특히 헌미·헌금 운동은 이후에도 반별로 계속되었고, 굶는 아이 돕기 운동도 계속되었다. 또 본당에서는 1988년 12월에 「명수대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본부장: 김춘호 요셉)를 조직하는 동시에 섭외·조직·교육·신심·재정 등 각 분과장들을 임명하였다.

본당 신자들이 1989년 10월의 10차 봉헌까지 실시한 헌미·헌금 운동액은 총 9,411,980원이었다. 또 1989년 2월 12일에 있는 본당의 1차 헌혈 운동에서는 110명이, 9월 10일에 있는 2차 헌혈 운동에서는 89명이 헌혈을 하였다. 그리고 10월에 들어서는 성체대회의 결실을 기원하면서 먼저 본당 행사를 충실하게 실행하였다. 즉 1989년 10월 5일에는 성체 봉송 및 현시 행사와 가정 단위의 ‘한가족 만찬’을 가졌고, 이튿날에는 성체와 나눔을 위한 석식 단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1989년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된 제44차 세계 성체대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한 뒤 10월 8일에는 여의도 장엄 미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마음 한몸 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헌미·헌금 운동은 물론 3차·4차 헌혈 운동이 있게 되었다.



경로 잔치
(1990년 5월 13일).



제2회 본당 체육 대회(1990년 6월 3일, 중대부고 운동장).



한편 본당의 각 단체에서도 이전부터 해오던 불우 이웃 돕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는데, 여기에는 소화회·대포회·청년 성가대 등이 참여하였다. 특히 향지학교에서는 1987년 3월 1일 '제1회 불우 노인 돕기 일일 찻집' (지하 강당)을 개최하고, 여기에서 모금한 성금으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성 요셉의 집」을 방문하였다. 이 향지학교의 불우 이웃 돕기 운동은 이후 매년 계속되었다.

다음으로 대포회에서는 1989년부터 주일학교 중등부 학생 가운데 1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른 단체로 확대되어 명성회에서는 1989년 5월에 주일학교 고등부 학생 1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 3월부터는 복사회(중학생 1명), 소화회(고등학생 1명)도 여기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때 소화회에서는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젓갈과 메주 등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4. 단체와 교세의 변화

1) 단체 활동과 변화

1980년대 후반기에 활동하던 본당의 단체들로는 우선 주일학교 교사회와 복사단, 학생들의 모임인 스카우트·셀과 고등부 글로리아 성가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여성들의 활동 단체인 성모회·소화회·복사회, 남성들의 활동 단체인 대포회와 명성회가 있었고, 신심 단체로서 레지오 마리아와 성령 봉사회, 울뜨레아 등이 있었다. 또 이 밖에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간 도미네 청년 성가대와 향지학교 교사회, 어버이 성가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셀 모임과 글로리아 성가대는 회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어버이 성가대 또한 연습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성령 봉사회는 1986년에 와서 이영화(아벨) 회장 등 40여 명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해오던 성서 공부 교리의 가르침에 어긋남으로 인해 제재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이들 40여 명의 신자들이 본당을 떠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987년 5월에 문정식(요한)을 제2대 회장으로 선임하고 단체를 재정비하면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었다.

반면에 레지오 마리아의 경우는 평화의 모후 꾸리아를 중심으로 단원 재교육 활동과 연차 총친목회 개최, 피정 및 아치에스 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아울러 본당 꾸리아에서는 뿌레씨디움을 계속 신설해 나갔고, 이에 따라 레지오 단원들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즉 1987년부터 1991년까지 모두 12개의 뿌레씨디움이 신설됨으로써 평화의 모후 꾸리아(15대 단장 : 송광남 모이세) 아래 모두 35개의 뿌레씨디움이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이에 꾸리아 회의에서 분단이 논의되었고, 1991년 6월 14일자로 “자비의 모후 Cu.”(초대 단장 : 염동화 마태오)를 설립함으로써 본당의 레지오 마리아는 2개의 꾸리아로 확대되었다. 자비의 모후 꾸리아는 그 후 7월 1일자로 평의회인 ‘천주 성총의 꼬미씨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때 평화의 모후 꾸리아 아래 18개 뿌레씨디움이, 자비의 모후 꾸리아 아래 17개 뿌레씨디움이 소속되었다.

당시 서울대교구 제10지구 소년 레지오 연합 단체인 “하늘의 문 소년 Cu.”도 한때 본당에 본부를 두면서 연차 총친목회와 아치에스 행사를 본당에서 개최하였다. 이 소년 꾸리아에 속한 본당의 뿌레씨디움들로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단장: 차현민 사비나), ‘천사의 모후 Pr.’(단장: 조희정 카타리나), ‘그리스도의 모친 Pr.’(단장: 이상민 마르코)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활동으로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 학교(대상 : 유치부~초등부 3학년)와 산간 학교(대상 : 초등부 고학년과 중고등부)가 본당 신자들의 후원 아래 매우 활발히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즉 1987년 여름부터는 여러 신자들이 주일학교의 활동을 위해 찬조금을 봉헌하였고, 그래서 주일학교 행사가 더 알차고 다채롭게 꾸며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1989년 여름부터는 주일학교 산간 학교의 명칭이 “주일학교 코이노니아”(희랍어로 일치·친교의 뜻)로 변경됨과 동시에 성지에서 이를 개최함으로써 성지 순례를 겸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여름방학을 기해 개최되는 본당 청년들의 하계 수련회(학압포 해수욕장)와 교사단 캠프, 복사단 캠프, 소년·소녀 스카우트의 여름 캠프도 꾸준히 실시되었다. 마찬가지로 성모회·복자회·소화회·꾸리아·청년 성가대 등에서는 피정 및 성지 순례, 불우 이웃 돕기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야외 행사 및 야외 미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도미네 청년 성가대에서는 1988년 10월 22일, 성가대 창립 10주년 기념 제



글로리아 성가 발표회(1988년 11월 20일).



청년 성가대 MT(1989년 4월 3일, 일영).





복사단 야유회 (1989년 1월 26일, 서울랜드).
제1회 성모 신심 세미나 봉사자 (1989년 10월 20일).



성모회 야외 행사 (1989년 5월 17일, 남이섬).



9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면서 기금을 모금하여 불우 이웃 돕기 활동에 사용하였다.

2) 교세 변화와 그 특징

본당의 교세는 1980년대 전반기에는 신자 증가 현상이 계속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는 매년 많은 영세자가 탄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자 증감 현상이 반복되어 나타났다. 즉 1985년의 총 신자수가 5,901명이었으나 1987년에는 5,392명으로 감소되었고, 1984년에는 다시 6,299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 신부 재임기에는 역으로 신자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정확한 조사 결과 행불자 수가 일반 통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신자 증감 비교표(1981~1990)

1980년대 전반기	연 도	1981	1982	1983	1984	1985
	신자수	4,940	5,128	5,417	5,643	5,901
1980년대 후반기	연 도	1986	1987	1988	1989	1990
	신자수	5,780	5,392	5,964	6,299	5,577

이와 같은 교세 현황은 또한 전출자가 전입자에 비해 월등이 많은 데도 그 원인이 있었다. 즉 1986년에는 전출자가 488명이었던 데 비해 전입자가 194명에 불과했고, 1987년에는 전출자가 1,029명(행불자를 전출자에 포함시켜 교구 이향 신자 사목부로 보내 정리함)이었던 데 비해 전입자는 267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988년에 들어와 전출자가 354명, 전입자가 612명으로 반전되었지만, 1989년에는 다시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게 되었다. 또 이처럼 전·출입이 잦은 가운데서 냉담자나 행불자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1981년에는 행불자가 1,104명, 냉담자가 331명이었던 것이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가 1990년에 와서는 행불자가 1,043명, 냉담자가 875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당에서는 매년 영세자를 꾸준히 탄생시킴으로써 교세의 위축을 막을 수 있었다.



영세 기념(1988년 8월 13일).

김옥균 주교가 주례한 견진성사 기념(1989년 11월 5일).



영세자·전입자·전출자 현황 비교표(1986~1990)

연 도	1986	1987	1988	1989	1990
영세자	203	414	352	388	349
전입자	104	267	612	462	326
전출자	488	1,029	354	489	317

이와 같은 교세 현황은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본당 구역 내에 신자들의 이동이 많았음을 잘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정 신부는 1986년의 교세 통계를 정확히 조사한 뒤 교적상으로는 본당의 총 가구수가 1,837가구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 가구수는 1,628가구에 불과하고, 그 안에는 외곽 교우가 상당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교구 연말 보고서에서 젊은 신자들이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나 경기도 인근의 신도시로 많이 이주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1987년에 특히 신자수가 감소하였고, 전출자 가운데 타교구 전출자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도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심·재교육·친교·나눔 등 갖가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성당 부대 시설을 완비한 뒤 본당의 내실화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꾸준한 전교 활동으로 매년 300명 내외의 새 영세자를 탄생시키게 되었으니, 바로 이러한 점들이 1980년대 후반기에 나타난 본당의 특징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할 때, 비록 신자수의 증감은 있었을지라도 본당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구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 2 장

소공동체의 활성화와 40주년

1. 최익철 신부의 부임

1) 최익철 신부의 사목 지침

본당의 성장사에서 1990년대는 본당의 내실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때 한국 천주교회는 창설 200주년 행사와 103위 성인 시성식, 세계 성체대회를 마치고 '2000년대 복음화'를 위한 소공동체의 활성화 운동을 전개해 나갔고,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 안에서의 교회상 정립을 위해 현대 교회의 쇄신과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동을 펴나가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명수대 본당에서도 소공동체의 활성화 운동을 실천하기 시작하였고, 모든 신자들의 활동을 본당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본당의 공간 확보에도 고심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인 1991년 8월 23일, 새 성당에 필요한 부속 시설을 마련하면서 본당의 내실화에 힘쓰던 정광웅(요셉) 신부는 명일동 본당으로 이임하고, 같은 날 신천동 본당에 재임하던 최익철(崔益喆, 베네딕도) 신부가 본당의 제9대 주임으로 임명되어 9월 5일에 부임하였다. 최 신부는 황해도 안악(安岳) 출신으로 1950년 11월 21일 성신대학(현 가톨릭대학의 전신)을 졸업하고 사제로 서품된 뒤 사리원 본당 보좌, 군중, 성신중학교 교사 등을 역임하고, 벨기에 루뱅 대학에서 교육학을 수학한 뒤 귀국하여 이문동·가회동·금호동·오류동·해방촌·세종로·신천동 본당 주임을 거쳐 본당에 부임하게 되었다.

최 신부가 본당에 부임하자마자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은 한국 천주교회에서 강조하던 '소공동체의 활성화 운동'이었다. 본당의 기초 공동체

라고 할 수 있는 구역·반 모임을 중시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 교회나 서울대교구에서는 2000년대 복음화 실천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미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1991년의 교구 사목 교서>를 통해 개인·사회의 복음화와 함께 교회의 복음화를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소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침은 그대로 본당의 사목 지침이 되었다.

소공동체는 교회의 세포와도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반 모임은 외형적으로는 소공동체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반원들 사이의 진실한 사랑과 나눔의 유대가 성숙된 공동체적 삶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세포인 반 모임을 진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돈독한 소공동체로 활성화시킬 때 본당이 살아나며 교회 전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 신부는 각 단체들의 신심·친교 활동이나 본당의 나눔 운동, 재교육 활동 등을 이전과 다르지 않게 꾸준히 실천해 가도록 하였고, 사목회를 크게 개편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당 차원의 성지 순례나 여름 캠프, 미사 후의 친교 나누기, 지속적인 기도 모임 운동 등을 통해 전체 본당 신자들의 친교·신심 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하였고, 미사 때 ‘한 목소리 내기 운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경로 잔치’, 미사 참여시의 ‘복장 단정’ 등을 계획하고 강조하여 하나씩 실천해 나갔다.

그리고 “명수대”(明水臺)란 본당 명칭도 “흑석동”(黑石洞)으로 바꾸고자 교구청에 신청하였다. 명수대란 이름은 일본인들이 붙인 것인 반면에 흑석동은 본래 우리말인 “검은 돌”에서 유래된 것이고, 전국 각 본당의 명칭도 대부분 지역 동명을 따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신청은 허락되지 않았다.

한편 신자들은 최 신부가 본당에 재임하는 동안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되었으니, 이것은 1993년 3월 7일에 있던 ‘최익철 신부의 교회(본래의 날짜는 음력 1993년 1월 30일) 잔치’였다. 이때를 맞추어 최 신부는 두 종의 서적을 간행하였다. 그중 먼저 출간한 <모세의 한평생—출애굽기의 영적 해설>은 신자들의 성서 공부와 신앙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그 동안 번역해 온 것을 출판한 것이다. 이에 앞서 최 신부는 이미

20여 권의 교회 서적을 저술하거나 번역 출간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이어 간행된 《성인 우표 선집》(오늘의 말씀사)은 가톨릭 관계 우표 수집가로 국내외에 명성이 있는 최 신부 자신이 20여 년을 수집해 온 세계 성인 기념 우표들을 소개하고, 동시에 그 성인들에 관한 행적을 요약 첨부한 형태로 되어 있다. 특히 이 우표 선집은 한국 천주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저술된 것으로, 신자들이 성인들에 대해 알기 쉽도록 꾸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 점 때문에 교회 안팎으로 널리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또 최 신부는 오늘의 말씀사에서 1986년부터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신자들이 미사 참례 때 이용하도록 다달이 예수의 일생과 복음에 관한 우표를 제공하였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다른 책보다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묵상·기도 자료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1990년대에 들어 본당의 모든 활동, 즉 신심과 재교육 활동, 나눔의 실천 운동, 주일학교 활동의 활성화 등은 정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 신부는 이전부터 이루어져 온 신자들의 활동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은 그대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개선해 나가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명성회”(明聖會)가 그것이다. 전직 회장들과 본당의 원로급 인사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친목 단체로서 최 신부가 이를 신심 단체로 만들려고 하자 회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친목 단체임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본당에서는 이 단체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 신부가 의미 있는 신자들의 활동을



장려해 나간 점은 이전부터 매월 1회씩 실시하던 나눔의 헌금 운동과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사순절 저금통 봉헌 운동, 헌미·헌금 운동, 그리고 가정의 달(5월)을 맞이하여 매년 개최하는 경로 잔치 등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도록 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본당에서는 공동체 활동이나 전례 활동의 쇄신을 위해 새 계획들을 실천해 나갔는데, 이러한 것으로는 우선 최 신부가 부임 즉시 강조하기 시작한 “미사 때 한 목소리 내기 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운동 초기에는 신자들이 목소리의 강약과 음을 맞추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교우들이 하나씩 적응할 수 있었고, 3년여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착될 수 있었다. 그래서 1994년 2월 13일에 있는 「평화 방송」의 명수대 본당 미사 생중계 때는 신자들의 한 목소리가 청취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본당에서 미사 참여시 “신자들의 복장 단정”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부터였다. 이것은 특히 본당 젊은이들에게 미사에 앞서 올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최 신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단정한 복장을 그린 그림을 성당 현관에 부착해 놓도록 하고, 예비 옷을 준비하여 단정하지 못한 교우들에게 입히도록 하였다. 또 신자들은 한마음 한몸 운동의 일환인 헌미·헌금 운동을 계속 실천해 나가는 한편, 1992년 사순절부터 자원 재활용 운동에 부응하여 우유팩과 신문지를 수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해 7월 12일에는 본당 신자들의 헌혈 운동을 실시하였다.

또 본당에서는 1992년 여름부터 주일학교 행사를 치르면서 초등부 고학년 캠프를 “무지개 동산”으로 명명하였으며, 중고등부의 코이노니아를 “친교 캠프”로 명명하고 더욱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갔다. 그리고 1992년 8월 9일부터 전 신자를 대상으로 ‘낙태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하여 3,23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 운동은 한국 천주교회 주교 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제135조의 폐지를 촉구한다는 뜻에서 이해 7월 31일부터 전개한 것(1백만 서명 운동이었음)으로, 본당의 경우는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거의 전 신자들이 동참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본당 신자들은 1993년과 1994년에 들어와 새로운 활동을 떠나가게 되었다. 우선 1993년 봄부터는 11시 주일 미사 후에 ‘커피



초등부 '무지개 동산' (1993년 여름, 일산 YMCA 수련장).

시간'을 가지고, 이를 친교와 대화의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본당의 레지오 마리에 단원들은 이를 위해 주일 미사 때면 각 빠르게디움 순으로 돌아가며 봉사하였고,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옴으로써 신자들이 서로를 아는 데 많은 보탬이 되었다. 다음으로 1994년 2월 13일에는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는 척사 대회를 개최하였고, 5월 22일에는 "경로 잔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해의 경로 잔치는 '교회가 지역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는 뜻에서 교우가 아닌 지역 노인들을 초청하였는데, 이것은 그 동안 유례가 없던 일로 약 300명의 노인들이 참여하여 상황을 이루었다.

1994년 8월 5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포천군 「산정 호수」(山井湖水)에서 3박 4일 간 개최된 "경로 수련회" (敬老修練會)도 신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행사가 되었다. 이 행사는 최 신부의 제안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동안 어린이와 청년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 오던 여름 캠프에 노인 신자들을 이끌어 들임으로써 흔히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에게 신앙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 준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평화신문>에서는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경로 수련회를 마련한 명수대 본당에서는 처음 갖는 노인 캠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목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한 달 전부터 세심한 준비 작업을 해왔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허약한 노인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였다. 또 일부 어려운 신자들을 위하여는 경비 일체를 본당에서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그 결과 노인 신자 106명이 여기에 참여하여 미사에 참여하고, 물놀이를 즐겼으며, 건강 강좌와 건강 체조 등으로 3박 4일 간을 흥겹게 보낼 수 있었다. 이 같은 경로 수련회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노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신앙을 복돋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경로 수련회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본당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었다는 점에 있다. 특히 본당에서는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주일학교 초등부 고학년의 무지개 동산, 중·고등학생들의 친교 캠프, '하늘지기' 청년회의 여름 수련회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한 골짜기에서는 노인 캠프가 이루어지고, 다른 골짜기에서는 학생들의 캠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8월 7일의 주일에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였다.

3) 신심·재교육 활동

본당 차원에서 행한 신심·재교육 활동 가운데서는 우선 1992년 4월 12일, 부활에 앞서 성주간을 맞이하여 실시한 '우표로 보는 예수'의 수난 슬라이드 상영, 1993년 5월 2일 성소 주일 행사로 주일학교 초등부 고학년과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하여 꽃동네를 방문한 일, 6월 25일에 처음으로 '예수 성심의 밤' 행사를 개최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1993년 2월 6일에 개최한 사목 위원 및 남성 구역장 피정(지도: 오태순 신부)과 10월 10일에 전 신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지 순례(충북 제천의 배론 성지)를 실시한 것도 손꼽을 수 있는데, 이 순례에는 모두 620여 명의 신자들이 참여하였다. 이처럼 단체별로 해오던 성지 순례 행사를 본당 차원에서 실시한 이유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교우들은 성지 순례에 참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최 신부는 1994년 5월의 성모 성월을 맞이하여 각 구역·반이나 단체별로 날마다 성모의 밤을 갖도록 하였다. 이때 신자들은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한 달 동안 성모의 밤을 계속하고, 5월 31일에는

성모 성월을 마무리하는 마음에서 전체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모의 밤 행사를 크게 하였다. 이처럼 성월 행사가 신자들의 신심 함양과 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자 본당에서는 6월의 예수 성심 성월, 7월의 성체 성월, 9월의 순교자 성월, 10월의 로사리오 성월 때도 한 달간 계속하여 기도 모임을 갖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본당에서는 1994년 1월 2일 주보(제1340호)부터 본당 소식 뒷면에 교리 해설란을 마련하여 신자들의 재교육에 활용하였고, 1994년 4월 15일부터 6월 8일까지 '8주간 성체 신심 세미나'를 개최하여 성체와 성체성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체 안의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이와 같이 최 신부 부임 이후 신자 재교육 활동으로 이루어진 사순절·대림절 특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순절·대림절 특강 현황(1991.12~1993.12)

· 1991년 대림절 특강

- 12월 3일 대림절의 참된 의미(김명희)
- 12월 5일 대림절의 기도 생활(김미자)
- 12월 10일 신앙인의 공동체(이길웅)
- 12월 12일 하느님 나라의 완성(정한수)

· 1992년 사순절 특강

- 3월 17일 빠스카(이재돈 신부)
- 3월 19일 봉사(최창섭 교수)
- 3월 24일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삶(이종철 신부)
- 3월 26일 성체(박 까리타스 수녀)

· 1993년 사순절 특강

- 3월 9일 한국 교회와 순교 신심(조광 교수)
- 3월 16일 사순절과 회개의 삶(이길웅)
- 3월 23일 한마음 한몸인 교회(이길웅)
- 3월 30일 사순절과 우리의 신앙(임금자 수녀)

· 1994년 사순절 특강(행복한 가정 운동을 위한 강좌)

- 3월 3일 생명과 사랑(이경주)

- 3월 4일 가정과 부부의 역할--가정 공동체(조송자)
 3월 10일 부모의 책임--성교육의 필요성(고경희)
 3월 11일 가족 계획과 오늘의 실상(조송자)
 3월 17일 교회의 기르침과 자연법적 가족 계획(조혜옥)

2. 사목 협의회와 구역·반 개편

1) 사목 협의회의 변모

본당에서는 1991년 말의 교구 공문(Prot. No. 91-58)에 의거, 1992년 1월 5일자로 본당 사목회를 “사목 협의회”로 개칭하는 동시에 새로 제14대 사목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제14대 사목 협의회의 구성과 임원들은 제13대 사목회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고, 단지 여성 분과를 없애는 대신 노인 분과와 시설 관리 분과를 신설했을 뿐이다. 앞서서도 설명한 것처럼 사목 협의회의 구성 체제를 크게 바꾸지 않은 이유는 안정 속에서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려는 데 있었다.

제14대 사목 협의회 구성 현황(1992.1.5)

- 총회장 : 김춘호(요셉)
- 부회장 : 김재환(보나벤투라)
- 총 무 : 강연수(요셉)
- 분과 위원장 : 기획 서건석(그레고리오), 재정 이장형(요아킴), 선교 원종우(바오로), 교육 양재인(베드로), 전례 김용식(베네딕도), 청소년 박인수(요한), 사회 복지 송철호(울리오), 구역 서성태(알로이시오), 노인 방달호(요셉), 시설 관리 이광우(토마스)

다만 위의 임원들 중에 전출자가 많게 되자 본당에서는 1992년 11월 29일자로 사목 협의회 일부 임원을 교체하게 되었는데, 이때 부회장으로 이태호(아우구스티노)가 임명되었고, 분과 위원장 중에서는 기획 강수영(베드로), 구역 양길웅(시몬), 청년 정관택(가브리엘), 사회 복지 박인수(요한), 재정 구자혁(요한) 등이 새로 선임되었다.

이 14대 사목 협의회 임원들은 이후 2년 2개월 남짓 본당을 위해 여

러 가지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1994년 4월 3일자로 다음과 같이 제15대 사목 협의회(총회장 : 李承均 토마스)가 구성되었는데, 이때도 각 분과 위원회 구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15대 사목 협의회 구성 현황(1994. 4. 3)

- 총회장 : 이승균(토마스)
- 부회장 : 이용욱(바실리오), 방달호(요셉)
- 총 무 : 문정식
- 부총무 : 강연수(요셉)
- 분과 위원장 : 기획 양재인(베드로), 재정 김중철(안토니오), 선교 이정열(미카엘), 교육 이정필(스테파노), 전례 김용식(베네딕도), 청소년 최재교(스테파노), 사회 복지 박인수(요한), 구역 조영애(안젤라), 노인 공보찬(베드로), 시설 이광우(토마스)

2) 구역·반 개편과 소공동체의 강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 무렵 교구나 본당에서는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당에서 먼저 추진한 것이 반(班) 조직의 확대 개편 작업이었고, 다음이 구역·반 모임의 활성화 운동이었다. 이때 반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려한 것이 편의와 지역의 특성, 그리고 구역·반장을 중심으로 반원들이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다만 이후에도 본당의 관할 구역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구역 편성만은 1980년 1월 이후 유지되어 온 그대로 11개 구역으로 나누었다.

반 편성의 확대는 1992년 초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11개 구역 중 다음과 같이 흑석 2동 2구역이 5개 반에서 9개 반으로, 흑석 3동 3구역이 5개 반에서 6개 반으로 편성되었고, 일부 구역장이 새로 임명되었다. 그래서 본당의 반수는 모두 57개 반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92년 초의 개편은 기존의 52개 반을 57개 반으로 확대하는데 지나지 않았고, 1992년 4월 26일에 본당 11개 구역을 모두 76개 반으로 분반함과 동시에 ‘총 구역장’을 선임하였고, 처음으로 ‘남성 구역장제’를 도입하였다. 왜냐하면 그 동안 구역·반 활동을 여성 중심으

본당의 구역·반 편성 현황(1991~1992)

구역	1991년 : 11구역 52개 반		1992년 : 11구역 57개 반	
	반수	구역장	반수	구역장
흑석 1동 1구역	6	경인숙(미카엘라)		
흑석 1동 2구역	7	김명제(헬레나)		
흑석 1동 3구역	6	송은순(미카엘라)		이정님(마리아)
흑석 2동 1구역	4	권혁남(엘리사벳)		
흑석 2동 2구역	5	성나숙(아폴로니아)	9	박병인(루피나)
흑석 2동 3구역	7	정안순(엘리사벳)		
흑석 3동 1구역	5	한칠수(젬마)		
흑석 3동 2구역	4	윤현자(에피제니아)		
흑석 3동 3구역	5	신학련(로즈마리)	6	배화순(가밀라)
본동 1구역	4	최정순(테레사)		
본동 2구역	3	정옥실(테레사)		

해은 탓에 남성들의 소공동체 활동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남성 구역 분과장에는 양길웅(시몬)이, 여성 총 구역장에는 조영애(안젤라)가 선임되었다. 이후 본당에서는 1993년 교적 일체 정리 때 흑석 1동 1구역을 6개 반에서 8개 반으로 늘리는 대신 흑석 1동 2구역을 9개 반에서 7개 반으로 줄였다.

이처럼 11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던 본당 구역이 12개 구역으로 늘어난 것은 1994년 1월 30일이었다. 이때 본당에서는 흑석 2동 3구역의 명수대·한강 현대 아파트를 분구하여 명수대 현대 아파트를 흑석 2동 3구역(6개반)으로 하고, 한강 현대 아파트를 흑석 2동 4구역(6개반)으로 하여 모두 “12개 구역 80반”으로 편성함으로써 소공동체를 강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2동 3구역장에 정안순(엘리사벳)을, 2동 4구역장에 안선자(울리안나)를 각각 임명하였다.

다음으로 구역·반 모임을 활성화하고, 각 구역장·반장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당에서는 우선 1991년 11월 27일에 반장 피정(우이동 명상의 집)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1992년 1월부터는 월 1회 ‘반

본당 구역·반 구성 현황(1992~1993)

구역	1992년 4월 : 11구역 76개 반		
	반수	남성 구역장	여성 구역장
흑석 1동 1구역	6	김복중(요셉)	조희순(비비안나)
흑석 1동 2구역	9	한동성(스테파노)	김성자(루시아)
흑석 1동 3구역	9	김상구(요셉)	이순자(안젤라)
흑석 2동 1구역	8	한상희(시몬)	최면선(마리아)
흑석 2동 2구역	9	김우근(뽀리칼리포)	김정임(아가다)
흑석 2동 3구역	8	송덕근(미카엘)	이향란(헬레나)
흑석 3동 1구역	8	서성석(토마스)	정예환(안나)
흑석 3동 2구역	5	김광성(바오로)	신복순(루시아)
흑석 3동 3구역	7	이효식(안드레아)	배화순(가밀라)
본동 1구역	4	김종석(야고보)	이선자(로사)
본동 2구역	3	이용식(베드로)	이기복(실비아)

* 1992년 6월 14일 : 흑석 1동 남성 3구역장에 김동혁(프란치스코) 임명

모임의 날'을 갖는 동시에 신자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 나갔고, 1993년부터는 구역 신자들의 친교를 위해 '구역별 미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였다. 또 1993년 2월 28일에는 반장 10년 근속자를 표창하기도 했는데, 이때 흑석 1동 2구역의 김선옥(발바라), 흑석 2동 2구역의 성나숙(아폴로니아), 흑석 3동 3구역의 정신자(젬마) 등이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본당에서는 구역·반장들의 활동에 보답하고, 친목을 도모할 목적에서 1992년 11월 9일(1박 2일)에 '제1차 반장단 야외 행사'(설악산)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4년 2월 23일(2박 3일)에는 반장단 제주도 여행을 주선하여 그 동안의 노고에 보답하는 한편 그들의 사기를 높여 주었다.

3. 교역자와 단체의 변화

1) 교역자의 변모와 성소

최 신부 재임기에 와서는 두 차례에 걸쳐 보좌 신부의 이동이 있었

다. 우선 1993년 2월 26일에는 윤재한 보좌 신부가 둔촌동 본당 보좌로 임명(3월 4일 이임)되었고, 같은 날 성수동 본당 보좌로 있던 박종성(朴鐘成, 그레고리오) 신부가 제13대 보좌 신부로 임명되어 3월 12일에 부임하였다. 그러나 박 신부는 건강 때문에 재임 7개월 만인 11월 5일 휴양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3년 10월 18일 석관동 본당 보좌로 있던 오세만(吳世晩, 바오로) 신부가 제14대 보좌 신부로 임명되어 11월 5일에 부임하였다.

다음으로 본당 수녀의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 그 이동이 많지 않았다. 먼저 1991년 9월 4일에는 장명희(배아따) 수녀가 이임함과 동시에 김경희(金慶禧, 세바스티안) 수녀가 제10대 분원장으로 부임하였고, 1992년 9월 3일에는 박문자(레나타) 수녀가 압구정동 본당으로 이임함과 동시에 최명화(마리 미카엘라) 수녀가 부임하였다. 또 1994년 8월 21일자로 김 세바스티안 수녀와 최 마리 미카엘라 수녀가 본원의 인사 이동에 따라 본당을 떠나고, 같은 날 압구정동 본당에 있던 강영순(姜英順, 스텔라) 수녀가 제11대 분원장으로 조 안나 마리 수녀와 함께 부임하였다.

한편 1992년에는 본당 출신으로는 여섯번째 사제와 일곱번째 사제가 동시에 탄생하는 아주 뜻 깊은 성소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해 7월 3일자로 장금선(張競善, 예로니모), 이효언(李孝彦, 펠릭스) 부제가 함께 사제로 서품된 것이다. 이들은 7월 5일 본당에서 첫 미사를 합동으로 집전한 뒤 사제 학교를 거쳐, 1993년 10월 9일 장 신부는 불광동 본당 보좌로, 이 신부는 해화동 본당 보좌로 각각 부임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7월 16일에는 김현덕(金賢德, 요한) 부제가 본당 출신 여덟번째 사제로 서품되어 7월 18일에 첫 미사를 집전한 뒤 11월 22일 대림동 보좌로 부임하였다.

이어 1994년 7월 13일에는 이은형(李殷衡, 디모테오) 부제가 아홉번째 사제로 서품되어 7월 17일 본당에서 첫 미사를 집전하였다. 이로써 명수대 본당은 모두 아홉 명의 성직자를 배출하는 성소의 터전이 되었는데, 현재도 여러 명의 신학생이 있으므로 이러한 성소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 본당 출신 신학생으로는 고준석(토마스 아퀴나스, 5학년), 이재정(토마스 아퀴나스, 4학년), 박문식(요아킴, 복학 대기중), 강한수(가롤로, 3학년) 등이 있다.

2) 단체의 신설과 활동 내용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본당의 두 꾸리아에서는 꾸준히 단원 증가에 노력하여 1992년까지 모두 3개의 빠레씨디움을 새로 설립하였다. 즉 평화의 모후 꾸리아에서는 1991년 9월 3일자로 ‘로사리오의 모후 Pr.’ (단장 : 이강래 마리아)을 분단하고, 자비의 모후 꾸리아에서는 1992년 1월 12일에 ‘기쁨의 샘 Pr.’ (단장 : 정예환 루시아)을, 3월 3일에 ‘죄인의 의탁 Pr.’ (단장 : 고영자 테레사)을 분단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본당의 두 개의 꾸리아 아래 각각 19개의 빠레씨디움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제10지구 소년 꾸리아 “하늘의 문 소년 Cu.” 소속인 3개의 빠레씨디움이 활동하였다.

다음으로 최 신부 부임 이후 그 동안 활동이 중단되었던 아버지 성가대를 부활시키려는 노력이 마침내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도미네 청년 성가대가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새로운 성가대는 단원들의 이동이 잦은 탓에 성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본당의 대축일 미사나 영세식 때에 청년 성가대가 많은 활동을 하는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 이에 최익철 신부는 아버지 성가대를 부활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1991년 11월 17일부터는 아버지 성가대를 구성하려고 우선 어머니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에 아버지들을 모집하여 1992년 3월 1일, 아버지 성가대를 창단하고 그 이름을 “한마음 성가단” (단장 : 양길웅 시몬)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본당 “위령회”(慰靈會)가 다시 설립된 것은 1994년 7월 3일이었다. 이를 위해 본당에서는 6월 12일부터 회원을 모집하여 7월 3일까지 모두 372명을 모집하고, 그중 2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령회 발기인 총회를 갖고 방달호(요셉)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본당 위령회는 나 신부 때인 1981년 3월 31일 “위령 봉사회”가 설립되어 활동하다가 중단된 지 약 10년 만에 다시 부활되었다.

이와 함께 1993년 11월 7일, 1979년 6월에 설립된 대포회가 “대건회”(大建會)로 명칭을 바꾼 사실도 특기할 만한 점이었다.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된 이유는 대포회란 명칭이 어감상 본당의 신심 단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체 회원들은 최 신부의 의견에 따라 ‘한국인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金大建, 안드레아) 성인의 신앙과 순교 정신을 본받는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명칭을



스카우트 졸업 기념(1992년 2월, 대성리).



평화의 모후 Cu. 야외 행사 중 노래 자랑(1993년 5월 14일, 영능).
성령 기도회 야외 행사(1993년 7월 7일).





자비의 모후 Cu, 연총 친목회(1993년 12월 19일).

의덕의 거울 Pr. 1,500차 주회 자축 파티(1994년 5월 4일).





평화의 모후 Cu. 십사처 가장 행렬(1994년 5월 12일).



평화의 모후 Cu. 야외 행사(1994년 9월 12일, 미리내).



남성 Pr. 야외 행사(1994년 5월 18일, 양평 양지계곡).





Pr. 4간부 피정 (1994년 6월 10일, 용인 수지 성모 교육원).

자비의 모후 Cu. 성지 순례 (1994년 9월 9일, 배티).



채택하고, 이를 계기로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또 회원들은 1993년 대건회의 밤 행사에서 100만원을 모금, 1994년 1월에 풍물 악기(장구, 북, 징, 팽과리, 옷 등)를 마련하여 주일학교 활동이나 본당의 큰 행사 때 이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본당 각 단체에서는 본연의 사도직 활동을 지속시켜 나갔다. 성모회, 초등부와 중·고등부 주일학교, 꾸리아, 복지회, 소학회, 청년 성가대, 어버

이 성가대, 소년·소녀 스카우트 등에서는 야외 행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였고, 성령 봉사회, 레지오 마리아, 대건회, 아버이 성서 봉사회, 주일학교 교사회는 정기적인 피정과 성지 순례를 통해서도 신심을 함양하는 데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본당에서는 청년들의 친목 도모와 신앙 활성화를 위해 1992년부터 등반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고, 1992년 초부터는 아버이 성서, 청년 성서 모임이 다시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반면에 향지 야간학교는 1992년 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제9기 학생 8명을 졸업(13명 입학)시킨 뒤 문을 닫고 말았다. 대부분의 교사를 외부에서 초청해야 하고, 그 열성에 비해 성과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 성령 봉사회에서는 수요일 성령 기도회를 계속하는 한편 최 신부 부임 이후에는 1992년 5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1993년 5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8주간 성령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 밖에도 장년 여성들의 모임인 소학회에서는 매년 연말이면 것갈을 판매하였고, 1993년부터는 '우리 농산물 직거래 운동'의 일환으로 단양



'대포회의 밤'(위)과 명칭이 바뀐 후의 '대건회의 밤'(1993년 12월 25일).



어버이 성서 모임 봉사자. 청년 성서 모임 등반 대회(1992년 6월 7일).

마늘, 영양 고추, 메주나 유자차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젊은 부인들의 모임인 복지회에서는 1993년부터 재활용품 비누를 판매하였는데, 특히 이해 11월에는 무공해 비누를 판매하여 결핵 환자 휴양소인 「우양의 집」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단체에서는 1993년부터 성당 혼례식에서 성가 및 폐백도 담당(담당자: 김선영 카타리나)하였다.

4. 본당 설립 40주년과 새로운 전기 모색

본당에서 1994년 5월 29일, 본당 설립 40주년을 앞두고 가장 먼저 계획한 것은 《명수대 본당 40년사》의 편찬이었다. 특히 많은 저서를 낸 경험이 있는 최 신부는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면 본당사 편찬을 위한 자료를 구하기 힘들게 되고, 초창기 현황에 대해 증언해 줄 신자들도 없게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50년사·60년사 편찬에 앞서 40년사를 편찬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1993년 초부터 몇몇 신자들에게 자료 수집을 하도록 하는 한편 곧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그 고문으로는 김춘호(요셉) 총회장이, 위원장으로는 이태호(아우구스티노) 부회장이, 편찬 위원으로는 한복순(테레사), 한칠수(젼마), 경인



「우양의 집」을 방문한 복자회 회원들.

숙(미카엘라)이 선임되었다.

편찬위원회에서는 이때부터 주보를 통해 사진·홍보물·주보 등을 수집하고, 여성 편찬 위원들은 증언 자료 수집에 나섰다. 그러나 본당이 설립된 지 39년이 된 데다가 흑석동 공소 시절을 포함하면 50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였으므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편찬 위원들은 본당 초창기 신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동시에 모아진 자료들을 정리하거나 각 단체사를 수집하고, 초대 본당 주임인 이경재 신부를 위시하여 역대 본당 신부, 보좌 신부, 원로 신자들을 방문하거나 본당에 초빙하여 증언을 청취하는 일을 계속해 나갔다. 한편 사목 협의회의 개편에 따라 1994년 4월에는 이용욱(바실리오) 부회장이 편찬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이처럼 자료를 수집하는 데 약 6개월이 소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의 자료는 모아지지 않았다. 이에 편찬위원회에서는 최 신부와 협의하여 우선 정리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당사를 편찬해 나가면서 주보를 통해 신자들의 협조를 얻고, 사진 자료나 증언 자료를 계속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약 1년 6개월여가 지나면서 본당사 편찬이 실현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다른 하나의 계획은 40주년을 기념하여 본당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 즉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본당에서는

1992년 초 “성당 부지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사목협의회에서 이를 통과시킨 뒤 1월 24일(본당 공문: 천명 제92-1호)에는 정식으로 교구 당국에 계획 승인을 요청하였다. 당시 본당 신자들에게는 부족한 대지 확보가 숙원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성당 진입로가 협소하여 영구차량 같은 대형 차량이 출입할 수 없었고, 영안실이나 부족한 회의실,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역대 신부 때



자료 수집을 위해 이경재 신부를 찾은 여성 편찬 위원들.

부터 성당 대지 매입이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었고, 앞으로 성당 앞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새 부지를 매입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새로 매입하려는 부지는 성당 정문 앞에 있는 흑석 1동 177-9호의 93평(307㎡)으로 이전에 사제관 건립을 위해 본당에서 매각한 땅이었고, 이로 인해 여기에 인접해 있는 본당 소유의 대지 149평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터였다. 따라서 만일 계획대로 새 부지를 매입한다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본당 소유의 대지도 함께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구에서 이를 불허(천서재 제10호, 1992. 2. 8)함으로써 본당에서는 부지 확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없게 되었고, 여전히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다. 사실 이 문제는 40주년을 맞이한 본당 공동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모색한 것으로, 앞으로 또 다른 방향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명수대 본당은 1991년 말로 교우수 5,590명(남자 2,237명, 여자 3,353명), 가구수 1,984가구를 기록하게 되었지만, 전입자(218명)보다 전출자(314명)가 많은 상태였고, 냉담자(588명)나 거주 불명자(163명)가 적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체의 활동을 더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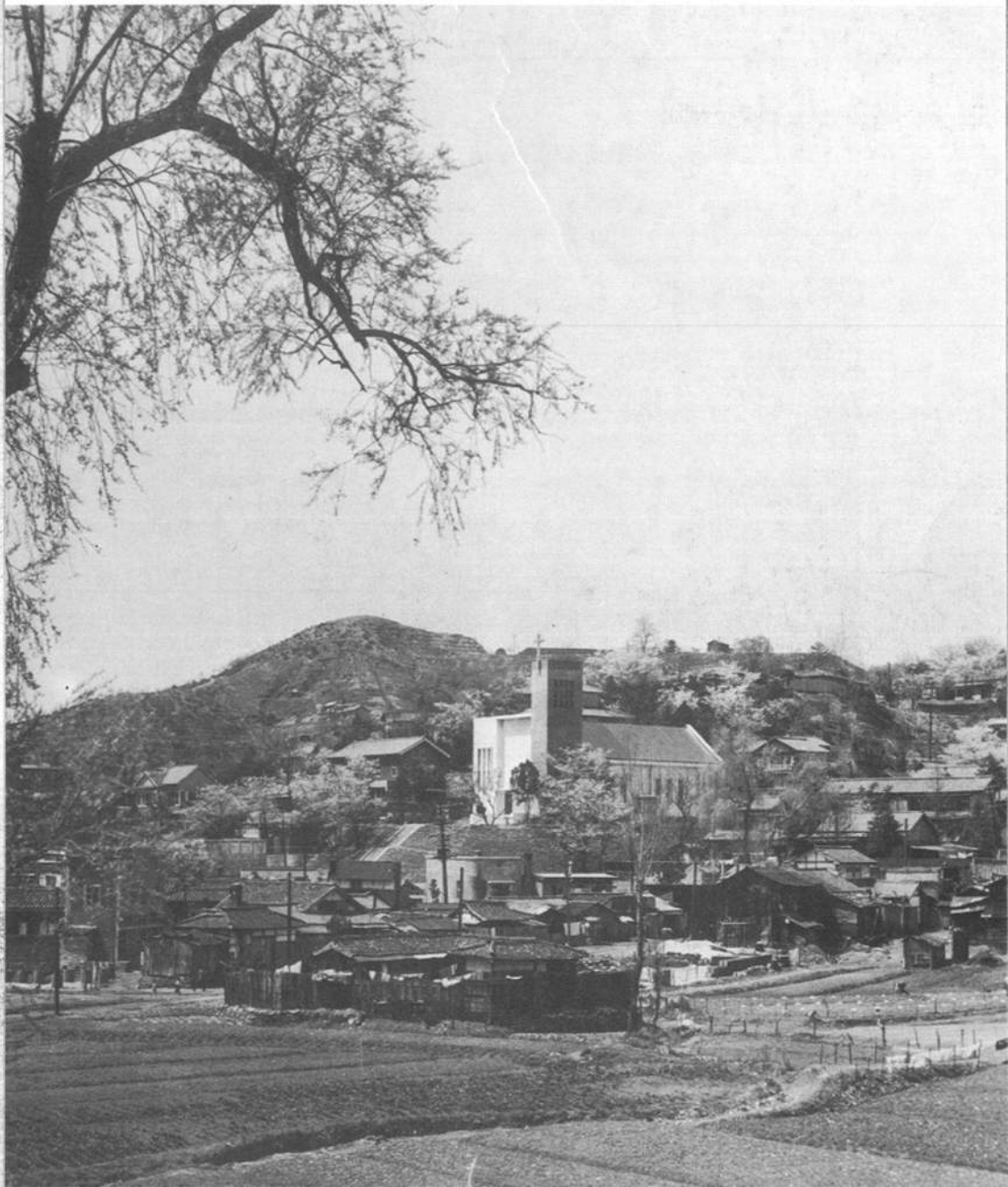
본당의 교세 변모 현황(1991~1993)

연도	신자수			세대수	영세자	전입자	전출자	냉담자	불명자
	남	여	계						
1991	2,237	3,353	5,590	1,984	303	218	314	588	163
1992	2,275	3,373	5,648	2,020	204	297	373	722	41
1993	2,110	3,176	5,286	5,286	204	349	450	1,400	428

이 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러므로 본당에서는 교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노력하였고, 도저히 거주를 파악할 수 없는 신자들은 교구의 「이향 신자 사무부」로 전출시키는 동시에 냉담자 수도 정확히 파악하였다. 그래서 1991년부터 1993년 말까지 이향 신자 사무부로 전출시킨 신자수는 1,206명(1991년), 1,247명(1992년), 1,675명(1993년)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냉담자 수도 1993년에는 1,4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본당에서 1993년 3월 말부터 교적 일체 정리 작업을 주보에 알리기 시작한 다음, 6월 1일부터 교적 전산화 작업에 들어가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이유도 교세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사목 계획 수립의 바탕으로 삼고자 한 데 있다. 이를 위해 본당에서는 각 가구별로 주민등록 등본 1통과 사진 1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수집 중에 있는데, 앞으로 전산화 작업이 끝나게 되면 교우들의 교적 내용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냉담자나 거주 불명자들에 대한 전교 활동도 더 원활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업은 바로 2000년대 복음화를 위한 소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는 기초 작업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성전 건립 직후의 흑석동 일대 모습(1955년경).





견진성사 기념(1956년 5월 30일).



예수 성심상
축성식
(1959년 3월 15일).



1959년 마리 바랑제 여사에 의해 벽화가 그려지기 전후의 제대 모습.





이경재 신부 서품 10주년 및 송별식(1961년 4월 3일).

레지오 마리아에 아치에스 행사(1962년 4월 29일).





흰나리 클럽 회원들 (1968년 12월).

초창기의 소화 데레사회 (1975년경).



김수환 추기경의 은경축에 초대된 세로나 합창단 (1976년 9월 15일).





한국 순교자 순회 기도회(1983년 5월 3일).

임시 성당에서의 성탄 전례(1984년 12월 24일).



새성전 축성식(1986년 6월 1일).





여름 성경 학교(1986년 8월).

혼인 갱신식(1987년 5월 8일).



본당 체육 대회에서의 가장 행렬 기념(1990년 6월 3일).





견진성사(1991년 10월 19일).
 첫영성체 기념(1993년 5월 29일).



** 명수대성당 첫영성체기념 93.5.29 **

제 6 편

평신도 사도직 단체사

- | | |
|---------------------|----------------|
| 주일학교 교사회 / 275 | 복사단 / 280 |
| 성모회 / 283 | 레지오 마리아 / 287 |
| 소화(테레사)회 / 304 | 스카우트 / 308 |
| 울뜨레아 / 311 | 복자회 / 313 |
| 도미네 청년 성가대 / 316 | 대건회 / 320 |
| 성령 기도회 / 324 | 청년 성서 모임 / 328 |
| 아버이 성서 봉사자 모임 / 330 | 한마음 성가단 / 333 |
| 위령회 / 336 | |

주 일 학 교

1. 설립 연월일: 1945년(흑석동 공소 시절)

2. 설립과 변모 과정

본당의 주일학교 활동은 이미 1945년 흑석동 공소 설립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이 주일학교는 6·25 동란으로 일시 폐지되었다가 1953년 봄부터 재개되었는데, 당시 박규원(토마스)이 몇몇 젊은 신자들과 함께 주일마다 120명 정도의 어린이를 학년별로 나누어 조성희 공소 회장 집에서 교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공소에서는 이때 주일학교와 함께 '부인 전교반'을 설립하였고, 그 결과 1953년 성모 몽소 승천 대축일에는 주일 학교 학생들과 어른 영세자를 포함하여 도림동 본당 창설 이후 가장 많은 24명의 새 영세자들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통은 본당 설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초대 주임

주일학교 기념 촬영(옛 성당 성모상 앞, 1982.9)



이경재(알렉산델) 신부는 교리 교육에 많은 열성을 기울임으로써 서울 교구 주최 교리 경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즉 1957년 10월 27일 제2회 대회에서는 단체상 우승 및 개인상 2등·3등, 1958년 11월 2일 제3회 대회에서는 단체상 3등, 1959년 제4회 대회에서는 단체상 우승, 1960년 10월 30일 제5회 대회에서는 단체상 우승 및 개인상 1등·2등이라는 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이때 이 신부는 1960년 만국 성체대회(萬國聖體大會) 참관 후 귀국하면서 우선 교리 경시장으로 달려가 신자들을 응원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어 조인환(베드로) 신부 재임기에도 보좌 신부, 본당 수녀, 교리 교사 등 모두가 열심이었는데, 1961년 10월 22일에 개최된 제6회 서울 교구 교리 경시 대회에서는 명수대 본당의 참가자들이 총 득점 1,308점으로 우승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제4회 대회부터 3년 연속 우승이라는 영광을 안았고, 경시 대회 우승기를 영구히 본당에 보관하는 영예를 얻을 수 있었다. 이어 다음 해에 열린 제7회 대회 때는 참가상 1등, 단체상 2등을 차지하였다. 또 초대 보좌 신부로 활동해 오던 김수창(야고보) 신부는 주일학교 학생 중에 집안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옷을 직접 만들어 입히기도 하였고, 주일학교 운영이 어렵자 교사들과 함께 2년간 폐품 수집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후 몇 년 동안 주일학교 활동은 신자들의 잦은 진출입으로 인해 일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다가 1971년 제5대 주임 박병윤(토마스) 신부 부임 이후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제6대 나상조(아우구스티노) 신부 재임기인 1980년과 1981년에는 몽산포에서 4박 5일 동안 주일학교를 포함하여 청년·성인 등 '전 단체 연합 하기 수양회'를 개최하여 서로 친교를 다지도록 하였다. 그 결과 주일학교 교육과 교사회 활동은 이 시기에 와서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1977년 8월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충북 보은 지역에서 시작한 '교리 학교 봉사 활동 및 노력 봉사'는 좋은 호응을 얻어 해마다 6박 7일 정도로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보은 지역의 여러 공소들과 맺은 인연이 계기가 되어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1979년 12월에 불우 이웃 돕기 운동을 벌였고, 그 수익금으로 장갑 180 켤레를 사서 공소에 보내기도 하였다.

1980년대 전반기, 주일학교는 장소 관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의 방, 푸름의 방뿐만 아니라 사제관 1층·2



주일학교 교사단 기념 촬영(1993.2.28)

층, 대화의 방, 유치원 교실, 야학 교실 등을 교실로 사용해야만 했다. 또 그 동안 보은 지역에서 해오던 지방 공소의 교리 학교 하계 봉사는 1982년 여름부터 풍수원 본당으로 활동 지역을 이전하였으나, 점차 지방 본당의 교사회가 정착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일반 봉사 활동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본당에서는 제7대 주임 이종환(미카엘) 신부 재임기인 1982년 3월에 들어 주일학교 교사회를 전면적으로 개편 보강하였다. 또 1982년 여름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스카웃 대원을 중심으로 광주 '구림 농원'에서 하계 수양회를 개최하였고, 다음해에는 본당 청년 연합회 주관 아래, 1차로 고등부가 2차로 청년·중등부·복사단이 몽산포에서 수양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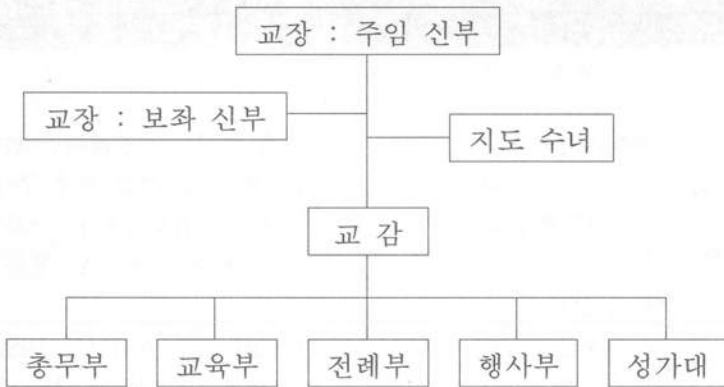
본당의 주일학교는 이와 같은 전통을 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주일학교 초등부(교학년) 피정, 중등부 피정, 여름 캠프, 6학년 졸업 피정 등은 1976년 나상조 신부 때부터 정례화되었고, 이후에는 교사하기 연수회와 피정, 초등부 저학년의 여름 성경 학교, 하계 캠프 활동, 연례 피정 행사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1978년부터 부활 달걀 판매, 영화 감상, 일일 찾집, 후원금 모금 등을 통해 운영 기금과 봉사 활동 기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당의 주일학교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 교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본당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입시 경쟁이나 출석을 저조로 인한 어려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당에서는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 지도 수녀와 교사들의 노력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으로 그 질을 높이는 동시에 대상 신자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힘쓰고 있다.

3. 조직과 교사진 현황

1) 조직 현황



2) 교사진

<초등부>

- 1987년 : 교감 임병률(클레멘스), 교무 : 구복만(베드로)
- 1988년 : 교감 김혜경(로사)
- 1989년 : 교감 박상만(스테파노)
- 1990년 : 교감 이승은(아네스), 교무 김민희(올리안나)
- 1991년 : 교감 박남희(안나), 교무 임범수(요셉)
- 1992년 : 교감 이미경(모니카)

- 1993년 : 교감 박희선(베드로)
- 1994년 : 교감 김기환(루가), 유치부 여은미(카타리나) · 성운호(야고보), 1학년 이재찬(파트리치오) · 김양희(세실리아), 2학년 양혜윤(아네스) · 구본걸(스테파노), 3학년 이현석(베드로) · 양주리(줄리아), 4학년 김현진(벨라멧다) · 김미란(노엘라) · 송지용(마태오), 5학년 김기환(루가) · 한선희(젬마) · 김옥자(엘리사벳), 6학년 이정섭(스테파노) · 이유정(요셉피나)

〈중·고등부〉

- 1989년 : 교감 박영식(헨리코), 교무 최성용(모세)
- 1990년 : 교감 이길수(요한)
- 1991년 : 교감 김용환(요한)
- 1992년 : 교감 이수정(레지나), 교무 이수연(세실리아)
- 1993년 : 교감 이정아(마리아)
- 1994년 : 교감 이지윤(엘리사벳), 교무 김은진(로사리아), 총무부 이승은(아네스) · 김정민(아가페) · 김로사(로사), 교육부 이수연(세실리아) · 이정아(마리아) · 한영용(베드로), 전례부 차재인(요한) · 윤정현(미카엘) · 구민경(엘리사벳) · 강문희(마리아), 행사부 김은진(로사리아) · 김원중(미카엘) · 조미희(아그리빠나) · 김은용(리비아)

복사단

1. 설립 연월일 : 1954년 6월(본당 초창기)

2. 활동 목적 및 내용

복사단의 주요 임무는 미사 때 본당 사제를 보좌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복사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3학년 이상, 중학교 2학년 이하인 학생으로서 본당 주임 신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선발된 후에는 미사 예절을 보좌하는 절차 및 형식, 전례의 의미, 성경과 교리 등을 자주 공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본당에서는 매년 야외 행사, 피정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복사 어린이들에게 신앙심을 고취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도 관심을 쏟고 있다.

복사단 야외 행사(1989.1.26)



3. 역대 복사단 현황(가나다 순, 학년은 당시의 학년임)

- 1992년 : 강충명(마르첼리노, 6학년), 고정수(토마스 아퀴나스, 3학년), 김경준(대건 안드레아, 4학년), 김대기(요한, 6학년), 김동연(요한, 6학년), 김동열(스테파노, 3학년), 김선호(돈보스코, 4학년), 김선호(요한, 6학년), 김영균(아놀드, 6학년), 김진혁(라파엘, 6학년), 김형중(마르티노, 3학년), 김호진(대건 안드레아, 중1), 노정훈(레오, 3학년), 박상윤(제오르지오, 중1), 박찬혁(돈보스코, 5학년), 백형준(요한, 중1), 서주원(레오, 중2), 심재국(요한, 중1), 안상현(유스티노, 중2), 양명석(안드레아, 중2), 염상훈(엠마누엘, 5학년), 염지훈(가브리엘, 중2), 원규하(라파엘, 4학년), 원성철(미카엘, 6학년), 이범선(베드로, 중2), 이원세(대건 안드레아, 4학년), 장태석(루뽀, 5학년), 정일택(요셉, 6학년)
- 1993년 : 강충명(마르첼리노, 중1), 고정수(토마스 아퀴나스, 4학년), 김경준(대건 안드레아, 5학년), 김대기(요한, 중

1991년 부활 대축일에서의 복사단



1), 김동연(요한, 중1), 김동열(스테파노, 4학년), 김선호(돈보스코, 5학년), 김선호(요한, 중1), 김영균(아놀드, 중1), 김진혁(라파엘, 중1), 김형중(마르티노, 4학년), 노정훈(레오, 4학년), 노지훈(안드레아, 3학년), 류성민(라우렌시오, 5학년), 문성호(그레고리오, 5학년), 박상윤(제오르지오, 중2), 박창범(아우구스티노, 5학년), 백형준(요한, 중2), 심재국(요한, 중2), 염상훈(엠마누엘, 6학년), 원규하(라파엘, 5학년), 원성철(미카엘, 중1), 이원세(대건 안드레아, 5학년), 임병근(리차드, 5학년), 장태석(루뽀, 6학년), 정영택(프란치스코, 4학년), 정일택(요셉, 중1)

- 1994년 : 강충명(마르첼리노, 중2), 고대일(요셉, 3학년), 김경준(대건 안드레아, 6학년), 김대기(요한, 중2), 김동연(요한, 중2), 김동열(스테파노, 5학년), 김선호(돈보스코, 6학년), 김선호(요한, 중2), 김영균(아놀드, 중2), 김영준(대건 안드레아, 3학년), 김용문(스테파노, 3학년), 김진혁(라파엘, 중2), 김형중(마르티노, 5학년), 나찬주(베드로, 3학년), 노정훈(레오, 5학년), 노지훈(안드레아, 4학년), 류성민(라우렌시오, 6학년), 박창범(아우구스티노, 6학년), 손정수(스테파노, 3학년), 염상훈(엠마누엘, 중1), 원규하(라파엘, 6학년), 원성철(미카엘, 중2), 이동균(프란치스코, 3학년), 이상호(베드로, 3학년), 임병근(리차드, 6학년), 장태석(루뽀, 중1), 정민영(알비노, 3학년), 정영택(프란치스코, 5학년), 정일택(요셉, 중2), 최은서(스테파노, 3학년)

성 모 회

1. 설립 연월일 : 1955년 5월 1일

2. 변모 과정과 활동 내용

성모회(초대 회장 : 박 마리아)는 1955년 5월 1일 본당 초창기에 처음으로 조직된 본당 부인회로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설립 초기에는 본당에 여성 단체가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지금과 같이 노년층 여성 신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장년층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이 다양하였다. 당시 여성 신자들이 이 단체를 설립한 목적은 “성모 신심을 돈독히하면서 성전 건립에 동참하고, 성당 신축이 무사히 이루어지도록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려는 데” 있었다.

이후 성모회 회원들은 첫 성전 건립에서 많은 노력 봉사를 하였고, 이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특히 1957년에는

성모회 성지 순례(연풍, 1986.5.21)



성당 구내(현 유치원 자리)에 '무료 급식소'가 설치되자 이 활동을 주관하게 되었다. 이 급식소는 당시 「가톨릭 구제회」(N. C. W. C)에서 구호 물자를 보급해 주면서 극빈자를 대상으로 일시 개설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모회는 얼마 안되어 일시 침체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1959년 젊은 부인들이 중심이 된 "흰나리 클럽"이 설립되면서 더 나아가 많은 여성 신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1961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을 기해 100여 명의 회원들을 다시 규합한 뒤 권 비리시다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후 본당 봉사, 정기적인 피정 및 성지 순례 등 신심 활동, 야유회 및 각종 친교 활동, 불우 이웃 돕기 등을 활발히 실천해 가면서 본당 노년층 여성 신심 단체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 마르타 자매를 비롯하여 10여 명의 회원들은 기금을 거출하여 성당에 성물 판매소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수익금 중 일부를 본당에 현금하였는데, 이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 성모회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모시고 월례회를 가지며, 회의 때마다 임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점심 식사를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들끼리 서로 친교를 맺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며, 본당 신부와 수녀의 지도 아래 뜻있는 모임을 갖고 있다.

3. 연혁 및 주요 활동

- 1955. 5. 1 본당 부인회인 성모회 설립
- 1957. 본당 '무료 급식소' 봉사 활동 시작
- 1961. 8. 15 임원단 재구성으로 회원 활동을 강화함
- 1961~1973 불우 이웃 돕기 및 본당 봉사 활동, 야외 행사 및 성지 순례
- 1973. 2. 모금 운동으로 중고생에게 장학금 지급 시작
- 1978. 5. 10 야외 행사(산정 호수)
- 1979. 6. 20 야외 행사(강화도 전등사)
- 1980. 5. 23 야외 행사(충주 수안보)
- 1981. 5. 15 성지 순례(안양 수리산 성지)
- 1982. 8. 7 야외 행사(관악산 유원지)
- 1985. 9. 18 성지 순례(연풍 성지)
- 1986. 5. 21 성지 순례(연풍 줄무덤)



성모회 성지 순례(연풍, 1994.9.28)

- 9. 23 성지 순례(전주 이 누갈다 묘지)
- 1988. 10. 14 성지 순례(풍수원 성당)
- 1989. 5. 17 야외 행사(남이섬)
- 1990. 6. 14 성지 순례(이천 성지)
- 1991. 2. 20 피정 실시(명상의 집)
- 5. 30 야외 행사(청풍 유적지)
- 9. 18 성지 순례(남양 성지)
- 1992. 5. 20 야외 행사(용인 자연 농원)
- 9. 23 성지 순례(나바위 성당)
- 1993. 5. 19 야외 행사(과천 서울랜드)
- 9. 22 성지 순례(천호 성지)
- 1994. 5. 25 야외 행사(광릉 수목원)

4. 역대 임원 현황

- 초대 : 회장 박 마리아, 부회장 김 소화 테레사, 총무부장 한 테레사, 재무부장 최 살노메, 전교부장 김 엘리사벳
- 2 대 : 회장 오 마리아

- 3 대(1961. 8. 15~1971) : 회장 권 비리시다
- 4 대(1971~1973. 10. 8) : 회장 김 벨라뎃다, 부회장 이 마리아, 총무 이 아네스, 서기 김 모니카, 회계 노 마리아
- 5 대(1973. 10. 8~1975. 8. 22) : 회장 김 모니카, 부회장 유 켈마, 총무 최 마리아, 서기 조 벨라뎃다, 재무 노 마리아
 - * 1974년 8월 22일 : 부회장 김 수산나, 총무 최 마리아
- 6 대(1975. 8. 22~1977. 8. 6) : 회장 이 마리아, 부회장 성낙예(테레사), 총무 김 요셉피나, 재무 노 마리아, 서기 조 벨라뎃다
 - * 1976년 8월 2일 : 부회장 이 마리아, 총무 성낙예(테레사), 서기 김남순(베로니카)
- 7 대(1977. 8. 6~1978. 8. 5) : 회장 노 마리아, 부회장 이 마리아, 총무 성낙예(테레사), 재무 오순근(수산나), 서기 김남순(베로니카)
- 8 대(1978. 8. 5~1984. 8. 4) : 회장 이 마르타, 부회장 이 마리아, 총무 정 마리아, 재무 노 마리아, 서기 김남순(베로니카)
 - * 1981년 8월 8일 : 부회장 정 마리아, 총무 성낙예(테레사), 재무 김숙배(마멜다)
- 9 대(1984. 8. 4~1987. 9. 16) : 회장 정 마리아, 부회장 이희옥(아나타시아), 총무 김 골롬바, 서기 김 말파
 - * 1985년 9월 7일 : 총무 오순근(수산나)
- 10대(1987. 8. 16~1990. 10. 17) : 회장 김남순(베로니카), 부회장 이희옥(아나타시아), 총무 성낙예(테레사), 서기 안숙자(엘리사벳)
 - * 1988년 9월 20일 : 총무 오순근(수산나)
- 11대(1990. 10. 17~1991. 10. 16) : 회장 한복순(테레사), 부회장 조용숙(프란체스카), 총무 이종순(안나), 회계 박종순(소피아), 서기 김추자(세레나)
- 12대(1991. 10. 16~1993. 10. 27) : 회장 박종순(소피아), 부회장 김숙배(마멜다), 총무 배호기, 회계 이희옥(아나타시아), 서기 안숙자(엘리사벳)
- 13대(1993. 10. 27~현재) : 회장 안숙자(엘리사벳), 부회장 김숙배(마멜다), 총무 양봉례(다니엘라), 회계 임옥선(엘리사벳), 서기 신임철(테레사)

레지오 마리아

1. 설립 연월일 : 1955년 8월 19일

2. 변모 과정과 활동 내용

1) 레지오 마리아의 도입과 꾸리아 설립

명수대는 1955년 8월 19일 서울 교구 안에서 최초로 레지오 마리아를 도입한 본당이다. 이때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이 바로 '평화의 모후 Pr.' (단장:신태민 토마스)으로, 이것은 1953년 5월 31일 목포 산정동 본당에서 첫 브레씨디움이 탄생한 지 2년 3개월 만이었다. 이를 위해 당시 광주교구장이던 헨리(Henry, 玄海) 헤롤드 신부와 성의 중고등학교 교장이던 김성환(金成煥, 빅토리노) 신부가 직접 본당을 내방하였

평화의 모후 Cu. 성지 순례(미리내, 1994.9.12)





자비의 모후 Cu. 평의원 피정(상지회관)

다. 이후 본당의 레지오 활동은 초대 주임 이경재(알렉산델) 신부의 지도로 활성화되어 갔다. 그 결과 1958년 2월 1일에 설립된 '오묘한 매피 Pr.'(단장:전 요셉), 같은 해 5월 1일에 설립된 '사랑하오신 모친 Pr.'(단장:김 발바라), 11월 30일에 설립된 '성실하신 정녀 Pr.'(단장:윤상돈 바오로)으로 이어지면서 성모님의 군대로서 정기적인 주회, 환자 방문, 전교 활동 등을 통해 중요한 신심 활동 단체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이 명수대 본당의 레지오 마리아는 서울 레지오 마리아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 그래서 1957년 1월 29일 혜화동 본당에서 '상지의 좌 Cu.'(단장:이해남 요셉)가 설립되고, 1959년 3월 15일에는 명수대 본당에서 영등포 지구 '평화의 모후 Cu.'(단장:장대훈 루가)가 설립되었으며, 이것이 1960년 5월 29일 '서울 무염시태 Co.'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당시 명수대 본당에 소재지를 둔 평화의 모후 꾸리아는 소사·수원·대전 등지의 빠레씨디움들까지 산하에 두었고, 1959년 12월 13일 처음으로 수원·양지 지구의 '천지의 모후 Cu.'를 분단한 이후 1983년까

지 도림동·봉천동·사당동·반포·상도동 본당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 이남의 여러 꾸리아들을 분단하게 되었다. 한편 평화의 모후 꾸리아 단원들은 1960년 2월 12일 처음으로 연총 친목회를, 5월 1일에는 처음으로 아치에스 행사를 실시하고, 이 해 7월 17일에는 산하 13개 브레씨디움이 함께 모여 봉쇄 피정을 개최하였다.

한편 본당에서는 1958년 2월 2일 '인자하신 정녀 Pr.' (단장:심 글라라)이 최초의 소년·소녀 브레씨디움으로 생겨났다. 그리고 이어 같은 해 2월 4일에 '천주의 성모 Pr.' (단장:김 루시아)이, 3월 30일에는 '종도의 모후 Pr.' (단장:조 리카르도)이, 1959년 4월 5일에는 '치명자의 모후 Pr.' (단장:박 마리아)이 각각 설립되었다. 이 후 이들 4개의 소년·소녀 브레씨디움은 후암동 본당에 소재지를 두고 있던 "하늘의 모후 소년 Cu." (단장:마 미카엘)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2) 브레씨디움들의 변모

그러나 본당의 레지오 단체는 초창기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그 활동과 조직이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족되었던 각 단체들은 이후 재정립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우선 1956년 7월에 설립된 '다윗의 정후 Pr.'은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자진 해산되고, 1960년 4월 10일에는 '오묘한 매괴 Pr.'이 '자비의 모친 Pr.'으로 개칭되었다. 또 같은 해 12월 9일 '오묘한 매괴 Pr.' (단장:탁한관 세 바스티아노)이 재설립을 보고, 12월 11일에는 '성실하신 정녀 Pr.'이 회원들의 사정으로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변화를 거쳐 본당의 레지오 단체는 1961년에 들어 어느 정도 정착을 보게 되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1961년 1월 현재 평화의 모후 꾸리아 소속인 평화의 모후, 자비의 모친, 오묘한 매괴 등 3개 성인 브레씨디움과 하늘의 모후 소년 꾸리아 소속인 종도의 모후, 천주의 성모, 인자하신 정녀, 치명자의 모후 등 4개 소년 브레씨디움을 합쳐 모두 7개의 브레씨디움이 있었다.

레지오 마리아의 8개 브레씨디움 중에서 평화의 모후, 치명자의 모후, 자비의 모친 등은 이전과 같이 활동하였다. 그러나 일부 브레씨디움들은 회원층의 연령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천주의 성모 Pr.'은 청년 레지오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종도의 모후 Pr.'과 '인자

하신 정녀 Pr.'은 남·여 고등학생들의 모임으로 변경되었다가 폐지되었다. 그 대신 1965년 4월 11일자로 '인내의 샘 Pr.'(단장:김연화 베네딕다)이 설립되었고, 6월 23일자로 '구세주의 모친 Pr.'(단장:윤정혜 모니카)이, 7월 11일자로 '상지의 좌 Pr.'(단장:권 마리아, 상도동 공소)이, 이어 8월 1일자로 '의덕의 거울 Pr.'(단장:방옹자 울리안나)이 새로 창단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평화의 모후 Cu." 산하에 7개의 브레씨디움과 "하늘의 모후 소년 Cu." 산하에 3개의 브레씨디움 등 10개의 레지오 단체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상아 보탑 Pr.'(단장:홍병준 베드로)이 1968년 4월 8일에 신설(1975년에 해산됨)된 반면에 기존 5개 브레씨디움(평화의 모후, 오묘한 매괴, 인내의 샘, 구세주의 모친, 의덕의 거울)을 제외하고는 나중에 개편되거나 모두 폐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명수대 "천신의 모후 소년 Cu."도 1972년 5월 14일자로 해산되었다가 훗날 다시 부활되었으나, 이후 그 본부는 명수대·봉천동·상도동 본당 등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 후 레지오 단체는 1978년 9월 8일 '사랑의 모후 Pr.'(중년 부인팀, 단장:김연화 베네딕다)이, 1979년 8월 12일 '상아 보탑 Pr.'(미혼 청년팀, 단장:홍병준 베드로)이, 1980년 11월 9일에 '사랑의 샘 Pr.'(미혼 여성팀, 단장:김남숙 베로니카)이 설립됨으로써 다시 8개로 증가하였다. 이 밖에도 당시에는 소년·소녀 브레씨디움으로써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남자 고등부), '천사의 모후 Pr.'(여자 중등부) 등이 함께 활동하였다.

당시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은 주회, 아치에스 행사, 연총 친목회, 옥외 행사, 교본 및 성서 연구에 노력하면서 위령 미사 봉헌, 불우 이웃 돕기 및 본당 봉사에도 앞장섰다. 그리고 1980년에는 모두 8개의 브레씨디움에 행동 단원 100명, 협조 단원 150명을 확보하고, 5월 21에는 민족 복음화 대회(잠실 학생 체육관)에, 11월 22일에는 서울 레지오 도입 25주년 민족 복음화 대회(잠실 체육관)에 참여하였다. 특히 이 서울 레지오 은경축 행사에서는 본당의 조규동(가브리엘)과 장대훈(루가) 회장이 기념패를 받았으며, 25년 근속자 2명과 15년 근속자 3명이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3) 레지오 활동의 활성화

1980년 이전까지는 빠레씨디움들의 폐지와 신설, 재설립 등이 반복되었지만, 1981년 후반에서 1986년 초까지는 기존의 8개 빠레씨디움 외에 15개의 빠레씨디움이 설립되어 “평화의 모후 Cu.” 아래 모두 23개의 빠레씨디움이 활동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 4년 여 동안에 증가한 레지오 단원이 이전에 활동해 오던 숫자보다 많게 되었고, 1983년 1월 16일에는 상도동·노량진 본당의 ‘성실하신 정녀 Cu.’를 분단함으로써 “평화의 모후 Cu.”가 24년 만에 본당 단독 꾸리아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빠레씨디움들은 모두 현재까지 그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명수대 본당 초창기에 일찍 레지오 운동을 도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이 시기는 레지오 활동이 다시 활성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빠레씨디움 설립 현황〉(1981~1986)

- 1981. 9. 29 지혜로우신 정녀 Pr. (단장 : 한복순 데레사)
- 12. 6 성심의 샘 Pr. (단장 : 이순애 레지나)
- 1982. 2. 5 착한 의견의 모친 Pr. (단장 : 김선옥 발바라)
- 2. 20 하자 없으신 모친 Pr. (단장 : 조규동 가브리엘)
- 11. 14 일치의 모후 Pr. (단장 : 김보영 로사)
- 12. 12 천상의 모후 Pr. (단장 : 김동원 마르타)
- 1984. 1. 19 영광의 모후 Pr. (단장 : 류음전 말가리다)
- 1. 26 은총의 모후 Pr. (단장 : 이영희 베로니카)
- 1. 28 능하신 정녀 Pr. (단장 : 윤형분 바울라)
- 7. 21 겸손하신 모후 Pr. (단장 : 임우식 그레고리오)
- 1985. 3. 28 은총의 샘 Pr. (단장 : 이종실 마리아)
- 6. 9 원죄 없으신 모후 Pr. (단장 : 김원자 데레사)
- 10. 24 증거자의 모후 Pr. (단장 : 김정임 아가다)
- 12. 5 인자하신 모후 Pr. (단장 : 원종우 바오로)
- 1986. 1. 24 성실하신 모후 Pr. (단장 : 조용숙 프란체스카)

이후에도 빠레씨디움의 신설은 계속되었고, 단원들도 크게 증가하였다. 즉 1987년부터 1991년까지 모두 12개의 빠레씨디움이 신설됨으로



자비의 모후 Cu. 성지 순례(베터, 1994.9.9)

써 평화의 모후 꾸리아 아래 모두 35개의 뿌레씨디움이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이에 꾸리아 회의에서 분단이 논의되었고, 1991년 6월 14일자로 “자비의 모후 Cu.”(단장:염동화 마태오)를 설립함으로써 본당의 레지오 마리아는 2개의 꾸리아로 확대되었다. 자비의 모후 꾸리아는 그 후 7월 1일자로 평의회인 ‘천주 성종의 꼬미씨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때 평화의 모후 꾸리아 아래 19개 뿌레씨디움이, 자비의 모후 꾸리아 아래 19개 뿌레씨디움이 소속되었다.

당시 서울교구 제10지구 소년 레지오 연합 단체인 “하늘의 문 소년 Cu.”도 한때 본당에 본부를 두면서 연차 총친목회와 아치에스 행사를 본당에서 개최하였다. 이 소년 꾸리아에 속한 본당의 뿌레씨디움들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단장:차현민 사비나), ‘천사의 모후 Pr.’(단장:조희정 카타리나), ‘그리스도의 모친 Pr.’(단장:이상민 마르크) 등이 있었다.

〈뿌레씨디움 설립 현황〉(1987~1992)

- 1987. 7. 25 영원하신 모후 Pr. (단장:임우식 그레고리오)
- 11. 10 셋별 Pr. (단장:한복순 테레사)

- 11. 17 자애로우신 모후 Pr. (단장:전경림 데레사)
- 1988. 7. 10 바다의 별 Pr. (단장:정신자 켈마)
- 7. 10 동정 성모 Pr. (단장:조은영 글라라)
- 7. 12 상지의 좌 Pr. (단장:장인순 마리 스텔라)
- 7. 21 순교자의 모후 Pr. (단장:고영자 데레사)
- 12. 12 천주의 모친 Pr. (단장:장인순 마리 스텔라)
- 1989. 5. 18 영원하신 모후 Pr. (단장:장인순 마리 스텔라)
- 1990. 1. 4 신비로운 장미 Pr. (단장:조현관 요한)
- 2. 25 하늘의 문 Pr. (단장:임우식 그레고리오)
- 8. 24 애덕의 모후 Pr. (단장:박덕희 에스텔)
- 1991. 9. 3 로사리오의 모후 Pr. (단장:이강례 마리아)
- 1992. 1. 12 기쁨의 샘 Pr. (단장:정예환 루시아)
- 3. 3 죄인의 의탁 Pr. (단장:고영자 데레사)

3. 역대 단장 및 현 임원 현황

A. 평화의 모후 Cu. (1959년 3월 15일 설립, 4월 5일 승인)

- 역대 단장 : 초대 장대훈(루가), 2대 윤상돈(바오로), 3대 주영창(시메온), 4대·5대 이장형(요아킴), 6대·7대 오병준(안드레아), 8대 김규익(라우렌시오), 9대 이장형(요아킴), 10대 정남석(요한), 11대 노문호(베드로), 12대 홍병준(베드로), 13대 한복순(데레사), 14대 임우식(그레고리오), 15대 송광남(모이세), 16대 임우식(그레고리오)
- 현 임원 : 17대 단장 장인순(마리 스텔라), 부단장 김영식(요한), 서기 김복중(요셉), 회계 윤영순(글라라)

1) 평화의 모후 Pr. (1956년 8월 19일 설립, 8월 29일 승인)

- 역대 단장 : 초대 신태민(토마스), 2대 장대훈(루가), 3대 윤상돈(바오로), 4대 인 베드로, 5대·6대 김영숙(벨라렛다), 7대 이무정(마리아), 8대·9대 이옥녀(아네스), 10대 신학연(로즈마리), 11대·12대 조득분(안나),

- 13대 최민자(마리아), 14대 편재희(엘리사벳)
- 현 임원 : 15대 단장 장인순(마리 스텔라), 부단장 권혁남(엘리사벳), 서기 엄명화(요안나), 회계 김길자(아가다)
 - 분단 현황 : 오묘한 매괴 Pr. (1960. 12. 9), 구세주의 모친 Pr. (1965. 6. 23일), 상아보탑 Pr. (1968. 2. 11)
- 2) 인내의 샘 pr. (1965년 4월 11일 설립, 4월 11일 승인)
- 역대 단장 : 초대 김연화(베네딕다), 2대 김 마리아, 3대 정 말가리다, 4대 송 아네스, 5대 이운정(리디아), 6대 김숙배(막달레나), 7대 구은숙(마리아), 8대 박선호(크리스티나), 9대 김숙배(막달레나), 10대 김명자(카타리나), 11대 김남숙(베로니카), 12대 홍범숙(테레사), 13대 조인영(루시아), 14대 최승영(카타리나), 15대 신동주(테레사), 16대 정미애(율리안나), 17대 박영미(루시아), 18대 유은주(테레사), 19대 구인수(안드레아), 20대 홍선화(마리안나)
 - 현 임원 : 21대 단장 최성운(세실리아), 부단장 차현민(사비나), 서기 권설희(로사), 회계 이현익(마티아)
 - 분단 현황 : 사랑의 샘 Pr. (1980. 10. 30)
- 3) 구세주의 모친 Pr. (1965년 6월 23일 설립, 6월 23일 승인)
- 모체 : 평화의 모후 Pr.
 - 역대 단장 : 초대·2대 윤정혜(모니카), 3대 오인순(루시아), 4대 김영숙(벨라멧다), 5대·6대 유순자(글라라), 7대·8대 최광련(마리아), 9대 김남숙(베로니카), 10대 성나숙(아폴로니아), 11대 강춘자(베로니카), 12대 안숙자(엘리사벳)
 - 현 임원 : 13대 단장 유월로(베로니카), 부단장 김춘자(베로니카), 서기 최성례(실비아), 회계 서현자(루시아)
 - 분단 현황 : 착한 의견의 모친 Pr. (1982. 2. 5), 능하신 정녀 Pr. (1984. 1. 28), 상지의 좌 Pr. (1988. 7. 10)
- 4) 사랑의 모후 Pr. (1978년 9월 8일 설립, 9월 8일 승인)

- 역대 단장 : 초대 김연화(베네딕다), 2대 한복순(테레사), 3대 정경숙(비비안나), 4대 황설자(레오니아), 5대 조성애(울리안나), 6대 한복순(테레사)
- 현 임원 : 7대 단장 윤영순(글라라), 부단장 김영자(아셀라), 서기 권영실(테레사), 회계 최금자(수산나)
- 분단현황 : 지혜로운 정녀 Pr. (1981. 9. 25), 은총의 모후 Pr. (1984. 1. 26)

5) 사랑의 샘 Pr. (1980년 10월 30일 설립, 11월 9일 승인)

- 모체 : 인내의 샘 Pr.
- 역대 단장 : 초대 김남숙(베로니카), 2대 윤종숙(수산나), 3대 위경숙(울리안나), 4대 이영임(사비나), 5대 이종례(엘리사벳), 6대 정예환(루시아), 7대 한민숙(프리스카), 8대 정예환(루시아), 9대 김경숙(발레리아)
- 현 임원 : 10대 단장 이영희(아네스), 부단장 정승섭(레오), 서기 강혜숙(카타리나), 회계 조선미(리디아)
- 분단 현황 : 기쁨의 샘 Pr. (1992. 1. 14)

6) 성심의 샘 Pr. (1981년 12월 6일 설립, 12월 6일 승인)

- 역대 단장 : 초대 이순애(레지나), 2대 황신자(울리안나), 3대 이영자(레오니아), 4대 서금석(릿다)
- 현 임원 : 5대 단장 한순희(아가다), 부단장 노성자(마리아), 서기 윤숙현(카타리나), 회계 이현실(아네스)

7) 하자없으신 모친 Pr. (1982년 2월 20일 설립, 3월 14일 승인)

- 모체 : 오묘한 매피 Pr.
- 역대 단장 : 초대 조규동(가브리엘), 2대 임우식(그레고리오), 3대 조규동(가브리엘), 4대 황맹도(시몬), 5대 차영길(시몬)
- 현 임원 : 6대 단장 이무영(시몬), 부단장 김용관(요한), 서기 이상호(다니엘), 회계 이근창(엠마누엘)
- 분단 현황 : 겸손하신 모후 Pr. (1984. 7. 28)

- 8) 일치의 모후 Pr. (1982년 11월 14일 설립, 11월 16일 승인)
 ·역대 단장 : 초대 김보영(로사), 2대 최길례(올리안나), 3대 진경림(테레사), 4대 김보영(로사), 5대 한계수(테레사)
 ·현 임원 : 6대 단장 한계수(테레사), 부단장 김기인(마리아), 서기 고정희(아가다), 회계 김종복(마리아)
 ·분단 현황 : 영광의 모후 Pr. (1984. 1. 19), 자애로우신 모후 Pr. (1987. 11. 17), 죄인의 의탁 Pr. (1992. 3. 3)
- 9) 영광의 모후 Pr. (1984년 1월 19일 설립, 2월 12일 승인)
 ·모체 : 일치의 모후 Pr.
 ·역대 단장 : 초대 류음전(말가리다), 2대 연제선(마리아), 3대 · 4대 송경희(모니카), 5대 문세운(마리안나)
 ·현 임원 : 6대 단장 송경희(모니카), 부단장 오영자(테레사), 서기 심정자(스콜라스티카), 회계 유순현(헬레나)
- 10) 은총의 모후 Pr. (1984년 1월 26일 설립, 2월 12일 승인)
 ·모체 : 사랑의 모후 Pr.

평화의 모후 Cu. 야외 행사(홍천강, 1994.5.12)



- 역대 단장 : 초대 이영희(베로니카), 2대 민기완(칸델라), 3대 방종희(칸델라), 4대 권홍집(테레사)
- 현 임원 : 5대 단장 노병옥(모니카), 부단장 김일임(마리아), 서기 방종희(칸델라), 회계 이순호(안나)

11) 원죄없으신 모후 Pr. (1985년 6월 9일 설립, 7월 14일 승인)

- 역대 단장 : 초대 김원자(테레사)
- 현 임원 : 신학연(로즈마리), 부단장 장안희(이레네), 서기 노금자(마리아), 회계 조영희(테레사)

12) 성실하신 모후 Pr. (1986년 1월 24일 설립, 2월 16일 승인)

- 모체 : 지혜로우신 정녀 Pr.
- 역대 단장 : 초대 조용숙(프란체스카), 2대 김정숙(마리아)
- 현 임원 : 3대 단장 경인숙(미카엘라), 부단장 김애자(수산나), 서기 양영희(아네스), 회계 허영자(아네스)

13) 영원하신 모후 Pr. (1987년 7월 25일 설립, 8월 9일 승인)

- 모체 : 인자하신 모후 Pr.
- 역대 단장 : 초대 임우식(그레고리오), 2대 정관택(가브리엘), 3대 박성기(요셉), 4대 이형선(스테파노)
- 현 임원 : 5대 단장 한재선(요셉), 부단장 김복중(요셉), 서기 송광남(모이세), 회계 강용호(베드로)

14) 자애로우신 모후 Pr. (1987년 11월 17일 설립, 12월 13일 승인)

- 모체 : 일치의 모후 Pr.
- 역대 단장 : 초대 전경림(테레사)
- 현 임원 : 2대 단장 김상순(루시아), 부단장 이기복(실비아), 서기 정옥실(테레사), 회계 이춘희(수산나)

15) 상지의 좌 Pr. (1988년 7월 12일 설립, 7월 12일 승인)

- 모체 : 구세주의 모친 Pr.
- 역대 단장 : 초대 장인순(마리 스텔라), 2대·3대 성나숙(아폴로니)

아)

- 현 임원 : 4대 단장 김원자(테레사), 부단장 양현숙(까리타스), 서기 박정자(아네스), 회계 김명자(아네스)
- 분단 현황 : 천주의 모친 Pr. (1988. 12. 6)

16) 순교자의 모후 Pr. (1988년 7월 21일 설립, 7월 21일 승인)

- 역대 단장 : 초대 고영자(테레사), 2대 박순옥(마리아)
- 현 임원 : 3대 단장 김숙배(막달레나), 부단장 이현재(안나), 서기 김화금(카타리나), 회계 안충희(울리안나)

17)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 (1989년 5월 18일 설립, 5월 18일 승인)

- 모체 : 천주의 모친 Pr.
- 역대 단장 : 초대 장인순(마리 스텔라), 2대 민영대(수산나)
- 현 임원 : 3대 단장 지재선(엘리사벳), 부단장 장순옥(소피아), 서기 이숙이(마리아), 마영수(요안나)

18) 하늘의 문 Pr. (1990년 2월 25일 설립, 3월 11일 승인)

- 역대 단장 : 초대 임우식(그레고리오), 2대 신명철(요한)
- 현 임원 : 3대 단장 차영길(루가), 부단장 강신오(바오로), 서기 김영식(요한), 회계 권영재(안토니오)

19) 로사리오의 모후 pr. (1991년 9월 3일 설립, 10월 29일 승인)

- 모체 : 능하신 정녀 Pr.
- 역대 단장 : 초대 이강례(마리아)
- 현 임원 : 2대 단장 양종일(베로니카), 부단장 김숙자(세실리아), 서기 황명순(미카엘라), 회계 권춘자(쁘리나)

B. 자비의 모후 Cu. (1991년 6월 14일 설립, 7월 1일 승인)

- 역대 단장 : 초대 염동화(마태오)
- 현 임원 : 2대 단장 한복순(테레사), 부단장 박덕희(에스텔), 서기 황신자(울리안나), 회계 전진현(요안나)

1) 오묘한 매괴 Pr. (1958년 2월 1일 설립, 1960년 12월 9일 재설립, 12월 14일 승인)

· 모체 : 평화의 모후 Pr.

· 역대 단장 : 초대 탁한관(세바스티아노), 2대 장대훈(루가), 3대 주영준(테레사), 4대 장 바오로, 5대 이장형(요아킴), 6대 강홍규(야고보), 7대 오규란(마리안나), 8대·9대 이장형(요아킴), 10대 권 마리아, 11대·12대 홍경엽(토마스), 13대 김원자(테레사), 14대 민우정(도로테아), 15대 최춘자(미카엘라), 16대 염정옥(엘리사벳), 17대 정수자(루피나)

· 현 임원 : 18대 단장 최춘자(미카엘라), 부단장 윤형분(바울라), 서기 전진현(요안나), 회계 박영자(글라라)

· 분단 현황 : 하자 없으신 모친 Pr. (1982.2.20)

2) 의덕의 거울 Pr. (1965년 8월 1일 설립, 8월 8일 승인)

· 역대 단장 : 초대 방용자(율리안나), 2대·3대 오병준(안드레아), 4대 오영환(테레사), 5대 김동환(마르타), 6대·7대 박규희(레지나), 8대 전영숙(헬레나), 9대 강춘자(율리안나), 10대 박연향(요안나), 11대 황설자(레오니아)

· 현 임원 : 12대 단장 한복순(테레사), 부단장 이인순(바울리나), 서기 백민숙(테레사), 회계 이복성(마리안나)

3) 상아보탑 Pr. (1968년 2월 11일 설립, 1979년 5월 8일 재설립, 8월 10일 승인)

· 모체 : 평화의 모후 Pr.

· 역대 단장 : 초대 홍병준(베드로), 2대 이삼종(요셉), 3대 김동우(대건안드레아), 4대 이삼종(요셉), 5대 황충하(바오로), 6대 채수억(라우렌시오), 7대 조현관(요한), 8대 황충하(바오로), 9대 임영배(베드로)

· 현 임원 : 10대 단장 원동순(도로테아), 부단장 강현숙(다니엘라), 서기 이형식(안토니오), 회계 이승숙(크리스티나)

· 분단 현황 : 신비로운 장미 Pr. (1990.1.14)

- 4) 지혜로우신 정녀 Pr. (1981년 10월 11일 설립, 10월 11일 승인)
 · 모체 : 사랑의 모후 Pr.
 · 역대 단장 : 초대 한복순(테레사), 2대 김순아(소화테레사), 3대 정설애(사라)
 · 현 임원 : 4대 단장 임명엽(루시아), 부단장 이경자(루시아), 서기 이현자(안나), 회계 조진숙(사비나)
 · 분단 현황 : 성실하신 모후 Pr. (1986. 1. 24)
- 5) 착한 의견의 모친 Pr. (1982년 2월 5일, 2월 14일 승인)
 · 모체 : 구세주의 모친 Pr.
 · 역대 단장 : 초대 김선옥(발바라), 2대 유순호(프란체스카)
 · 현 임원 : 3대 단장 황신자(율리안나), 부단장 윤석순(테레사), 서기 이영희(실비아), 회계 이윤남(테레사)
- 6) 천상의 모후 Pr. (1982년 12월 12일 설립, 12월 12일 승인)
 · 모체 : 지혜로우신 정녀 Pr.
 · 역대 단장 : 초대 김동원(마르타), 2대 박기지(테레사), 3대 신임철(테레사)
 · 현 임원 : 4대 단장 박기지(테레사), 부단장 강예식(루시아), 서기 홍영자(수산나), 회계 박옥순(마리아)
- 7) 능하신 정녀 Pr. (1984년 1월 28일 설립, 1월 28일 승인)
 · 모체 : 구세주의 모친 Pr.
 · 역대 단장 : 초대 윤형분(바울라), 2대 성낙예(테레사)
 · 현 임원 : 3대 단장 윤복란(스텔라), 부단장 안승기(모니카), 서기 최명선(마리아), 회계 양순분(테레사)
 · 분단 현황 : 증거자의 모후 Pr. (1985. 10. 24), 동정 성모 Pr. (1989. 7. 10), 애덕의 모후 Pr. (1990. 8. 28), 로사리오의 모후 Pr. (1991. 8. 27)
- 8) 겸손하신 모후 pr. (1984년 7월 21일 설립, 1992년 8월 12일

승인)

- 모체 : 하자없으신 모후 Pr.
- 역대 단장 : 초대 임우식(그레고리오), 2대 김춘호(요셉)
- 현 임원 : 3대 단장 서성태(알로이시오), 부단장 홍경훈(아우구스티노), 서기 이봉학(요셉), 회계 송창원(암브로시오)
- 분단 현황 : 인자하신 모후 Pr. (1985. 12. 12)

9) 은총의 샘 Pr. (1985년 3월 28일 설립, 4월 4일 승인)

- 모체 : 은총의 모후 Pr.
- 역대 단장 : 초대 이종실(마리아), 2대 김경자(울리안나), 3대 이순자(안젤라)
- 현 임원 : 4대 단장 이희순(세시리아), 부단장 조태임(수산나), 서기 이순자(안젤라), 회계 백옥선(카타리나)

10) 증거자의 모후 Pr. (1985년 10월 24일 설립, 11월 10일 승인)

- 모체 : 능하신 정녀 Pr.
- 역대 단장 : 초대 김정임(아가다), 2대 박애순(제노베파), 3대 손매순(안나)
- 현 임원 : 4대 단장 문영자(헬레나), 부단장 엄복금(아네스), 서기 남숙이(젼마), 회계 김경애(테레사)

11) 인자하신 모후 Pr. (1985년 12월 5일 설립, 12월 8일 승인)

- 모체 : 겸손하신 모후 Pr.
- 역대 단장 : 초대 원종우(바오로), 2대 이승규(루가)
- 현 임원 : 3대 단장 염동화(마태오), 부단장 이정필(스테파노), 서기 박찬수(스테파노), 회계 이용식(베드로)

12) 셋별 Pr. (1987년 11월 10일 설립, 12월 8일 승인)

- 역대 단장 : 한복순(테레사), 2대 김경숙(스텔라), 3대 정군순(수산나)
- 현 임원 : 4대 단장 안선자(울리안나), 부단장 이정선(벨다), 서기 고순희(바울리나), 회계 양봉례(다니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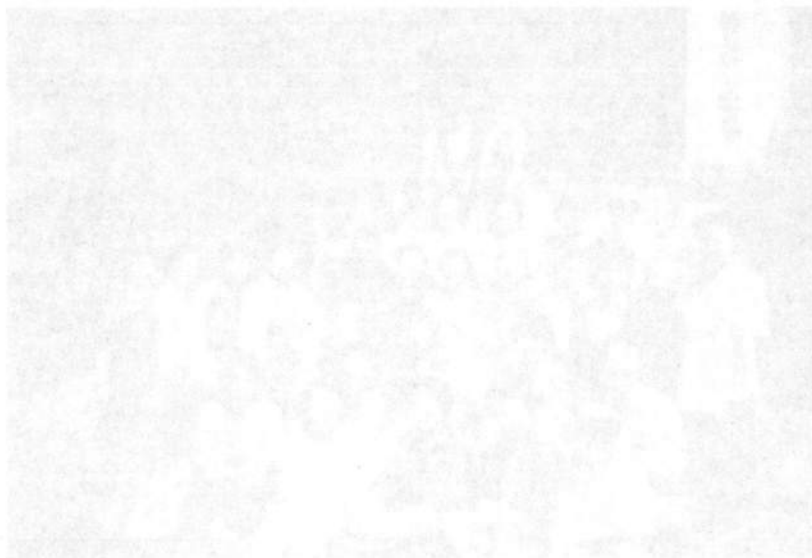
- 13) 바다의 별 Pr. (1988년 7월 10일 설립, 1992년 7월 12일 승인)
 ·역대 단장 : 초대 정신자(젼마), 2대 홍영숙(테레사)
 ·현 임원 : 3대 단장 명순옥(테레사), 부단장 성경순(테레사), 서기 이은숙(레지나), 회계 임용자(모니카)
- 14) 동정 성모 Pr. (1988년 7월 10일 설립, 7월 12일 승인)
 ·역대 단장 : 초대 조은영(글라라), 2대 조성애(울리안나)
 ·현 임원 : 3대 단장 이동희(글라라), 부단장 이정자(도미니카), 서기 안명자(마리아), 회계 채명옥(울리안나)
- 15) 천주의 모친 Pr. (1988년 12월 12일 설립, 12월 12일 승인)
 ·모체 : 상지의 좌 Pr.
 ·역대 단장 : 초대 장인순(마리 스텔라), 2대 이숙자(젼마)
 ·현 임원 : 3대 단장 송춘섭(울리안나), 부단장 이금상(바실리아), 서기 원영희(베로니카), 회계 최인숙(마리아)
 ·분단 현황 :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 (1989.5.18)
- 16) 신비로운 장미 Pr. (1990년 1월 4일 설립, 1월 14일 승인)
 ·모체 : 상아보탑 Pr.
 ·역대 단장 : 초대 조현관(요한), 2대 이삼종(요셉)
 ·현 임원 : 3대 단장 구인수(안드레아), 부단장 백영권(벨라도), 서기 전경용(벨라도), 회계 임영배(베드로)
- 17) 애덕의 모후 Pr. (1990년 8월 24일 설립, 9월 4일 승인)
 ·모체 : 능하신 정녀 Pr.
 ·현 임원 : 초대 단장 박덕희(에스텔), 부단장 정은복(루시아), 서기 홍성애(글라라), 회계 백은자(울리엠타)
- 18) 기쁨의 샘 Pr. (1992년 1월 12일 설립, 1월 14일 승인)
 ·모체 : 사랑의 샘 Pr.
 ·역대 단장 : 초대 정예환(루시아)
 ·현 임원 : 2대 단장 김인환(바오로), 부단장 정명순(아녜스), 서기

기 배은경(까리타스), 회계 김은희(카타리나)

19) 죄인의 의탁 Pr. (1992년 3월 3일 설립, 3월 8일 승인)

· 모체 : 일치의 모후 Pr.

· 현 임원 : 초대 단장 고영자(테레사), 부단장 오순남(엘리사벳),
서기 안성자(마르타), 회계 양점순(스콜라스티카)



소화(데레사)회

1. 설립 연월일 : 1963년 9월 7일

2. 변모 과정과 활동 내용

소화회(일명 소화 데레사회)는 50대 주부 신자들의 사도직 단체로, 정기적인 회합과 본당을 위한 봉사 활동, 성지 순례, 피정, 전교 활동 등을 통해 신심을 함양함과 동시에 회원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당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봉사함으로써 공동체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가장 오래된 단체 가운데 하나이다.

본당 소화회의 모체는 1959년 가을, 본당의 가정 주부들로 구성된 "흰나리 클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단체는 발족과 동시에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다음해부터는 강습 및 강연회, 교양 강좌 등을 통해

소화회 성지 순례(나바위 성당, 1994.9.7)



회원들 간의 친교를 돈독히 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리고 본당 행사에서 그 뒷바라지를 하는 데도 열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 단체의 활동이 다음해부터 부진하게 되자 회원들은 1961년 5월 11일 임시 총회를 열고 임원을 개선함과 동시에 재발족을 보게 되었고, 1963년 9월 7일에는 조직을 일신하고 그 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데레사회”(회장:김순아 소화 데레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데레사회는 1966년에 다시 흰나리 클럽과 데레사회로 분리되었다가 1970년에 “십자 부녀단”이란 이름 아래 통합되었고, 1971년 12월 9일에는 다시 “소화 부녀회”(회장:손매순 안나)로 개칭되었다. 이때 기존의 흰나리 클럽과 데레사회 회원을 지낸 신자들도 대부분 이 부녀회 회원이 되었다. 이후 소화 부녀회에서는 회원들의 친교 활동과 고아원 양로원 방문 등을 통한 불우 이웃 돕기 운동, 젓갈 및 매주 등 생필품 판매를 통한 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1982년 6월 11일에는 ‘대화의 방’에 탁자 10개와 의자 50개를 구입하여 기증하기도 하였다.

그 후 소화 부녀회에서는 1983년 12월 7일, 본당의 제대 장식을 담당해 온 “장미회” 회원들과 협의하여 본당 봉사 활동을 일원화하자는 목적 아래 통합을 결정하고, 그 명칭을 “소화 데레사”(회장:장인순 마리 스텔라)로 정하였다. 소화회가 현재와 같은 명칭과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바로 이 통합이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이때부터 본당의 다른 여성 단체, 즉 노년층 신자들의 모임인 성모회나 젊은층 신자들의 모임인 복자회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피정을 갖거나 합동 성지 순례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 성당 건립시에는 성전 건립 기금 봉헌 운동에 앞장섰으며, 1987년 8월에는 새 성당 휴게실에 탁자 25개와 의자 100개를 기증하였고, ‘혹석 2동 데레사 친목회’에서는 오랫동안 계를 하여 1986년 1월에는 그 기금으로 제대·십자고상·강론대·예절 의자 등을 구입 기증하였다. 또 소화회에서는 1990년 3월부터 본당의 불우 학생을 위한 장학금 마련 운동에도 동참하였다.

3. 연혁 및 주요 활동

- 1959. 가을 “흰나리 클럽” 발족
- 1960. 강습 및 강연회, 교양 강좌 등을 개최
- 1963. 9. 7 흰나리 클럽을 “데레사회”로 개칭

- 1966. 테레사회를 “흰나리 클럽”과 “테레사회”로 분리
- 1970. 흰나리 클럽과 테레사회를 “십자 부녀단”으로 통합
- 1971. 12. 9 십자 부녀단을 “소화 부녀회”로 개칭
- 1971. 이후 정기적으로 회합, 불우 이웃 돕기 운동, 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
- 1982. 6. 11 ‘대화의 방’에 테이블 10개와 의자 50개를 기증
- 1983. 이후 새 성전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생필품 판매 시작
- 1983. 12. 7 “장미회”와 통합하여 “소화 테레사회”로 개칭
- 1986. 1. 흑석 2동 테레사 친목회, 성당에 재대·십자고상·강론대·예절 의자 등을 구입하여 기증
- 1987. 8. 성당 휴게실에 탁자 10개와 의자 100개 기증
- 1990. 3. 불우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고등학생 1명)

4.역대 임원 현황

- 초대(1963. 9. 7~1971. 12. 8) : 회장 김순아(소화 테레사), 부회장 김 알비나, 총무 주 테레사, 회계 박 율리안나, 사업부 장 아나 타시아, 김연화(베네딕다), 전교부 유 엘리사벳, 박 엘리사벳
- 2 대(1971. 12. 9~1972) 회장 : 손매순(안나)
- 3 대(1973년) 회장 : 김연화(베네딕다)
- 4 대(1974년) 회장 : 김 모니카
- 5 대(1975년) 회장 : 한복순(테레사)
- 6 대(1976년) 회장 : 한칠수(젼마)
- 7 대(1977년) 회장 : 장인순(마리 스텔라)
- 8 대(1978년) 회장 : 박애순(제노베파)
- 9 대(1979년) 회장 : 조은영(글라라)
- 10대(1980년) 회장 : 정경숙(비비안나),
- 11대(1981년) 회장 : 장인순(마리 스텔라)
- 12대(1982년) 회장 : 손매순(안나)
- * 제3대부터는 모든 임원의 임기가 단임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나, 자료의 미비로 회장 외에 다른 임원 현황은 1983년까지 자세히 알 수 없음
- 13대(1983. 11~1985. 10) : 회장 장인순(마리 스텔라), 부회장 손

매순(안나)

- 14대 (1985. 11~1986. 10) : 회장 김연옥(아가다), 부회장 한칠수(젼마)
- 15대 (1986. 11~1987. 10) : 회장 조용숙(프란체스카)
- 16대 (1987. 11~1988. 10) : 회장 김정숙(울리안나), 부회장 윤복란(스텔라), 총무 박덕희(에스텔), 총무 조상금(글라라), 서기 한칠수(젼마)
- 17대 (1988. 11~1989. 10) : 회장 한칠수(젼마), 부회장 서금석(릿다), 총무 조성애(울리안나), 서기 김인자(헬레나), 회계 황설자(레오니아)
- 18대 (1989. 11~1990. 10) : 회장 서금석(릿다), 부회장 함금순(울리아), 총무 김화용(파스카), 서기 안선자(울리안나), 회계 이동희(글라라)
- 19대 (1990. 11~1991. 10) : 회장 황설자(레오니아), 부회장 조성애(울리안나), 총무 정수자(루피나), 서기 정군순(수산나), 회계 최민자(마리아)
- 20대 (1991. 11~1992. 10) : 회장 안선자(울리안나), 부회장 서금석(릿다), 총무 권홍집(테레사), 서기 홍현숙(엘리사벳), 회계 한문숙(로사리아)
- 21대 (1992. 11~1993. 10) : 회장 조성애(울리안나), 부회장 신학연(로즈마리), 총무 이동희(글라라), 서기 한칠수(젼마), 회계 최민자(마리아)
- 22대 (1993. 11~현재) : 회장 김원자(테레사), 부회장 한혜택(마리아), 총무 김상례(테레사), 서기 한칠수(젼마), 회계 정군순(수산나)

스 카 우 트

1. 설립 연월일 : 1968년 11월

2. 설립 목적 및 활동 방향

본당 스카우트는 제4대 김옥균(바오로) 신부 재임기인 1968년 11월에 본당의 소년(유년대)·소녀(유녀대)들이 신앙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며, 스카우트 정신에 따라 회원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발대식을 갖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본당에서는 어린이들의 활동을 후원하고 지도해 줄 스카우트 대의원들을 선임하였는데, 그 초대 대의원장으로는 신태민(토마스: 김옥균 신부 재임기)가, 2대 대의원장으로는 한준석(토마스: 박병윤 신부 재임기)이, 3대 대의원장으로는 방달호(요셉: 나상조 신부 재임기)가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이후 본당의 소년·소녀 스카우트는 25년 이상을 유지해 오면서 하계 스카우트 선서식(지하 성당, 1994.7)





스카우트 한마음 잔치 모습

및 동계 캠프, 지도자 훈련 및 연수, 정기 총회 및 선서식을 통해 본래의 목적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리고 연령 상승에 따르는 단원들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여러 차례 조직 우수대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3. 연혁 및 주요 활동

- 1968. 11. 명수대 본당 “소년·소녀 스카우트” 발대식
- 1969. 명수대 본당 “유년대 스카우트” 발대식
- 1978. 보이 스카우트 서울 연맹장으로부터 표창 수상
- 1979. 5. 5 보이 스카우트 서울 연맹으로부터 조직 우수대 표창 수상
- 1983. 보이 스카우트 서울 연맹으로부터 조직 우수대 표창 수상
- 1989. 7. 여름 캠프 개최(의정부 수련장)
- 12. 동계 캠프 개최(용인 수련장)
- 1990. 3. 유년·유녀대 단보장 훈련

- 5. 여름 캠프 개최(경기도 장안 유원지)
- 1991. 1. 동계 캠프 개최(천마산 수련장)
- 3. 보이 스카우트 서울 연맹으로부터 조직 우수대 표창 수상
- 7. 주일학교와 여름 캠프 개최
- 1992. 2. 동계 캠프 및 졸업식(청평 유원지)
- 7. 주일학교와 여름 캠프 개최
- 1993. 9. 가톨릭 스카우트 발대 30주년 행사 참여
- 10. 제20차 지도자 연수(대장 및 임원)
- 1994. 3. 보이 스카우트 서울 연맹으로부터 장기 계속대 표창 수상
- 7. 제27회 선서식 및 제28회 하계 잼버리 참가

4. 역대 임원 현황

- 1968년 : 초대 대장 이기현
- 1989~1990년 : 이은미, 유봉환, 최병재, 최은미, 강성호
- 1991년 : 최은미, 유봉환, 강성호
- 1992년 : 최은미, 이현애, 강성호
- 1993년 : 이현애, 강성호
- 1994년 : 여은미, 강성호, 배정진

울뜨레아(Ultreya)

1. 설립 연월일 : 1973년 1월

2. 설립 목적 및 주요 활동

울뜨레아는 꾸르실료를 수료한 형제·자매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신앙 부흥 단체를 말한다. 꾸르실료 운동은 1949년 에스파냐(스페인)에서 처음 시작되어 각국으로 전파되었고, 이를 통해 교회와 이웃을 위한 이상·순종·사랑을 실천하면서 신·망·애(信望愛) 3덕을 생활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꾸르실료 운동은 1967년 5월, 주한 미국 평화봉사단의 케빈 오도넬과 필리핀의 카이모 형제를 비롯한 12명의 임원 지도 아래 성수동 본당에서 처음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에 도입되었다.

본당 신자들이 이 꾸르실료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은 김옥균(바오로) 신부 재임기인 1970년 8월 13일에서 16일까지 있는 서울 제11차 남성 꾸르실료 교육에 박규원(토마스)과 조중환(요한)이 참가한 때부터였다. 이어 박병운(토마스) 신부 때인 1973년 1월 25일에서 28일까지 있는 서울 제4차 여성 꾸르실료 교육을 장인순(마리 스텔라)과 이옥녀(아네스)가 수료함으로써 본당에는 남·녀 꾸르실리스타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명수대 본당 울뜨레아”가 구성되었다. 이렇게 볼 때 명수대 본당의 울뜨레아는 다른 본당에 비해 일찍 조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창기의 울뜨레아는 꾸르실리스타가 적었던 탓에 그 활동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은 본당 신자들이 꾸르실료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고, 다른 본당에서 전입해 온 꾸르실리스타도 증가함으로써 그 모임이 점차 정례화되어 갔다. 그 결과 본당의 울뜨레아는 신자들의 신심 단체로서 매월 정기적인 회합을 갖고, 회원들의 친교 도모는 물론 회원 상호간의 신앙적 경험을 나눔으로써 신심을 함양해 오게 되었다. 1993년 말 본당 내의 회원수는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 신자들을 제외하고는 남성 꾸르실리스타 30명, 여성 꾸르실리스타 29명 등 모두 59명에 이르고 있다.

3. 역대 간사 현황

- 초대 (1973~1979) : 박규원 (토마스)
- 2 대 (1980~1982) : 이상룡 (토마스)
- 3 대 (1983) : 진중하 (요한)
- 4 대 (1984~1989) : 한칠수 (젬마)
- 5 대 (1990~1992) : 경인숙 (미카엘라)
- 6 대 (1993~현재) : 이재복 (바오로)

복 자 회

1. 설립 연월일 : 1977년 2월 2일

2. 변모 과정과 활동 내용

복자회(초기의 이름은 '복자 부녀회')는 나상조(아우구스티노) 신부 재임기인 1977년 2월 2일, 새로 영세한 젊은 부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후 복자회에서는 피정을 통한 신심 함양 및 회원들 사이의 친교 활동, 불우 이웃 돕기, 본당의 다른 단체들과의 유대 모색과 봉사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므로써 젊은 부인들의 단체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복자회에서는 1983년 이후 새 성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건립 기금 모금 운동에 동참하였고, 정기적으로 혼배 미사에 봉사(성가 및 폐백)하는 한편 본당의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 수녀들의 부임·이임·축일 행사에 동참해 왔다. 그리고 1981년의 조선 교구 설정 복자회 가장 행렬 기념(체육대회, 1989)



150주년, 1984년의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1989년의 서울 세계 성체 대회와 한마음 한몸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 밖에도 근래에 들어서는 회원 상호간의 방문 기도, 이웃 전교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 하면서 주일 미사 후의 차 봉사, 주일학교 피정 및 교사회 활동에도 봉사해 오고 있다.

3. 연혁 및 주요 활동

- 1977. 2. 2 “복자회” 창립
- 1978년 이후 주일학교 여름 캠프 및 본당 신부·수녀 축일에 봉사, 전교 활동, 정기 피정 개최
- 1982. 7. 8 소화회와 합동 피정(까리타스 수녀회 교육관)
- 1984. 4. 7 새 성전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음식 바자회에 봉사
- 1985. 5. 17~18 새 성전 건립 기금을 위한 바자회에 봉사
- 1985년 이후 야외 행사 및 주일학교 봉사 찬조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 1986. 3. 5 소화회와 합동 피정(우이동 명상의 집)
- 1986년 이후 혼배 미사에 성가 및 폐백 봉사 시작
- 1990. 3. 주일학교 장학금 마련 운동에 동참(중학생 1명)
- 1991. 7. 장학금 지급(중학생 1명, 16만원)
- 1993. 11. 무공해 비누 판매 시작
- 1994. 성서 공부 시작(매주 수요일, 창세기)

4. 역대 임원 현황

- 초대(1977.2.2~1979.2) : 회장 김연화(베네딕다), 부회장 김계환(마릿다), 서기 박종숙(테레사), 신학연(로즈마리), 총무 박영자(젼마)
- 2 대(1979.2~1980.2) 회장 : 신학연(로즈마리)
- 3 대 회장 : 신 마리아
- 4 대·5대 회장 : 최 마리아
- 6 대 회장 : 정신자(젼마)
- 7 대·8대 회장 : 김연화(베네딕다)
- 9 대·10대 회장 : 김명제(헬레나)

- 11대 회장 : 조희순(비비안나)
 - * 제2대 회장단 이후 1987년까지의 임원단은 자료의 미비로 자세히 알 수 없음
- 12대 (1987.9~1988.9) : 회장 김명제(헬레나), 부회장 김성자(루시아), 총무 김정임(아가다), 백선임(아네스)
- 13대 (1988.9~1989.9) : 회장 김명제(헬레나), 부회장 김성자(루시아), 총무 김숙배(막달레나)
- 14대 (1989.9~1990.9) : 회장 김길영(마르타), 부회장 김정순(히야친타), 총무 박경자(울리안나)
- 15대 (1990.9~1991.9) : 회장 김정순(히야친타), 부회장 박경자(울리안나), 총무 김삼남(베로니카), 서기 최미희(카타리나)
- 16대 (1991.9~1992.9) : 회장 박경자(울리안나), 부회장 김삼남(베로니카), 총무 신인순(루시아), 회계 김은경(헬레나), 서기 최중인(안젤라)
- 17대 (1992.9~1993.9) : 회장 김영숙(글로틸다), 부회장 이화순(엘리사벳), 총무 신인순(루시아), 회계 이미숙(안나), 서기 박은숙(울리안나)
- 18대 (1993.9~1994.9) : 회장 이화순(엘리사벳), 부회장 신인순(루시아), 총무 김혜숙(안젤라), 서기 정경숙(유스티나), 회계 유부덕(세레나)
- 19대 (1994.9~현재) : 회장 이남희(에메리아), 부회장 정미숙(헬레나), 총무 허은희(엘리사벳), 서기 박경옥(테레사), 회계 정경숙(유스티나)

도미네(Domine) 청년 성가대

1. 설립 연월일 : 1978년 4월 23일

2. 변모 과정과 활동 내용

본당의 청년 성가대가 처음 발족된 것은 제5대 박병윤(토마스) 신부 재임기인 1972년 12월이었다. 그러나 이 성가대는 그 활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1975년 2월 16일 청년회가 발족되면서 해체되었다. 그러다가 나상조(아우구스티노) 신부 재임기인 1978년 4월 23일, “청년 성가대” (단장:안민선 요한)가 다시 발족을 보게 됨으로써 청년들이 본당의 전례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의 성가대는 바로 여기에 기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 성가대는 창립 첫 해인 11월 19일에 청년회 월보 <도미네> 창간

청년 성가대 연습 광경(한마음 성가대와 함께)



호 발간을 담당하면서 그 명칭을 “도미네(Domine) 청년 성가대”로 개칭하고, 12월 23일에는 첫 성가 발표회를 가졌다. 그리고 이후 수련회·야유회·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갖는 동시에 1979년 9월에 제1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 이후 이를 정례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0년에는 성가책 및 교회 서적 공소 보내기 마자회를 개최하고, 불우 이웃 돕기 운동이나 피정 활동도 하였다. 이들 청년 성가대의 활동 중에서 <도미네>지 발간은 그 후 청년회의 폐지와 함께 중단되었지만, 그 밖의 활동은 꾸준히 계속되었다.

한편 청년 성가대에서는 그 활동의 폭을 넓혀 1980년 12월부터 1985년까지는 강남성모병원의 성탄 미사에서 매년 성가 봉사를 하였고, 1982년 9월 4일과 5일에는 ‘성전 신축 기금 모금을 위한 성가 연주회’도 개최하였다. 또 1984년 7월에는 공군사관학교 생도 영세식 미사에서 성가 봉사를 하였고, 1991년 이후에는 본당의 대축일 미사 및 영세식에서 성가 봉사를 해 오고 있다.

3. 연혁 및 주요 활동

- 1972. 12. 청년 성가대 발족(1975년 해체)
- 1978. 4. 23 청년 성가대 재발족
- 14. 23 청년회 회지 <도미네> 발간 담당과 동시에 “도미네 청년 성가대”로 개칭
- 1978. 12. 첫 성가 발표회 개최
- 1979. 9. 제1회 정기 연주회 개최(1990년 제11회 정기 연주회까지 계속)
- 1980. 12. 강남성모병원 성탄 미사에 성가 봉사(1985년까지 계속)
- 1981. 4. 강남성모병원 부활 대축일 미사에 성가 봉사
- 10. 18 천주교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
- 1982. 4. 본당 견진성사에서 성가 봉사
- 9. 4~5 성전 신축 기금 모금을 위한 제4회 정기 연주회
- 1984. 7. 공군사관학교 생도 영세식 미사에서 성가 봉사
- 1985. 11. 본당 견진성사에서 성가 봉사
- 1986. 6. 1 새 성전 축성식에서 성가 봉사

- 1988. 10. 성가대 창단 10주년 기념 제9회 정기 연주회
- 1991년 이후 본당의 대축일 및 영세식 행사에서 성가 봉사

4. 역대 임원 현황

- 초대(1978. 4. 23~1979) : 단장 안민선(요한), 지휘 이영기(바르나바), 반주 신미애(마리안나)
- 2 대(1979년) : 단장 윤성호(프란치스코), 부단장 이종인(베드로), 지휘 이영기(바르나바), 반주 신미애(마리안나)
- 3 대(1980년) : 단장 강해원(요한), 지휘 이영기(바르나바), 반주 신미애(마리안나)
- 4 대(1981년) : 단장 신동호(알렉산델), 부단장 최승녕(카타리나), 총무 김태문(미카엘), 지휘 이영기(바르나바), 반주 신미애(마리안나)
- 5 대(1982. 1. 10~1983. 4) : 단장 이기만(베드로), 부단장 지춘주(베로니카), 지휘 이영기(바르나바), 반주 신미애(마리안나)
 - * 1982년 4월 이후 : 단장 이상범(루도비코)으로 변경 선임
 - * 1982년 10월 10일 이후 : 단장 신영규(도미니코), 지휘 정진웅(돈보스코)으로 변경 선임
- 6 대(1983. 4. 3~1984. 1) : 단장 황혜영(웬체슬라워), 부단장 서혜경(마리아), 지휘 정진웅(돈보스코), 반주 조숙현(우슬라)
- 7 대(1984. 1~1985. 1) : 단장 김상돈(베드로), 지휘 정진웅(돈보스코), 반주 조숙현(우슬라)
 - * 1984년 8월 이후 : 단장 이기혁(다미아노), 부단장 이해영(그라시아), 지휘 이영기(바르나바)로 변경 선임
- 8 대(1985) : 단장 김정일(아우구스티노), 지휘 정진웅(돈보스코), 반주 조숙현(우슬라)
 - * 1985년 8월 15일 이후 : 단장 서상철(요셉)로 변경 선임
- 9 대(1986. 1~1987. 1) : 단장 김지남(대건 안드레아), 부단장 남연옥(카타리나), 지휘 이영기(바르나바), 반주 임도희(엘리사벳)
- 10대(1987. 1. 11~1988. 1. 16) : 단장 이상학(알렉산더), 부단장 홍재현(베로니카), 총무 서민수(마오로), 지휘 이영기(바르나바), 반주 임도희(엘리사벳)

- 11대(1981.1.17~1989.1) : 단장 박지성(델레신포로), 부단장 차현실(요셉피나), 총무 문병윤(요셉), 나미숙(아나타시아), 지휘 이영기(바르나바), 반주 임도희(엘리사벳)
- 12대(1989.1~1990.1.20) : 단장 이재호(프란치스코), 부단장 안묘영(테레사), 총무 김한성(베르나르도), 전강현(마리안나), 지휘 이영기(바르나바), 반주 임도희(엘리사벳)
- 13대(1990.1.21 1991.1) : 단장 강학수(마태오), 부단장 김은선(테레사), 총무 조상현(요셉), 최승원(아나타시아), 회계 강규숙(아네스), 지휘 이기혁(다미아노), 반주 임도희(엘리사벳)
- 14대(1991.1~1991.11.3) : 단장 김재돈(프란치스코), 부단장 나미숙(아나타시아), 총무 구병수(토마스모어), 김은진(로사리아), 회계 김연자(베로니카), 지휘 이기혁(다미아노), 반주 박영임(세라피나)
- 15대(1991.11.3~1992.11.1) : 단장 권한옥(안드레아), 부단장 황혜정(안나), 총무 이정우(크리스티나), 권준현(대건 안드레아), 회계 이은주(파비올라)
- 16대(1992.11.1~1993.11.7) : 단장 문병윤(요셉), 부단장 강규숙(아네스), 총무 돈재철(미카엘), 한경애(스뻘란테아), 회계 김정임(도미니카), 지휘 박지성(델레신포로), 반주 양진숙(세실리아)
- 17대(1993.11.7~현재) : 단장 왕명숙(첼리나), 부단장 돈재철(미카엘), 총무 윤성호(가우덴시오), 김정임(도미니카), 회계 한경애(스뻘란테아), 지휘 정승관(라파엘), 반주 김지은(안나)

대 건 회

1. 설립 연월일 : 1979년 6월 17일

2. 설립 목적 및 활동 방향

본 대건회는 본당의 제6대 주임으로 재임하던 나상조(아우구스티노) 신부가 1979년에 이르러 본당 내 단체들 가운데 장년 남성 신자들의 모임이 없는 것을 보고, 이를 조직해 보도록 권유한 데 힘입어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의 명칭은 “대포회(大佈會)”로, 이 이름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다가 1993년 11월 7일의 정기 총회에서 제9대 본당 주임 최익철(베네딕도) 신부의 의견에 따라 한국인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金大建, 안드레아) 성인의 신앙과 순교 정신을 본받는다라는 의미에서 “대건회”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본당 성지 순례 인솔 봉사를 담당했던 대건회 회원들(배론, 1993.10)



처음 회원들은 설립 목적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서 말씀대로 활력과 생동력 있는 신앙 생활을 목표로 하면서 본당의 각종 활동에 동참함과 동시에 필요시에는 다른 단체를 돕는다는 데 두었다. 그리고 1988년 7월 3일 제정된 회칙에서는 이에 따르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이름만의 모임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모임으로 신심을 높이는 데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하고, 회원 사이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둘째, 애경사에서는 회원이 다같이 공감하고 희비애락을 함께 나눈다. 셋째, 본당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해 신심을 더욱 복돋운다.

그 동안 본 단체는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다. 또 처음에는 30대 남성 교우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곧 그 폭을 넓혀 본당의 대표적인 중년 남성 단체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설립 목적에 따라 본당의 평신도 사도직 단체에 걸맞는 활동 방향을 정해 이를 실천해 오고 있는데, 현재 본 단체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첫째, 형제들 사이의 신앙을 바탕으로 서로의 신앙심을 복돋운다.
- 둘째, 신앙 생활을 등한시하는 형제 가정을 방문하여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한다.
- 셋째, 상가집을 방문하여 연도와 함께 전교 활동을 한다.
- 넷째, 성당 내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봉사 활동을 통해 적극 협조한다.
- 다섯째, 일년에 피정 및 성지 순례를 적어도 한번씩 다녀오으로써 신앙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3. 연혁 및 주요 활동

- 1979. 6. 17 “대포회” 창립 총회
 - 7. 회원들의 기금으로 성당 안에 선풍기 설치
- 1980. 1. 본당 명의로 ‘교우 현황’ 조사
- 1981. 10. 12 기금 모금으로 성당에 앰프·마이크·스피커 등을 설치
 - 10. 18 ‘조선 교구 설정 150주년 신앙 대회’에 협조·참석

- 1983. 5. 4 복자 김대건 신부 유해 봉송 및 순회 기도회에 협조·참석
- 1984~1985. 성당 신축 건립 및 기금 모금 운동에 협조
- 1984. 5. 6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기념 신앙 대회'에 협조·참석
- 1986. 11. 15~16 연례 피정 개최(신정동 살레시오 회관)
9. 26~27 본당 장년 피정에 협조·참석(우이동 명상의 집)
- 1987. 10. 22~23 연례 피정 개최(합정동 마리스타 수도회)
- 1988. 3. 주일학교 중학생 장학금 후원 시작
6. 12 본당 야외 미사(의정부 수련장)에 협조·참석
- 1989. 10. 8 제44차 세계 성체대회 여의도 장엄 미사에 협조·참석
- 1990. 11. 4 성지 순례 실시(전주 천호 성지)
6. 3 '본당 체육 대회' 주관(중대부고 운동장)
- 1991. 10. 27 성지 순례 실시(천진암)
- 1992. 5. 16~17 연례 피정 개최(미리내)
10. 11 성지 순례 실시(천진암)
- 1993. 2. 7 회원 친목을 위한 처사 대회 개최
5. 1 연례 피정 실시(곤지암)
10. 10 배론 성지 순례 및 봉사
10. 24 성지 순례 실시(풍수원)
11. 7 정기 총회에서 "대건회"로 명칭 변경
12. 25 정기 대건회의 밤 행사에서 100만원 모금
- 1994. 1. 모금액으로 풍물 악기를 마련하여 본당에 기증
4. 16~17 연례 피정 개최(여주 파티마 성모회)

4. 역대 임원 현황

- 초대(1979.6.17~1980.5.19) : 회장 이정무(그레고리오), 부회장 김광언(스테파노), 총무 구자혁(요한)
- 2 대(1980.5.19~1981.6.21) : 회장 박종길(필립보), 부회장 주창원(라파엘), 총무 구자혁(요한) * 6개월 후 회장이 본당 총무로 선임되면서 부회장이 회장 대행을 맡았고, 총무는 5개월

후 강연수(요셉)로 변경됨

- 3 대(1981. 6. 21~1982. 6) : 회장 권혁두(야고보), 부회장 김문호(암브로시오), 총무 강연수(요셉)
- 4 대(1982. 7~1983. 6) : 회장 김관태(베드로), 부회장 유진(미카엘), 총무 박의부(모이세)
- 5 대(1983. 6~1984. 6) : 회장 유진(미카엘), 부회장 나병곤(후벨토), 총무 한상희(시몬) * 총무는 5개월 후 윤준혁(요셉)으로 변경됨
- 6 대(1984. 6~1985. 6. 16) : 회장 유종남(요셉), 부회장 김문호(암브로시오), 총무 김형순(안드레아)
- 7 대(1985. 6. 16~1986. 6. 20) : 회장 유종남(요셉), 부회장 이진영(요셉), 총무 고평태(요셉)
- 8 대(1986. 6. 20~1987. 6. 21) : 회장 유종남(요셉), 부회장 소재영, 총무 이형선(스테파노)
- 9 대(1987. 6. 21~1988. 6. 19) : 회장 유종남(요셉), 부회장 하중수(아우구스티노), 총무 이형선(스테파노), 회계 이재복(바오로), 서기 홍석오(바오로)
- 10대(1988. 6. 19~1989. 6) : 회장 유종남(요셉), 부회장 서성태(알로이시오), 총무 이형선(스테파노)
- 11대(1989. 6~1990. 6. 17) : 회장 유종남(요셉), 부회장 서성태(알로이시오), 총무 이재복(바오로)
- 12대(1990. 6. 17~1991. 6) : 회장 서성태(알로이시오), 부회장 윤준혁(요셉), 총무 이재복(바오로)
- 13대(1991. 6~1992. 11. 5) : 회장 서성태(알로이시오), 부회장 윤준혁(요셉), 총무 정두기(안드레아), 서기 홍석오(바오로), 재무 김석주(바오로), 감사 이명노(토마스)
- 14대(1992. 11. 5~1993. 11.) : 회장 고평태(요셉), 부회장 이형선(스테파노), 이명노(토마스), 총무 홍석오(바오로), 재무 김석주(바오로), 감사 김용식(베네딕도)
- 15대(1993. 11. ~현재) : 회장 고평태(요셉), 부회장 이형선(스테파노), 총무 이몽주(바오로), 서기 김우근(뽀리까르뽀), 재무 김동현(요한), 감사 이명노(토마스)

성령 기도회

1. 설립 연월일 : 1980년 10월 13일

2. 설립 목적 및 변모 과정

본 단체는 성령 세미나와 기도회를 통해 신자들이 찬미와 감사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 쇄신 운동을 통해 더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당 신자들 가운데 처음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옥녀(아네스), 한복순(데레사), 김연화(베네딕타) 등으로, 이들이 1974년에 종로 공안과에서 백 제랄드 신부의 지도로 8주 성령 세미나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여러 형제·자매들이 성령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후 이들은 해화동 성당의 교육관에서 개최된 기도회에도 참석하였다.

그러던 중 1977년 9월 제6대 본당 주임 나상조(아우구스티노) 신부

제10지구 성령 봉사자 피점(1993.8.28)



의 배려로 명수대 본당에서 성령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0년 9월 21일에는 종로 본당 성령 쇄신 봉사회의 봉사료 명수대 본당 성령 세미나 첫 안수식이 거행되었고, 10월 13일에는 처음으로 명수대 본당 성령 기도회(조규동 가브리엘 총회장과 한복순 데레사 주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구성된 “성령 봉사회”(聖靈奉仕會)의 초대 회장으로는 이용화(아벨)가 선출되었다. 그 후 기도회는 매주마다 계속되었고, 처음 개최된 7주간 세미나에는 모두 250명의 신자가 참석하였다.

성령 봉사회는 이후 교구 직제 편성에 따라 “성령 기도회”(聖靈祈禱會)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본 단체에서 실시해 온 주요 활동으로는 봄·가을 피정, 정기적인 성령 세미나, 매주 기도회, 봉사자 교육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봉사자 교육 내용은 기초 봉사자 영성 세미나, 성장·은사·가르침·기도회 진행 등으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본 단체에서는 불우 이웃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교도소·공소·중국 교회 방문도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1986년 제8대 주임 정광웅(요셉) 신부 재임기에는 이 아벨 회장 등 40여 명이 해오던 성서 공부가 교리의 가르침에 어긋남으로 인해 제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이들 40여 명의 신자들이 ‘마시아 선교회’를 창설하고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에 동참하지 않은 기도회 식구들 5~6명이 기도와 봉사로 재무장하여 다시 회장을 선출하고, 기도회 본연의 활동을 지속하면서 단체를 재건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연혁 및 주요 활동

- 1974. 본당 신자 3명이 처음으로 성령 세미나에 참가함
- 1977. 9. 본당에서 성령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함
- 1980. 9. 21 명수대 본당 성령 세미나 첫 안수식 거행
- 10. 13 명수대 본당 “성령 봉사회” 발족
- 1980년 이후 성령 세미나 개최, 봄·가을 피정 활동, 매주 기도회 및 봉사자 교육 활동, 불우 이웃 돕기 운동을 전개함
- 1985. 6. 21 ‘8주간 성령 세미나’ 개최(매주 금요일)



성령 기도회, 중국 교회 방문(1993)

- 1986. 성서 공부 문제 발생으로 40여 명의 회원 이탈
- 1987년 이후 수요일 성령 기도 모임 시작(1988년 4월부터 목요일로 변경), 8주간 성령 세미나 개최
- 1990. 4. 5 사순절 성령 쇄신 특별 피정(명수대 본당)
- 1993. 4.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에 바오로 공소(탐동 1리 포대 안) 창설
 - 7. 8 선교 활동으로 중국 목단강 공소 방문(9월 8일에 2차 방문)
- 1993년 이후 교도소 방문 시작(연 1회)
- 1994. 1. 낮기도회(월 1회) 시작

4. 역대 임원 현황

- 초대(1980.10~1986.9) : 회장 이영화(아벨), 간사 구자혁(요한, 1981년), 지동호(발도로메오, 1984년)
- 2 대(1987.5~1988.8) : 회장 문정식(요한), 부회장 구자혁(요한), 총무 김형순(안드레아), 이진영(요셉)
- 3 대(1988.8~1990.1) : 회장 문정식(요한), 부회장 구자혁(요)

- 한), 연제선(마리아), 총무 김형순(안드레아)
- 4 대(1990.1~1990.12) : 회장 문정식(요한), 부회장 구자혁(요한), 연제선(마리아), 총무 조희순(비비안나)
 - 5 대(1990.12~1992.12) : 회장 구자혁(요한), 부회장 김형순(안드레아), 김명제(헬레나), 총무 이현숙(루시아)
 - 6 대(1992.12~1993.12) : 회장 연제선(마리아), 부회장 김형순(안드레아), 김길영(마르타), 총무 김정순(히야친타)
 - 7 대(1993.12~현재) : 회장 연제선(마리아), 부회장 김형순(안드레아), 김명제(헬레나), 총무 강용호(베드로)

청년 성서 모임

1. 설립 연월일 : 1984년

2. 설립 과정 및 변모 현황

본당 청년들이 처음으로 성서 공부를 시작한 것은 이중환 신부 부임 이후인 1981년이었다. 이때 청년 레지오에서는 1981년 10월 4일부터 매월 2째, 4째 주일에 '젊음의 광장 시간' (대화의 방)을 마련하여 성서를 연구할 기회를 가졌고, 이 성서 연구 모임이 그 후 교사회로 확대되어 1984년에 첫 창세기 연수생을 배출하였지만, 이후 침체되었다. 그러다가 정광웅 신부 재임기인 1987년 11월 7일 본당의 청년 성서 모임 (지도 : 본당의 김향련 마리후꼬 수녀)이 재개되어 해마다 연수생을 배출하게 되었고, 1991년 초에 봉사자 모임을 재정비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제1회 성서 가족의 밤(1991.11.22)



이후 청년 성서 모임에서는 연수생 및 성서 공부 이수자를 꾸준히 배출하는 한편 중앙대학교 의과대학과 노량진 본당에 봉사자를 파견하였으며, 성서 가족들끼리 꾸준히 친교 모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룹 봉사자 수련회, 성서 가족 야외 행사, 등반대회 등도 개최하였다. 현재 공부중인 성서 가족은 모두 11명으로, 창세기 2팀, 출애굽기 1팀이며, 새로 영세한 청년들로 구성된 창세기 팀이 준비중에 있다.

3. 연혁 및 주요 활동

- 1984. 창세기 첫 연수생 배출(84차 연수)
- 1987. 11. 청년 성서 모임 부활
- 1989. 출애굽기 첫 연수생 배출
- 1990. 마르코 첫 연수생 배출
- 1991. 1. 봉사자 자격 조건 등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
- 11. 제1회 청년 성서 모임 '성서 가족의 밤' 개최
- 1992. 3.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성서 모임에 봉사자 파견
- 6. 청년 성서 가족 등반대회(관악산)
- 1993. 1. 그룹 봉사자 수련회(강화도 화도 소재 기도의 집)
- 7. 성서 가족 중심으로 '청년 기도 모임' 발족
- 9. 성서 가족 성지 순례(천진암)
- 12. 청년회 발족과 동시에 그 교육부에 편입됨
- 1994. 4. 노량진 본당에 봉사자 파견
- 5. 그룹 봉사자 야외 행사
- 8. 요한 첫 연수생 배출

4. 현 봉사자 현황

강귀녀(체칠리아), 김승옥(마리 로사), 박은화(베로니카), 나미숙(아나타시아), 왕명숙(첼리나), 정승섭(레오), 김순희(아나스타샤), 김영숙(요셉피나), 최정원(미카엘), 한윤애(세실리아)

어버이 성서 봉사자 모임

1. 설립 연월일 : 1990년 9월

2. 설립 과정 및 주요 활동

본당의 어머니 신자들이 본당 수녀들의 지도를 받아 처음 성서 연수를 시작한 것은 나상조 신부님 때인 1977년 6월 5일이었다. 즉 1977년 6월에 처음 어머니 성서 그룹이 구성되어 신현숙(베아트리스) 수녀의 지도로 6월 5일과 6일에 처음 창세기 연수를 마쳤으며, 다음해 6월 25일과 26일에는 출애굽기 연수를 마쳤다. 그리고 6월 26일 최초로 “성서 봉사자”(조은영 글라라, 정 비비안나, 한복순 데레사) 선서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어머니 성서 그룹은 1978년 11월 2그룹으로 결성되었다가 이듬해 3그룹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점차 성서 공부가 확대되면서 40주간

성서 연수를 마치고(정릉 수녀원, 1990.6)



성서 세미나, 8주간 성서 공부, 창세기·출애굽기 성서 연구 모임 등이 있게 되었지만, 성서 봉사자들은 계속 배출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정광웅 신부 재임기인 1987년 3월에 다시 40주간 성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구체적인 말씀 공부와 묵상을 함께 하는 그룹 성서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본당에는 성서 봉사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1990년 가을에 장명희(베아따) 수녀가 서둘러 한 팀을 구성하여 그룹 성서 모임을 갖고 공부를 시작한 끝에 1990년 9월 19일, 7명이 정능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본원에서 수료식을 마치고 인천에서 봉사자 메달을 받은 우은순(로사)과 함께 모두 8명이 9월 말부터 봉사자 모임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현 “성서 봉사자 모임”의 직접적인 기원이 되었다.

3. 연혁

- 1990. 9. 말 성서 봉사자 모임 시작(지도 수녀 : 장명희 베아따).
봉사자 : 손매순(안나), 김정림(아가다), 김정순(히야친타), 김종화(테레사), 경인숙(미카엘라), 이영자(레오니아), 한철수(젼마), 우은순(로사)
- 1990. 11. 성서 그룹 10팀(성서 가족 약 70명)
- 1991. 성서 그룹 10팀(성서 가족 약 75명, 지도 수녀 : 김경희 세바스티안)
- 1992. 12. 11 판교 피정의 집에서 있는 지구 봉사자 피정에 참석
성서 그룹 9팀(성서 가족 약 50명)
- 1992. 7. 보라매에서 박정애(모니카) 수여식
- 1992. 9. 성지 순례 개최(미리내 성지)
- 1992. 12. 14 보라매에서 최중인(안젤라), 박경자(울리안나), 한문숙(로사리아) 등 수여식
- 1993. 성서 그룹 8팀(성서 가족 약 55명)
- 1994. 성서 그룹 6팀(성서 가족 약 40명, 지도 수녀 : 강영순 스텔라)

4. 현 봉사자 현황

- 대 표 : 우은순(로사)
- 봉사자 : 한칠수(젼마), 김정림(아가다), 김정순(히야친타), 김종화(테레사), 경인숙(미카엘라), 이영자(레오니아), 박정애(모니카), 박경자(울리안나), 우순오(프란체스카), 한문숙(로사리아), 이미숙(안나)

한마음 성가단

1. 설립 연월일 : 1992년 3월 1일

2. 성가대의 변모와 '한마음 성가단'의 창단

본당의 첫 성가대는 1954년에 발족한 “청소년 연합 성가단”에서 시작되었다. 이 성가단에서는 미사 전례에 참여하는 한편 1955년 5월 초에 합창 미사곡 네 권을 합본하여 발행하였는데, 그 미사곡 중에는 서독의 합창곡에서 직접 번역하여 처음으로 한국 천주교회에 소개된 곡들도 있었다. 이후 성가단 단원은 청소년 주축에서 점차 청년들로 변모하였고, 1960년 그 이름을 “명수대 가톨릭 합창단”으로 개칭함과 동시에 홍 베드로와 신태민(토마스), 김런완(요셉), 김채규(데클라) 등을 주축으로 활동을 계속하였다.

성모상 앞에서의 한마음 성가단



명수대 가톨릭 합창단에서는 다음해인 1961년 4월 16일 정기 총회를 열고 임원을 개편하여 지휘자로 남창종(요셉), 반주자로 조전규(시메온)를 각각 선임하였다. 그리고 5월 7일에는 성가대 후원회(회장:홍숙 마르코)를 결성하고, 1962년에 들어 단원을 증원시켰다. 또 같은 해 7월 15일에는 고등부 합창단을 조직하여 함께 전례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이 합창단은 1963년 11월 17일에 열린 서울교구 고등학생회 주최 성가 경연대회(명동 성당 문화관)에서 2위에 입상하는 저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고등부 성가대는 그 후 이름을 “글로리아 합창단”(일명 글로리아 성가대)으로 개칭하였는데, 이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 단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1994년 초에 해체되었다.

본당의 아버지 성가대라고 할 수 있는 명수대 합창단은 제5대 박병운(토마스) 신부 재임기인 1973년 3월에 재구성되었다. 이때 본당에서는 그 이름을 “새로나 성가대”로 개칭하는 동시에 소회회 회원들과 꾸르실료 교육을 마친 남성 신자들로 남·녀 혼성 성가대를 구성하고, 단장에 이용화(아벨), 부단장에 한칠수(젼마), 지휘자에 김정호(안젤모)를 선임하였다. 한편 본당의 “청년 성가대”는 1972년 12월 창립 모임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가 1975년 2월 16일 “청년회”가 발족되면서 해체되었지만, 1978년 4월 23일 재발족하게 되었다. 이 청년 성가대는 1975년 11월 19일 청년회 월보 <도미네> 창간호 발간을 담당하면서 그 명칭을 “도미네 청년 성가대”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1978년 이후 본당에는 새로나 성가대(아버지 성가대), 도미네 청년 성가대, 고등부 글로리아 성가대 등 세 성가대가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것은 청년 성가대와 고등부 성가대였고, 반면에 새로나 성가대의 활동은 단원들의 이동이 잦은 탓에 성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점점 위축되어 갔다. 그 결과 1990년대에 들어서는 본당의 대축일 미사나 영세식 때에 청년 성가대가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아버지가 성가대를 새로 조직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이에 본당의 제9대 주임 최익철(베네딕도) 신부는 본당 신자들과 협의한 끝에 1992년 3월 1일, 아버지 성가대를 새로 창단하고 그 이름을 “한마음 성가단”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3. 역대 임원 현황

- 초대 (1992.3~1993.3) : 단장 양길웅(시몬), 부단장 김우근(빨리 까르포), 정안순(엘리사벳), 총무 김은경(헬레나), 지휘 이영기(바르나바)
- 2 대(1993.3~1994.3) : 단장 양길웅(시몬), 부단장 이재호(프란치스코), 정안순(엘리사벳), 총무 김은경(헬레나), 지휘 이영기(바르나바)
- 3 대(1994.3~현재) : 단장 양길웅(시몬), 부단장 정신자(젬마), 총무 원용대(프란치스코), 지휘 이영기(바르나바), 반주 임도희(엘리사벳)

위령회

1. 설립 연월일 : 1994년 6월 26일

2. 설립 과정 및 주요 활동

본당의 “연령회”(煙靈會)가 처음 발족된 것은 조인환 신부 재임 시기였다. 그 이전부터 몇몇 교우들이 이미 상가 방문이나 대세 활동, 사망자 안치 등에 힘써 오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연령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1964년 3월 15일 뜻있는 몇몇 신자들을 중심으로 연령회(회장:장지배)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이 연령회는 유명도 신부 재임기에 와서 본당 묘지 매입을 계획하였는데, 유 신부 또한 묘지 조성에는 적극적이었고, 사목회에 이를 정식 안건으로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임원들이 자금 문제, 이권 문제를 들어 반대함으로써 결국 묘지

위령회 임원진(1994.8)



조성은 실패하고 말았다.

박병윤 신부 시절인 1971년 9월 연령회는 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칭을 '위령회' (慰靈會)로 바꾸고 상가 돌보기와 방문 및 연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침체됨으로써 해체되고 말았다.

그 후 본당에 다시 연령회가 조직된 것은 나상조 신부 재임기인 1981년 3월 31일이었다. 이때 그 명칭은 "위령 봉사회" (慰靈奉仕會)였으며, 회장에 김용태(아우구스티노), 부회장에 박동수(바오로), 안영중(베드로), 오 루시아, 이 말가리다, 총무에 구자혁(요한) 등을 선출하고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위령 봉사회에서는 이때부터 월례회를 개최하면서 회원 증가에 노력하여 5월 말까지 250명을 확보하고, 연도 및 상가 돕기 활동을 통해 그 입지를 다져나갔다. 그러나 점차 그 활동이 위축되면서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이종환 신부 재임기에 와서 회비 잔금을 성전 건립 기금으로 봉헌한 뒤 해체되고 말았다.

본당 위령회가 다시 설립된 것은 1994년 6월 26일이었다. 이에 앞서 본당에서는 최익철 신부의 결단으로 사목 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위령회 재발족을 결정하고, 우선 사목 협의회 주관으로 6월 12일부터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6월 26일까지 모두 372명을 모집한 다음, 그 중 2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령회 발기인 총회를 갖고 방달호(요셉)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본당 위령회는 나 신부 때인 1981년 3월에 위령 봉사회가 설립되어 활동하다가 중단된 지 약 10년 만에 다시 부활되었다.

그 후 위령회 회원들은 7월 1일 위령회 회칙을 정하여 공포하고, 8월 23일에 임원진 및 구장단을 구성하여 최 신부의 결재를 받은 뒤 이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8월 29에는 처음으로 상가를 돌봄과 동시에 회원들의 연도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9월 12일에는 위령회 활동에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을 완비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차비를 갖추게 되었다.

3. 임원진 및 구장단 현황

- 회 장 : 방달호(요셉)
- 부회장 : 이무영(시몬), 김영식(요한)
- 회 계 : 이명노(토마스)

- 구 장 : 흑석 1동 1구장 박기지(테레사), 1동 2구장 장인순(마리스텔라), 1동 3구장 한복순(테레사), 흑석 2동 1구장 권혁남(엘리사벳), 2동 2구장 김숙배(마멜다), 2동 3구장 정안순(엘리사벳), 2동 4구장 이숙자(젼마), 흑석 3동 1구장 오호순(수산나), 3동 2구장 윤현자(에피제니아), 3동 3구장 정신자(젼마), 본동 1구장 고영자(테레사), 본동 2구장 진경님(테레사)

제 7 편

명수대 본당의 현황

1. 본당의 연혁 / 341
2. 관할 구역 및 구역별 신자수 / 362
3. 교역자 및 성소 현황 / 363
4. 사목 협의회 및 구역·반 편성 현황 / 368
5.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현황 / 370
6. 교세 변모 현황 / 371

제 1 회

제 1 회

1. 본당의 연혁

연 월 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1890.	· 동재기(銅雀里) 공소 설립	
1893.	· 노들(鷲梁津) 공소 설립	
1902. 5. 25	· 용산 예수성심신학교, 동작리 당재 마을에 별장(連碧亭) 건립, 축성식 (뫼텔 주교)	
1912.		· 개리(良才里) 공소 설립
1932. 11. 3		· 인구비(盤浦里) 공소 강복식
12. 17	· 동재기 공소 출신 임종국(바오로) 신부 사제 서품	
1936. 5. 10	· 영등포 본당 설립	
8. 24		· 연길 천주교 전래 40주년
1937. 1. 31	· 영등포 성당 축성식(라리보 주교)	
4. 13		· 연길 지목구, 대목구로 승격
		· 진주, 광주 지목구 설정
1939. 4. 25		· 춘천 지목구 설정
1940. 7. 20	· 영등포 성당 신축 축성식 (라리보 주교)	
1941. 12. 8		· 태평양 전쟁 발발
1942. 1. 3		· 노기남 신부, 서울 교구장에 피임
1945. 8. 15		· 8·15 해방
가을	· 흑석동(黑石洞) 공소 설립 (공소 회장:이의경)	
1946. 3.	· '공소 강당 신축 기성회' 조직 (기성 회장:이명용)	
10. 6		· <경향신문> 간행
1947.		· 서초리 공소, 강당 설립
1949. 초	· 강당 부지 매입	
4. 28		· 북한 공산 정권, 천주교 탄압 본격화
8. 26		· 대한 천주교 연맹 결성

연 월 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1950. 5. 9	· "흑석동 본당" 설립(초대 주임 : 유수철 도미니코)	
6. 25	· 흑석동 본당, 전쟁으로 와해됨	· 6·25사변 발발
1952. 11.	· 흑석동 공동체, 대림동 본당의 공소로 격하됨(공소 회장:조성희)	
1953. 봄	· 흑석동 공소, '성당 건립 기성회' 조직	
	· 주일학교 재건(지도 : 박규원 토마스) 및 부인 전교반 조직	
8. 15	· 24명의 영세자 탄생	· 대구교구를 성모 성심계 봉헌
1954. 초	· 교구 부지(현 성당 터) 사용을 허가 받음	
5. 29	· "명수대 본당" 설립	
	· 주보 : 평화의 모후	
	· 초대 주임 : 이경재(알렉산델)	
6. 26	· 이경재 신부 부임	
	· 성당 건립 기성회를 '성당 신축 위원회'로 개칭(위원장:한웅길)	
8. 1	· 명수대 성당 기공식	
1954.	· '청소년 연합 성가단' 발족	
	· 회장단과 반장단 조직(초대 총회장 : 조영태 바시리오)	
1955. 4. 19.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흑석동으로 이전
5. 1	· '성모회' (부인회) 설립(회장:박 마리아)	
5. 초	· 청소년 연합 성가단, 합창 미사곡 4권 발간	
5. 30	· 성당 낙성식	
6. 14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성 마리아 의원' 개원
7. 31	· 신축 성당 축성식(미사 집전 : 노 기남 대주교)	
8. 19	· 서울 교구 최초로 레지오 마리아에	

연 월 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1957. 10.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 '평화의 모후 Pr.' (단장 : 신태민 토마스) 창단 · 성당 구내에 '무료 급식소' 설치 · 제2회 서울교구 교리 경시 대회에서 단체상 우승 	
1958. 3. 29 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녀원 건물 매입(42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 본당 설립 · 청주, 대전 대목구 설정
1959. 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제관 별관 건물 매입(42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황 사절 아가지니안 추기경 내한
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황 사절 아가지니안 추기경, 본당 방문 	
3.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당 종(3개) 축성 · '평화의 모후 Cu.' (단장 : 장대훈 루가)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폐간
4. 30		
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수 성심상 봉헌식(조각 : 김세중) 	
가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나리 클럽' (소화회의 전신) 발족 	
1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회 서울교구 교리 경시 대회에서 단체상 우승 	
1960. 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당 주보 <검은 돌>(黑石) 창간 	
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9 의거
4.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복간
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수회' (장년 모임) 설립 	
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무염시대 Co.' 설립
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회 서울교구 교리 경시 대회에서 단체상 우승 및 개인 1, 2등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바오로 여자 수도회」 한국 진출
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연합 성가단, '명수대 가톨릭 합창단' 으로 개칭 	
196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리 경시 대회 수상자 김승자(루 	

연 월 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1961. 4.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아), 이상중(뿌리까르뽀), 교황 강복장 수상 · 이경재 신부 이임 · 제2대 본당 주임 조인환(베드로) 신부 부임 · '가톨릭 청년회' 설립(회장 : 이순재 요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6 군사 혁명 · 인천 대목구 설정
5. 16		
6. 4	· '가톨릭 노동 청년회' (J.O.C.) 발족	
6. 6		
6. 18	· 제2대 총회장 홍숙(마르코) 임명	
8. 15	· 여성 신심 단체 '성모회' 재발족 (회장 : 권 비리시다)	
10.	· 초대 본당 수녀로 주 칸디다 수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부임	
10. 22	· 제6회 서울교구 교리 경시 대회에서 단체상 우승	
11. 26	· 제3대 총회장 왕세영(프란치스코) 임명	
12. 2		
1962. 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바오로 수도회」 한국 진출 · 한국 천주교회, 교계(教階) 제도 확립(3개 대교구) · 가톨릭 신협 제1차 정기 총회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칸디다 수녀 이임 · 김숙영(소피아) 수녀 부임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소피아 수녀 이임 · 강순분(콘칠리아) 수녀 부임 · 고등부 성가대 창단(후에 '글로리아 성가대'로 개칭) 	
12. 24	· 초대 보좌 김수창(야고보) 신부 부임	
1963. 1. 6	· 회장단 개편(12명 5개 부서)	
3. 25	· 구역·반 확대 개편(65개 반)	
여름	· '사랑의 클럽' (중년 모임) 창단, 회지 <애덕>(愛德) 발행	

연 월 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1963. 8. 4	· 본당 주보 '김은돌' 100호 발간	
9. 7	· 환나리 클럽을 '테레사회'로 개칭 (회장 : 김순아 소화 테레사)	
10. 7		· 수원교구 설정
1964. 3. 15	· '연령회' 설립(회장:장지배)	
7. 17	· 조인환 신부, 사제 서품 은경축	
8. 10	· 조인환 신부, 소신학교 교장으로 전임	
	· 제3대 본당 주임 유영도(디오니시오) 신부 부임	
8. 15	· 상도동 공소 설립(상도동 625번지, 대지 70평, 건평 20평 전세)	
9. 6	· 강 콘칠리아 수녀 이임 · 박숙자(콘첵다) 수녀 부임	
9. 26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정릉으로 이전
11. 29	· 고등부 글로리아 합창단, 제4회 서울교구 성가 경연 대회에서 우승	
1965.	· 제4대 총회장 한상준(미카엘) 임명	
3. 2	· 박 콘첵다 수녀 이임 · 김경애(세실리아) 수녀 부임	
3. 13	· 상도동 공소 강당 매입(상도동 34- 1번지, 대지 135평, 건평 17평)	
3. 22		· 원주 교구 설정
7. 20		· 양재동 본당 설립
12. 26	· 본당 출신 첫 사제 주상배(안드레아) 서품	
1966.	· 고등부 글로리아 합창단, 소식지 〈Gloria〉지 창간	
1. 10	· 초대 보좌 김수창 신부 이임 · 제2대 보좌 임태경(루가) 신부 부임	
6. 10		· 성수동 본당 설립
10. 17		· 한국 가톨릭 농민회 창설

연 월 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1966. 11. 16	· '명수대 유치원' 서울시 교육위원 회로부터 설립 인가	
12. 14	· 상도동 본당(첫 子本堂) 분리 설립	
12. 14	· (초대 본당 주임: 김병일 요셉 신부) · 제3대 주임 유영도 신부, 종로 본당으로 이임	
12. 30	· 제2대 보좌 임태경 신부 이임 · 제3대 보좌 손영일(바르나바) 신부 부임 · 제4대 본당 주임 김옥균(바오로) 신부 부임	
1967. 3. 9	· '명수대 유치원' 개원(1학급 38명, 원장: 김옥균 신부, 원감: 김경애 수녀)	
3. 24		· 노기남 대주교, 서울대교구 장직 사임
9. 1	· 제4대 사무장 홍숙(마르코) 임명	
10.	· 신축 사제관 완공(현 사제관, 2층, 연건평 75평)	
12. 12	· 본당 출신 두번째 사제 양홍(에우 세비오) 서품	
1968. 3. 16	· 김 세실리아 수녀 이임 · 초대 분원장 강성숙(로올라) 수녀 부임(유치원 원감 겸임)	
6. 14	· 제3대 보좌 손영일 신부 이임 · 제4대 보좌 김형식(베드로) 신부 부임	
10. 6		· 병인 순교 복자 24위 시복식
11.	· '소년·소녀 스카우트' 설립	
1969. 1. 12	· 김경숙(로사) 수녀 부임(유치원 교사) · 박호자(루피나) 수녀 부임(전교 담당)	
3. 28		· 김수환 대주교, 추기경 서임

연 월 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1969. 4. 14 5. 29	· 제4대 보좌 김형식 신부 이임	· 안동 교구 설립	
1970. 초	· 사당동 공소 대지 400평 매입		
1. 16	· 제5대 보좌 장덕필(니콜라오) 신부 부임		
6.	· 사당동 공소 강당 축성식(집전 : 김수환 추기경)		
7. 5	· 박 루피나 수녀 이임 · 이양순(필립보) 수녀 부임		
8. 16	· 본당 최초로 꾸르실리스타 탄생 (박규원 토마스, 조중환 요한)		
1971.			· 서울대교구, 토요 특전 미사 실시
4. 3			· 《공동 번역 신약성서》 출간
6. 2	· 제4대 주임 김옥균 신부, 당산동 본당으로 이임 · 제5대 본당 주임 박병운(토마스) 신부 부임 · 제6대 보좌 김영화(바오로) 신부 부임		
6. 14	· 사당동 본당(두번째 子本堂) 분리 설립(초대 본당 주임 : 민 가비노 신부)		
6. 28		· 제주 지목구 설정	
7.	· 꾸르실료 운동 도입		
9. 17	· 제6대 보좌 김영화 신부 이임 · 임시 보좌 이종효(글레멘스) 신부 부임		
9. 28		· 가좌동 본당 설립	
11. 8	· 분원장 강 로을라 수녀 이임 · 제2대 분원장 김금자(릿다) 수녀 부임		
12.	· 제5대 총회장에 신태민(토마스) 임명		

연 월 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1971. 12. 8	· 본당 출신 세번째 사제 나원균 (바오로) 서품	
12. 9	· 데레사회를 '소화 부녀회' 로 개칭	
12. 9	(회장 : 손매순 안나)	
12. 25	· 제7대 보좌 이민상(마르티노) 신부 부임	
1972.	· '셀(cell) 모임' (중학생 모임) 창립	
1. 25	· 노량진 본당(세번째 子本堂) 분리 설립	
5. 18	· 제7대 보좌 이민상 신부 이임	
12. 2	· 이 필립보 수녀 이임	
	· 사정숙(안토니아) 수녀 부임	
12.	· 제6대 총회장에 윤경중(요셉) 임명	
	· '청년 성가대' 창단(1975년 해체)	
1973. 1.	· 본당 '울뜨레아' 설립(간사: 박규원 토마스)	
3.	· 본당 어버이 성가대인 '새로나 성가대' 창단	
5. 3	· 제8대 보좌 박용일(다태오) 신부 부임	
5. 18		· 영등포 본당 설립
5. 21	· 유치원 확장 완공 축성식	
5. 22	· 반포 공소 설립(초대 회장: 김덕윤 프란치스코)	
9. 30	· 성모회관(말씀의 방) 완공 낙성식 (연건평 90평)	
10. 1		· 중곡동 본당 설립
12. 8	· 제8대 보좌 박용일 신부 이임	
	· 제9대 보좌 최준웅(바르나바) 신부 부임	
1974. 5. 9	· 제9대 보좌 최준웅 신부 이임	· 구리 본당, 역촌동 본당 설립
7. 6		· 지학순 주교 체포 투옥됨
8. 26		·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 단 '우리의 주장' 선언문 발표

연 월 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1974. 11. 25	· 사 안토니아 수녀 이임 · 김영옥(유릿다) 수녀 부임(2대 유치원 교사)	
1975. 2. 16	· '청년회' 발족	
6. 1		· 김수환 추기경, 평양 교구장 서리 겸임
7. 15	· 분원장 김 린다 수녀 이임 · 제3대 분원장 신현숙(베아트리스) 수녀 부임	
9. 12	· 김 로사 수녀 이임 · 이송자(제올지아) 수녀 부임	
11.	· 제7대 총회장에 장대훈(루가) 임명	
1976. 3. 1		· 논현동 본당, 대림동 본당 설립
5. 25	· 제5대 주임 박병윤 신부, 반포 본당 초대 주임으로 이임 · 반포 본당(네번째 子本堂) 설립	
6. 3	· 제6대 본당 주임 나상조(아우구스 티노) 신부 부임	
7. 9	· 이 제올지아 수녀 이임 · 권영희(이나시오) 수녀 부임	
8. 10	· 교사 합동 하기 연수회 개최(이후 연례 행사가 됨)	
8. 15	· 구역·반 조직 개편(8구역 20개 반)	
10. 15		· 103위 한국 순교 복자 시성 청원서 교황청에 제출
10. 31		· 신정동 본당 설립
12. 4	· 새로나 성가대, 구약성서 연구반 조직	
12. 19	· 제8대 총회장에 조규동(가브리엘) 임명	
1977. 2. 2	· '복자 부녀회' (후에 '복자회' 로 개칭) 설립(회장 : 김연화 베네딕다)	
3. 25		· 경갑룡(요셉) 신부, 주교 성서

연 월 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1977. 4. 20		· 서울대교구 사목국 신설
6. 1	· 권 이나시오 수녀 이임 · 김순분(빈첸시아) 수녀 부임	
8. 1	· 교사회 '교리 학교 봉사 활동 및 노력 봉사' 시작(충북 보은)	
8. 25		· 자양동 본당 설립
10.	· 성당 난방 장치 및 화장실 개조	
12. 6		· 잠실 본당 설립
1978. 3. 1	· 김 유릿다 수녀 이임 · 최송자(요한) 수녀 부임(3대 유치원 교사)	
3.	· '예수 성심 사랑의 전교회' (회장: 임우식 그레고리오) 설립	
4.	· 도서실 마련(사제관 1층)	
4. 10		· 주교단, 노동 운동 및 종교 탄압에 대한 성명서 발표
4. 23	· 청년 성가대(단장: 안민선 요한) 재발족	
6.	· 청년 성서반 시작(지도: 김순분 빈첸시아 수녀)	
11. 19	· 청년 성가대, 청년회 회지 <도미네> 발간과 동시에 '도미네 청년 성가대' 로 개칭	
1979. 2. 9	· 분원장 신 베아트리스 수녀 이임 · 제4대 분원장 양성덕(루멘) 수녀 부임	
3. 6	· 본당 출신 네번째 사제 민병덕(비오) 서품	
6. 13		· 압구정동 본당, 대치동 본당 설립
6. 17	· '대포회' (현 '대건회' 의 전신) 설립 (회장: 이정무 그레고리오)	
7.	· 성당 내·외부 보수 공사	
9. 3	· 분원장 양 루멘 수녀 이임(임시)	

연 월 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1979. 10. 26	·분원장 : 김 빈첸시아 수녀) ·전배경(엠마) 수녀 부임	· 10·26 사태 발발(박정희 대통령 피격 사망)
11. 6		· 정의평화위원회, '인권 및 시국에 대한 건의' 발표
1980. 1. 14	· MBW 기초 묵상회 개최(성인 남녀, 분도회관)	
2. 10	· 김 빈첸시아 수녀 이임 · 제5대 분원장 이효자(엘리사) 수녀 부임	
2. 23		·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행사준비 대표자 모임 시작
5.	· '장미회' (본당 꽃꽂이와 환경 가꾸기) 설립	
5. 3		· 가톨릭중앙의료원 강남성모 병원 개원
5. 17		· 5·17 광주 민중 의거
6. 8	· 광주 민주화 운동 구호금 모금	
7. 13	· '주일학교 자모회' 설립	
9. 21	· '명수대 본당 성령 세미나' 첫 안수식	
10. 13	· '성령 봉사회' 설립(회장: 이영화 아벨)	
11. 25		· 서울대학교구 사목협의회 발족
11. 29	· 사목회 개편 '평신도 협의회'로 재구성 · 제9대 총회장에 문중섭(디모테오) 임명	
1981. 1. 22		· 둔촌동 본당, 암사동 본당 설립
2. 19	· 최 요한 수녀 이임 · 정옥택(로사리마) 수녀 부임(4대	

연 월 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유치원 교사)	
1981. 3. 1	· '명수대 신용 협동 조합' 창립 총회	
3. 31	· '위령 봉사회' (회장: 김용태 아우 구스티노) 설립	
4. 27	· '향지 직업 청소년 학교' (교장: 나 상조 신부, 교감: 김민수) 설립	
5. 17	· 지역 사회 경로 잔치 개최	
5. 24		· 신천동 본당 설립
5. 30	· 성모 동굴 축성식(노기남 대주교)	
6. 7	· 성당 별관에 '나자렛 교육관' (교사 실) 개관	
6. 14	·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제9 지구 신앙 대회' 참가	· 서울대교구, 조선교구 설정 · 150주년 기념 지구별 신앙 대회 개최
7. 17	· '만남의 제전' 체육 대회(중대부고 운동장)	
7. 28	· 전 단체 연합 하기 수양회 개최 (4박 5일, 몽산포)	
9. 3	· 제6대 주임 나상조 신부, 상봉동 본당으로 이임	· 새남터 본당 설립
	· 제7대 본당 주임 이종환(미카엘) 신부 부임	
9. 9	· 제5대 사무장 주창원(라파엘) 임명	
9. 13	· 본당 후보 <검은 돌> 제710호를 끝으로 <서울 후보>에 통합	
10.		· 한국 외방 선교회, 최초로 신 부4명 파견(파푸아뉴기니)
10. 18	· 여의도 신앙대회 참가	·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여의도 신앙대회
12. 8	· 제10대 총회장에 장대훈(루가) 임명 · 사목 협의회 내 '건축 분과' 신설	
1982. 2. 10	· 전 엠마 수녀 이임 · 홍혜영(마리엠타) 수녀 부임	
3. 3	· 제6대 사무장 최병광(베드로) 임명	

연 월 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1982 4. 5	· '건축 위원회' 구성	·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원주교구 최기식 신부 연행
5. 3		· 서울 S.O.S. 어린이 마을 개원
9. 4	· '성전 신축 기금 마련 연주회' 개최	· 미아 5동 본당, 능곡 본당 설립
9. 9		
12.19	· 제11대 총회장에 이승균(토마스) 임명	
1983. 1.25		· 가톨릭 주교단, 새 교회법 공포
2. 9	· 분원장 이 엘리사 수녀 이임 · 제6대 분원장 백계영(벨라도) 수녀 부임	
2.20	· '청년 연합회' 출범(회장: 김두환 미카엘)	
2.28		· 성신고등학교 폐교
5. 3	· 한국 순교 복자 시성을 위한 '복자 김대건 신부 유해 봉송 및 순회 기도회' 시작	
6.11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한국 순교 복자 103위 기적 심사 면제 · 한국 순교자 현양 위원회 발족
7.25	· 본당 수녀원 공사 개축 완공(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가 기증)	
9. 1		· 가락동 본당, 번동 본당 설립
9. 2	· 흥 마리엠티 수녀 이임 · 박경애(올리비아) 수녀 부임	
12. 7	· 소화 부녀회, 장미회와 통합하여 '소화 테레사회'로 발족함(회장: 장인순 마리 스텔라)	· 수원 가톨릭대학 설립 인가
1984. 1.		· 서울대교구 의료보험제도

연 월 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시작
1984. 1. 23	· '복자 유해를 모신 9일 기도회' 개최	
2. 20	· 정 로사리마 수녀 이임 · 제5대 유치원 원장으로 이순자 (라우렌시아) 수녀 부임	
3. 11	· 새 성전 건립 기공식	
3. 24		· 전국 교구, 성모 마리아께 위 탁 봉헌식 거행
4. 7	· 성전 건립 기금 마련 음식 바자회 개최	
4. 24	·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행사 를 위한 9일 기도회' 개최	
5. 3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역대 교황 최초로 한국 방문
5. 6	· 여의도 신앙대회 참가	·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미사 및 103위 성인 시 성식 거행(여의도 광장)
7. 4	· '성전 건립 추진 위원회' 재구성 (위원장: 한준석)	
9. 12	· '103위 성인 첫 축일 9일 기도' 개최	
11. 19	· '200주년 및 성년 마감 7일 기도회' 개최	
1985. 1. 18		· 대구대교구 이문희 주교, 보 좌 주교에 피임
1. 25	· 제12대 총회장에 박기순(베드로) 임명	
2. 20		·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가 톨릭대사전》 간행
2. 25	· '성소 후원회' (회장: 조중환 요한) 발족 · '군중 후원회' (회장: 원종우 바오 로) 발족	
3. 23		· 김옥균 신부, 서울대교구 보

연 월 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1985. 9. 2	· 박 올리비아 수녀 이임 · 김태숙(도로테아) 수녀 부임	좌 주교에 피임
1986. 1. 4		· 강우일 신부, 서울대교구 보좌 주교에 피임
2. 4	· 분원장 박 벨라도 수녀 이임 · 제7대 분원장 박기순(멜세스) 수녀 부임	
2.21		· 고덕동 본당 설립
3.14		· 서울 제44차 세계성체대회(1989년)를 확정 발표
5.26	· '성모 동굴' 축성식	
6. 1	· '신축 성당 봉헌식 및 축성식' (미사 집전 : 김수환 추기경, 지하 2층, 지상 3층)	
7. 5		· 이문희 대주교, 대구대교구 제8대 교구장에 취임
8.29	· 제7대 주임 이종환 신부, 면목동 본당으로 이임 · 제8대 본당 주임 정광웅(요셉) 신부 부임	
9. 4	· 김 도로테아 수녀 이임 · 김향련(마리 후꼬) 수녀 부임	
10.19	· 제1회 본당 체육 대회(중대부고 운동장)	
10.21	· 제13대 총회장에 김춘호(요셉) 임명	
11.21		· 제44차 세계 성체대회 준비 위원회 발족
1987. 2. 6		· 퇴계원 본당, 목1동 본당 설립
3.26	· 제1회 성서 40주간 시작	
3.	· '사순절 저금통 마련 운동' 시작	
4. 7		· 대구대교구 서정길 대주교 서거

연 월 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5.	· 성령 봉사회(성령 기도회의 전신), 일부 회원의 이탈로 재구성(회장: 문정식 요한)	
9. 13		· 서울 세계 성체대회 준비 '지구 성체대회 개막식'
1988. 2. 3	· 분원장 박 델레스 수녀 이임 · 제8대 분원장 홍익진(빠드리시아) 수녀 부임	
2. 12	· 본당 출신 다섯번째 사제 임승철(토마스 아퀴나스) 서품	
2. 17	· 유치원 원장 이 라우렌시아 수녀 이임 · 제6대 유치원 원장 박충원(라우데스) 수녀 부임	
3. 5		· 전주교구 '치명자 산' 성지 개발 기공식
5. 15		· 성모성년 전국 대회(청주)
6. 12	· 본당 야외 미사(한마음 수련장)	
6. 30	· 새 성전 건립 부채 청산	· 북한 '조선천주교인협회' 결성 발표
7. 3	· 김원우(루도비코) 새 신부 첫미사(본당 출신 대전교구 소속)	
8.	· '나눔의 헌금 운동'(본당 내 불우 형제 돕기) 시작	
8. 31	· 홍 빠드리시아, 김 마리 후꼬 수녀 이임 · 제9대 분원장 장명희(베아따), 최 미숙(아니마) 수녀 부임	
9. 15	· 본당 전 신자 피정	
9. 20	· 사제관 보수 공사	
10. 16	· 한국 성체대회 참가	· 한국 성체대회 개최(대전)
10. 21	· '평화의 모후 성모상' 안치(최봉자 수녀 작)	
10. 22	· 도미네 청년 성가대 창립 10주년	

연 월 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1988. 12.	기념 제9회 정기 연주회 · '명수대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 (본부장:김춘호 요셉) 조직	
1989. 1. 21		· '한마음 한몸 운동' 추진 대회
2. 17	· 제10대 보좌 봉재종(마르코) 신부 부임	
2. 26	· 사순절 특별 강론	
2. 27	· 최 아니마 수녀 이임	
5. 21	· 최옥숙(아폴로니아) 수녀 부임 · '정 요셉상' 안치 축성식(최봉자 수녀 작)	
5. 22	· 옛 수녀원 철거, 신축 공사	
6. 5		· 전주교구 문규현 신부 평양 방문
6. 11	· 전 신자 성지 순례(솔피 성지)	
7. 17		· '한마음 한몸 운동' 현철 대 잔치
9. 9	· 한국 교회사 자료 전시회	
10. 8	· 세계 성체대회 참가	· 서울 제44차 세계 성체대회 여의도 신앙대회
11. 11		· 정명조 신부, 군중교구 초대 교구장에 피임
12. 14	· 새 수녀원 신축 축성식	
1990. 2. 20	· 유치원 원장 박 라우데스 수녀 이임 · 제7대 유치원 원장 김선희(바울리나) 수녀 부임	· 이병호 신부, 전주교구장에 피임 · 평화방송 개국
5. 8	· 경로 잔치	
5. 29	· 예수 성심상 및 성모 동굴 조경 완료	
6. 3	· 제2회 본당 체육 대회	
8. 23		· 포이동, 방학동, 신림 4동 본

연 월 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당 설립
9. 3	· 최 아폴로니아 수녀 이임 · 박문자(레나타) 수녀 부임	
9. 4		· 대전 가톨릭대학 설립 인가
9.16	· 주일학교 중·고등부 도보 성지 순례(서울의 성지)	
10.31		· 박석희 신부, 안동교구장에 피임
11.17	· 제1회 성가 경연 대회	
1991. 1.14		· 원주교구 김지석 신부, 주교 서품
1.22	· 본당 사무실, 컴퓨터 설치	
1.30	· 성모상 받침대 안치	
2. 4	· 지붕 동판 방수 작업	
2. 7	· 제10대 보좌 봉재종 신부 이임	
2.22	· 제11대 보좌 윤재한(보니파시오) 신부 부임	
3. 6	· 성당 내 냉방기 설치	
3.25		·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 발행
6.14	· '자비의 모후 Cu.' 분단 설립(단장:염동화 마태오)	
8.23	· 제8대 주임 정광용 신부, 명일동 본당으로 이임	
9. 4	· 분원장 장 배아따 수녀 이임 · 제10대 분원장 김경희(세바스티안) 수녀 부임	
9. 5	· 제9대(현) 본당 주임 최익철(베네딕도) 신부 부임	
10.30		· 가톨릭 성서 연합 동북아시아 지역회의
10.	· 미사 때 '한 목소리 내기 운동' 시작	
11.24	· 제2회 성가 경연 대회	
		· 윤지충 순교 20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교회사연구소 주관)

연월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1992. 1. 5	· '사목회'를 '사목 협의회'로 개칭 (총회장 : 김춘호 요셉 언임)	
1. 8	· 신축 성당 준공 필	
초	· 본당 구역·반 개편(11구역 57개 반) ·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매월 반 모임의 날' 시작	
1. 24	· '성당 부지 확보 계획서'를 교구에 제출(교구에서 불허함)	
2. 27		· 가톨릭 중소 상공인회 창립
3. 1	· 아버지 '한마음 성가대' 창단(단장 : 양길웅 시몬)	
3. 3	· 레지오 마리아, '평화의 모후 Cu.'와 '자비의 모후 Cu.' 아래 각각 19개의 브레씨디움으로 확대됨	
3. 16		· 제7대 주한 교황 대사 조반니 블라이티스 대주교 부임
4. 26	· 구역·반 개편(11구역 76개 반) · 남성 구역장제 도입	
5. 20		·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 개소식
5. 22		· 낙태, 간통죄 폐지 반대 성명(주교회의 정평위)
7. 3	· 본당 출신 여섯번째, 일곱번째 사제 장금선(예로니모), 이효언(펠릭스) 서품	
7. 12		· 서울대교구 '새 사제 학교' 개설
8. 9	· 낙태 반대 서명 운동 시작	
9. 3	· 박 레나타 수녀 이임 · 최명화(마리 미카엘라) 수녀 부임	
9. 24		· 한국 꾸르실료 진출 25주년 기념 전국 울뜨레야 개최
11. 9	· 제1차 반장단 야외 행사(1박 2일, 설악산)	
12. 6		·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주교

연 월 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1993. 초	· '명수대 본당 40년사 편찬 위원회' 구성, 자료 수집 시작	단 '담화' 발표
3. 2		· 대전가톨릭대학 개교
3. 4	· 제11대 보좌 윤재한 신부 이임	
3. 7	· 최익철 신부, 교회 기념 저서 《성인 우표 선집》, 《모세의 한평생》 출간	
3.12	· 제12대 보좌 박종성(그레고리오) 신부 부임	
3.23	· '평화의 모후 Pr.' 1900차 기념 주회 (37년간 모임)	
4.22		· 정의평화위원회, 환경 메시지 발표
6. 1	· 교적 전산화 작업 시작	
6.25	· 첫 '예수 성심의 밤' 행사 개최	
7.16	· 본당 출신 여덟번째 사제 김현덕 (요한) 서품	
8. 6		· 대전 EXPO, 바티칸관 개관식
10.10	· 전 신자 대상 성지 순례(배론 성지)	
11. 5	· 제12대 보좌 박종성 신부 휴양 제13대 보좌 오세만(바오로) 신부 부임	
11. 7	· 대포회를 '대건회' 로 개칭	
11.14		· 중림동 가톨릭음학원 개원
1994. 1. 2	· 〈본당 주보〉 뒷면에 교리 해설란 마련	
1.30	· 본당 구역·반 개편(12구역 80개 반)	
2.13	· 평화 방송, 본당 미사 생중계 · 본당 척사대회 개최	
2.22		· 최창무 주교, 서울대교구 보좌 주교에 피임
2.23	· 반장단 제주도 여행(2박 3일)	
3. 4		· 서정덕 주교, 대구대교구 보

연 월 일	명수대 본당 40년사	한국 천주교회사
1994. 3.31		좌 주교에 피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글 개정판 《가톨릭 교회 교리 서》 발간
4. 3	· 제14대 총회장에 이승균(토마스) 임명	
4.15	· 8주간 성체 신심 세미나 개최	
5.	· 한 달 동안 '성모의 밤' 계속(이러 한 신심 함양 운동이 이후 예수 성 심 성월, 성체 성월, 순교자 성월 로 이어짐)	
5.22	·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경로잔치 개최	
5.29	· 명수대 본당 설립 40주년	
6.29		·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 창립
7. 3	· '위령회' 설립(회장 : 방달호 요셉)	
7.13	· 본당 출신 아홉번째 사제 이은형 (디모테오) 서품	
8. 5	· '경로 수련회' 개최(3박 4일, 장소: 산정호수)	
8.21	· 분원장 김 세바스티안, 최 마리 미카엘라 수녀 이임 · 제11대 분원장 강영순(스텔라), 조영숙(안나 마리) 수녀 부임	

2. 관할 구역 및 구역별 신자수

1) 관할 구역도



2) 관할 행정 구역 인구 및 신자수(1994년 8월 현재)

구분 동 별	인 구 수	신 자 세대수	인 구 수			구성비 (%)
			남	여	계	
흑석 1동	18,280	508	667	927	1,594	8.71
흑석 2동	17,445	561	641	781	1,612	9.24
흑석 3동	12,516	369	403	605	1,008	8.05
본 동	17,856	229	257	405	662	3.71
기 타		227	171	299	470	
계	66,097	1,894	2,139	3,217	5,346	8.09

3. 교역자 및 성소 현황

1) 역대 주임 신부

대수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부임일	현재
초대	이경재	알렉산델	1954. 5. 29~1961. 3.	1954. 6. 26	성라자로마을
2대	조인환	베드로	1961. 3~1964. 8. 10	1961. 3.	선종
3대	유영도	디오니시오	1964. 8. 10~1966. 12. 14	1964. 8. 10	당산동
4대	김옥균	바오로	1966. 12. 14~1971. 5. 14	1966. 12. 30	주교, 총대리
5대	박병윤	토마스	1971. 5. 14~1976. 5. 25	1971. 6. 2	역삼동
6대	나상조	아우구스티노	1976. 5. 25~1981. 8. 21	1976. 6. 3	봉천 1동
7대	이종환	미카엘	1981. 8. 21~1986. 8. 16	1981. 9. 3	대방동
8대	정광용	요셉	1986. 8. 16~1991. 8. 23	1986. 8. 29	명일동
9대	최익철	베네딕도	1991. 8. 23~현재	1991. 9. 5	

2) 역대 보좌 신부

대수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현재
초대	김수창	야고보	1962. 12. 24~1966. 1. 10	잠원동
2대	임태경	루가	1966. 1. 10~1966. 12. 14	홍제동
3대	손영일	바르나바	1966. 12. 14~1968. 6. 14	이문동
4대	김형식	베드로	1968. 6. 14~1969. 4. 14	발산동
5대	장덕필	니콜라오	1970. 1. 16~1971. 6. 2	수유 1동
6대	김영화	바오로	1971. 6. 2~1971. 9. 17	대전교구
임시	이종효	클레멘스	1971. 9~1972. 1.	
7대	이민상	마르티노	1971. 12. 25~1972. 5. 18	환속
8대	박용일	다테오	1973. 5. 3~1973. 12. 8	중곡동
9대	최준웅	바르나바	1973. 12. 8~1974. 5. 9	방배동
임시	김진하	바오로	1975. 3. 1~1977. 1.	대전교구
임시	김진화	요한	1977. 1. 5~1978. 1.	평양교구
10대	봉재중	마르코	1989. 2. 17~1991. 2. 7	전농동
11대	윤재한	보니파시오	1991. 2. 22~1993. 3. 4	둔촌동
12대	박종성	그레고리오	1993. 3. 12~1993. 11. 5	상봉동
13대	오세만	바오로	1993. 11. 5~현재	

3) 역대 본당 수녀(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순서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비고
1	주	칸디나	1961.10~1962.4.5	초대 본당 수녀
2	김숙영	소피아	1962.4.5~1962.7.15	
3	강순분	콘칠리아	1962.7.15~1964.9.6	
4	박숙자	콘셉다	1964.9.6~1965.3.2	
5	김경애	세실리아	1965.3.2~1968.3.16	
6	강성숙	로올라	1968.3.16~1971.11.8	초대 분원장
7	김경숙	로사	1969.1.12~1975.9.12	유치원 교사
8	박호자	루피나	1969.1.12~1970.7.5	
9	이양순	필립보	1970.7.5~1972.12.2	
10	김금자	릿다	1971.11.8~1975.7.15	제2대 분원장
11	사정숙	안토니아	1972.12.2~1974.11.25	
12	김영옥	유릿다	1974.11.25~1978.3.1	유치원 교사
13	신현숙	베아트리스	1975.7.15~1979.2.9	제3대 분원장
14	이송자	제올지아	1975.9.12~1976.7.9	
15	권영희	이나시오	1976.7.9~1977.6.1	
16	김순분	벤첸시아	1977.6.1~1980.2.10	
17	최송자	요한	1978.3.1~1981.2.19	유치원 교사
18	양성덕	루멘	1979.2.9~1979.9.3	
19	전배경	엠마	1979.9.3~1982.2.10	
20	이효자	엘리사	1980.2.10~1983.2.9	제4대 분원장
21	정옥택	로스리마	1981.2.19~1984.2.20	유치원 교사
22	홍혜영	마리엠타	1982.2.10~1983.9.2	
23	백계영	벨라도	1983.2.9~1986.2.4	제5대 분원장
24	박경애	올리비아	1983.9.2~1985.9.2	
25	이순자	라우렌시아	1984.2.20~1988.2.17	제5대 유치원장
26	김태숙	도로테아	1985.9.2~1986.9.4	
27	박기순	멜세스	1986.2.4~1988.2.3	제6대 분원장
28	김향련	마리 후꼬	1986.9.4~1988.8.31	
30	홍익진	파트리치아	1988.2.3~1988.8.31	

순서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비고
31	박충원	라우데스	1988. 2. 17~1990. 2. 20	제6대 유치원장
32	장명희	베아타	1988. 8. 31~1991. 9. 4	제7대 분원장
33	최미숙	아니마	1988. 8. 31~1989. 2. 27	
34	최옥숙	아폴로니아	1989. 2. 27~1990. 9. 3	
35	김선희	바울리나	1990. 2. 20~현재	제7대 유치원장
36	박문자	레나타	1990. 9. 3~1992. 9. 3	
37	김경희	세바스티안	1991. 9. 4~1994. 8. 21	제8대 분원장
38	최명화	바리미카엘라	1992. 9. 3~1994. 8. 21	
39	강영순	스텔라	1994. 8. 21~현재	제9대 분원장
40	조영숙	안나 마리	1994. 8. 21~현재	

4) 본당 출신 성직자

성명	세례명	서품일	현재	성명	세례명	서품일	현재
주상배	안드레아	1965. 12. 26	풍납동	장금선	예로니모	1992. 7. 3	불광동
양홍	에우세비오	1967. 12. 12	독산동	이효연	펠릭스	1992. 7. 3	해화동
나원균	바오로	1971. 12. 8	압구정동	김현덕	요한	1993. 7. 16	대림동
민병덕	비오	1979. 3. 6	신림4동	이은형	디모테오	1994. 7. 13	둔촌동
임승철	T. 아퀴나스	1988. 2. 12	녹양동				

5) 본당 출신 수도자(가나다 순)

성명	세례명	수도회	성명	세례명	수도회
고도임	골롬바	성심 수녀회	이인숙	마리루이스	베네딕도회
김숙현	디오니시아	베네딕도회	이혜자	막달레나	샬트르 성 바오로회
김인옥	안젤라	사랑의 씨튼 수녀회	장길선	마리아	동정 성모회
김혜순	라우렌시오	거룩한 말씀의 시녀회	장영선	힐데가르트	동정 성모회
박동순	엘리사벳	성모 승천 공경회	장혜선	히야친타	동정 성모회
양영자	헬레나	샬트르 성 바오로회	조용주	엠마누엘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양희진	아슴다	올리베타노 베네딕도회	조정림	마리아요셉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윤민자	루도비카	올리베타노 베네딕도회	최길자	안젤라	베네딕도회
이명수	쉴레나	거룩한 말씀의 시녀회	최미화	에밀리아	동정 성모회
이순일	골롬바	베네딕도회	한경순	마리지마	노틀담 수녀회

6) 신학생 및 예비 신학생

(1) 신학생

성명	세례명	학년	신학교	소속	비고
고준석	토마스 아퀴나스	5	가톨릭대학	서울대교구	
이재정	토마스 아퀴나스	4	"	"	
강한수	가롤로	3	"	"	
박문식	요아킴		"	"	복학 대기중

(2) 예비 신학생

성명	세례명	학년	성명	세례명	학년	성명	세례명	학년
강충명	마르첼리노	중2	원성철	미카엘	중2	염지훈	가브리엘	고1
김대기	요한	중2	정일택	요셉	중2	이범선	베드로	고1
김동연	사도 요한	중2	최원국	베드로	중2	고재인	시몬	고2
김선호	세자 요한	중2	김정현	베드로	중3	권백진	루가	고2
김영균	아놀드	중2	김지환	미카엘	중3	이영석	안토니오	고2
김진혁	라파엘	중2	우진영	스테파노	중3	이명재	프란치스코	일반
변찬우	알렉산델	중2	양명석	안드레아	고1			

7) 역대 총회장

대수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비고
초대	조영태	바시리오	1960. 2. 7~1961. 6. 18	
2대	홍숙	마르코	1961. 6. 18~1961. 11. 26	
3대	왕세영	프란치스코	1961. 11. 26~1965.	
4대	한상준	미카엘	1965. ~1971. 12.	
5대	신태민	코마스	1971. 12. ~1972. 12.	
6대	윤경중	요셉	1972. 12. ~197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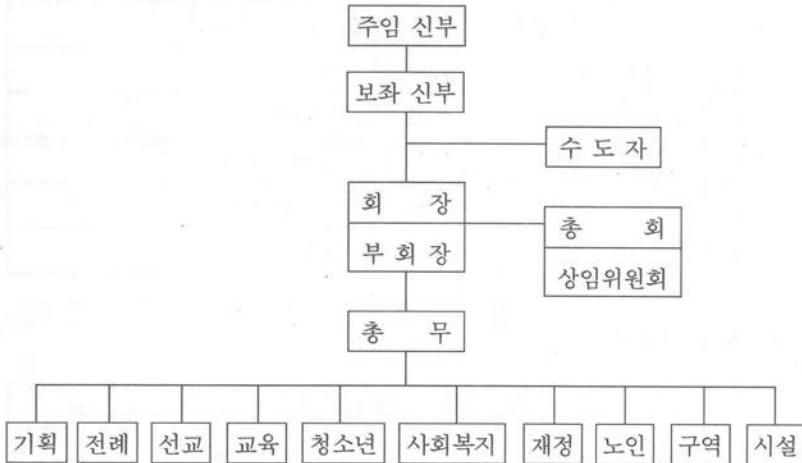
대 수	성 명	세 레 명	재 임 기 간	비 고
7대	장대훈	루가	1975. 11. ~1976. 12. 19	
8대	조규동	가브리엘	1976. 12. 19~1980. 11. 29	
9대	문중섭	디모테오	1980. 11. 29~1981. 12. 8	
10대	장대훈	루가	1981. 12. 8~1982. 12. 19	
11대	이승균	토마스	1982. 12. 19~1985. 1. 25	
12대	박기순	베드로	1985. 1. 25~1986. 10. 21	
13대	김춘호	요셉	1986. 10. 21~1994. 4. 3	
14대	이승균	토마스	1994. 4. 3~현재	

8) 역대 사무장

대 수	성 명	세레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대	조성희			
2대	조진호			
3대	장지배			
4대	홍 숙	마르코	1967. 9. 1~1981. 8.	
5대	주창원	라파엘	1981. 9. 9~1982. 2.	
6대	최병광	베드로	1982. 3. 3~현재	

4. 사목 협의회 및 구역·반 편성 현황

1) 사목 협의회 구성 현황



- 총회장 : 이승균(토마스)
- 부회장 : 이용욱(바실리오), 방달호(요셉)
- 총 무 : 문정식(요한)
- 부총무 : 강연수(요셉)
- 각 분과위

기획 분과 위원장 : 양재인(베드로), 위원 : 김형순(안드레아)

전례 분과 위원장 : 김용식(베네딕도), 위원 : 양길웅(시몬), 경인숙(미카엘라)

선교 분과 위원장 : 이정열(미카엘), 위원 : 장인순(마리 스텔라), 한복순(테레사), 고광태(요셉), 연제선(마리아), 정군순(수산나), 이남희(에메리아)

교육 분과 위원장 : 이정필(스테파노), 위원 : 송광남(모이세), 홍석오(바오로), 김진호(요셉)

청소년 분과 위원장 : 최재교(스테파노), 위원 : 김원호(알렉산델), 김신두(라우렌시오), 주광진(미카엘), 심종섭(요셉)

사회복지 분과 위원장 : 박인수(요한), 위원 : 강용호(베드로)
 재정 분과 위원장 : 김종철(안토니오), 위원 : 이재복(바오로)
 노인 분과 위원장 : 공보찬(베드로), 위원 : 서성태(알로이시오), 안
 숙자(엘리사벳)
 구역 분과 위원장 : 조영애(안젤라), 위원 : 김복중(요셉), 조희순
 (비비안나), 이몽주(바오로), 정안순(엘리사
 벳), 김석주(바오로), 윤현자(에피제니아), 김
 종석(야고보), 박희자(테레사)
 시설 분과 위원장 : 이광우(토마스), 위원 : 이강민(대건안드레아),
 송철호(올리오)

2) 구역 및 반 편성 현황(총 12개 구역 80개반)

구역	반수	신자수	남성 구역장	여성 구역장
혹석 1동 1구역	6	1,594	김복중(요셉)	조희순(비비안나)
혹석 1동 2구역	9		한동성(스테파노)	김성자(루시아)
혹석 1동 3구역	9		김동혁(프란치스코)	이순자(안젤라)
혹석 2동 1구역	8	1,612	한상희(시몬)	최명선(마리아)
혹석 2동 2구역	9		김우근(뽀리카르뵈)	김영숙(글로틸다)
혹석 2동 3구역	6		송덕근(미카엘)	정안순(엘리사벳)
혹석 2동 4구역	6			안선자(올리안나)
혹석 3동 1구역	8	1,008	서성석(토마스)	최충자(미카엘라)
혹석 3동 2구역	5		김광성(바오로)	신복순(루시아)
혹석 3동 3구역	7		이효식(안드레아)	김성란(테레사)
본동 1구역	4	662	김종석(야고보)	박희자(테레사)
본동 2구역	3		이용식(베드로)	이기복(실비아)

5.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현황

단체명	설립 연월일	회원 수			활동 내용 및 성격
		남	녀	계	
주일학교 교사회	1945.	10	22	32	주일학교 교육과 지도
복사단	1954. 6.	30		30	미사 전례 복사 및 성소
성모회	1955. 5. 1		90	90	신심·봉사 활동 및 친교
레지오 마리아	1955. 8. 19	71	347	418	2개 Cu. 38개 Pr.
소화(테레사)회	1963. 9. 7		72	72	본당 봉사 및 친교·전교
스카우트	1968. 11.		9	9	정서 함양 및 친교 활동
울뜨레아	1973. 1.	32	32	64	재교육, 신심, 친교 활동
복자회	1977. 2. 2		35	35	본당 봉사 및 친교·전교
도미네 청년 성가대	1978. 4. 23	18	24	42	성가 전례 및 친교·전교
대건회	1979. 6. 17	35		35	본당 봉사 및 친교·전교
성령 기도회	1980. 10. 13	15	40	55	성령 기도 및 친교·전교
청년 성서모임	1984.	2	8	10	성서 봉사 및 교육·친교
아버이 성서봉사자모임	1990. 9.		14	14	성서 봉사 및 교육·친교
한마음 성가단	1992. 3. 1	15	25	40	성가 전례 및 친교·전교
연령회	1994. 6. 26	약 400명			상가 봉사, 친교·전교

6. 교세 변모 현황

1) 현재의 신자 현황(1994년 8월 현재)

구 분		1994년(8월)	1993년	증 감	%
총 가구수		1,894	1,863	+31	+1.7
신 자 수	남	2,129	2,110	+19	+0.9
	여	3,217	3,176	+41	+1.3
	계	5,346	5,286	+60	+1.2
미사 참여자(%)		약 40%	약 39%		+1
예 비 자	남	20	14	+6	+42.9
	여	55	40	+15	+37.5
	계	75	54	+21	+38.9
냉담자		1,350	1,400	-50	-3.6
거주 불명자		144	428	-284	-66.5

2) 연도별 영세자수 변모 현황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1960	216	1969	352	1975	206	1982	405	1988	352
1962	173	1970	331	1976	236	1983	346	1989	388
1963	274	1971	273	1977	213	1984	307	1990	349
1966	306	1972	188	1978	170	1985	349	1991	303
1967	280	1973	201	1980	278	1986	203	1992	204
1968	322	1974	239	1981	442	1987	414	1993	204

3) 연도별 교세 변모 현황

연도	총 신자수			세대수	냉담자	행불자	비 고
	남	녀	계				
1954	약 400명						
1956	약 1,000명						
1960	1,415	1,743	3,158				
1965	2,317	2,977	5,294				
1966	1,824	2,470	4,294	1,288	298		상도동 본당 분할
1970	2,279	3,248	5,527	1,633	160		
1971	1,734	2,451	4,185	1,282	140		사당동 본당 분할
1972	1,770	2,474	4,244	1,112	100		노량진 본당 분할
1974	1,882	2,628	4,510	1,203	95	308	
1975	1,854	2,650	4,504	753	100	1,211	교적 재정리
1976	1,857	2,728	4,585	780	30	1,200	반포 본당 분할
1980	1,829	2,861	4,690	835	45	1,110	
1981	1,914	3,026	4,940	1,018	52	1,203	
1985	2,267	3,634	5,901	1,561	173	1,003	
1986	2,203	3,577	5,780	1,837	331	1,104	행불 : 209세대
1990	2,251	3,326	5,577	1,973	875	1,043	행불 : 501세대
1993	2,110	3,176	5,286	1,863	1,400	428	이향자 : 1,675명

□ 편찬 후기 □

먼저 《명수대 본당 40년사》를 무사히 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도와 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성직자·수도자·교우 여러분들, 특히 이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전임 김춘호(요셉) 총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40년사의 편찬·간행에 대한 의견이 처음 제기된 것은 최익철(베네딕도) 주임 신부님께서 부임한 다음이었습니다. 이에 본당에서는 1993년 초부터 몇몇 신자들에게 자료 수집을 하도록 하는 한편 곧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편찬 위원들은 이때부터 주보를 통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 청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여 하나의 역사로 꾸미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익철 신부님께서서는 한국교회사연구소에 협조를 의뢰하였으며, 연구소 소장 신부님의 배려로 연구원들이 그 집필과 편집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목 협의회의 개편에 따라 1994년 4월부터 이 작업을 새 사목 협의회에서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이 본당사 중에서도 신심 단체사는 각 단체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하였으며, 본당의 현황은 사무실의 협조를 얻어 작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당사 편찬을 마무리하면서 못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동안 이 공동체를 이끌어 오신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을 세세히 기록하지 못한 점입니다. 이 점 앞으로 50년사가 나올 때 보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찬 위원장 이 용 욱(바실리오)

처음 본당 40년사 편찬 위원으로 임명을 맡고 나서는 얼마나 막연했는지.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밝은 빛으로. 주님은 얼마나 오묘하신지요?

그 때 문득 생각난 것이 박규원(토마스) 형제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명수대 본당 초창기의 자료와 사진첩, 60년대의 주보철을 보여 주

셨을 때는 기쁜 마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본당 회장과 사무장을 지내신 홍숙(마르코) 회장님께서도 자료를 찾으러 부산을 떠는 데도 웃으면서 열심히 거들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도움과 마음이 모여 겨우 우리 본당사를 엮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저로서는 좀더 알찬 자료를 찾아내고 정리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당이 40여년을 성장해 왔듯이 앞으로도 그 성장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 믿으며, 바쁜 가운데서도 본당사 편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차기진(루가), 김주완(라우렌시오) 형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편찬 위원 한 복 순(테레사)

《명수대 본당 40년사》가 간행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 찬미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선 부족한 자료 수집으로 인해 교우 여러분들께 흠족한 40년사를 보여주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각 단체에서 수고해 오신 역대 임원들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누락된 분들도 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 앞에는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봉사 활동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위안을 삼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편찬 위원들에게 친절히 대해 주신 역대 신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박규원(토마스) 회장님, 편찬에 도움을 주신 모든 교우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편찬 위원 한 칠 수(젼마)

40년 동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모든 일들을 되살려 내는 작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황당하기만 하여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본당 40년사 편찬에 참여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고, 그 결과가 하나의 책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보람있는 일도 많았습

니다. 신부님들의 증언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묻고 또 물었던 일, 교우가정을 찾아 직접 자료를 찾기도 하고 내놓는 자료들을 고르던 일, 자문을 구하고 사진 자료들을 정리하던 일. 모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현재에 살기 바빠서 과거사에 대하여는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귀중하게 살면서 좋은 추억을 만든다면, 그것이 훗날 다시 기억될 때 훌륭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느님과 신부님, 교우분들에 대한 감사로 돌리며 우리가 한 일이 너무 부족하지나 않았나 걱정할 뿐입니다.

편집 위원 경 인 숙(미카엘라)

1. 인 명

강귀녀	329	고영자	255, 293, 298, 303, 338
강규숙	319	고정수	281
강문희	279	고정희	296
강민오	204	고준석	254
강석문	191, 186	공보찬	251
강성숙	136, 152	공영춘	64
강성호	310	구민경	279
강수영	250	구병수	319
강순분	109, 112, 127	구복만	278
강신오	298	구본걸	279
강아나타시아	306	구은숙	294
강연수	218, 250, 251, 322	구인수	294, 302
강영순	115, 254, 331	구자혁	169, 180, 250, 322, 326 327, 337
강예식	300	권 마리아	95, 126, 290, 299
강용호	297, 327	권 비리시다	113, 286
강총명	281, 282	권설화	294
강춘자	294, 299	권순형	29, 92
강학수	319	권영실	295
강한수	254	권영재	298
강해원	318	권영희	173
강현숙	299	권준현	319
강혜숙	295	권춘자	298
강홍규	299	권한옥	319
경갑룡	191	권혁남	294, 338
경인숙	261	권혁두	166, 169, 180, 323
경인숙	297, 311, 331, 332	권흥집	297, 307
고경희	250	기노시파 사가에	52
고광태	323, 323	길인애	146
고대일	283	김갑인	64
고순희	301	김 경	184

김경숙	137, 146, 152, 295, 301	김동헌	323
김경애	130, 135, 301	김동환	299
김경일	318	김두환	204, 206
김경자	301	김득권	99
김경준	281, 282	김 로사	279
김경희	254, 331	김 루시아	105, 289
김계환	167, 314	김린완	103, 333
김 골롬바	286	김 마리아	294
김관태	169, 323	김말따	286
김광언	169, 322	김명자	294, 298
김교만	29, 92	김명제	314, 315, 327
김교협	64, 77	김명희	231, 249
김규익	293	김 모니카	286, 286, 306
김금자	152	김문호	323, 323
김기인	296	김미란	279
김기환	279	김미자	249
김길영	315, 327	김민수	162
김길자	294	김민희	278
김남숙	171, 218, 286, 290, 294 294, 295	김 발바라	104, 288
김대건	211, 255, 320, 322	김 벨라뎃다	286
김대기	281, 282	김병일	134
김대봉	103	김병준	204
김덕윤	150	김보영	207, 291, 296
김 데레사	99	김복순	130
김 돈보스코	103	김복중	293, 297
김동근	138	김삼남	315
김동연	281, 282	김상돈	204, 318
김동열	281, 282	김상례	307
김동우	299	김상순	297
김동원	207, 291, 300	김석관	70
		김석오	55, 59

김석주	323, 323	김연자	319
김선영	55, 59, 261	김연화	126, 167, 171, 191, 290
김선옥	207, 253, 291, 300		294, 295, 306, 314, 324
김선호	281, 282	김영곤	180, 180, 218
김선후	281, 282	김영군	281, 282
김선희	225	김영미	197
김성자	315	김영숙	293, 294, 329
김성환	104, 287	김영식	191, 293, 298, 337
김세중	29, 92, 94, 223	김영옥	173
김 소피아	112	김영자	115, 295
김 소화데레사	75, 114, 285	김영주	152
김 수산나	286	김영준	282
김수영	218	김영호	185, 218
김수창	32, 112, 115, 127, 130	김영화	143, 151
	132, 276	김옥균	42, 134, 143, 147, 154
김수환	28, 138, 196		184, 216, 308, 311
김숙배	286, 294, 298, 315, 338	김옥자	279
김숙영	112	김 요셉피나	286
김숙자	298	김용관	295
김숙현	204	김용문	282
김순분	167, 173	김용식	220, 250, 251, 323
김순아	300, 305, 306	김용태	169, 337
김순희	329	김용환	279
김승옥	329	김우근	323, 335
김승자	97	김원우	218
김 알비나	306	김원자	207, 291, 297, 298, 299
김 알풍소	103		307
김애자	297	김원중	279
김양희	279	김윤근	60
김 엘리사벳	75, 95, 285	김은경	335
김연옥	307	김은선	319

남연옥	318	마 미카엘	105, 289
남용우	29, 92	마영수	298
남창종	114, 334	명노혁	130
노금자	297	명순옥	302
노기남	42, 66, 70, 81, 92, 166	문병운	319
노길명	231	문성호	282
노 마리아	286	문세윤	296
노문호	293	문영자	301
노병옥	297	문정식	191, 227, 236, 251, 326
노성자	295		327
노용호	115	문중섭	41, 165, 166, 185, 218
노정훈	281, 282	위텔	59
노지훈	282, 282	민기완	297
노춘매	146	민병덕	31, 174, 218
	ㄷ	민순자	206
		민영대	298
		민우정	191, 299
			ㅂ
도재학	197	박경애	182
돈재철	319	박경옥	315
두세	56	박경자	315, 331, 332
	ㄹ	박계순	130
		박규원	61, 65, 68, 70, 77, 78, 80
라리보	60		114, 115, 144, 275, 311, 312
로	57	박규희	299
류성민	282	박기순(멜세스)	182, 225
류음전	207, 291, 296	박기순(베드로)	180, 195, 218
	ㅁ	박기순(토마스)	29
		박기종	191
마리 바랑제	29, 82		

박기지	300, 338	박 율리아나	306
박 까리타스	249	박은숙	315
박남희	278	박은화	329
박덕희	293, 298, 302, 307	박의부	169, 323
박동수	55, 59, 169, 337	박인수	250, 251
박 마리아	99, 105, 283, 285, 289	박일규	60, 63, 64, 66
박 막달레나	95	박재택	114
박문식	254	박정애	331, 332
박문자	225, 254	박정자	298
박 발라바	113	박종길	169, 180, 322
박병윤	142, 143, 147, 151, 152 153, 154, 159, 184, 276 308, 311, 316, 334, 337	박종성	254
박복주	226	박종숙	167, 314
박상만	278	박종순	286
박상윤	281, 282	박지성	319, 319
박선호	294	박찬수	301
박성기	297	박찬혁	281
박숙안	228	박창범	282
박숙자	130	박충원	225
박순옥	298	박해경	138
박애순	301, 306	박해향	96
박 엘리사벳	306	박호자	137
박연향	299	박희선	279
박영식	279	방달호	180, 218, 250, 251, 255 308, 337
박영임	319	방미경	204
박영자	167, 228, 299, 314	방웅자	290, 299
박옥순	300	방종희	297
박용수	231	배은경	303
박용일	150, 152	배정진	310
박웅자	126	배호기	286
		백계영	182

백민숙	299	성낙예	286, 300
백선임	315	성운호	279
백시몬	113	소재영	323
백영권	302	손매순	206, 301, 305, 306, 331
백옥선	301	손 안나	154
백용기	185	손영일	136
백은자	302	손정수	282
백 제랄드	324	송경희	296
백형준	281, 282	송광남	236, 293, 297
베네딕도 14세	77	송광섭	216
봉재종	216	송 베네딕도	113
비에모	60	송 아네스	294
비오 9세	77	송지용	279
		송창원	301
	人	송철호	250
		송춘섭	302
사정숙	152	신 데레사	95
서건석	220, 250	신동주	294
서금석	295, 307	신동호	318
서기창	60	신 마리아	314
서 마티아	95	신명철	220, 298
서민수	318	신미애	318
서상철	318	신영규	318
서성태	218, 250, 301, 323	신인균	71
서양석	204	신인순	315
서주원	281	신임철	286, 300
서창식	204	신태민	96, 103, 104, 121, 144 287, 293, 308, 333
서현자	294	신학연	167, 293, 297, 307, 314
서혜경	197, 318	신현숙	152, 167, 173, 204, 330
성경순	302	심 글라라	105, 289
성나숙	253, 294, 297		

심재국	281, 282	양주리	279
심정자	296	양진숙	319
심창학	130	양현숙	298
		양혜윤	279
		양호숙	137
		양 흥	99, 140
		엄명화	294
		엄복금	301
아가지니안	82, 94	여은미	279, 310
안경태	204	연제선	164, 296, 327
안명자	302	염동화	236, 292, 298, 301
안명진	218	염상훈	281, 282
안묘영	319	염정옥	299
안민선	168, 316, 318	염지훈	281
안상현	281	오규란	299
안선자	252, 301, 307, 307	오기선	60
안성자	303	오 루시아	169, 285, 337
안숙자	286, 294	오 마리안나	95, 112
안승기	300	오병준	293, 299
안영중	169, 337	오세만	254
안의섭	96	오순근	286
안충희	298	오순남	303
안 토마스	113	오 심포로사	95
양길웅	250, 252, 255, 335	오영자	296
양명석	281	오영환	299
양봉례	286, 301	오인순	294
양성덕	173	오태순	248
양순분	300	오호순	338
양 안토니오	95	왕명숙	319, 329
양영희	297	왕세영	78, 95, 112, 113
양재인	250, 251	우순오	332
양점순	303		
양종일	298		

우은순	331, 332	유 카리스타	81
원규하	281, 282	윤경중	64, 77, 96, 144, 145
원동순	299	윤기준	218
원두연	77	윤도현	204
원성철	281, 282	윤복란	300, 307
원영희	302	윤상돈	105, 113, 288, 293
원용대	335	윤석순	300
원종우	180, 186, 191, 207, 218 250, 291, 301	윤성호	318, 319
원하연	195	윤숙현	295
위경숙	295	윤영순	293, 295
위정현	66, 70, 78, 185	윤요셉	95, 113
유경숙	137	윤재한	216, 254
유봉환	310	윤정현	279
유부덕	315	윤정혜	126, 290, 294
유 빅토리노	92	윤종숙	295
유성희	204	윤준혁	323
유수철	66, 67	윤 헬레나	95
유순자	294	윤현자	338
유순현	296	윤형분	207, 291, 299, 300
유순호	300	이강례	255, 293, 298
유 엘리사벳	306	이강섭	64
유영도	42, 125, 126, 130 131, 134, 154, 336	이경자	300
유영희	204	이경재	30, 33, 35, 41, 69, 75, 77 78, 80, 94, 95, 97, 109 111, 118, 276, 288
유원봉	231	이경주	249
유월로	294	이계광	64
유은주	294	이계선	67
유 켈마	286	이광우	250, 251
유종남	191, 323	이근찬	185
유 진	191, 323	이근창	295

이 글라라	75	이복성	299
이금상	302	이봉학	301
이금수	191	이삼종	299, 302
이기만	318	이상래	61, 64, 115
이기복	297	이상룡	312
이기혁	318, 319	이상민	237, 292
이기현	310	이상범	318
이길수	279	이상용	166, 180, 186, 191
이길웅	231, 249	이상중	99
이남희	315	이상학	318
이 누갈다	285	이상헌	218
이동균	282	이상호(다니엘)	295
이동헌	204	이상호(베드로)	282
이동희	302, 307	이성호	115
이 마르타	286	이송자	152, 173
이 마리아	95, 286	이수연	279
이 말가리다	169, 337	이수정	279
이명규	147	이숙이	298
이명노	323, 337	이숙자	302, 338
이명용	62, 63, 64, 66	이순석	29, 92
이명주	197	이순애	207, 291, 295
이 모니카	95	이순자	184, 225, 301
이몽주	323	이순재	113, 115
이무영	295, 337	이순호	297
이무정	293	이승규	301
이미경	278	이승균	40, 180, 251
이미숙	315, 332	이승숙	299
이민상	151	이승은	278, 279
이 바오로	115	이 아나타시아	103
이법선	281	이 아녜스	286
이병갑	204	이 아우구스티노	95, 113

이양순	137, 152	이재호	319, 335
이 엘리사벳	75	이정무	322
이영기	318, 319, 335	이정선	301
이영미	204	이정섭	279
이영임	295	이정아	279
이영자	295, 331, 332	이정열	191, 251
이영화	236	이정우	319
이영희	207, 291, 295, 297, 300	이정자	302
이옥녀	293, 311, 324	이정필	251, 301
이 요안나	103	이정화	197
이용식	301	이종례	295
이용욱	180, 186, 191, 251, 262	이종무	169
이용진	138	이종순	286
이용화	154, 180, 186, 325, 326	이종실	207, 291, 301
	334	이종인	318
이우영	113	이종철	249
이원세	281, 282	이종환	42, 177, 184, 215, 277
이유정	279		328, 337
이윤남	300	이종호	151
이윤정	294	이종후	77
이은미	310	이지윤	279
이은숙	302	이진영	191, 323, 326
이은주	319	이춘희	297
이은형	254	이태호	250, 261
이의경	61, 63, 64, 67	이해남	105, 288
이인순	299	이현석	279
이장형	180, 218, 250, 293, 299	이현숙	327
이재돈	249	이현실	295
이재복	311, 323	이현애	310
이재정	254	이현익	294
이재찬	279	이현자	300

이헌재	298		
이형선	297, 323, 323, 323		
이형식	299		
이혜금	204		
이혜영	318		
이흥근	226		
이화순	315		
이효언	218, 254		
이효자	173, 182		
이희순	301		
이희옥	286		
이희태	29, 71		
인 데레사	75		
인 베드로	293		
임금자	249		
임도희	318, 319, 335		
임 막달레나	95		
임명엽	300		
임범수	278		
임병근	282		
임병률	278		
임승철	218		
임영배	299, 302		
임옥선	286		
임용자	302		
임우식	186, 191, 207, 218, 291 292, 293, 295, 297, 298, 301		
임종국	59		
임종철	64, 69		
임태경	127, 136		
		ㅈ	
		장건성	186
		장근실	67
		장금구	60
		장금선	218, 254
		장대익	110
		장대훈	105, 165, 178, 180, 180 185, 288, 290, 293, 299
		장덕필	136
		장 루가	95
		장 면	78
		장명희	225, 254, 331
		장 바오로	299
		장 발	29, 70, 71, 80
		장선홍	110
		장순옥	298
		장안희	297
		장우성	29, 92
		장인순	164, 180, 191, 206, 293 293, 294, 297, 298, 302 305, 306, 311, 338
		장지배	114, 137, 336
		장태석	281, 282
		전강현	319
		전경림	293, 297
		전경용	302
		전 마리시오	103
		전배경	173, 182
		전영숙	299
		전 요셉	104, 288

전진현	298, 299	정한수	249
정경숙	180, 295, 306, 315	조 광	249
정관택	250, 297	조규동	165, 171, 185, 207, 290 291, 295, 325
정광웅	38, 42, 215, 243, 325, 328	조득분	293
정군순	301, 307, 307	조 리카르도	105, 289
정규호	204	조명홍	63, 64
정남석	293	조미희	279
정두기	323	조백현	130
정마리아	286, 286	조 벨라뎃다	286
정말가리다	294	조상금	307
정면순	302	조상현	319
정미숙	315	조선미	295
정미애	294	조성애	295, 302, 307
정민영	282	조성희	61, 63, 66, 67, 68, 69, 70 77, 96, 115, 121
정 비비안나	330	조송자	250
정설애	300	조숙현	318
정 세시리아	95	조 아가다	92
정수자	299, 307	조영숙	254
정승관	319	조영애	251, 252
정승섭	295, 329	조영태	95, 112
정신자	253, 293, 302, 314, 335 338	조영희	297
정안순	252, 335, 338	조용숙	207, 286, 291, 297, 307
정영택	282	조용주	99
정예환	255, 293, 295, 302	조은영	293, 302, 306, 330
정옥실	297	조인영	206, 294
정옥택	173, 184	조인환	42, 109, 111, 112, 113, 118, 125, 130, 276, 336
정원진	60	조전귀	114
정은복	302	조전규	334
정일택	281, 282		
정진웅	318, 318		

조중환	191, 207, 311	최광린	294
조진숙	300	최금자	295
조차순	146	최길례	296
조태임	301	최 마리아	286, 286, 314
조현관	293, 299, 302	최명선	300
조희순	315, 327	최명화	254
조희정	237, 292	최미숙	225
주 데레사	306	최미희	315
주상배	34, 99, 127	최민자	294, 307
주영준	299	최병광	184
주영창	113, 293	최병재	310
주창원	169, 184, 322	최봉자	221
주 칸디다	109, 112	최 살노메	99, 285
즈베버	79	최석우	69, 70
지동호	326	최성례	294
지재선	298	최성용	279
지춘주	318	최성윤	294
진경님	338	최성일	186, 191
진경림	296	최송자	173
진 마리아	95	최송영	204, 294
진중하	186, 191, 218, 312	최승녕	318
	ㅈ	최승원	319
		최옥숙	225
		최은미	310
차영길	295, 298	최은서	282
차재인	279	최은주	204
차현민	237, 292, 294	최응환	64
차현실	319	최익철	26, 40, 42, 243, 255, 320
채명옥	302		334, 337
채수억	299	최인숙	302
천경현	191	최재교	220, 251

최정원	329		286, 291, 292, 293, 295
최준웅	150, 152, 216		298, 299, 300, 301, 306
최중인	331		324, 325, 330, 338
최창섭	249		한상재 150
최춘자	299		한상준 113, 126, 137
		ㅋ	한상희 323
			한선희 279
			한순희 295
카이모	311		한영용 279
캄톤	69, 70		한웅길 69, 70, 77
케빈오도넬	311		한윤애 329
		ㄷ	한재선 297
			한준석 186, 191, 195, 308
			한철수 144, 154, 180, 261, 306
탁한관	96, 105, 289, 299		307, 311, 331, 332, 334
태원석	180		한혜택 307
		ㅌ	함금순 307
			함용운 180
			허영자 297
편재희	294		허은희 315
플레밍	139		헨리 헤롤드 104, 287
		ㅎ	홍경엽 299
			홍경훈 301
			홍 데레사 95
하종수	323		홍 막달레나 95
한경애	319		홍범숙 294
한계수	296		홍 베드로 103, 333
한 데레사	99, 99		홍병준 140, 171, 290, 293, 299
한문숙	307, 331, 332		홍석오 323
한민숙	295		홍선화 294
한복순	78, 171, 207, 220, 261		홍성숙 204

홍성애	302	홍혜영	182
홍 숙	112, 113, 114, 137 184, 185, 334	황맹도	295
홍순규	77, 121, 185	황명순	298
홍순탁	131, 132	황설자	295, 299, 307
홍영숙	302	황신자	295, 298, 300
홍영자	300	황영하	180
홍요셉	113	황원재	206
홍익진	225	황윤재	204
홍인식	31	황충하	204, 299
홍재현	318	황혜영	318
홍현숙	307	황혜정	319

2. 단 체

	ㄱ	동정성모 Pr.	302
		ㄴ	
가톨릭 노동여자청년회(J.O.C.F)	115	레지오 마리아	26,27,30,35,104,126,140
가톨릭 노동청년회(J.O.C)	114,121,126,143		146, 153,154,163,191,206
겸손하신 모후 Pr.	207,300		208,211,226,236,247,260,287
고등학교 학생회(샘터 미화반)	104	로스리오의 모후 Pr.	255,297
교사회	163,172,221,236,260,277		ㄷ
구세주의 모친 Pr.	126,290,293	명성회	211,236,244
구약성서 연구반	167	명수대 합창단	103,333
구역분과회	164,176,182,208,218,251,252	명수회(2·7회)	103
군중후원회	207		ㅁ
그리스도의 모친 Pr.	237,292	바다의 별 Pr.	302
글로리아 합창단	31,114,126,127,128,129, 140,153,154,156,206,221,236,238,334	반장단	95,112,179,226,253
기쁨의 샘 Pr.	255,302	복사단	120,179,226,237,238,280,281
까리타스 클럽	104	복자회	167,168,190,191,206,208,211,226 260,262,313
	ㄴ	부인 전교반	68,275
남자 중학생회	104	부인회	64
노들회	141	비올라회	104
능하신 정녀 Pr.	207,300		ㅎ
	ㄷ	사랑의 모후 Pr.	171, 290
다윗의 정후 Pr.	105,289	사랑의 샘 Pr.	205,290,293
대건회	255,260,320,322	사랑의 클럽	114,115,126
대포회	163,167,169,191,206,211,226,236 255,321		
테레사회	114,126,140,154,190,191,194,206 211,305,336,337		

사랑하오신 모친 Pr.	104,288	어머니 성서그룹	167,330
상아보탑 Pr.	140,171,205,290,299	어버이 성가대	236,255,260,333
상지의 좌 Cu.	105,126,288,290,297	어버이 성서모임	260,330
새로나 성가대	154,155,167,171	연령회(위령회)	114,126,140,153,162,167
	206,269,334		169,255
셋별 Pr.	301	영광의 모후 Pr.	207,293
서울 무염시대 Co.	105,288	영원하신 모후 Pr.	297
성령기도회	167,171,208,211,226,228,236	영원한 도움 Pr.	171,237,290,292,298
	238,256,260,324	예비자 교리반	65,130
성모회	99,102,114,126,140,154,171	오묘한 매괴 Pr.	104,105,109,288,289,299
	208,226,228,236,238,260,283	울드레아	144,311
성소후원회	207	원죄 없으신 모후 Pr.	207,294
성실하신 모후 Pr.	207,294	유치원	127,134,135,137,146,173,190
성실하신 정녀 Pr.	105,288,289	은총의 모후 Pr.	207,293
성심의 샘 Pr.	207,293	은총의 샘 Pr.	207,301
성심 전교회	168	의덕의 거울 Pr.	126,257,290,299
성심회	167	인내의 샘 Pr.	126,290,293
셀(Cell)	156,171,236	인자하신 모후 Pr.	207,301
소화부녀회(현 데레사회)	145,154,167,171	인자하신 정녀 Pr.	105,126,289
	191,206,208,211,221,226	일치의 모후 Pr.	207,293
	228,236,260,269,304,305		
순교자의 모후 Pr.	298	ㅈ	
스카우트	141,154,156,171,172	자모회	221
	206,236,256,260,308	자비의 모친 Pr.	105,109,126,289
신비로운 장미 Pr.	302	자비의 모후 Cu.	237,255,257,259,288
십자 부녀단	140,153,305		292,298
O		자애로운 모후 Pr.	297
		장미회	167,169,206,208,211,305
애덕 도서회	103	종도의 모후 Pr.	105,109,126,289
애덕의 모후 Pr.	302	죄인의 의탁 Pr.	255,302

주일학교	65,68,130,154,162,172,197,208 211,226,227,260,275		
증거자의 모후 Pr.	207,301	평신도 협의회	95,112,144,164,165,178 180,181,211,248,250,251
지혜로운 정녀 Pr.	207,300	평화의 모후 Cu.	109,140,206,208,236,255 258,287,288,290,293
ㅌ		평화의 모후 Pr.	104,106,109,113 126,287,293
착한 의견의 모친 Pr.	207,300		
천사의 모후 Pr.	171,237,290,292	ㅎ	
천상의 모후 Pr.	207,300	하늘의 모후 소년 Cu.	105,107,108,109 140,289,290
천신의 모후 소년 Cu.	113,153,290	하늘의 문 Pr.	297
천주성총 Co.	292	하늘의 문 소년 Cu.	237,255
천주의 모친 Pr.	302	하자 없으신 모친 Pr.	207,293
천주의 성모 Pr.	105,109,126,289	학생 레지오	107
천주의 성모 Pr.	289	학생회	103,104
천지의 모후 Cu.	105,288	한국 교회사 연구회	26
청년 기도모임	329	한마음 성가단	333,334
청년 성가대(도미네 청년 성가대)	154,163,168,169,205,211 220,236,238,255,260,316,334	향지 학교	162,197,204,205,236,260
청년 성서모임	230,260,328	회장단	95,112,135,144,145
청년회	113,155,167,168,171,172,191,205 208,211,226,248,334	흑석2동 데레사 친목회	305
청소년 연합 성가단	103,333	흰나리 클럽	102,103,114,126,140 269,284,304
청우회(청지회)	141,142,145,154,155,172		
치명자의 모후 Pr.	105,109,126,289		

3. 기 타

가	교리 경시대회 35,97,100, 118,119,276	농배마을 55,56,59
가칠목(하가차신리) 50	교리특강 232,249	능고개 65
가톨릭 구제회(N.C.W.C) 102,284	교리학교 봉사활동 및 노력봉사 172,197,276	능마을 56
가톨릭 대학 177	교사합동 하기연수회 172	ㄷ
가회동 본당 243	구림농원 277	당고개 227
강남 성모병원 317	구역별 미사 253	당재마을 55, 56, 57
강남 지역 56	구역별 회합 164	대동우물 110
검은돌(주보) 96,112,119, 142,155,156,163,166, 172,215	국립묘지 25,55,56,57,69	대림동 본당 254
검은돌 마을 49	글로리아 지 127,128	대방동 본당 60,113,130, 131,132
검은 시장 54	까리따스 수녀원 208,314	대화의 방 306,328
견진성사 116,149, 185,203,241,266,272	꾸르실료 144	도림동 본당 60,61,65,67, 68,69,77,105,113, 275,288,289
경로 수련회 247	나눔의 현금운동 234	도미네 지 168,316,334
경로잔치 234,235,244, 246,247	나루터 마을 49	동양중학교 50
경성부 영등포 출장소 54	나바위 성당 285	동작나루터 55
경향 잡지 80,90,92	나자렛 교육관 172	동작대교 56
고려 방직회사 75	낙양중학교 66	동작동 55,63,64,68,69,137
근지암 322	낙태 반대 서명 246	동작리(동재리) 49,52,54, 55,56,57,58,59,60,63,68
골롬바노회 139	남성 구역장제 251	동작진 50,56
골배마실 227	노들마을 56,57,58	동재기 54,55,56,57,59,60, 61,63,69
공소강당 신축 기성회 63, 64,65,66	노량진(노들) 27,35,50,55, 59,77,112,113,130, 131,137,138,147	ㄹ
공작봉 56	노량진동 130,134,137 138,139	ㅁ
관악구 54	노량진리 52,54	마리스타 수도회 322
관악산 78	노량진 본당 146,290,329	마시야 선교회 325
광나루 유원지 78		

만국 성체 대회	97	목포 산정동 본당	103,104	봉산 유원지	52
만남의 제전	162		285,287	봉천동 본당	105,134,153
말씀의 방	144,145,146	몽산포	276,277		288,289,290
매봉재	50,52	무료 급식소	102,284	불광동 본당	254
면목동 본당	215	무지개동산	246,247,248	불우이웃 돕기 운동	154
명동 문화관	334,335	묵동 본당	216		171,172,236,240,246
명동 본당(종현본당)	60,	미국 가톨릭 복지협의회		비개마을	50,68,69
	69,152,216,227	(N,W,C)	130		
명동 성모병원	69	미군 물자 원조처(A.F.A.K)		人	
명수대			69,81		
-명수대	37,52,54,75,	미리내 성지	227,322,331	사당동	13,27,35,55,77,105,
	102,143,244,287,290	미아동 본당	127,152,177		121,137,138,139,143,288,289
-본당 40년사	25,27,261	미 제52 의료부대	69	사순절, 대림절 특별강론	
-본당 울뜨레아	311	민족 복음화 대회	171,290		231
-성당(본당)	35,36,50			사순절 저금통 마련 운동	
	55,63,70,75,77,81,82	ㅂ			234
	92,103,104,105,109			사육신묘	50
	110,113,118,125,127	반 모임의 날	253	산정호수	247,284
	130,137,139,147,150	반장단 야외 행사	253	살레시오 회관	208,226,322
	151,153,159,162,164	반장단 전체 피정	226	삼각지 본당	62,64
	171,176,177,196,215	반포동	27,35,105,137,150	상가차산리	50
	243,246,263,288,290	반포본당	150,151,159,288,289	상도동	
	311,325,326	반포 유치원	150	-상도동	27,31,35,49,50
-성당 봉헌식	196	복자 유해를 모신			63,64,68,77,105,112,113
-성당 신축	177,178	9일 기도회	211		121,126,130,131,134,153
-성당 신축위원회	77,80	복흥촌	50	-본당(성당)	132,137
-성당 축성	270	본당설립 20주년 기도문	146		147,288,289,290
-성전 건립 추진위원회		본당 어머니 피정	226	상지목	55,56
	186	본당 연혁사	96	새말	50
명창굴	49,63	본동	54,63,64,68,77,113	새바람 운동	143
모세의 한평생	244	본동리	49,52	서달산	51,52

서울 레지오 25주년	171,290	-양지	105,288	여름 신앙학교	172,237,271
서플리(서초리)	59	-연풍성지	284	여의도 광장	208,211
성가정 피정	226	-연풍 줄무덤	284	여주 파티마 성모회	322
성당 부지 확보 계획	263	-이천성지	285	연례 피정	172
성 라자로원	69	-천진암	227,322,329	연벽정(용산신학교 별장)	
성 마리아 의원	109	-천호성지	285,322		57,59
성모 동굴	159,165,166,176	성체 거동	120	연총 친목회	290
	196	성체대회	35,97,234,243,276	영등포 본당	56,59,60,61,62,
성모 신심 세미나	226	성체성월	249		63,64,105
성모의 밤	222,223,248,249	세계 성체대회	314	영보 수녀원	208
성모회관	145	소공동체 활동	143,162,164	영세	65,97,98,115,117,133,
성 바오로 여자 수도회	109		167,174,176,243,		139,148,183,240,241
성상 건립 봉헌 운동	221		244,253,264,284,290	영원한 도움의 성모 병원	
성소자	99,127,149,153,174,	소사	105,288		110
	218,254,268	소신학교(성신중고등학교)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성요셉의 집	236		69,125,127,132		81,99,109,112,127,
성의 중고등학교	104,287	솔밭마을	50		137,173,184,228,331
성전 건립비 기도문	187	숙명여대 가톨릭 연구회		예비자 성지순례	227,228
성전 건립기금 마련 음식			103	예수 성심 사랑의 전교회	
바자회	192,194,195	송전대학교	162		168
성전 건립기념 제1회 본당			0	예수 성심의 밤	248
체육대회	216,217,232,235			옥외행사	290
	271,322	아치에스	105,113,171,237,	용봉정	50
성전 건립 추진위원회	190		268,288,290	용산	50,57
성전 신축기금 마련 연주회		안말	50	용산 성직자 묘지	227
	185,205,317	안양 수리산 성지	284	용산 신학교	57
성지		압고지 본당	62	웅인 압고지	66
-남양성지	285	약현본당	56,59,60,62,64	우리 농산물 직거래 운동	
-배론성지	322	양재동 본당	55,150		261
-새남터	227	양재리	59	우양의 집	261,262
-솔뫼	208,227,232			우이동 명상의 집	208,226,

285,314,322	중대 부속고등학교	232	피정	
윗말	50	중림동 본당	56,125,143	-본당 장년 피정 226
은로국민학교	65	중앙대 가톨릭 연구회	103	-본당 전 신자 피정 226
이수천	55,56	중앙대학교(중앙보육원)	50,52,54	-사순절 부부 피정 226
이항 신자 사목부	264	중림동	56	-사순절 성령쇄신 피정 226
인천 세미나드 피정의 집	226			-성모 신심 피정 113
		ㄸ		
		천마산 수련장	310	
적산	41,49,65,66	첫 영성체	98,117,133,149,	하계 캠프 172,244,277
전단체 연합 하기 수양회	162,276		193,272	하우고개 55,57
전 신자 대상 성지순례	227,230	청산	172	한가족 만찬 234
전 신자 야외미사	233,322	청풍 유적지	285	한강 25,50,52,60,62,78,105
젊음의 광장시간	205	총 구역장	251	한국교회사 자료 전시회
정릉	110,331	친교캠프(코이노니아)	246,248	231
제1회 성가 경연대회	232,234	ㅋ		한국순교자 순회기도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77,178	크리스찬 생활의 화해와		209,211,270,322
조국의 평화와 교회쇄신을		쇄신을 위한 연수회	161	한국 천주교회 103
위한 기도회	163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ㄹ		기념 및 103위 성인 시성식
기념 제9지구 신앙대회	162,208,321	판교 피정의 집	331	211,243,322
종로본당	134,171,325	평신도 사도직	177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주교사	50	평화방송	246	행사를 위한 9일 기도회
중국 교회	325	평화신문	247	211
중국 목단강 공소	326	풍수원 본당(성당)	197,285	한마음 수련장(의정부)
			322	232,309,322
				한마음 한몸 운동
				234,314
				한 목소리 내기 운동
				244,246

한영방직	70	-2등	68,113,195,251	기타
현미, 현금 및 현철 운동			253,305	
	234,246	-3등	68,113,251,253	1991년 교구 사목교서 244
혜화동 본당	105,140,147,	-공소	63,64,65,66,67,68,	2000년대 복음화 264
	152,254,288		69,70,75,130,262,275	200주년 및 성년 마감
후암동 본당	105,127,225,	-본당	66	7월 기도 211
	289	-성당 건립 시성회	66	20주년 기념 기도문
흑석동			68,77	145,146,248,306,313
-흑석동	244			8주간 성체 신심 세미나 249
-1등	49,68,113,253			M.B.W 운동 144,160,172